

# 畿甸考古

제 3 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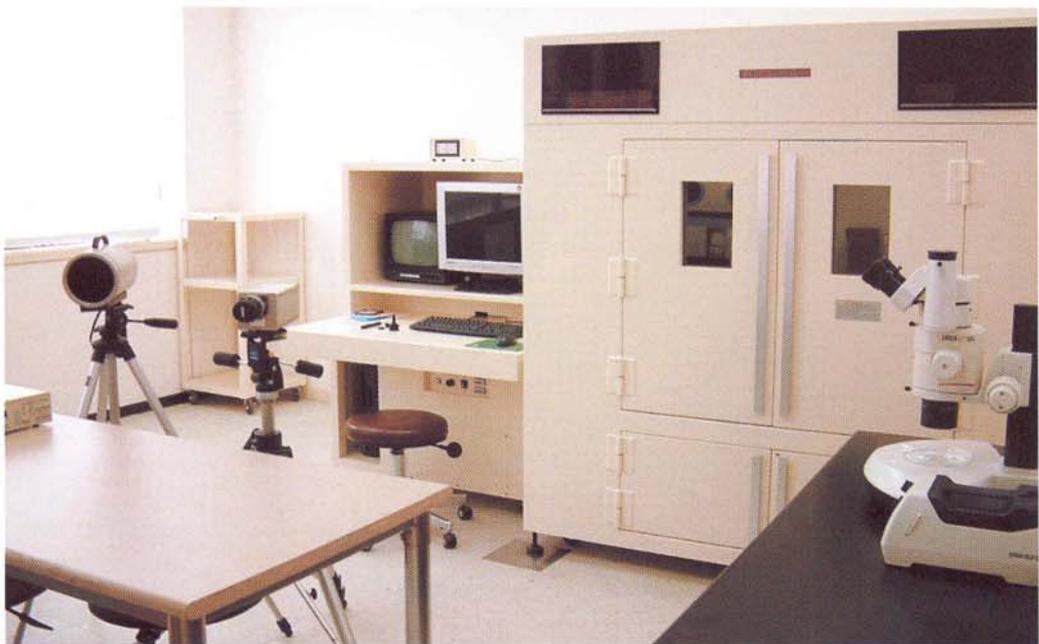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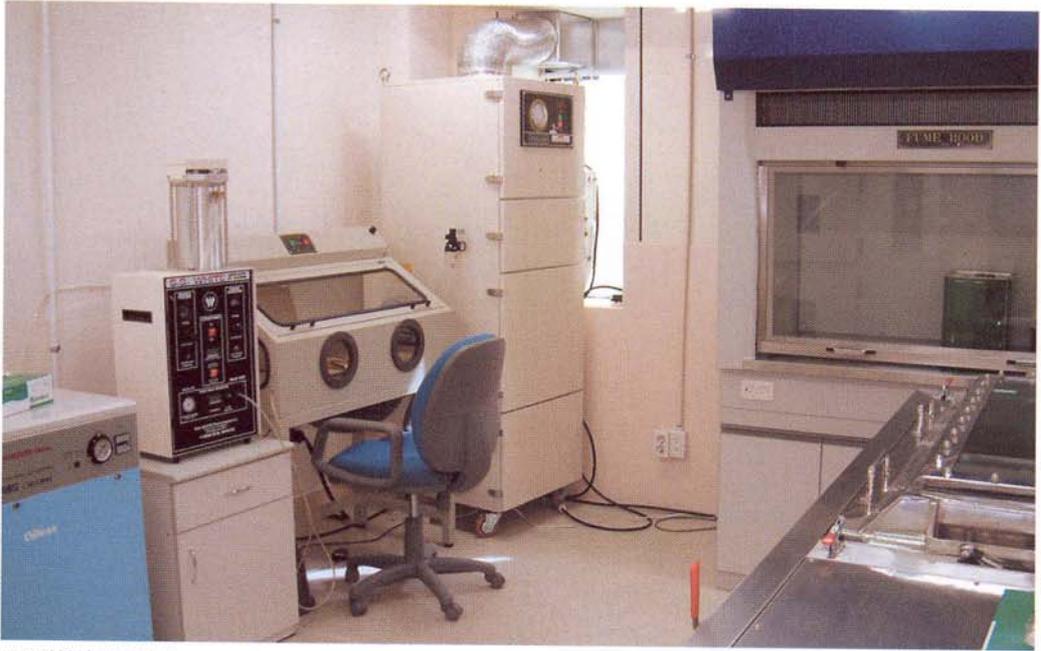
1.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연보로서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경기지역의 문화재 조사실적, 연구노트, 수필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자의 수록 내용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연도를 표시하였습니다.
3. 제3호 연구노트의 주제는 '고고자료의 과학적 분석과 활용'입니다.
4. 경기지역의 주요 유적조사 활동 부분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배포한 현장설명회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일부는 편집 사정상 침삭하였습니다.
5. 조사기관별로 유구나 유물에 대한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으나 각 기관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6. 이 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6 기전문화재연구원
  - 연 락 처 : 전화 031-258-5105 교)414 / 팩스 031-258-7116, 5106
  - 담 당 : 김성태, 허미형
  - 전자우편 : mhh386@ggcf.or.kr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경



보존과학실내 분석실



보존과학실 클리닝룸



수원 이목동유적 현장설명회



양주 회암사지 조사지역 전경(남쪽에서)



회암사지 2·3단지 출토 특수와편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II지점 전경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IV지점 전경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V지점 전경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壺形土器 口緣部類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甕形土器



평택 현곡지구 2-1호 주거지 출토 석기류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1·2號 溝 全景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21號 住居址 全景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29號 掘立柱建物址 全景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42·71號 竪穴 출토 中島式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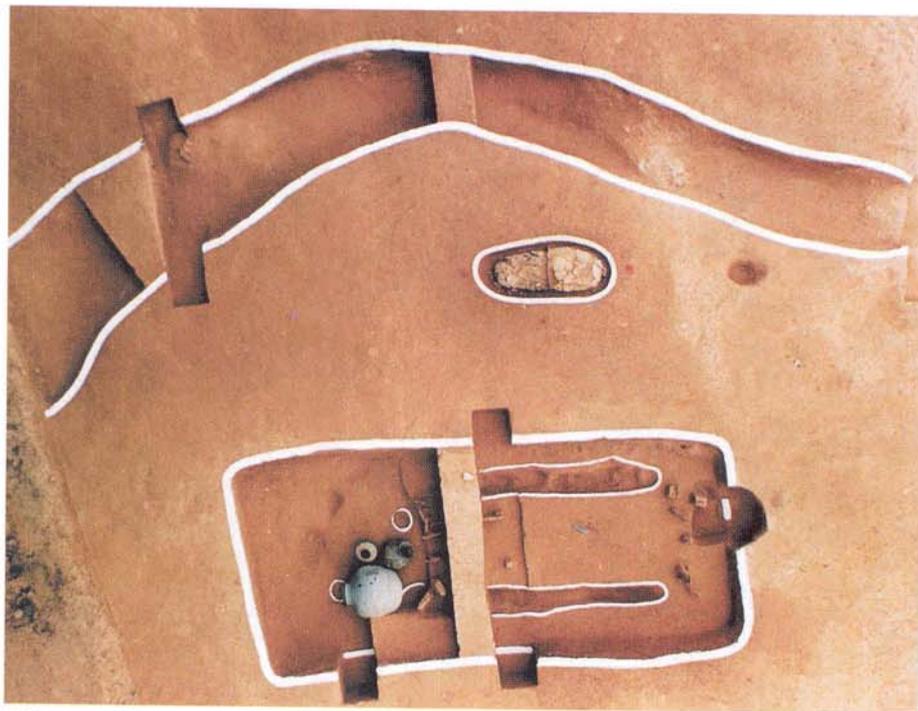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1號 住居址 출토 시루와 圓底短頸壺 結合狀態



화성 동학산 유적 B 지구 출토 옹범



화성 동학산 유적 B·C지구 수습 석기



용인 EMS 신축부지내 주구목곽묘 전경



용인 EMS 신축부지내 주구목곽묘 출토 토기류



용인 EMS 신축부지내 주구목곽묘 출토 환두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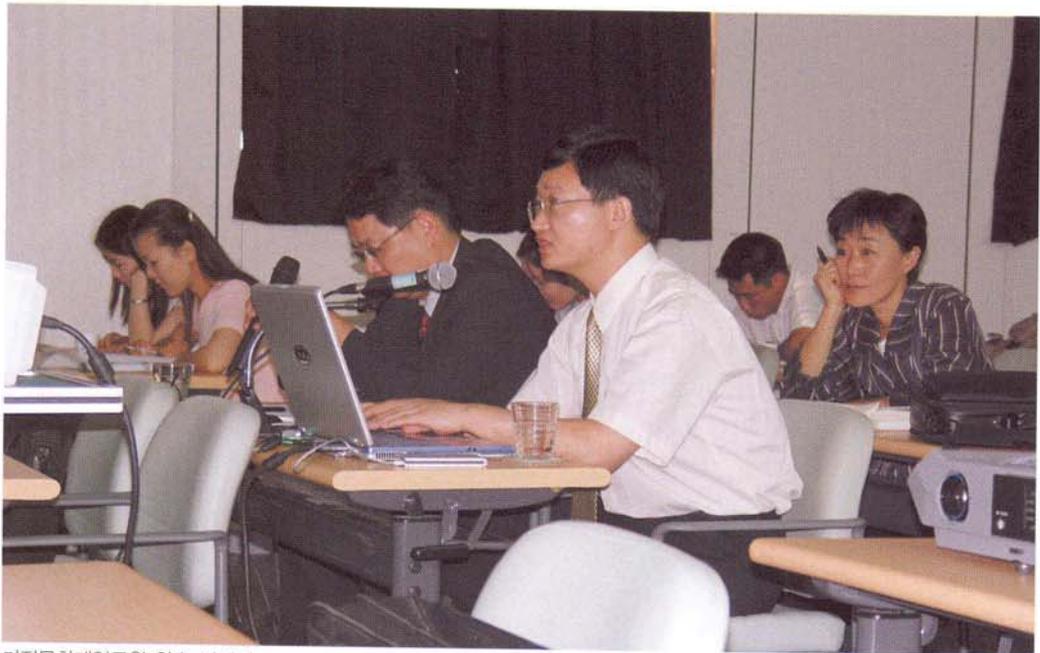
2003 문화재 관계자 연수(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 춘사관 : 기전문화대학 공동주관)



제2회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종합토론



2003 경기문화재단 창립기념 체육대회(수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기전문화재단연구원 학술 강연회



분원리 도요지 종합정비계획 자문회의



석질감정 특강



회암사지 발굴조사 기념 학술 강연회(경기도박물관 공동주관)



한성백제 총서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

# 차 레

## 일러두기

## 화보

### I. 2003년 기문원 활동

1. 일반 현황	21
2. 유적 조사 활동	24
3. 주요 유적 조사 개요	27
4. 간행물	118
5. 문화재 사업	121

### II. 2003년 경기지역 고고학계 소식

1. 유적 조사 활동	127
2. 주요 유적 현장설명회	131
3. 각종 소식	193
4. 간행물	218

### III. 연구노트

1. 고고학에서 이용 가능한 考古地磁氣 분석법	성형미	223
2.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土器分析에 관한 일 고찰	조대연	239
3. 人骨의 分析과 고고학에서의 應用	김재현	249
4. 화성 발안리 출토 鐵斧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	김웅신	261

〈특별기고〉 倭의 五王과 朝鮮	田中俊明 著 · 하정용 譯	269
------------------	----------------	-----

### IV. 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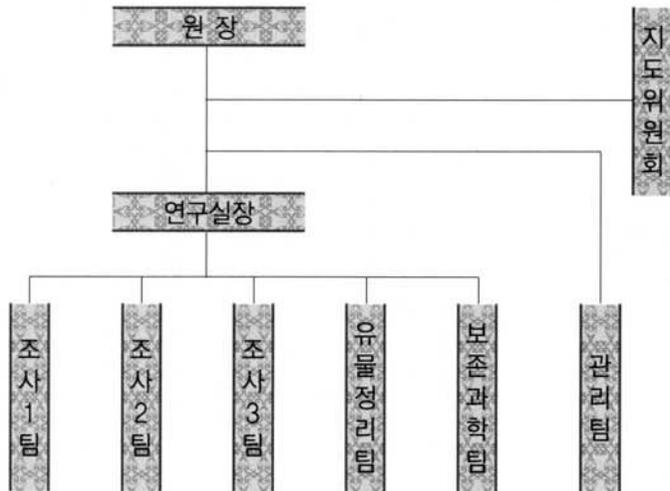
1. 고고학과 나	지건길	291
2. 해외 유적답사를 다녀와서	고재용	301

# I. 2003년 기문원 활동

1. 일반현황
2. 유적 조사 활동
3. 주요 유적 조사 개요
4. 간행물
5. 문화재 사업

# 1. 일반현황

## 1) 기구표



## 2) 정원 및 현원(총 44명 : 연구직 38명, 관리팀 6명)

(2004년 6월 기준)

직 제 별	연구 직	행 정 직
합 계(44)	38	6
원 장	전문위원가급 1(1)	
연구실장	전문위원나급 1(1)	
조사 1팀	전문위원다급 1(0) 연구원(13)	
조사 2팀	전문위원다급 1(1) 연구원(7)	
조사 3팀	전문위원다급 1(0) 연구원(11)	
유물정리팀	연구원(3)	
보존과학팀	연구원(1)	
관 리 팀		행정직 3급1(1) / 행정직 5급1(1) 행정직 6급1(1) / 위촉직(3)

### 3) 시설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2-6 및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사옥

○ 총면적 : 308평

구분	용도	면적(평)	비고
시설물 현황	계	308	
	원장실	15	농협건물임차
	회의실	18.5	"
	연구실장실	7	"
	조사 1 팀	25	"
	조사 2 팀	26	"
	조사 3 팀	25	"
	유물정리팀	26	"
	보존과학실	54	재단사옥 2층
	관리팀	13.6	농협건물임차
	자료실	26	"
	유물수장고(2동)	40	"
	접견실	10.2	"
창고	21	"	

※ 복도 등 공용면적 제외

### 4)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직 운영규정 개정

- 기존의 비정규직 조사원을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구원에게 동일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연구원으로 호칭을 일원화 함
- 경기문화재단의 성과지향적 경영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계기로 기문원의 연구직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별도의 채용과 연봉기준을 운용함

### 5) 보존과학실 본격 운영

- 매장문화재 전문 보존처리실로 운영하되 점차 대상유물을 확대해 나감
- 기문원 전체 지도위원회와는 별도로 보존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필요시 적절한 자문을 받음
- 연구실 산하에 보존처리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보존처리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함
- 인원 : 팀장 1인, 위촉연구원 1인, 기타 2인
  - 초기에는 연구원 1인으로 운영하다가, 수요에 따라 점차 인력 확보 예정
  - 복식류와 목재류 등의 유물은 분야별 위촉연구원으로 운영함

보존과학실 시설 현황

면 적 (평)	시 설 내 용
총 54평 분석실 : 8평 Cleaning Room : 6평 유물보관실 : 10평 중앙처리실 : 30평	1. 도난방지시스템 2. 개별 냉·난방장치 3. 향온·향습 보관시설

기자재보유 현황

	품	명
분 석	1. X-ray투과촬영기 3. 자동정밀연마기 5. 현미경일체 7. X-ray형광분석기	2. 자동정밀절단기 4. 염도,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6. 적외선카메라 8. 색차계
보 존	1. 이동식제습장치 3. 집진장치 5. 작업상자 7. 사진촬영장비 9. 마이크로전자피펫 11. 필름판독기 12. 초음파Vibro tool, Hand Grinder 13. 열풍순환건조기 15. 향온수조 17. 필름스케너 19. 실측장비 21. 진공비닐압착기 23. 마이크로루페	2. 카메라 4. 유물보관냉장고 6. 흡후드 8. 초음파세척기 10. 데시게이터 14. 진공함침기 16. 이온수 제조기 18. 빔프로젝트 20. 정밀분사사공기 22. 저울일체
기 타	1. 전산장비일체 3. 소프트웨어 5. 선반보관장 7. 화학약품일체 9. 보존처리관련소모품	2. 디지털복합기 4. 작업용실험대 6. 약품보관장 8. 유물보관상자



탈염 및 시료 전처리공간



보존과학실 중앙 실험테이블

## 2. 유적 조사 활동

### 1) 지표조사

연번	건명(조사유형)	위치 및 면적(㎡)	조사기간	조사동기	조사의뢰기관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유적, 유물		보고서
1	신영통 현대타운 2,3단지 건설공사문화재지표조사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40(212,665)	1.20~ 2.3	의뢰	고려산업개발 (주)	토기, 자기편	산포지 2개소	보고서 제출 →시굴
2	용인 서천 택지개발예정 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1,330,000)	2.5~ 3.16	의뢰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토기,자기 기와편	산포지 2개소	보고서 제출 →시굴
3	안성 용월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안성시 삼죽면 용원리 산66-2(60,000)	3.11~ 3.20	의뢰	재원공영(주)	없음		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4	오산 양산동 신축아파트 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오산시 양산동 505-1 (489,821)	3.14~ 5.2	의뢰	늘푸른주택(주)	기와, 자기편	산포지 3개소	보고서 제출 →시굴
5	오산 가장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오산시 가장동 46-1 (451,020)	3.19~ 4.18	의뢰	오산시청	토기편	산포지 1개소	보고서 제출 →시굴
6	시흥 능곡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984,569)	4.7~ 6.25	의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토기,자기 기와편	산포지 8개소	보고서 제출 →시굴
7	파주 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월룡면 덕은리(1,650,000)	4.7~ 8.3	의뢰	경기지방공사	토기,자기 기와편	산포지 7개소	보고서 제출 →시굴
8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학교부지문화재지표조사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102(160,870)	4.15~ 4.25	의뢰	청심학원	없음		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9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공장부지문화재지표조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80-2(59,672)	5.16~ 5.22	의뢰	(주)우림	없음		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10	오리~죽전간 복선전철건설 공사문화재 지표조사	용인시 수지읍 죽전4리 (17,165)	7.1 ~ 7.30	의뢰	(주)청석 엔지니어링	무문토기	산포지	보고서 제출 →시굴
11	양평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60,337)	7.11~ 10.11	의뢰	(주)삼안 건설공사	무문 토기편	산포지	보고서 제출 →시굴
12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광주시 광주읍 경안리 (89,000)	7.14~ 7.31	의뢰	디오스 환경 디자인사무소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13	지산리조트 스키장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28-7(391,281)	8.12~ 9.20	의뢰	지산리조트(주)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14	용인 외국어고 설립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288(52,000)	8.19~ 8.30	의뢰	외국어대학교	없음		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15	용인 구갈 수원C.C 사업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185-4(149,170)	8.18~ 9.16	의뢰	(주)삼흥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16	남한산성 케이블공사 구간 문화재 입회조사	광주시 중부면 상산리 산1(120m)	8.21~ 9.5	의뢰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17	시화지구개발 북측연결 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흥시 거모동, 정왕동 (528,000)	9.22~ 11.24	의뢰	한국수자원공사 안덕건설단	토기, 자기, 기와	축대, 유물	보고서 제출 →시굴
18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화성시 태안읍 배양리 ~안녕리(5.0km)	10.1~ 10.30	의뢰	만영엔지니어링	타제석기, 토기편	산포지	보고서 제출 →시굴
19	김포 양곡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990,000)	10.4~	의뢰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사중의뢰기관사정으로 지체 (2004. 5월 현재 진행중)		
20	김포 마송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가월리,도사리(857,000)	10.4~	의뢰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사중의뢰기관사정으로 지체 (2004. 5월 현재 진행중)		

연번	건명(조사유형)	위치 및 면적(㎡)	조사기간	조사동기	조사의뢰기관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유적, 유물	보고서
21	여주 번도~초현간 도로 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여주시 능서면 내양리 345-385(523,152)	10.10~11.28	의뢰	광우건설(주)	조사중의뢰기관사정으로 지체 (5.31 보고서 제출)	
22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782,763)	10.27~11.26	의뢰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23	수원 서둔동 센트라우스 아파트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1.6~11.12	의뢰	(주)퍼시픽랜드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24	광주삼리 체육시설 건립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광주시 실촌면 삼리	11.24~12.23	의뢰	광주시청	제4기층	구석기류 조사완료 보존조치
25	화성 기산리 기산취락 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화성시 기산리 기산취락 지구 일원	12.12~'04.1.20	의뢰	아시아건설(주)	없음	약보고서 제출 조사완료

## 2) 시 · 발굴조사

연번	건명(조사유형)	위치 및 면적(㎡)	조사기간	조사동기	조사의뢰기관	조사내용		조치사항
1	수원 울전지구 벽산2차 아파트부지 시굴조사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 168-81(5,027)	2.17~7.10	발견후 조치	벽산건설(주)	토광묘, 수혈주거지, 야외노지	토기류 철기류	유물정리중
2	평택 현곡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21-3(35,200)	3.10~	의뢰	경기지방공사	구석기층, 주거지, 건물지	토기,기와 자기류	발굴조사중
3	화성 태안 기산리 대우아파트부지 시굴조사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370(57,389)	3.10~4.30	의뢰	유로아이종합건설(주)	유구 확인 없음	토기편	약보고서 제출
4	용인죽전(14지점) 택지지구시굴조사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6번지(2,000)	3.7~5.5	의뢰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소토유구	자기편	약보고서 제출
5	화성 지방산업단지 동학산유적 발굴조사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산38(24,760)	3.11~	의뢰	(주)삼성전자	주거지	무문토기 석기	조사진행중
6	하남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하남시 일원	03.3.3~7.31	의뢰	하남시청	청동기시대주거지 2기, 백제토광묘 2기, 석곽묘 10기, 토광묘 28기, 수혈유구 2기	토기, 석기, 분묘출토 자기, 토기, 청동과대	보고서작성중
7	서울 EMS테크센터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408-1(2,100)	3.24~10.19	발견후 조치	한국델파이(주)	토광묘, 주거지, 적석유구	토기, 철기	유물정리중
8	남양주 호평지구 구석기 유적 2차 발굴조사	남양주시 호평동 64-1 일대(8,200)	3.24~	의뢰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구석기문화층	구석기류	조사진행중
9	오산 가수동 아파트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오산시 가수동 산7-1(11,832)	3.31~6.18	의뢰	늘푸른주택(주)	수혈유구, 석렬유구	토기편 기와편	약보고서 제출 →발굴
10	시흥 중림역지 시굴조사	시흥시 과림동 중림마을 367(9,900)	5.21~7.14	의뢰	시흥시청	조사일시중지		
11	시흥 계수-과림간 도로 공사 내 유적 시굴조사	시흥시 일원	03.5.1~	의뢰	시흥시청	유물산포지	인화문토기편, 청자, 백자편	조사진행중
12	화성기안리풍성아파트부지 추가편입지역시굴조사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풍성아파트 부지	6.9~12.20	의뢰	(주)풍성주택	주거지, 민묘 등	토기편 철기편	유물정리중

연번	건명(조사유형)	위치 및 면적(㎡)	조사기간	조사동기	조사의뢰기관	조 사 내 용		조치사항
						건물지	기와,자기 철기	
13	회암사지 6차 발굴조사 (1차분)	양주시 회천읍 회암리	6.3~ '03.9.24	의뢰	양주문화관광 사업소	건물지	기와,자기 철기	유물정리중
14	평택 현곡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산21-3(35,200)	6.3~	의뢰	경기지방공사	구석기문화층, 주거지,건물지	토기,석기	조사진행중
15	안성 공도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91-1(132,000)	8.4~	의뢰	경기지방공사	지석묘,주거지, 수혈	토기류	발굴조사중
16	용인 이동서리 고려백자 요지 3차 발굴조사	용인시 이동면 서리 상반마을(3,355)	8.26~ '04.2.1	의뢰	용인문화원	기마유구	자기류	유물정리중
17	평택 고덕 수림아파트 신축부지 시굴조사	평택시 고덕면 궁리 산40 (33,166)	8.22~ 12.23	의뢰	수림종합개발 (주)	수혈유구, 민묘	석기류 자기류	유물정리중
18	파주 LCD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파주시탄현면,금승리, 월룡면 덕은리	9.1~	의뢰	경기지방공사	건물지, 주거비, 수혈유구	토기류	조사진행중
19	수원 이목동 골프연습장 건립부지 시굴조사	수원시 장안구이목동 242-3(9,980)	9.8 ~ 12.6	발견후 조치	이카랜드(주)	석곽묘, 주거지	토기류	유물정리중
20	회암사지 6차 발굴조사 (2차분)	양주시 회천읍 회암리 산14-1	9.24~ '04.4.30	의뢰	양주문화관광 사업소	건물지	자기, 기와류	유물정리중
21	화성 동탄지구(9지점) 발굴조사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반월리,반송리(580,448)	10.10~	의뢰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단	주거지,저습지	토기류	조사진행중
22	오산시 가수동아파트 부지 시·발굴조사	오산시 가수동 산7-1 (11,832)	11.1~	의뢰	(주)늘푸른주택	주거지, 수혈유구, 옹관	토기류	조사진행중
23	파주 운정지구 시굴조사 (운정 2지구지표조사포함)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상지석리외(4,900,000)	11.10~	의뢰	대한주택공사	현재	토기류	조사중
24	용인 봉명리 티엘코리아 공장부지 시굴조사	용인시 남서면 봉명리 553-21,산109-2(10,587)	11.12~ '04.1.10	의뢰	(주)티엘코리아	유물산포지	없음	조사완료
25	평택 갈곶리 (주)하츠 증설부지 시굴조사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65 (30,257)	11.13~ '04.3.11	의뢰	(주)하츠	유물산포지	토기류	유물정리중
26	수원 화성 행궁담장지 시굴조사	수원시 팔달구 신봉동 일원	11.19~ 12.18	의뢰	수원시청	행궁담장지	기와류	약보고서제출
27	용인 삼막곡~연수원 도로구간 시굴조사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마북리, 언남리일대 (약31,375)	11.24~	의뢰	한국토지공사	토광묘,건물지	연질토기편	조사중
28	용인 보라리지구 시굴조사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산 99-1(3,800)	12.4~ '04.1.22	의뢰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유물산포지	백제 토기편류	시굴조사중
29	화성 남양개발지구 시굴조사	화성시 남양면 산21-1 일대(362,500)	12.15~	의뢰	화성시청	유물산포지	토기편류	조사중
30	광주 성남~창호원간 도로 건설공사 구간내유적	광주시 일원	'03.11.5~	의뢰	현대건설	경질도기, 백자편	유물산포지, 고인돌	시굴조사중

### 3. 주요 유적 조사 개요

#### 1.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 (2차) 시굴 및 발굴조사

가) 위 치 : 남양주시 호평동 64-1田 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 일대

1지역 - 정밀 발굴조사 지역 - 4,253㎡(약 1,286.5평)

2, 3, 4지역 - 시굴조사 지역 - 2지역 : 2,646㎡(약 800.4평) /

3지역 : 3,997㎡(약 1,209.0평) /

4지역 : 3,112㎡(약 941.9평)

나) 조사기간 : 2003년 03월 24일 ~ 2003년 12월 18일(현장조사 180일)

다) 시 대 : 후기구석기시대

라) 조사내용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5월 10일에서 2002년 10월 9일까지 남양주시 호평동 64-1田 일대를 발굴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상보존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호평동 일대의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확보 등의 문제로 도로가 개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또한 초등학교와 주택조성단지로 예정된 유적의 동쪽(2지역)과 서쪽(3지역) 구릉능선에서도 유물이 수습되어 이 지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서는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보존하고 유적 주변의 구릉일대에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 1지역

2002년 1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경춘선이 놓여있고 동쪽으로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발굴조사 대상 범위는 도로개설 예정 부지인 철로의 좌·우측 각 6m와 유적의 동북지역이다. 또한 택지개발 예정 부지인 유적의 서쪽과 남쪽지역 일부를 포함한다. 1지역 발굴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북지역 : 이 지역은 이미 1차 발굴조사에서 두 개의 유물 포함층이 확인된 곳으로(Q40, M43, M44) 유물은 토양층기가 발달해있는 갈색 (사질)점토층인 3층의 상부와 하부에서 출토한다. 3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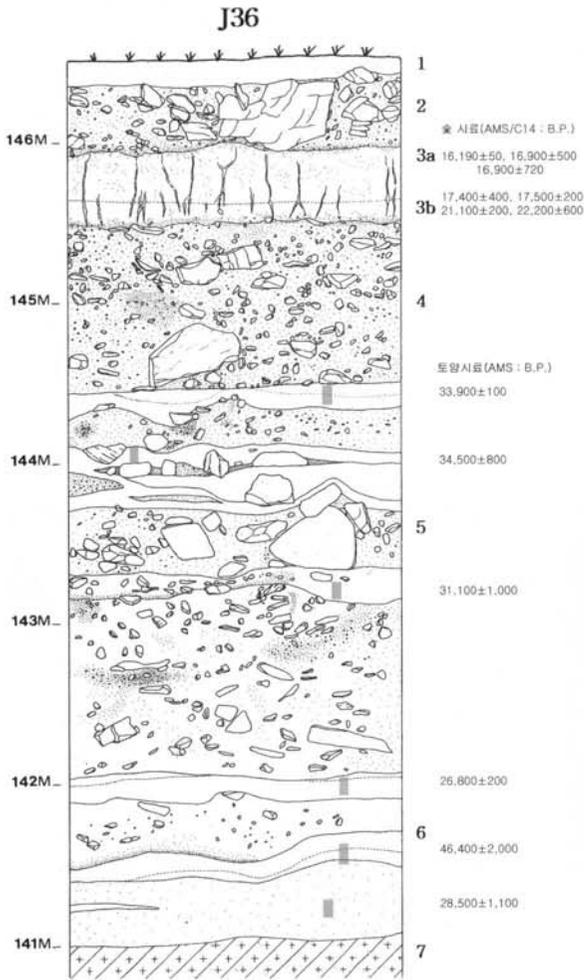
유적 전경

사면봉적 기원의 쇄설층(2층, 4층) 사이에 퇴적된 층으로, 동북지역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최대 두께 30~40cm로 남아있으나 남서, 남동방향으로 경사를 이루는 지형 특성에 따라 남쪽으로 가면서는 점차로 지표에 노출되는 모습이다. 석기가 출토되는 3층의 하부는 암적갈색의 점토층, 상부는 (황)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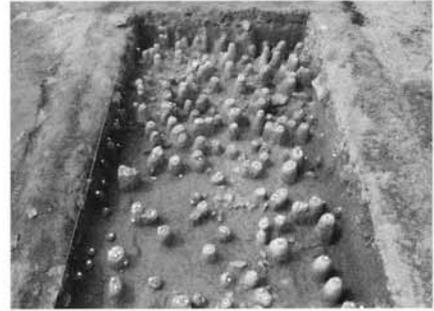
현재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주로 41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출토된 석기는 모두 500여 점에 이른다. 석기제작에는 주로 석영계 자갈돌이나 석영맥암이 돌감으로 활용되었으며 응회암, 유문암, 흑요석제도 있으나 드문 편이다. 대부분의 석기는 몸돌, 격지, 돌조각 등으로 구성되며 굽개, 밀개 등의 잔손질된 석기도 있으나 매우 적다. 응회암제 석기 가운데에는 돌날의 아랫부분을 배면에서 등면으로 가파르게 잔손질하여 스페를 만든 것도 있다. K43칸에서는 쇄설층인 4층 위에 퇴적된 암갈색 점토층에서 많은 양의 숯이 출토되었으며 그 분포 범위는 100×70cm에 이른다.

44~45열의 I~J에서는 2000~2001년에 조사되었던 기와가마터의 부속 유구로 추정되는 불 맞은 자리가 발견되었다. 기와가마터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현재 노출된 상태의 크기는 약 226×160cm이다.

서쪽과 남쪽지역 : 서쪽지역은 계곡부에 근접한 지점으로 남서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룬다. 3열을 중심으로 각 3×3m 크기의 구덩 9개를 조사한 결과, 표토층 아래에 사면기원 퇴적층이 다양한 두께로



1지역 층위단면도와 연대측정



1지역 41열 유물출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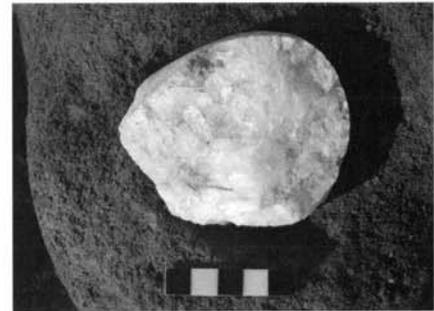
1지역 P35구덩 유물출토 모습



1지역 출토유물(밀개)



1지역 출토 유물(슴베찌르개)



1지역 출토 유물(몸돌)

분포하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지층 내에는 직경이 30~40cm에 달하는 암편을 포함하는 각력질 암쇄류층이 가장 널리 분포하며 암쇄류층 사이사이에는 암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층이 여러 차례 분포한다. 1지역의 전체 층위구조에서 볼 때 5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남쪽지역은 도로에 근접한 지점으로 2002년 발굴에서 층위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던 Pit 1과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3×12m 크기의 구덩 2개와 3×15m 크기의 구덩 1개를 설정하여 조사해본 결과, 19열 AD~AF에서 기와가마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마터의 상부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가마터 바닥면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크기는 약 460×280cm이다.

## 2지역



2지역 출토 유물(부합유물)



2지역 출토 유물(찍개)

지형에 관계없이 1지역 조사구획의 연장선상에서 전체 조사면적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각 3m 단위로 측량하여 구획하였다. 각 발굴칸은 임의로 설정한 D.P.지점(E0N0)을 중심으로 EN, WN, ES, WS 등으로 명명하였다.

2지역에서는 모두 20개의 구덩을 조사하였으나 기반암까지 내려간 지점은 없다. 각 구덩에서 관찰된 지층을 통해 볼 때 전체 층위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층 : 인위적인 표토 교란층이다.

2층 : 토양썰기 구조가 발달한 암(적)갈색 내지 (황)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북쪽 지역에서는 썰기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점토성분이 우세한 편이다. 한편 남서쪽으로 가면서는 썰기구조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작은 암편들이 혼재한다. 석기가 출토된 층이다.

3층 : 사면봉적 기원의 쇄설층으로 지역에 따라 심한 경사도를 이룬다.

4층 : 각력질 암쇄류, 니질물 및 사질물이 다양하게 혼재해 있는 사면봉적 기원의 퇴적층이다.

5층 : 사질층으로 2지역의 서쪽 계곡부에 근접한 구덩에서 확인된다.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2지역에서 수습된 석기는 130여 점에 이른다. 대부분의 석기는 남서쪽에 위치한 4개 구덩의 갈색 사질점토층(2층)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모두가 석영제이다. 응회암 자갈돌에 만들어진 안팎날 찌개는 예외적인 것으로, 두 면이 만나 이루는 능선 부위에는 사



2지역 출토유물(격지 및 밀개)

용에서 비롯된 으스러진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대부분의 석기는 몸돌, 격지, 돌조각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4개의 격지와 몸돌이 서로 접합되는 것도 있다. 잔손질된 석기는 매우 드문 편으로 돌조각을 몸체로 이용하여 한 가장자리를 가지런하게 잔손질한 비교적 둥근모양의 석기날을 만든 밀개를 비롯하여 홈날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 3지역

2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형에 관계없이 1지역 조사구획의 연장선상에서 전체 조사면적을 동서, 남북 방향으로 각 3m 단위로 측량하여 구획하였다. 각 발굴간은 임의로 설정한 D.P.지점(EONO)을 중심으로 EN, WN, ES, WS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 지역의 동쪽부분은 계곡부에 근접하여 매우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남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훼손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3지역에서는 모두 26개의 구덩을 조사하였는데 동쪽과 서쪽의 일부 지대에서는 화강 편마암의 현지성 풍화대가 표토 교란층 아래에 곧바로 드러나기도 한다. 각 구덩에서 관찰된 지층을 통해 볼 때 전체 층위구조는 다음과 같다.

1층 : 경작으로 인한 표토 교란층이다.

2층 : 황갈색 사질 점토층으로 위 지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관찰된다. 석기가 출토된 층이다.

3층 : 수직, 수평 방향으로 토양찌기가 발달한 암(적)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작은 암편이 혼재해 있다.

4층 : 사면붕적 기원의 쇄설층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된다.

5층 : 저습한 환경에서 형성된 담회청색 실트층으로 남쪽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6층 : 화강암질 편마암의 현지성 풍화대로 지역에 따라서 심한 경사를 이루며 분포한다.

3지역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석기는 50여 점에 이른다. 대부분의 석기는 황갈색 사질점토층(2층)에서 출토되었으며 토양찌꺼기가 발달한 암적갈색점토층에서 출토된 것도 1점 있다. 석기는 모두 석영 돌감을 활용한 것으로 몸돌, 격지, 돌조각 등으로 구성된다. 표토 교란층에서는 흑요석제 격지와 한 가 장자리를 가지런하게 잔손질한 줌돌날이 수습되었다.

#### 마) 조사성과

이번 조사지역 중에서 1지역의 동북지역은 호평동 유적에서는 드물게 두 개의 유물 포함층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비록 그 범위는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여기서 발굴된 석기들은 이 유적의 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1열을 중심으로 석영제 석기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 응회암제 석기들의 구성 및 그 분포 양상은 돌감에 따른 석기제작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2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흑요석제 석기 집중구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지역 동북지역의 향후 발굴조사는 유물 출토층을 비롯하여 그 아래에 퇴적된 유기물 포함층 및 니질물과 사질물이 다양하게 혼재한 각력질 쇄설층에 대한 토양분석 및 꽃가루분석 등을 통하여 호평동 유적의 형성 환경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 댄 자리에서 수습된 숯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연대측정 및 수종분석은 특히 두 번째 유물 포함층의 형성 시기 및 자연환경을 보다 확고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는 호평동 유적의 범위가 더욱 넓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석기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분포한 양상 및 접합석기를 통해 볼 때 작은 규모의 석기제작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지역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석기는 매우 적은 편이나 유물을 포함하는 퇴적층이 지역에 따라 두께를 달리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 분포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3지역 서쪽지역에서는 유물 포함층 아래에서 토양찌꺼기가 선명하게 발달해 있는 암(적)갈색 점토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3지역에서만 관찰되는 이러한 퇴적양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지역과 상이한 것으로 1지역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3층과 비교 가능한 층으로 추정된다. 3지역 유물 포함층 및 점토층 상부에서 출토되고 있는 숯과 토양시료는 지층의 형성시기 및 형성과정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양주 회암사지 6차 발굴조사

가) 위 치 : 양주시 회천군 회암동 14-1

3단지 서쪽 지역 및 2단지 일대 9,200㎡(2,783평)

나) 조사기간 : 2003년 9월 24일 ~ 2004년 4월 30일

다) 시 대 : 고려 ~ 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지금까지의 회암사지 조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양주 회암사지 조사 현황

조사 구분	조사 연도	조사 지역	조사 기관	조사 성과
시굴 조사	1997년	사역 전체	경기도박물관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 수립
1차 발굴	1998년	8단지 전체	·	정청 및 주변 건물지와 왕실과의 관련성 확인 주변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
2차 발굴	1999년	6, 7단지 전체	경기도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보광전 건물지의 청동금탁 출토 (명문을 통해 태조 이성계와의 관련성 확인)
3차 발굴	2000년	5단지 서쪽	·	완벽한 상태의 구들 시설 다수 확인
4차 발굴	2001년	5단지 동쪽 4단지 전체	·	4단지 문지가 사천왕문임을 확인
5차 발굴	2002년	3단지 동쪽	·	주 동선 이외에 동쪽 보조 동선 확인
6차 발굴	2003년	3단지 서쪽 2단지 전체	·	2단지 동쪽에 건물지군 확인, 조사

1차에서 6차까지 조사된 건물지는 55개소(표2 참조)이며, 칸수로는 256간에 이른다. 기타 정료대, 집수정, 내부 담장지, 수조, 맷돌, 배수시설, 화단 등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회암사 건물 배치는 2단지 문지에서 8단지 정청지에 이르는 남북 중앙 축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많은 건물들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2단지 문지에서 6단지의 보광전까지는 답도를 마련하여 주 동선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주 동선 동쪽에 보조 동선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단지 석축과 2단지 석축의 부계(副階)를 통하여 사역 안으로 들어와서 2·3단지 동쪽 건물군을 통과하여 4단지 건물군에 이르도록 하였다. 한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단지 석축 서쪽 끝에도 부계가 노출되어 있어 서쪽에도 남북 방향의 보조 동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중앙 축선상에 배치된 건물군은 6단지 보광전을 중심으로 남, 북으로 서로 다른 건물 배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광전 북쪽으로 7·8단지에는 각각 설법전과 정청을 중심으로 좌우의 건물들이 남쪽에서 출입할 수 있

표 2. 양주 회암사지 건물지 현황

번호	건물지명	평면규모(정면×측면)	내부 시설	비 고
1	8단지 대장전	3×2	단시설	전면 월대시설
2	서방장	3×2	구들시설	+부엌(2×1)
3	정청	3×2	마루시설	
4	동방장	3×3	구들시설	+후대 구들시설(북동쪽)
5	나한전	3×2	단시설	전면 월대시설
6	7단지 수좌료	6×1	구들시설	구들시설 후대 1칸 확장
7	조사전	3×1	마루시설	
8	시자료	3×3	구들시설	굴뚝시설 위치 변경
9	사리전	1×1		후대 천량으로 변경
10	설법전	5×2	마루시설(추정)	
11	영당	3×1	구들시설	
12	입실료	3×3	마루시설	구들시설 → 마루시설로 변경
13	서기로	5×4	단시설	구들시설 → 단시설로 변경
14	6단지 보광전	5×5		선대 건물지 기단 확인
15	서승당	8×4	구들시설	침상식 구들시설
16	'日'자 건물지	5×5	단시설	
17	향화료	3×1	구들시설	
18	지장료	3×2	구들시설	
19	(천량)건물지	5×1	단시설	
20	5단지 '가' 건물지	6×1	구들시설	남북 2실로 구성
21	'나' 건물지	4×2	구들시설	합살아궁이 → 부뚜막으로 변경
22	'다' 건물지	5×2	구들시설	
23	'라' 건물지	7×2	구들시설	
24	'마' 건물지	4×1	구들시설	이전 시기 구들시설 확인
25	'바' 건물지	5×2	구들시설	합살아궁이 → 부뚜막으로 변경
26	문 지	3×2		바닥 전체 전돌
27	'사' 건물지	5×2	구들시설	합살아궁이 이동
28	'아' 건물지	4×1	단시설	
29	4단지 '가' 건물지	5×3	구들시설	구들방+누각
30	'나' 건물지	3×1	구들시설	2개의 구들시설 중북
31	'다' 건물지	1×1		전면의 월대시설
32	'라' 건물지	5×3	구들시설	굴뚝시설 이동
33	'마' 건물지	5×3	구들시설	
34	'바' 건물지	1×1		전면의 월대시설
35	'사' 건물지	8×4	구들시설	침상식 구들시설
36	문 지	3×2		사천왕문(중앙칸 통로 전돌)
37	'아' 건물지	5×4	단+구들시설	
38	'자' 건물지	2×2		선대 구들시설
39	'차' 건물지	8×1		
40	'카' 건물지	(5×1)+(5×2)+(3×1)	?	'ㄷ' 자형 건물지
41	'타' 건물지	6×3	마루+구들시설	전면 누마루
42	'파' 건물지	?	?	윤곽 확인
43	'하' 건물지	5×2	구들시설	내부시설 미조사
44	3단지 '가' 건물지	8×3	구들시설	남북 2실로 구성
45	'나' 건물지	7×3	?	중앙칸 통로
46	'다' 건물지	7×2	구들시설	남북 2실로 구성
47	'라' 건물지	7×2	구들시설	동서 2실로 구성
48	'마' 건물지	7×2		3칸 문지 형식의 통로
49	'바' 건물지	6×3	구들시설	동서 2실로 구성
50	'사' 건물지	5×1	?	내부 맞돌 분포
51	문 지	3×2	?	중앙칸 통로 전돌
52	'아' 건물지	5×2	구들시설	내부시설 미조사
53	2단지 '가' 건물지	(3×2)+(8×2)	마루+구들시설	구들 부분 남북 2실로 구성
54	'나' 건물지	5×2	구들시설	
55	문 지	3		삼문형식의 문지

도록 한 반면, 남쪽의 3·4·5단지는 중정식 건물 배치로 일단 각 단지의 문지를 통해 중정에 진입한 후 각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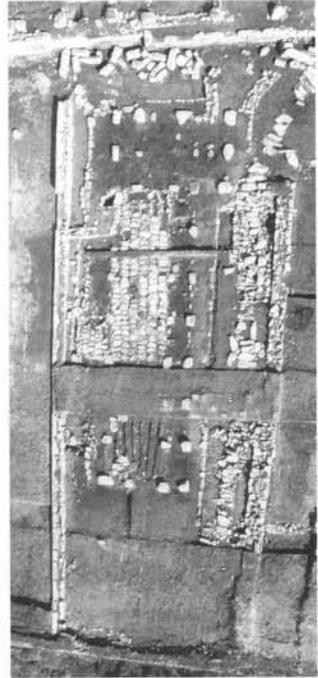
이번 6차 발굴조사는 3단지 서쪽 지역내 건물지의 노출과 함께 확인된 건물지의 전반적인 전각 배치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2단지 내에 건물지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사가 유보되었던 4단지 동쪽지역에 대한 조사와 이미 4~5차 발굴조사에서 실시되었던 보광전 및 3단지 동쪽지역에 대한 내부조사를 보강하여 정밀하게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건물지 이외에 동쪽 동선(계단지, 양쪽 내부 담장지), 동쪽 외곽 담장지, 남쪽 외곽 담장지 및 추정 보축 석렬 유구, 「나」건물지 북쪽 내부 담장지, 답도 동쪽 공터 용도미상 석재 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동쪽 동선상에서는 「가」건물지 동쪽과 「나」건물지 서쪽 사이의 내부 담장지 2열과 그 서쪽의 배수시설, 남쪽 외곽 담장지 내부의 계단지가 확인되었다. 내부 담장지의 폭은 100~133cm이며, 자연석을 이용하여 양쪽 방향으로 정렬하였다. 그 중 동쪽 것은 2단지 남쪽 외곽 담장지에서 3단지 석축단까지 남북으로 걸쳐 시설되었으며, 중간 부분에서 일각문지가 확인되었다. 서쪽 내부 담장지는 4m 가량 떨어져 시설되었으며, 2단지 남쪽 외곽 담장지에서 「가」건물지의 마루시설이 설치된 북쪽 건물지 부분에서 「ㄱ」자로 꺾여 「가」건물지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배수시설은 3단지 「마」건물지 하부의 암거에서 연결되었으며, 남쪽 외곽 담장지까지의 총 길이는 확인된 부분만 37m에 이르며, 폭은 100~137cm 가량이다. 계단 시설은 남쪽 외곽 담장지 내부에 시설되었다. 계단지의 폭은 320cm 가량이며, 1단이 유실되었지만, 3단으로 추정된다. 동쪽 외곽 담장지는 사역 동쪽 경계를 이루는 외곽 담장지로서 담장 폭은 140~150cm 가량이다.

「나」건물지 북쪽 내부 담장지는 동쪽 동선과 동쪽 외곽 담장지 사이의 내부 담장지로서 3단지 석축단 축선과는 각도가 틀어져 있다. 확인된 총 길이는 27.5m, 폭은 90~100cm 내외이다.

남쪽 외곽 담장지 및 추정 보축 석렬 유구는 2단지의 남쪽 석축단 상면에 담장지를 시설하여 사역 남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석축단 위에는 둥글둥글한 강돌이 확인되는데, 이는 최근에 시행된 석축단 보수작업 과정에서 채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담장지 아래에서 석렬이 확인되었는데, 문지를 경계로 서쪽은 폭 120~150cm, 길이 19.5m이며, 동쪽은 폭 120cm 가량, 길이 21.5m이다. 축



2단지 「가」 건물지 조사후 전경

대를 보강하기 위한 보축시설이거나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일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담도 서쪽의 배수시설은 3단지 「아」건물지 하부의 암거에 연결된 배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한 것으로 남쪽 외곽 담장지까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배수시설의 총 길이는 21.9m, 폭은 150~174cm 가량이다. 남쪽 담장지 아래의 석렬 내부에 50cm의 정방형 집수구가 확인되며, 담장지 하부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3단지 문지 조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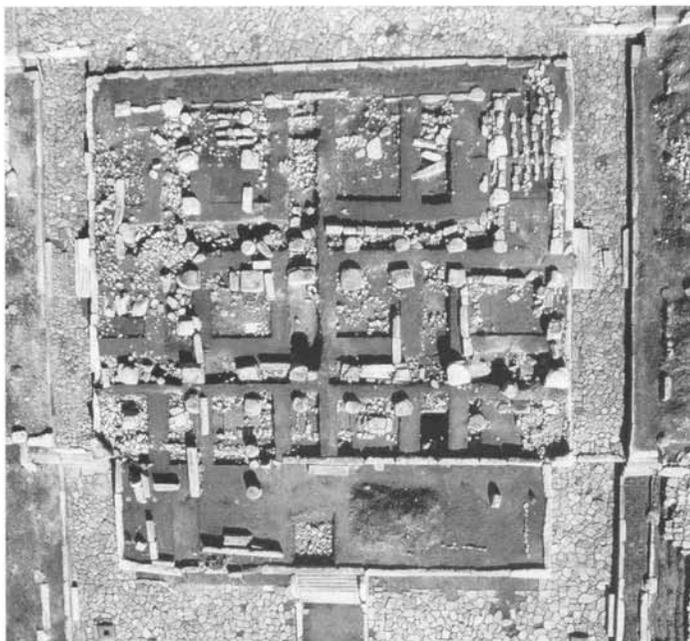
3단지 문지는 3단지 남북 중심축에 위치한다. 문지의 규모는 정면 3칸(주칸 거리 3.4~4.8m), 측면 2칸(주칸거리 3.4m)으로 기단의 남북 길이 10.95m, 동서 길이 14.76m 가량이다. 중앙 1칸에는 바닥 전면에 걸쳐 전돌을 깔았으며, 좌,우 각각 1칸에는 마루시설을 하였다. 남북의 기단은 치석된 장대석을 사용하였고, 초석은 원형 주좌를 둔 방형 석재를 이용하였다.



회암사지 3단지 동쪽지역 조사 후 전경(항공사진)

이외에 기타 유구로는 답도 동쪽에 정료대가 확인되고, 「라」건물지 북쪽에 배수시설이 확인되지만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보광전지 보강 조사 결과 선대 기단 및 선대 건물지의 구지표면을 확인하였다. 보광전지 최상면에 위치한 정면 7칸 규모의 초석들에 대한 층위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였고, 건물지 내 북동쪽과 북서쪽에 위치한 후대 구들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북동쪽 후대 구들시설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규모로 구들골은 모두 5골이다. 고래독은 소규모의 할석재를 이용해 놓았으며, 아궁이는 남쪽, 굴뚝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광전지 조사 후 전경

현재 보광전지 상면에는 정면 7칸 규모의 초석이 배치되어 있고, 중간중간 장대석이 마치 불단 시설처럼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초석 및 장대석은 외편이 다량 포함된 흑갈색사질토층과 황색모래층 상부에 놓여 있는데, 이 층위는 매우 불안정한 층위이다. 한편 4차 조사에서 확인된 선대 초석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몇 기가 더 확인 되었는데, 좌·우퇴를 갖는 정면 5칸(주칸거리 5.3m 내외, 퇴칸 2.8m 내외), 전·후퇴를 갖는 측면 5칸(주칸거리 3.9m 내외, 퇴칸 2.6m 내외)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초석 배치는 목은의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 등장하는 보광전 5칸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이한 점은 이들 초석들 주위로 작은 할석을 1열로 돌려 마치 적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들 초석은 다시 적심이 되고 그 위에 매우 큰 규모의 초석을 올려 건물지의 레벨을 전체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7단지 서기료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고, 2단지 시굴조사 탐색갱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관찰된다. 아마도 사역 전체가 어느 무렵인가 레벨이 조금 상승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보광전 상면에 위치한 7칸 규모의 초석들은 원래 이 5칸 규모의 건물지 2차 시기 초석으로 쓰였던 것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광전지 서쪽 부분의 초석 3기가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 유물

### • 도자기류



2·3단지 출토 각종 백자류



2·4단지 각종 분청사기 및 청자

자기류는 상당히 많은 양이 조사지역의 와적층 및 구지표면상에서 출토되었다. 2~4단지에서 출토된 백자 발과 접시편 중에는 '玄', '別', '左' 등의 명문이 굽 바닥면에 음각되어 있는데, 저부의 일부분만 남아있어 명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백자의 굽 바닥면에 새겨진 명문들 중에서 '玄'銘은 '天', '地', '黃'銘과 함께 1470년대에서 155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이며, '左', '右', '別'銘은 경기도 광주 가마터에서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 많다. 그 중 백자 접시편은 굽 바닥면의 음각명과 함께 굽 측면에 '仁玉'의 정각명이 남아있다. 4단지 「라」건물지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된 백자 화형접시는 기 외면에 음각으로 화엽(花葉)을 표현하였다. 낮은 굽을 지녔으며, 기벽이 매우 얇다. 2단지 S5W1 가pit 내부 담장지에서는 백자 발, 접시, 종자, 병 등의 일상생활용기가 출토되었으며, 3단지 「나」건물지 내부 서쪽기단에서 소형 합이 출토되었다. 한편 2단지에서는 분청철화편이 3점 출토되었다. 분청철화편은 저부 일부와 동체부로 접합되지 않으며 기종은 호로 추정된다. 백토분장한 표면에 철화로 초화문을 그렸으며, 내면은 시유하지 않았다. 4단지 「과」건물지 북서쪽에서 출토된 조선청자편은 팔각의 향로로 추정된다. 다리가 결실된 것으로 보이며 동체부 하단에는 이중의 연관문을 백토 상감하였고 각 모서리 부분은 연주문을 인각하였다. 연주문 사이에는 백토로 이중선을 상감하였으며, 이중선 안에는 국화문을 흑백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흑토 대신 철분을 삽입하였다. 기 내·외면에는 굽은 빙렬이 있다.

도기류는 옹, 호, 병, 동이 등이 출토되었고, 성형기법은 테쌍기와 물레뽑기 성형이 쓰였으며, 정면 기법으로는 격자문, 빗금문, 동심원문 등의 타날기법과 물손질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전의 조

자기류는 상당히 많은 양이 조사지역의 와적층 및 구지표면상에서 출토되었다. 2~4단지에서 출토된 백자 발과 접시편 중에는 '玄', '別', '左' 등의 명문이 굽 바닥면에 음각되어 있는데, 저부의 일부분만 남아있어 명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백자의 굽 바닥면에 새겨진 명문들 중에서 '玄'銘은 '天', '地', '黃'銘과 함께 1470년대에서 155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이며, '左', '右', '別'銘은 경기도 광주 가마터에서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 많다. 그 중 백자 접시편은 굽 바닥면의 음각명과 함께 굽 측면에 '仁玉'의 정각명이 남아있다. 4단지 「라」건물지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된 백자 화형접시는 기 외면에 음각으로 화엽(花葉)을 표현하였다. 낮은 굽을 지녔으며, 기벽이 매우 얇다. 2단지 S5W1 가pit 내부 담장지에서는 백자 발, 접시, 종자, 병 등의 일상생활

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향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병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동체가 구형(球形)인 병이 출토된 것과 소성시 곡류 알갱이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은 것에서 차이를 보이며, 호의 외저면에 인각된 기호 역시 그 모양은 명확치 않으나, 이전의 기호와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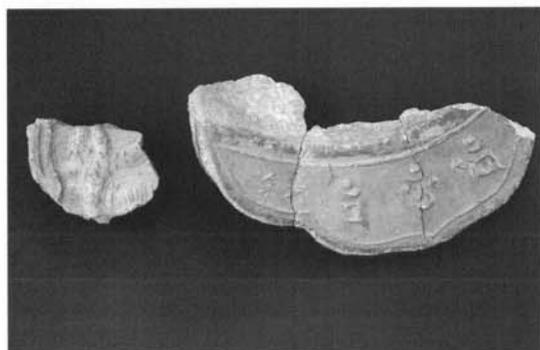
#### •기와류

출토 기와류의 대부분은 평기와이고 막새기와 및 특수기와의 수량은 이전에 비해 매우 적다. 수막새의 경우에는 범자문 수막새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그 외 유형의 수막새는 극히 소량이다. 범자문 수막새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2단지 문지 및 주변 담장에서 출토된 직경 14cm 가량의 수막새이다. 이번조사에서 처음 확인된 신형 수막새인데, 지금까지 출토된 수막새의 대부분이 직경 17cm 내외인데 비하면 비교적 소형이다. 암막새의 경우도 범자문 암막새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그 외에 용문 암막새와 화문 암막새가 소량 출토되었다. 그러나 2단지에서는 막새기와 자체가 출토량이 매우 적다. 평기와 중에는 등면에 명문을 새겨 넣은 것들이 몇 점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광전지 내부 조사에서 출토된 수키와 편에는 2열의 횡서로 ‘...□□□四月初一日□.’ ‘...□□□□論戒...’ 라고 쓰인 명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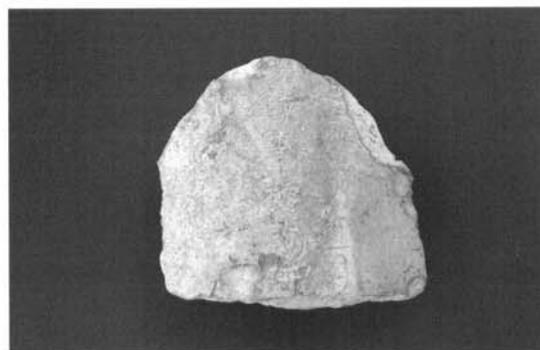
특수기와는 2단지 문지 주변, N1W1, N1W2, S3E4 등에서 출토되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으며, 유형도 1~5차 출토품과 유사하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2단지 문지에서 출토된 잡상편으로, 무장형 인물상의 머리



2·3단지 출토 각종 수막새



2·3단지 출토 각종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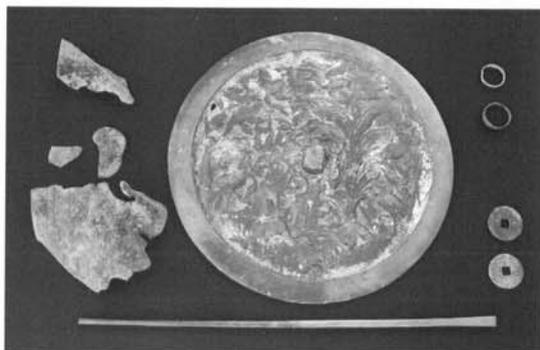
보광전지 출토 명문 수키와



2·3단지 출토 잡상 편

지푸라기와 같은 보강재의 흔적이 관찰된다. 4단지 타 건물지 북쪽 구들부에서는 취두편으로 추정되는 특수기와가 발견되었는데, 표면에 『施主呑□□』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 • 금속류



2·3단지 출토 각종 청동류

부분이다. 얼굴 길이가 13.5cm나 되는 큰상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의 것과 유사하지만, 보다 사실적이며 섬세하게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2단지 S3E4 다pit 에서는 가로 34.5cm, 세로 23.3cm의 대형 특수기와편이 출토되었다. 표면에는 3개의 삼각형 형태 지느러미를 음각하였으며 그 아래쪽에는 비늘문을 음각하여, 용의 몸통을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둥글게 용기된 몸통의 안쪽에는

이번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금속제 유물은 철제류와 청동제류로 크게 구분된다. 철제 유물은 건축부재류, 생활용구류, 농공구류, 무기류 등으로 분류된다. 건축부재류는 목조결구용 철정이 다수를 차지하며, 못머리의 형태와 길이가 다양하다. 그 외 박공장식, 숫돌찌귀 등이 출토되었다. 생활용구류는 철숯, 도자, 호미 등이 출토되었는데, 철숯은 유물산포지 '라' 지역 북쪽 계곡에서 지표 채

집되었다. 농공구류에는 철부와 자귀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5단지 「아」건물지에서 철창 두 점이 같이 출토되었으며, 철창과 철촉의 무기류가 6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유물은 청동저, 청동당초문양, 동경, 반지, 조선 통보 등의 동전이 출토되었다. 청동당초문양은 4단지 「다」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동경은 4단지 「타」건물지 2차 굴뚝자리 북쪽 기단 밖에서 출토되었다. 원형경으로 넓은 緣部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다. 내구에는 圓鈕를 중심으로 괴석으로 보이는 문양이 있으며, 괴석 오른쪽에는 파초가 무성하게 새겨져 있다. 내구 가장자리에는 대나무가 대칭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에는 여러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에 노니는 광경이 표현되었다. 동경의 지름은 18.8cm이다.

### • 석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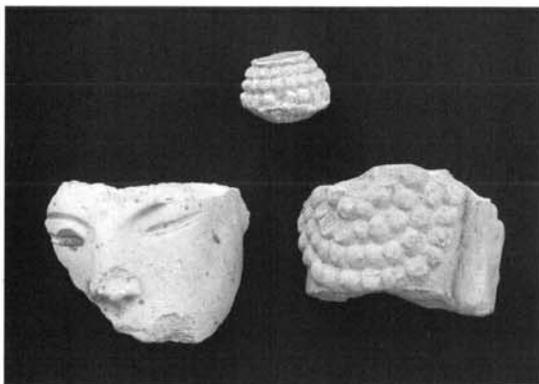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5점의 석불편이 출토되었다. 모두 소형불상편이다. 2단지 답도 동쪽 공터 용도미상 석재유구 동북쪽에서 출토된 석불편은 육계 부분으로, 약 2cm 높이로 솟아오른 형태이다. 추가 조사된 4단지 문지에서는 2점의 석불편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불상의 얼굴 부분이다.

보광전 내부에서 출토된 불상편은 백색 사암제로 불상의 상체 부분이다.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으며, 등근 오른쪽 어깨에는 옷자락의 일부를 반원형으로 걸치고 있다. 등에는 왼쪽 어깨 뒤로 늘어뜨린 대의자락이 일부 남아있다. 향화료 구들골에서 출토된 편은 불좌상의 왼쪽 팔과 다리부분으로, 두터운 법의가 왼팔을 감싸고 있다.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간 길상좌를 걸하고 있으며 수인은 선정인을 취하였다. 왼손 아래로 오른발이 일부 남아있다.

3단지 「바」건물지 서실 내부 아궁이에서 유리구슬 한점이 출토되었다. 지름이 1.6cm로 중심에 0.1cm 구멍이 뚫려있다. 구슬의 일부는 파손되었다. 2단지 내 답장지 북쪽 바닥면에서 2점의 유리 거꾸집이 출토되었다. 구슬을 만드는 두개의 원형 구멍이 파여 있으며, 원형 구멍 안에는 구슬 중심에 구멍을 만들 수 있게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잔존 길이는 8cm, 두께는 2.5cm이다.

### • 소조품

「나」건물지 동쪽기단 밖과 건물지 서쪽기단 밖 사이 공터 와적층에서 용도미상 소조편이 한점 수습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방패형에 가깝고 중앙에는 2cm 너비의 돌대가 0.6cm 가량 돌출되어 있다. 전면에는 외곽을 따라 한 줄의 선을 새기고, 그 안쪽에 당초문을 얇게 음각하였으며, 돌대에는 연주문과 집사선문을 새겨 장식하였으며 아래쪽은 귀꽃형태로 융기되어 있는데, 일부 결실된 상



4단지 출토 각종 불상류



4단지 출토 소조품

태이다. 향로 혹은 제기의 다리 부분으로 추정된다.

### 마) 조사 성과

현재까지 55개소의 건물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건물지의 칸수는 256칸에 이른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건물지의 흔적이 육안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회암사 사역 내부에는 60개소 가량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설법전, 보광전 및 각 문지 등 주요 건물지가 배치된 남북 중앙 축선상의 주 동선 이외에도 동쪽에 남북 방향의 보조 동선이 2단지 문지에서 3단지까지 연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축 서쪽에도 부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단지 담장 석축 서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지를 통해 3단지에 이르는 서쪽 보조 동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역 내부로 들어오는 2단지 문지는 주 동선에 삼문(三門) 형식의 문지를 두고 그 좌우의 보조 동선에 이보다 규모가 작은 일각문지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광전 건물지에 대한 보강 조사에서는 현재 노출된 초석과 불단으로 추정되었던 장대석렬이 근래에 옮겨진 것임이 층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비록 초석은 옮겨졌지만, 초석의 적심은 잘 남아 있어 회암사 폐사 무렵, 보광전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5칸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고려말 목은이 기록한 보광전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광전 건물지는 크게 4차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차 보광전 건물지는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쌓은 남쪽 기단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그 퇴적층에서 고려청자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일단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쪽 기단 석축 전체가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동쪽으로 노출된 기단 석축으로 볼 때, 정면 5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차 보광전 건물지는 초석만 확인되었는데, 1차 보광전 건물지와 비교할 때, 남북 측면 폭이 확장되었다. 서기로 건물지와 같이 상면이 편평한 자연석을 사용하였는데,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폐사 무렵의 보광전 건물지 규모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보광전 건물지의 규모는 이 시기 무렵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 보광전 건물지는 그 규모가 이전과 다름 없지만, 기존의 초석 주변에 잡석을 놓아 적심화 하고 그 위에 초석을 새로이 설치하여 건물 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근래에 이동되어 치석된 초석들이 모두 이와 관계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광전 건물지의 치석된 기단 장대석렬도 이 무렵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회암사가 폐사될 무렵 보광전 건물지 내 불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북쪽 지역은 상당 부분이 교란되었으며, 그 위의 와적층 상면에 구들방 2개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보광전 건물지의 변화 과정은 7단지 동쪽에 위치한 서기로 건물지의 변화 과정과 크게 틀리지 않아 그 변화 시점을 찾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 3) 驪州 高達寺址 4次 發掘調査

가) 위 치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7-1번지 일원(3,600㎡)

나) 조사기간 : 2002년 8월 28일 ~ 2003년 5월 20일

다) 시 대 : 고려시대

라) 조사내용

경기도와 여주군은 고달사지 사역의 정비와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에 고달사지의 정비 및 보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역 전체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경기도박물관에 의뢰하였다. 1차 시굴 및 발굴조사 결과 유적 범위가 당시 주변의 민가지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주변 민가를 매입, 철거한 후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경기도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공동으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0세기말 이후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15여 동에 이르는 건물지를 확인함에 따라 가람 배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가-2·3건물지의 동쪽에 위치했던 민가 범위에 대한 3차 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까지 사역이 확장됨을 확인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확장 및 보완 조사로 4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4차 발굴조사 지역은 가-1축대의 동쪽 지역[전체 41,305㎡ 중 약 3,600㎡]으로, 사역 범위 내 민가가 가장 많이 들어섰던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된 주요 토층은 다음의 8개층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최상부 I·II층은 폐사 이후 건립된 건물지부터 최근 민가유구층이 혼재하는 문화층으로 유구 대부분은 사지 유구와는 별개로 중심축이 크게 틀어져(N-40°-E) 있고, 이들은 현 지적도에 나와있는 철거전 민가의 위치와 일치한다. III층은 사지 관련 유구 상부에 위치하는 와적층으로 건물지 축조 이후 중수 및 폐기시점에 걸쳐 퇴적된 층이다. IV·V층은 탐색 트렌치 1의 조사를 통해 가-1·2·3건물지의 기단토층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IV층은 가-2·3건물지의 기단토이며, V층은 사질토층과 점토층[또는 사질점토층]이 일정 부분 번갈아가며 깔아준 두께 약 140cm의 성토층으로 가-1건물지의 기단토를 이루고 있다. VI층(회흑·회갈색사질토 및 점토층)은 탐색 트렌치 1의 조사 결과 선대 유구로 추정되는 길이 2.8m의 동서방향 석렬이 발견된 연회색 사질토층으로 가-1 건물지의 적심보다 약 1.5m 아래에 위치한다. VII층은 앞서 이야기한 선대 유구의 30~50cm 아래에 위치한 층으로, 흑갈색 점토층에서는 선문와편이 회갈색 사질토층에서는 인화문토기편 2점이 출토됨에 따라, 문헌기록을 뒷받침해 줄 별도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마지막으로 VIII층은 20cm 안팎의 할석과 자갈이 다량 혼

입되어 있고 물이 비치는 흑갈색 또는 황회색 사질토층으로, 이는 舊河床面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노출된 건물지는 고려전기에 주로 사용됐던 건물지임을 알 수 있었고, 그 하부에 최소한 2개의 문화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검토될 부분이다.

## 유구

1·2차 발굴조사 결과 15여 동의 건물들이 모두 10세기 말 이후의 건물지들로 조사됨에 따라 문헌에서 보이는 고달사지의 초창기(8세기)와 사세확장기(9~10세기)대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지역에서 8세기 이후부터 12세기에 걸쳐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초창가람의 권역이 현 조사구역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 • 선대 유구

N1E3~N1E4 그리드 내에 가-2건물지의 남쪽기단 석렬과 평행으로 폭 2m, 길이 26m의 탐색트렌치를 넣었다. 이 조사를 통해 가-1건물지와 가-2건물지의 축조방법 및 선후관계를 확인하였고, N1E4 Gr 내 나타난 토층을 참고로 이 건물지들이 전체 토층상에서 어느 위치에 놓였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이제껏 노출되지 않았던 별도의 선대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선대 유구층은 연회색사질토층에 포함되어 가-1건물지 기단 상면보다 약 1.5m 아래에 위치하여 노출되었으며, 확인된 석렬의 길이는 2.8m이다. 또한 이 유구의 30~50cm 아래에 위치한 흑갈색 점토층에서는 선문와편이, 회갈색 사질토층에서는 인화문토기편 2점이 출토됨에 따라, 문헌기록을 뒷받침해 줄 별도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 • 가-1건물지

조사지역의 가장 동쪽에서 확인된 상당히 큰 규모의 장방형 건물지이다. 또한 건물지 내에 구획한 탐색트렌치 1을 조사해 본 결과 금번 조사지역 내에서는 지표하 1.2m에서 발견된 선대유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조영된 건물지로서 이는 초석 및 기단석의 형태, 축조방식, 주간거리, 기단석렬의 중복 양상을 놓고 볼 때,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중창된 건물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시기의 건물지는 거칠게 치석됐으나 크기가 큰 기단석과 초석을 사용하여 건립한 정면 6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지로, 정면 주간거리가 4.8m로 일정하며 가-2·3건물지의 측면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이 건물지의 서쪽 기단석렬은 대체로 잘 남아있는 상태

이나, 동쪽 기단석렬은 S1E4~N1E4 그리드 내에서 약 14.5m 정도만 잔존하여 노출되었다. 그런데 이후 중창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남북 방향의 적심렬이 동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파괴되고 일부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단석렬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가 - 1건물지 전경 (S→N)

두 번째 시기에는 건물지의 북쪽 부분에 정면 4칸을 확장하여 조영한 건물로서 정면 10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지이다. 이 확장된 부분의 기단석렬은 중간중간에 큰 자연석과 주변 채움석이 물려 있어 마치 초석이 끼어있는 듯한 구성을 보임에 따라 첫 번째 시기의 기단석렬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방형 치석부터 화문이 조각된 석조물의 파편, 자연석 등 여러 종류의 초석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쪽 기단석렬은 확장 부분의 절반 이상이 민가에 의해 파괴된 상황에서도 약 3m 정도 남아있어, 첫 번째 시기와 동일한 측면 규모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시기에는 건물지의 남쪽으로 정면 2칸(주칸거리 4.8m), 동쪽으로 측면 1칸을 확장함으로써 정면 12칸(주칸거리는 4.8~5.4m) 측면 4칸(주칸거리는 3~4m)을 이룬다. 이 정면길이는 약 61m, 측면길이는 약 14m이다. 이 가운데 남쪽에 확장된 부분을 보면, 그 서쪽 기단석렬이 본래 기단석렬의 축에서 50cm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는 앞서 축조된 가 - 3건물지와 거리가 너무 인접해 놓여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서쪽 기단석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서쪽 기단석렬에서 2.2m 거리에 작은 할석으로 이루어진 남북 방향의 석렬이 노출되어 있어 별도 유구 또는 이중 기단 석렬일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대규모 장방형 건물지의 전체적인 윤곽은 잡혔으나, 약 63m에 이르는 연속된 기단석렬상에 몇 동의 건물지가 놓였는지, 건물의 성격은 무엇이며 이를 중심으로 어떤 영역을 구성했는지는 추후 조사지역의 동쪽으로 확장 발굴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좀더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 가 - 2건물지

현재 쌍사자석등지와 마주 보고 있는 남향한 건물지로 최소 한차례의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5칸(주칸거리 약 4.3m) 측면 4칸(주칸거리 어칸 3.7m, 퇴칸 2.7m)으로 정면길이 21.6m, 측면길이 12.2m로 확인되었다. 쌍사자석등지와 관련하여 그 위치가 이 건물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토층상으로도 한차례의 중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 두 유구간의 상관성을 놓고 볼 때 금당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 퇴칸에 사용된 초석은 중심부에 사용된 방형지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거친 자연석을 사용했으며, 정면 기단석렬 뒤인 전면 퇴칸 범위를 10cm 안팎의 작은 할석으로 뒷채움 해주어 중창시 기단토를 보강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단토로 이루어진 서쪽 퇴칸과 어칸 부분에서 마루기와로 추정되는 이형와편들과 음각문전이 출토되었다.

초석으로는 한 변이 80cm 안팎인 방형주좌가 새겨진 지석과 자연석이 사용되었는데, 측면 중앙열의 귀기둥 초석을 제외하고는 초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중앙부 공간을 넓게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퇴칸부 초석 사이에는 고막이가 남아있어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벽체를 구획한 것으로 보인다.

기단석렬은 동·남·북 삼면에 남아있으며 남쪽 기단석렬의 중간 부분부터 상면에 이르기까지는 약 2m 범위 내에 와적층이 집중적으로 깔려 있다. 그런데 이 와적층은 기단석렬 밖에 하면에서 상면에 이르기까지 쌓여 있는데 비해, 가 - 1건물지의 와적층은 일부 범위에서 건물지 안팎에 몰려 기단석렬 상면 위 10cm 높이까지 덮여 있다. 이러한 와적 범위를 통해 볼 때 가 - 2건물지가 가 - 1건물지보다 오래 지속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 2건물지의 기단토 아래로 별도의 와적층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물지 건립되기 전에 이미 다른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가 - 3건물지

가 - 2건물지와 약 40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장방형 건물지로 북향하고 있다. 이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5칸(주칸거리 4.5~5.2m) 측면 2칸(주칸거리 2.6~3m)이며, 정면길이는 23.2m 측면길이는 5.6m이다. 현재 초석은 3기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용도를 알 수 없는 석물이 적심으로 일부 사용되었다.

기단석렬은 네면이 모두 남아있는데, 정면 기단석렬의 중앙부 일부는 이후 건물이 소실되면서 기와가 무너져 내려 파괴되었다. 실제로 이 건물의 정면 기단석렬 밖으로 약 1m 정도의 너비로 와적층이 연이어 노출되었다.

인접해 있는 가 - 4건물지가 석조와 함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이 건물지 내부에서도 맷돌 아래에 받치는 조각으로 사용된 듯한 유구가 적심 및 기단석렬로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주변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부시설로는 'ㄷ' 형으로 돌을 둘러 세운 시설을 볼 수 있는데, 유구가 설치된 부분만 제외하고 주변만 불맞은 흔적이 있어 차를 끓이는 시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설 동쪽에 인접하여 제형 전돌이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지어 노출됨으로써 건물지의 우퇴칸이 다른 실과는 구분되게 고급스럽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 3건물지 전경 (E→W)

#### • 가 - 4건물지

수조 2가 안치된 건물지로 가 - 1건물지의 남쪽에 위치한다. 현재 일부만 조사가 진행된 상태라서 1칸의 규모(동서방향 주칸거리 5.4m, 남북방향 주칸거리 4.6m)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건물지 내에서는 초석 4기와 기단석렬, 고막이가 남아있어 수조가 내부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추후 확장조사를 통해 검토될 부분이다. 이러한 수조의 위치와 전



가 - 4건물지 전경 (S→N)

체 사역 내에서 이 건물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가 - 4건물지는 동향하고 있으며 그 동쪽으로 생활공간인 요사채 영역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가 - 5건물지



가 - 5건물지 전경 (S-N)

가 - 4건물지의 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한 건물지로 현재 일부만 노출되어 있다. 이 건물지의 상부에는 초석 및 고막이로 구성된 최근 민가 유구가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기의 초석은 석등의 상대석을 뒤집어 초석으로 사용하였다.

가 - 5건물지는 수조 2와 함께 명갈색 점토층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형옹편, 반구병 구연부편, 경질토기편, 청자완편, 청

자접시편 등이 건물지 안팎에서 출토되었다. 이 건물지의 기단토로 명갈색 점토층 외에 암갈색 사질 점토층, 일부 범위에 한해 약 3~5cm 정도 다져 쌓인 명갈색 점질토층, 외편이 소량 포함된 암갈색 점토층이 있다. 그 아래로 화재 흔적 또는 재를 간 흔적으로 보이는 재층이 얇게 켜를 이루고 있고, 그 밑에 위치한 황갈색 점토층에서 다른 석렬 일부가 해무리굽완과 함께 출토됨에 따라 또 하나의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부 구역에 대한 내용이므로 건물지의 소실 및 중창과 관련된 건물지 중복 여부는 추후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 石槽 1·2

석조는 승려들이 물을 담아 두거나 곡물을 씻을 때 사용하던 용기로 원형, 팔각형, 장방형 등이 있다. 본 조사구역 내에서는 가 - 1건물지의 동쪽과 남쪽에서 화강석의 통돌을 파서 만든 장방형의 석조 2기가 노출되었다.

석조 1은 통일신라시대의 형태를 계승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깎은 듯 많이 파손된 상태로 그 내부 바닥 부분만 남았다. 그러나 서쪽 정면과 북쪽 측면 일부가 남아있어 여기에 조각된 안상 속 화문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양은 가 - 1건물지의 초석 상면에서도 볼 수 있다.

석조 2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 - 4건물지 안에 위치하며, 그 크기는 장변길이 3.16m, 단변길이 1.43m, 높이 0.82m를 이룬다. 또한 곡면으로 처리된 내부 바닥의 장변길이는 2.5m이고 단변길이는 1.02m이며, 바닥까지 깊이는 0.6m이다. 이 수조의 구연상면 네모서리에는 안쪽으로 연꽃잎이 살짝 말려 있는 듯한 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었고, 구연상면은 양단으로 약 2cm 정도

의 귀집이를 해주어 조형미가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이 네 모서리에 조각된 연꽃잎의 크기는 양변으로 약 30cm, 아래로 약 45cm 정도이며, 석조의 두께는 12.5cm이다. 또한 밑바닥 중앙부에는 지름 7.5cm의 원형 배수구가 뚫려있고, 그 앞쪽 수조 외면에는 폭 1m인 할석균이 둥글게 채워져 있어, 석조에서 나오는 물을 분산시켜 주는 완충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석조는 당시 사찰의 규모를 알려주는 좋은 유물이며, 이 석조가 노출된 지역에서 시내쪽으로 생활공간이 형성됐을 것이고, 배수로 시설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유물

### • 기와류

막새류는 연화문·귀목문 수막새와 당초문·인동당초문·초엽문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가-2건물지 밖과 석등지 주변인 탐색트렌치 3-②에서만 귀목문 수막새가 몇 점 출토되었고, 나머지 막새류는 전 조사범위에 걸쳐 두루 출토되었다.

명문와로는 '高達寺[瓦]', '丁巳生', '祖十口七 太戶子十口', '寺天', '仁' 자가 적힌 평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高達寺[瓦]' 명 명문와는 3종류가 출토되었는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음각 또는 양각되어 표현됨에 따라 건물지별로 사용했던 기와가 달랐거나 최소 3차례에 걸친 지붕 중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탐색트렌치 3-③에서는 여러 종류의 막새류들과 함께 '瓦(?)匠不懷記 正面傳 崇崇福口禪 真心千神聚口' 명 명문이 음각된 암막새편이 출토되어 건물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高達寺' 명문와편

이밖에 가 - 2건물지 내부의 정면 어칸과 서쪽 퇴칸에서 마루기와로 추정되는 다량의 이형와편들이 출토되어 눈길을 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철물 등으로 와편을 부착시키려고 덧댄듯 약 지름 3cm 정도 되는 원형 흔적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방형구멍이 뚫려 있는 점이 특이하다.

평기와는 문양에 따라 선조문, 격자문, 사격자문, 어골문, 복합문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수기와 의 경우 유단식과 무단식 2종류가 모두 출토되었다.

#### • 전류

조사구역 내에서 출토된 전은 건물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형태에 따라 방형전, 장방형전, 제형전으로 나눌 수 있다. 방형전의 경우 가 - 2건물지 안팎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면에 여러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또한 장방형전은 가 - 1건물지 안에서 출토되었으나 바닥에 깔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할석과 함께 적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전 건물지에 사용되던 전이 폐기되면서 적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형전은 가 - 3건물지의 초석간 중심선에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지어 노출됨에 따라 우퇴간을 협간과 별도로 구분해 주는 하부 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방형전은 가 - 2건물지 내와 가 - 1담장석렬 주변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면에 음각문이 새겨져 있다.

#### • 토기 및 도기류



막새류

토기는 가 - 1건물지 안에서 일부 회백색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을 뿐, 조사지역 대부분 회청색 또는 회흑색의 고려시대 경질토기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기종은 호, 병류가 주종을 이룬다.

주목할 부분은 탐색트렌치 1의 남쪽 단벽에 인접하여 노출된 선대유구 하층에서 8세기대 토기로 보이는 인화문토기편이 2점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문헌에서 나오는 기록과 부합되는 유구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유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가 - 3·5건물지 안에서는 반구병 구연부편도 몇 점 출토되었고, 탐색트렌치 3-④ 내에서도 쌍사자석등지 지대석에 인접하여 토기

병 3점이 함께 묻혔는데, 이 가운데 1점은 구연부를 외편으로 덮은 채로 출토됨에 따라 원형과 제품의 쓰임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흑유도기편은 주로 가 - 2축대석렬 안에서 출토되었다.

#### • 자기류

출토된 자기류 중에는 건물지와 관련해서 청자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후대 민가 유구가 포함된 층에서는 백자편이 주류를 이루었다. 분청사기는 지난 3차 시굴조사시 초석 상부가 노출된 정도에서 조사가 종료됐던 가 - 2건물지와 이번 조사에서 가 - 1담장석렬, 가 - 2축대 안팎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을 뿐, 다른 건물지에서는 소량의 편만 출토되었다.

청자는 순청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기종은 완, 잔, 접시, 대접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해무리굽완은 소량 출토되었으며, 여러 형태의 화형 청자접시편과 청자상감팔각접시편이 출토되었고, 청자잔탁편과 매병뚜껑편도 여러 점 출토되었다. 실제로 가 - 1건물지의 남쪽 부분에서는 유약이 입혀지지 않은 채 구워진 매병 동체부편이 출토되었고, 가 - 3·4·5건물지 안팎에서는 순청자완편·연화문압인양각청자대접·청자뚜껑편 등 여러 종류의 청자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외에 압인양각모란문청자편과 어문백자편 등 중국 자기편 3점과 고려백자편도 일부 출토되었다. 이번에 출토된 자기편 가운데 명문이 새겨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굽바닥에 '三' 자명이



귀꽃편



경질토기편, 매병편 외



청자완 외 각종 청자편

시문된 분청사기편 2점과 시기가 떨어지는 壽 자명 백자편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 • 금속유물



철마

철제유물은 대부분 철정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문고리, 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가 - 2건물지 정면 기단열 밖에서 철마 2점이 나왔다. 이 가운데 철마는 말의 모양에 가깝게 주조된 것으로, 몸체의 단면은 'U' 자형에 가깝고 부식으로 인해 등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안장과 꼬리가 부분적 확인되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단토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진단 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철마 출토 사례는 안압지, 이성산성, 거둔사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둔사지의 경우 한구덩이에서 50여 점에 가깝게 출토되었다<sup>1)</sup>.

청동제 유물로는 청동수저와 청동편들이 가 - 1건물지의 안팎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동전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가 - 1건물지 남쪽 기단석렬 밖에서 출토된 '元豐通寶'로 元豐은 宋나라 神宗代 연호로 1078년~1085년까지 8년간이다. 다른 하나는 '常平通寶'로 가 - 1축대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 마) 조사성과

고달사지 4차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축대, 담장지, 석조 등이 발굴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들을 토대로 조사성과 및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에 부합되는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차 발굴조사 결과 15여 동의 건물들이 모두 10세기 말 이후의 건물지들로 조사됨에 따라 문헌에서 보이는 고달사지의 초창기(8세기)와 사세확장기(9~10세기)대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지역에서 8세기 이후부터 12세기에 걸쳐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초창가람의 권역이 현 조사구역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가람 배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둘째, 건물지간 위치 관계 및 동선 처리, 석조물은 각 영역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 한림대학교박물관·원주시, 2000, 『거둔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pp.190~196, pp.377~380.

우선 축대와 가 - 1담장석렬, 계단지로 구성된 영역은 사찰 내외와 사찰 내 각 영역간의 동선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전이공간으로 작용한다. 다음 가 - 1·2·3건물지 및 이로 둘러싸인 마당은 조용한 예배 공간 및 수행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 - 4건물지는 수조와 함께 그 동쪽 영역으로 생활 공간인 요사채 영역과 배수시설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조사구역의 동쪽 전면에 대형건물지가 노출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역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추후 확장된 사역과 가람 배치에 대한 조사 및 해석이 요구된다.

#### 4) 평택 현곡 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가) 위 치 :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산 21-3번지 일원 35,200㎡ (약10,600여평)

나) 조사기간 : 2003년 7월 15일~2004년 현재진행중(2003년 지도위원회의 기준)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및 고려시대

라) 조사내용

현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사전조사로서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001년 10월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우리 연구원에서 2003년 3~4월에 걸쳐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결과 조사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건물지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형태와 무문토기류, 마세석기류 등 출토유물로 볼 때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택 지역의 청동기 문화상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또한 시굴대상 지역 외에 주변지역으로 유구가 계속 연장되어 원래 지형이 잔존하는 구릉전체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이나 여기서는 2003년도 조사자료를 위주로 수록하였다.

유구의 전체 출토범위와 퇴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지역을 4지역으로 구분하여 제토를 실시하는 한편, 유적의 전체층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동~서 토층과 전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토층독을 남겨 유적의 퇴적상황을 확인하였다.

1지역은 유적의 가장 북쪽 구릉지로 면적은 11,353㎡(3,400여평)이다. 이곳은 벌목과 민묘 등의 이장으로 원지형의 훼손이 심하며 제토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2지역은 동서의 가운데 위치한 구릉으로 1·3지역과 계곡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으며 면적은 11,417㎡(3,460여평)로 많은 부분 지형이 파괴된 상태였다. 3지역은 유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구릉지로 면적은 8,982㎡(2,720여평)이다. 북사면은 지형이 잘 보존되었으나, 남사면은 小路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 지형이 훼손되었다.

4지역은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1,200㎡(360여평)이다. 2지역과 능선이 연결되나 밭으로 이용되어 퇴적층이 대부분 삭평된 상태로 2지역과 구분하였다.

#### 유구

##### •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고토양층은 각 지역 구릉 경사면이 끝나는 곳과 계곡부를 중심으로 퇴적되어 있다.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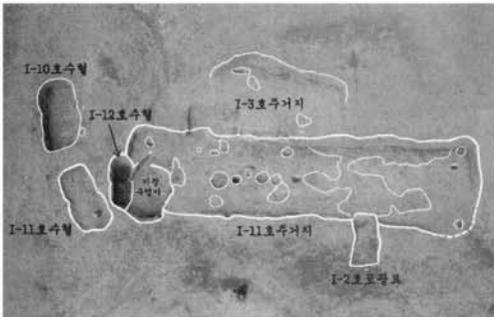
인된 층위는 표토 아래로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토양썰기층이 확인된다. 깊이는 약 100cm로 그다지 두터운 양상은 보이지 않으나 층위가 안정되어 있다.

1·2지역 계곡부 고토양층 상면에서는 외래 암질의 돌날석기 1점이 제토과정 중 출토되어 주목되며, 주변으로 여러면 석기 등 일

부 석영제 석기 등도 출토된다. 따라서 계곡부를 중심으로 한 주변 평탄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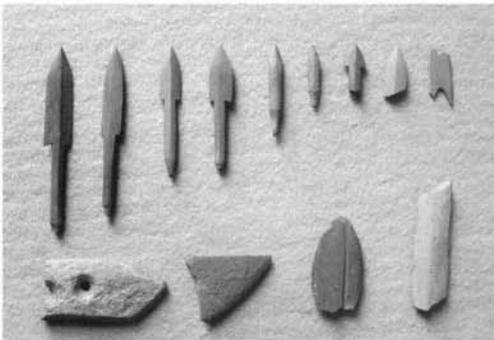
조사지역 원경



1-11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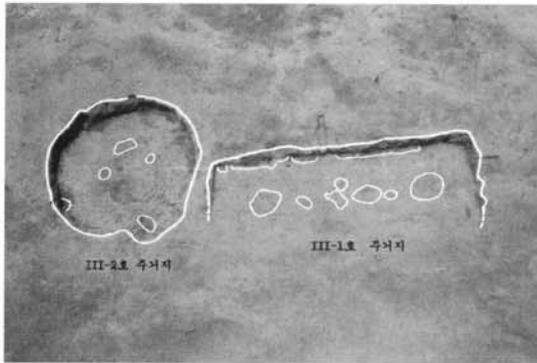


2-1호 주거지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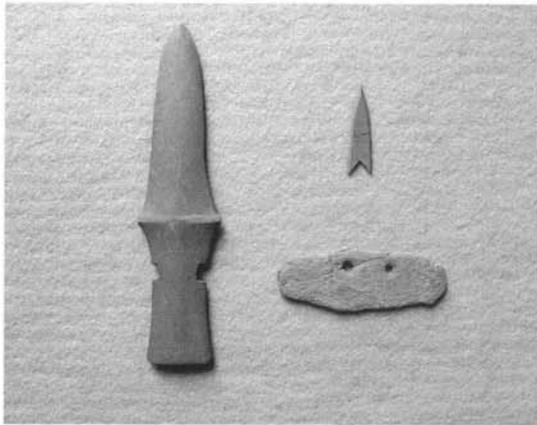


2-1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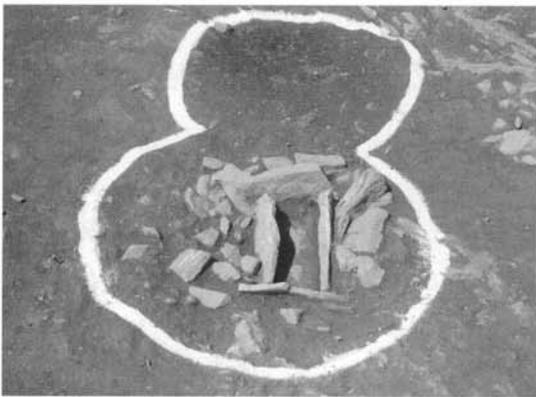
• 청동기 시대



3-1, 2호 주거지



3-4호 주거지 출토 석기



2지역 석관묘

현재까지 1·2·3지역 제토결과 청동기 시대 유구는 주거지 50기, 구덩이(竪穴) 30여기, 토광묘 4기, 민묘(회곽묘 포함) 10여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어, 1지역에서부터 내부조사를 실시 중이다.

유구가 확인되는 면적이 10,000여평에 이르며 유구의 밀집도도 높은 편이다. 이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구릉지에도 유구가 잔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주거지는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하고 세장방형·장방형·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으며, 세장방형 형태가 좀더 높은 비율로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주거지의 특징은 장축 남북방향으로 구릉 사면에 'L'자형 굴토를 하여 축조하였다. 내부에서는 무시설식 노지가 2~3개가 확인되며, 바닥 또한 별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벽체에 보강한 흔적(점토를 덧댐)이 확인되며, 특히 1-7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다른 주거지와 달리 벽체에 인접하여 구 시설을 하여 주목된다.

출토된 토기는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공렬+구순각목의 심발형과 호류가 주류를 이루며, 퇴화된 이중구연토기와 붉은간토기도 몇점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돌도끼, 돌끌, 반월형석도,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흙자귀), 화살촉(무경식, 일·이단 병식 포함) 등 다양한 마제석기류가 출토되었다.

2지역 정상부에서는 소형 석관묘가 1기 출토되었다. 크기는 36×27cm로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석관묘 중 가장 소형으로 추정된다. 석관묘 주변으로 편마암 계통의 소형 돌들을 주변에 깔아 보강하였으며, 북쪽으로 불맞은 자리가 같이 확인된다.

특히 석관묘 내부와 불맞은 자리에서 인골편들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현재 골편의 부위동정과 성별·연령 등에 대한 분석을 동아대학교 김재현교수에게 의뢰하여 분석중이다.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출토된 인골은 四肢骨(ossa membri)로 확인되며, 골편의 피질(substantia corticalis) 표면에서 균열이 확인되어 火葬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면은 백색의 석회질을 띠고 있는 것은 700~800℃ 내외의 열이 가해진 결과이다. 이로 미루어 불매 화장은 노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화장골은 석관묘 바로 인접한 북쪽에서도 골편과 함께 灰痕이 함께 확인되어 석관묘 주위에서 화장하여 바로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四肢骨(ossa membri)의 두께가 불에 의해 다소 축소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4mm 이상인 점으로 미루어 성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석관묘와 같은 초소형의 것은 경남 남강유적의 경남대학교박물관 조사지역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다. 이 석관은 길이와 폭이 80×25cm의 석관인데 내부에서 5세 전후의 소兒가 매장된 경우여서 이번 1호 석관묘의 경우처럼 成人 火葬骨이 매장된 것은 청동기시대 장송례에서는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인골 분석결과에 의해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장송사례에 새로운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2동과 토광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1·2지역에 걸쳐 동쪽 평탄지를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적심과 초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기단석 일부와 배수로, 석축렬 등이 확인된다. 근래에 지형의 삭평과 민묘의 이장 등으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이나, 확인된 건물지의 범위에 비해 기와류가 다수 출토되어 원래 상당히 큰 건물지가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제토작업중인 4지역 주변으로 기와류와 토·자기류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에도 동 시기 유구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토광묘는 1지역에서 조선시대 2기가 확인되었다. 1-2호 토광묘는 타원형의 평면에 분청박지모란당초문접시와 인화문 대접, 청동시저, 철제관정 등이 출토되었으며, 1-3호 토광묘에서는 청동합·청동경·청동곳과 도기병이 공방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외에도 회곽묘가 여러 기 확인되었으나, 이미 이장되어 훼손된 상태이다.

### 마) 조사성과

우리 연구원에서 2003년 7월부터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50여 기, 구덩이 30여기, 석관묘,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토광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청동기 시대 주거지의 형태와 출토유물로 볼 때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평택 지역을 포함한 경기지역의 청동기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또한 구릉의 계곡부와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는 고토양층이 넓게 분포되고 있어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2지역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된 소형 석관묘(36×27cm)는 크기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남한지역의 석관묘 중 가장 작은 형태이다. 특히 내부에서 성인의 火葬甕이 출토된 것은 청동기시대 장송례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이후의 인골 분석결과에 따라 청동기시대 장례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기대된다.

선사유적 외에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토광묘는 유구의 훼손은 심한 편이나, 건물지는 출토된 어골문 기와류와 청자편들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로 편년될 수 있다. 조선시대 토광묘는 내부에서 분청사기와 청동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 5) 華城 地方産業團地內 東鶴山遺蹟 發掘調査

-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반월리 일원 동학산
- 나) 조사기간 : 2003년 3월 19일 ~ 2003년 10월 31일(이후 기간 연장)
- 다) 시 대 : 신석기시대 ~ 조선시대
- 라) 조사내용

동학산 유적은 화성 지방산업단지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중 확인된 유적이다. 1998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이 행한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어 2000년 상반기에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에서는 동학산 정상부의 능선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환호 등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谷間部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치는 건물지 유구가 확인되어 전면 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1차 지도위원 회의 당시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32기, 3중 환호, 수혈유구 9기, 도랑유구, 중세 건물지 5기, 중세 분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구의 중복관계 등에 의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2003년도 10월 지도위원회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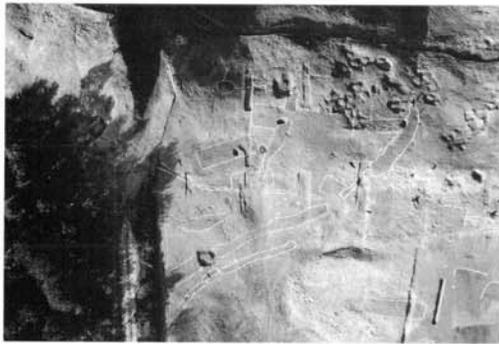
### 유구

#### • 주거지

백제시대 주거지 1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거지가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A지구에서 6기, B·D지구에서 26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주거지의 대부분은 구릉 정상부나 그 바로 아래의 사면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규모는 4~13m 정도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많으나 세장방형도 다수를 차지한다. 아직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지의 정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지만 출토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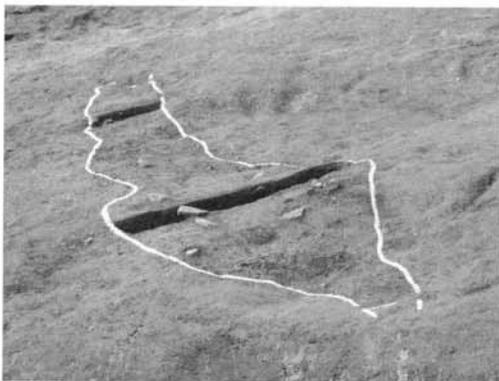
A지구의 백제시대 주거지는 침식으로 인해 주거지 단면이 노출된 상태로 상부에 조선시대 유물이 분포하고 있어 윤곽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규모나 성격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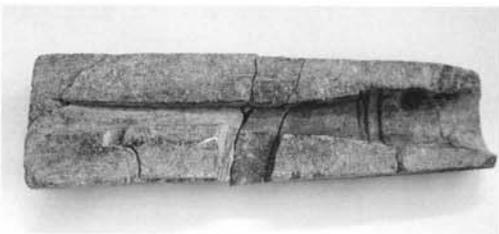
B지구 남쪽 세부 전경



B지구 북편 세부전경



D지구 환호 전경



D지구 환호 출토 용범

#### • 환호 및 구

환호는 기존 시굴조사에서 현재 존치지구인 C지구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조사 결과 B·D 지구에서도 3중 환호가 확인되었다. B·D지구의 환호는 중간 중간 침식으로 끊어지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장축의 길이는 80m 정도이다. 환호는 능선부에 축조된 주거지를 파괴하고 지나가는데 환호 내부에는 6기의 주거지가 존재하나 환호와의 관련성 여부는 불분명하다. 3중으로 된 각 환호는 모두 출입구가 존재하는데, 출입구 근처에 넓게 분포하는 흑색토에서 용범이 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용범은 나무 이식과정에서 굴삭기로 한번 퍼 놓은 흙속에서 출토되었는데 출토지점이 환호와 주거지가 중복되는 지점으로 나머지 1개체가 유구 내부에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범 출토지 주변은 흑색 부식토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점토대토기와 석렬 등의 존재로 보아 현재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유구의 바닥부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D지구의 환호 가운데 3중으로 된 부분은 현재 도로를 포함하는 E지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트렌치 단면에서 보이는데, 어느 부분까지 3중을 유지하는지는 좀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지구 북단에서 확인된 환호는 기존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C지구의 환호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B·D지구의 환호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출토유물로

보아 B·D지구의 환호와 시기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지구에서 확인되는 구는 비록 폭이 매우 좁기는 하지만 등고선과 평행하다는 점에서 자연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부에서도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이와 관련된 유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 • 수혈유구

A지구에서 5기, B·D지구에서 4기가 확인되었다. A지구의 것은 1기는 저장공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는 아직 성격을 알 수 없다. B·D 지구의 수혈유구는 내부에서 점토대토기가 대부분 출토되고 있고, 일부는 바닥면에 소토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수혈의 규모는 모두 3m 이내이다.

#### • 건물지

건물지는 A 지구의 곡간부 사면에 주로 분포한다. 규모는 20m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중형 건물지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3~4m의 소형 건물지이다. 아직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지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자기 및 기와 등의 유물로 볼 때 고려 중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장시간 이용되었던 건물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 유물

이번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건물지 주변에서 확인되는 기와류 및 자기류가 있고,



A·B지구 수습 석기



A·B지구 수습 석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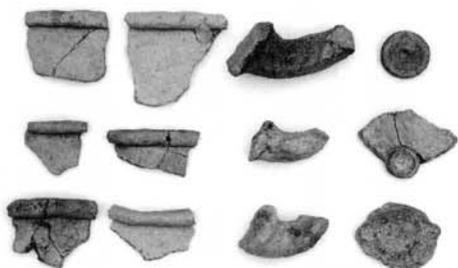
B지구 수습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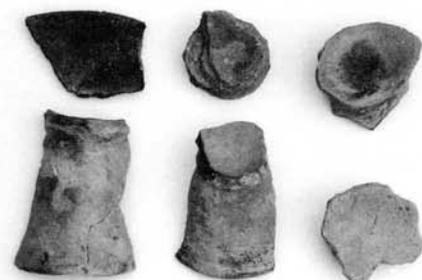
B지구 수습 토기



B·C지구 수습 석기



B지구 수습 토기



B·D지구 수습 토기



A지구 수습 기와

조사지역 전체에서 청동기시대 관련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구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지표수습 및 표토 제거과정에서 수습된 것으로 유구와 직접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구릉 정상부에서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B지구에서 간헐적으로 수습되는 상태이다. 석기류는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석기가 수습되었으며, 환호와 관련하여서는 끌용범 및 삼각형 석촉,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고배 등이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 끌용범은 우리나라에서 출토 예가 드문 것으로 향후 조사 진행에 따라 관련 공방 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 가운데 점토대토기 바닥을 하고 있으면서 내면 바닥에 돌출부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기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출토 예가 없는 것으로 광주 신창동 출토 목기 가운데 4절판과 그 형태가 닮은 면이 있다.

#### 마) 조사 성과

동학산유적은 시굴조사에서도 예상되었듯이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시기에 걸쳐 사람들이 점유한 대규모 복합유적임이 밝혀졌다. B·D지구에서 확인된 환호 유구는 중부 지방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것으로 C지구의 환호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B지구에서 출토된 용범은 우리나라에서 출토 예가 희박한 유물로 청동기시대 금속기 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고학 자료를 제공하였다.

## 6) 화성 발안택지개발지구내 발안리 마을유적

가) 위 치 : 화성시 향남면 기안리·제암리 일원

나) 조사기간 : 2002년 3월 4일 ~ 2004년 2월 6일

다) 시 대 : 원삼국~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라) 조사내용

발안리 유적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2000년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유물산포지 1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2001년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4-1田 일대 41,602㎡(12,600餘坪)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업지역 경계부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동년 8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북쪽지역 17,717㎡(5,365坪)를 포함한 59,319㎡(17,960餘坪)에 대한 추가 및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중앙부 노지와 온돌 등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 주거지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대한주택공사 측에 권유하고, 경작 등에 의해 삭평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한 여타지역 41,610㎡(12,600餘坪)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백제시대의 수혈주거지 56동, 溝 54기, 굴립주건물 30동, 소형수혈, 옹관묘 4기, 야외노지 5개소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민묘 등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 유구

#### • 주거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凸자형과장방형·방형이 주류이며 오각형도 소수 확인된다.凸자형과장방형의 경우는 출입구에서 내부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削平 정도에 따라 출입구 존재유무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凸자형과장방형을 구분하기 곤란하다.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6m의 소형과 장축 11m 정도의 대형이 있는데凸자형과장방형, 오각형 등 규모 및 평면형태와 토기조합상의 차이는 일률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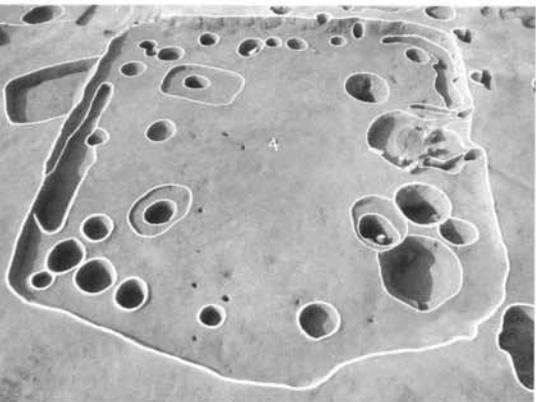
凸자형주거지는 노지만 단독설치된 것과 부뚜막과 공존하거나 부뚜막만 설치된 것으로 구분된다. 단독노지의 경우 5호 주거지는 출입구쪽 단벽이 둔각을 이루면서 꺾이고 있는데 주거지 내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만 출토되고 있다. 비록 유물 출토량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34호 등 다른 주거



21號 住居址 全景



11號 住居址 L字形 부뚜막



26號 住居址 全景

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부뚜막과 공존하는 경우는 역시 중도식무문토기와 함께 타날문의 원저단경호류가 출토되는 등 단독노지의 주거지와 구별된다. 부뚜막만 설치된 경우는 대부분 백제토기만 출토되며 대체적으로 늦은 시기로 편년된다.

오각형주거지는 대부분 잔존깊이가 얇아 출입구의 유무를 기늠하기 어려우며 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출토유물은 30호를 제외하곤 중도식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예는 거의 없고 백제토기가 대부분이다. 단독노지인 3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뚜막만 설치되며 51호의 경우 연도부를 비롯한 배연시설이 북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장방형주거지의 경우 출입구의 평면형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凸자형과의 구분이 쉽지는 않다. 일단 확인가능한 부분에 국한해서 보면 노지가 설치되고, 중도식무문토기만 출토되는 24호 주거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부뚜막이 설치되고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방형주거지의 경우는 출입구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란과 훼손이 심하여 잔존깊이가 얇고 평면형태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체로 노지는 없고 부뚜막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주거지를 노지와 부뚜막, L자형 부뚜막시설의 상관관계에 따라 세분하여 보면 ① 노지만 있는 것, ② 爐址와 부뚜막이 共存하는 것, ③ 爐址와 L字形 부뚜막이 共存하

는 것, ④ 부뚜막만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爐址는 대체적으로 住居址의 正中央에서 내벽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한다. 축조방법에 따라 외곽에 粘土띠를 일부 돌리고 내부는 약간 굴토된 것(粘土띠式), 점토띠가 없고 板石 2~3枚를 깔 것(板石式), 또 粘土띠의 有無와 관계없이 북쪽의 내벽쪽 끝단에 板石 혹은 납작한 냇돌을 세워 불막이를 한 것(불막이式), 그리고 아무 시설 없이 燒土範圍만 확인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單獨爐址 住居址는 대부분 凸字形住居址이며 中島式無文土器만 출토되고 있다. 3호 住居址는 五角形의 평면형태에 板石式 爐址를 가지며 長卵形土器와 내부 貯藏穴에서 瓶 등이 出土되었다.

2) 爐址와 부뚜막이 共存하는 주거지는 14호, 18호 등 凸字形住居址이다. 出土遺物은 中島式無文土器만 出土된 14호에 비해 中島式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가 共存하는 18호 주거지는 규모가 다소 크다. 이 때 爐址의 형태는 粘土띠를 돌린 유형에서 활개가 주거지 出入口방면으로 열리거나 粘土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燒結된 부분만 잔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3) 爐址와 L字形 부뚜막이 共存하는 주거지는 1호, 11호, 19호, 52호로 平面形態는 凸字形이다. 1호를 제외하면 길이 9m 정도로 비교적 大形에 속한다. 1호 주거지는 북동모서리에 부뚜막처럼 양쪽에 긴돌로 軸을 세운 뒤, 그 위에 板石을 덮은 다음 粘土를 씌워 아궁이를 만들고 L字狀으로 불고래가 벽을 따라 출입구 우측단벽에서 외부로 排煙되는 형태이다. 벽과 나란히 진행되는 燃道部는 粘土를 다져서 두 軸을 築造하였는데 바깥부분은 주거지 벽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두 줄의 帶狀의 燃道部 上部에는 硬化된 燒結土壤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燃道部의 끝부분에서 많은 木炭이 확인되고 있어 漢沙里 漢陽大 1호 住居址처럼 통나무굴뚝을 통해 외부로 排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호와 19호 주거지는 東壁의 中央에 아궁이를 설치하였으며 中島式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가 共存되고 있는데 爐址와 부뚜막이 함께 축조된 18호 住居址도 동일한 유물출토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호 주거지의 경우는 역시 L字形 부뚜막이 주거지 東壁을 따라 진행되다 南東모서리에서 밖으로 排煙되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1호 住居址와 같이 中島式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가 共存되며 長胴의 圓底短頸壺가 출토되었다. 5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와 근접위치하며 중도식무문 토기만 출토되고 있다.

4) 부뚜막만 설치된 주거지는 현재까지 20여기에 이른다 平面 凸字形, 長方形, 五角形 등 모든 住居形態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출토유물은 中島式無文土器만 출토된 30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百濟土器만 出土되고 있다. 또한 石材를 이용하여 軸을 조성한 것과 粘土만으로 軸을 조성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粘土로 시설되어 있다. 28호 주거지의 경우는 板石材로 기초를 세운 후 粘土를 발라 부뚜막을 축조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뚜막의 위치가 북단벽(I 류), 동장벽(II 류), 북동모서리

(Ⅲ류), 동남모서리(Ⅳ류)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면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類: 북단벽에 부뚜막이 위치하는 경우가 9기로 가장 많다. 51호 주거지는 攪亂으로 平面形態가 불명확하나 잔존상태로 보아 五角形으로 추정된다. 북단벽방향으로 粘土를 다져 軸을 만들고 아궁이에서 솔받침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동쪽으로 燃道部를 만들어 住居址 外部로 排煙하고 있다. 20호 주거지는 출입구 일부가 교란되었으나 장방형으로 북단벽에 粘土띠로 시설한 부뚜막이 존재한다. 대부분 대형의 長方形住居址에 설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Ⅱ류: 동장벽에 부뚜막이 위치하는 경우는 一字形으로 수혈 바깥으로 排煙된다. 石材를 이용하여 기본 軸을 세우고 粘土를 발라 外形을 만든 28호 주거지의 부뚜막은 상부의 폭이 15cm 정도로 다소 좁은 형태이나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다소 넓어진다. 주거지 내부에서 수혈바깥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排煙되고 있다. 五角形인 26호 住居址는 동쪽으로 粘土를 이용, 軸을 설치하고 있으며 13호 주거지에서도 역시 粘土를 이용한 부뚜막시설이 확인된다. 26호 주거지는 부뚜막 아궁이 火口部를 둘러싼 半月모양의 竪穴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궁이의 火氣가 住居址 內로 번지는 것을 막거나 불을 지필 때의 자모양으로 발을 놓을 수 있는 用途가 複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류: 북동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예는 5기이다. 30호와 50호 住居址는 打捺文土器가 出土되며 燒土만이 부뚜막의 흔적을 보여줄 뿐 陷沒되어 상부에서 정확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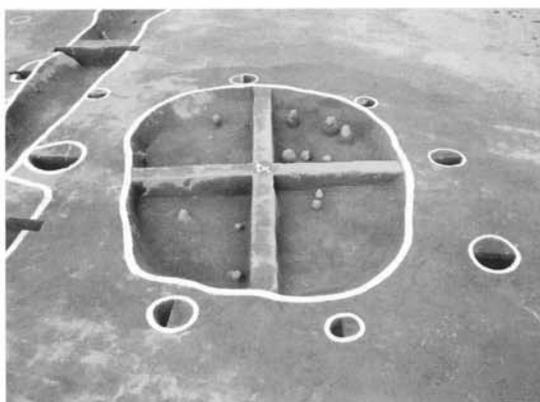
Ⅳ류: 동남모서리 출입구부분에 부뚜막이 위치하는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다. 35호 住居址는 出入口부분이 교란되어 出入口 有無를 확인하기 어려운 長方形住居址인데 출입구 방향으로 추정되는 남쪽 수혈벽에 연해서 다소 폭이 넓게 부뚜막이 설치되고 있다. 48호 주거지는 방형주거지로 출입구는 보이지 않으며 부뚜막 대부분이 거의 함몰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 • 住居址 附屬柱穴

住居址 內에는 上部構造를 지탱하기 위한 木柱가 위치한 柱穴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수혈벽면을 따라 위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혈벽면내의 柱穴외에도 26, 28, 29호 住居址의 경우는 주거지 내부에 큰 柱穴 4개가 위치하는 4柱式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3기가 밀집분포하고 있어 거의 同時期의 遺構일 가능성이 높으며 모두 부뚜막만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주거지 平面 長方形보다 크고 세장한 長軸 11~12m의 22호·27호 住居址의 경우에는 內部柱穴과 아울러 주거지 장벽을 따라 外部에 柱穴이 5~6개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거지 양상과는 다른 上部構造를 상정해 볼 수 있다.

### • 小型竪穴

竪穴은 주로 住居址와 住居址 사이, 혹은 이와 연결되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住居址와 관련된 附屬施設로 추정된다. 형태는 圓形, 方形, 橢圓形, 長方形, 不定形 등 다양하며 규모는 2~3m 내외가 대부분이고, 4~5m의 大形에 속하는 것도 확인되고 있으나 내부에 爐址 등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 없는 遺構를 통칭하였다. 확인된 수혈 중 주위에 연결하여 柱孔이 둘러진 11호가 특이하며, 木炭과 粘土, 土器片 등이 퇴



11號 竪穴 全景

적된 82호 竪穴의 경우 가마일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하였으나 壁體片으로 볼만한 시설물이 없고 평단면에서도 다짐부분 보다는 단순 토기 퇴적양상이 많아 廢棄場일 가능성도 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수혈의 경우는 外部貯藏施設일 가능성이 있는데 13호, 45호 竪穴의 경우 내부에서 打捺文圓底短頸壺가 完形 個體分으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65호 竪穴의 경우 단면 플라스크형으로 내부에서 打捺文土器 및 碗이 출토되었으며, 거의 연결되어 있는 26호 住居址의 附屬施設일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圓形 또는 橢圓形의 平面形態를 가지지만 81호 竪穴처럼 平面 長方形의 형태로 내부에 長方形 石材 2枚만 퇴적토상에 함몰되어 있을 뿐 기타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72호 竪穴과 115호 竪穴은 거의 직교하듯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평면 장방형에 잔존깊이도 1m 내외로 깊은 데에 비해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71호 수혈과 114호 수혈은 中島式無文土器 深鉢 3~4개체분이 直置, 또는 倒置된 상태로 거의 완형을 이루며 소결된 점토와 석재가 아울러 출토되었는데 잔존깊이는 20cm 내외로 대체로 얇다.

102호는 지름 1m 내외의 圓形竪穴로 내부에서 鳥足文土器 短頸壺 口緣 및 胴體部片이 출토되었는데 주변엔 竪穴 및 柱穴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 • 溝

확인된 溝는 총 54기이다. 규모 및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마을내 공간의 分割 및 외부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環壕와 같은 성격의 溝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총 3조가 발견되었다. 동서방향으로 진행하는 2호와 남북방향으로 진행하는 1호 溝가 한 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두 溝의 사이에는 出入口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추정 出入口의 폭은 약



1·2號溝全景

6.5m이다. 조사 전 遺構는 폐기물 매립을 위한 포크레인 작업으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바닥면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단면 U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최대 폭 약 1.7m, 최대깊이 약 0.5m이다. 다음으로 동서방향으로 진행되는 3호·4호와 남북방향으로 진행되는 7호溝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 4호와 7호 사이에는 폭 4m의 出入口가 마련되어 있고 단면 U자형을 하고 있으며, 최대폭은 약 2.4m, 최대 깊이는 약

0.35m 정도로 비교적 얇다.

한편 4호溝의 외곽에서는 지름 약 50cm의 수혈 4기가 等間隔으로 발견되었다. 내부에는 木炭이 함유된 黑褐色 腐植土層이 가득 차 있었다. 또한 동서방향으로 弧形을 이루며 길게 진행되는 5호와 남북방향으로 진행되는 8호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 단면 U자형으로 최대폭은 약 1.5m, 잔존깊이는 약 0.35m 정도이다. 出入口의 폭은 비교적 좁은 편으로 약 2.2m이다.

이들 3조의溝의 先後關係는 4호를 파고 造營된 1·2호가 늦은 시기이고, 나머지 2조는 出入口쪽의 배치상태가 定形性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同一時期로 추정된다. 다만 중복된 1·2호와 나머지溝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약간의 시기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3호, 27호, 30호와 같은 大形溝를 보면, 특별한 定形性은 없으며, 斷面形態는 완만한 U자형을 띠고 있다. 27호와 30호는 유적의 남동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조사지역 밖으로 연장된다. 내부에서는 中島式無文土器 및 灰青色硬質土器片이 발견되었으나 遺構의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中小形의溝狀遺構가 있는데 특별한 지역적인 분포 특성 없이 住居空間에 不定形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따라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遺構의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도 빈약한 편이다.

다음으로 住居址 및 掘立柱建物の 외곽을 감싸고 있는溝가 있다. 이것은 내부시설물을 보호하거나 우천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곽에 等間隔을 두고 施設한 것이다. 단독적인 기능보다는 建物址 및 住居址와 결합된 補助施設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6호溝를 보면 북쪽 끝단이 단절되어 全貌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최대폭 1m, 최대깊이 10cm 정도이다. 진행방향으로 보아 5호와의 관련성보다는 9호와 10호 掘立柱建物과 관련된 空間分

劃의 施設로 추정된다.

• 掘立柱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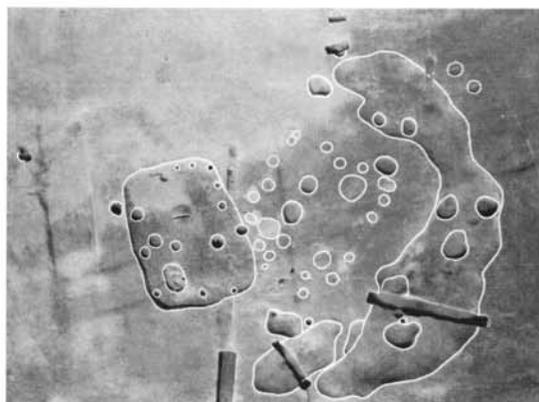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총 30棟의 掘立柱建물이 발견되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1間×1間の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으며 9호와 같이 方形의 區劃내에 柱孔을 밀집되게 설치하고 주위에 溝를 돌린 특수구조의 掘立柱建物도 발견되었다. 柱孔내의 木柱는 모두 부식되어 木質이 부식된 흔적만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구조 및 평면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間×1間の 掘立柱建물은 주로 한변 2m 내외의 方形으로 溝의 외곽에 인접하여 발견된다. 환호취락에서 많이 발견되는 望樓 施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長方形인 17호와 柱間距離가 한변 3m 이상인 20호의 경우는 5호 大形溝의 내측에 밀집된 住居址 群에 위치하고 있고 13, 14호 掘立柱建물의 내부에서는 竪穴遺構와 함께 다량의 토기편이 발견되어 望樓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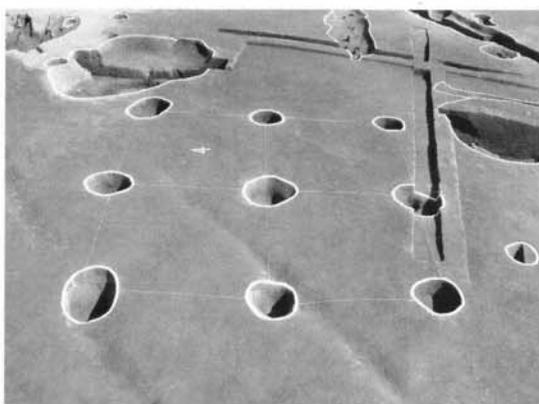
둘째, 1호, 12호와 같이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장시설인 倉庫로 추정된다. 1호는 1間×2間, 12호는 1間×3間이다.

셋째, 2호, 15호, 16호, 23호와 같이 2間×2間, 혹은 1間×2間の 方形掘立柱建物이다. 한변 5m 내외의 비교적 큰 규모이며, 2호와 같이 중앙에 직경 2m의 竪穴이 부속된 경우와 주거지 사이 혹은 15, 16호와 같이 溝에 의해 둘러싸인 외부와 분리된 경우도 있다. 구조 및 분포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倉庫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형 掘立柱建物이다. 19호는 3間×3間 方形에 1間×2間の 梯形建물이 결합된 것이며, 22호는 4間×5間の 외곽주공열의 양단벽을 따라 내부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공열이 배



9號 掘立柱建物 · 30號 溝狀遺構 配置狀態



29號 掘立柱建物 全景

지된 것이다. 掘立柱建物 중 9호 掘立柱建物は 장축이 남북방향이며 柱孔깊이 60cm, 한변 6m 정도의 대형으로 북동쪽 외곽으로는 최대폭 4.4m의 넓은 30호 溝가 감싸고 있다. 溝는 掘立柱建物 내부 공간의 區劃 및 외부와의 隔離 등 상징적인 의미로 시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溝의 동쪽내부에서는 長卵形土器, 灰青色硬質土器片 등 주로 일상용기들이 溝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0cm 정도 떠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 • 甕棺墓

대규모의 마을유적에서는 주로 生活遺構가 밀집, 분포되어 있을 뿐 埋葬遺構는 확인된 예가 드물다. 이 경우 별도의 매장지역이 상정되는데 發安里 마을유적과 관련된 埋葬地域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漢沙里 高麗大 B지구에서 合口式 甕棺 1기가 조사된 바 있는데 본 유적에서도 주거지에 인접하여 4기의 甕棺이 확인되었다. 이 중 2호 甕棺墓는 打捺文土器 2개를 合口한 형태로 남동~북서향을 하고 있다. 상부는 파괴되었고 하부 1/2부분만이 조사되었으며 길이는 50~60cm 내외의 소규모이다.

1호 甕棺墓는 31호 주거지의 동쪽 수혈벽면과 중복되어 확인된 것으로 근세 교란구에 의해 일부 墓壙이 파괴되었으나 中島式無文土器 外反口緣甕과 胴體部 一部打捺과 沈線이 돌아간 短頸壺 계통의 토기가 남동~북서향으로 合口되었으며, 3호는 中島式無文土器만 이용한 合口式이다. 4호는 타날된 장란형토기가 合口된 형태이다.

#### • 野外爐址



1號 野外爐址 土層斷面

5기가 확인되었다. 2호 溝의 동쪽 외곽에서 발견된 1호 野外爐址는 타원형의 토광을 얇게 파고 내부에 石材를 圓形으로 쌓아 만든 형태이다. 크기는 동서 150cm, 남북 123cm이며, 석재가 놓인 부분은 지름 103cm이다. 爐址의 내부에는 약 5~20cm 정도 크기의 石材가 불에 그을린 채 내부에 가득 차 있었는데 돌 사이에는 목탄 및 흑갈색 부식토가 가득 차 있다. 내부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 유물

### • 토기류

발안리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조합상으로 살펴보면 크게 중도식무문토기만 출토되는 경우,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단 경호, 대옹과 공반하는 경우, 그리고 백제토기만 출토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 중도식무문토기만 출토되는 유구로는 5호, 30호, 34호 주거지 등 8기이며, 기형은 주로 외반구연의 옹, 심발, 뚜껑 등이다. 中島式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가 共伴되는 住居址는 1호, 11호, 18호 주거지 등 10기이다. 器種은 外反口緣甕, 深鉢, 把手附甕, 시루 등의 中島式無文土器類와 大甕, 短頸壺, 赤褐色格子打捺文甕 등의 打捺文土器類 들인데 비교적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주거지 출토 外反口緣甕의 특징은 中島式無文土器만 출토되는 경우, 胴最大徑이 胴中上位에 위치하고 비교적 심하게 꺾여 길게 外反하는데 비해, 胴最大徑이 口緣部 근처에 위치하고 짧게 약간 外反하는 口緣이 특징이다.

百濟土器는 長卵形土器, 灰青色軟質 또는 赤褐色軟質短頸壺, 深鉢形土器, 廣口壺, 高杯, 瓶, 三足器, 大甕, 碗 등 다양하나 長卵形土器와 短頸壺, 卵形壺, 深鉢形土器가 주된 器種이다. 이외에도 新羅遺物로 99호 豎穴에서 碗, 把手附甕이, 長頸壺口緣部와 함께 철제집게, 線條文平瓦가 출토되었다.



42·71號 豎穴 中島式無文土器



1號 住居址 시루와 圓底短頸壺 結合狀態

#### • 瓦類

문화층 출토품으로 모두 3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적갈색 계통의 정선된 泥質胎土로서 斷部는 一直線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

#### • 土製品 및 기타

土製品은 손잡이가 결실된 內拍子 1점, 紡錘車 3점, 異形土製品 1점이다. 이외에도 끝부분에 구멍이 있는 佩用式 솟돌핀 1점과 중앙에 홈이 있는 靑銅製 구슬 1점, 瑪瑙製 玉片 1점이 출토되었다.

#### • 鐵器類

鐵器類는 비교적 소량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에서 L자형 부뚜막 斜面에서 鐵刀子 1점과 북단벽 부근에서 鐵鎌 등 異形鐵器 각 1점, 3호 주거지에서 鐵鋸 2점 등이 출토되었다. 그외 鐵鋸 1점, 刀子 2점, 鑄造鐵斧 2점, 지름 5cm 내외의 문고리모양의 圓形鐵器 1점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鐵鋸의 種類는 蛇頭形 2점, 鑿頭形 1점이다.

### 라) 조사성과

먼저 遺構의 重複關係와 遺物의 共伴關係를 통한 시기별 마을의 變遷過程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을의 變遷은 크게 中島式無文土器段階와 百濟土器段階로 兩分된다. 그러나 重複關係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뿐이고 배치상태와 주거지의 방향성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原三國時代의 주거지는 조사지역 서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住居址의 경우 2~3기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相關關係를 갖는 傾向性이 파악되며 또 掘立柱建物이나 竪穴과도 세트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空間分割의 尺度인 溝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原三國時代의 住居址에 나타나는 특징은 火災에 의한 폐기가 많고 火災가 아니더라도 出土遺物이 많다는 점이다.

百濟時代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1·2호 溝가 4·7호 溝를 파괴하고 造營된 것이 확인되므로 定形性을 보이는 放射狀의 4·7호 溝와 5·8호 溝보다 늦다. 따라서 백제시대에도 放射狀의 溝로 區劃하고 각각의 區劃에 住居址, 掘立柱建物, 竪穴이 造營되는 時期와 이후 1·2호 溝의 내측에 造營되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住居址와 關聯된 多樣한 施設과 變遷過程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住居址 외곽에 둘러진 溝가 확인되었다. 하천변 저지대임을 감안하면 住居空間으로 물이 流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된다. 또 대부분의 住居址가 削平되어 얇게 남아있는 상태지만 江陵 橋項里 A-8호 住居址와 같이

粘土壁體(21호)가, 抱川 自作里 2호 住居址와 같이 竪穴과 壁體 사이에 흙을 充填한 것(11호)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과 내부시설이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내부시설 중 爐址와 부뚜막, 燃道部의 설치여부, 부뚜막의 위치의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즉, 出入口는 동일하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原三國時代 住居址는 대부분 北西-南東向이며 百濟時代 住居址는 거의 南-北向을 띠고 있다. 화덕시설과 관련하여 中島式無文土器만 출토되는 주거지 8기 중 不明인 3기를 제외하고 爐址만 있는 것 3기, 爐址+부뚜막 1기, 부뚜막만 설치된 것 1기로 구분된다. 中島式無文土器와 打捺文土器가 共伴되는 주거지 10기 중 不明인 2기를 제외하고 爐址 3기, 爐址+부뚜막 2기, 爐址+L자형 부뚜막 3기로 양자의 혼합이 두드러진다. 百濟土器가 出土되는 住居址 21기 중 不明인 1기를 제외하고 爐址 2기, 부뚜막 18기로 부뚜막만 설치된 것이 압도적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單獨爐址 → 爐址+L字形 부뚜막 → 부뚜막 순으로 變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發安里 마을 遺蹟은 종래 風納土城과 漢沙里로 대변되는 百濟의 中央과 비교되는 地方類型의 한 단위마을의 양상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평면형태의 주거지와 掘立柱 建物, 溝, 竪穴 등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遺構가 복합되어있고 出土遺物中 中島式無文土器에서 百濟土器로의 移行하는 樣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京畿南部地域에서 初期百濟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意義가 있다.

## 7) 華城 旗安里 豊盛아파트 新築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가) 위 치 :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457-83번지

나) 조사기간 : 2002년 9월 9일 ~ 2003년 12월 15일

다) 시 대 : 초기철기~삼국시대

라) 조사내용

우리 연구원에서는 (株)豊盛住宅의 아파트 건립 부지를 대상으로 2002년 7월에서 8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북동 및 북서지역에서 유구 집중 분포를 확인하고 2002년 9월 9일부터 2003년 12월 15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旗安里 遺蹟은 七寶山(239m), 棲鳳山(243m), 烏頭山(141m), 泰峰山(223m), 太行山(292m) 등의 丘陵性 山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山 사이에는 海拔 50m 內外의 山地와 連結되는 低平한 丘陵과 扇狀地形의 沖積地로 이루어져 있다. 旗安里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동남쪽으로 城皇山(134m)과 花山(108m), 북서쪽으로 古琴山(99m)이 弧狀을 이루며 서쪽을 감싸고 있으며, 이와 연결되는 殘丘性 丘陵 및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다. 곡간부에는 10여개의 大小 貯水池가 수자원을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조성되어 있다.

조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전체 유적을 7개 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사지역 중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IV~VI지점에 대한 조사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遺構數와 증복양상이 대단히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현재까지 旗安里遺蹟의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製鐵工程의 최종단계인 鍛冶爐만 확인되고 있는데, 製鐵遺蹟의 특성상 인근에 이와 관련한 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쪽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릉지역에서 다량의 流出滓와 슬래그를 채집하였다. 遺物이 집중적으로 채집되는 지점은 조사지역 서쪽의 구릉지역이며 이를 통해 볼 때 製鐵과 관련한 유적의 범위는 약 20여 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을 경기도와 화성시에 통보하여 보존조치토록 요청하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을 '바람모지'라고 부르는데, 바람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면 製鐵遺蹟의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最近 華城市 일대에는 많은 開發事業과 關聯 學術調査가 활발히 진행되어 先史~歷史時代의 遺蹟이 多數 確認되고 있다. 그 중 旗安里 製鐵遺蹟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原三國~三國時代 遺蹟으로는 남쪽으로 약 5km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 峰潭面 馬霞里古墳群<sup>3)</sup>, 堂下里 住居 및 生産遺蹟<sup>4)</sup>, 旺林里 住居遺蹟<sup>5)</sup> 등의 一群, 鄉南面 發安里 마을遺蹟<sup>4)</sup>에서 동쪽 5km 거리에 위치하는 吉城里土城<sup>6)</sup>, 社倉里古

墳<sup>6)</sup>, 料里·白土里遺蹟<sup>7)</sup>의 一群, 그리고 雨汀面 閑角里土城 및 周邊遺蹟, 雲坪里土城 및 周邊遺蹟, 花山里遺蹟<sup>8)</sup>의 一群 등 聚落·古墳群·生産遺蹟, 혹은 聚落·古墳·土城이 組合을 이루어 분포하는 遺蹟群이 확인되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旗安里遺蹟 一帶와 馬霞里遺蹟 일대, 吉城里土城 일대의 遺蹟群이 대략 5~7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 분포하고 있는 점은 향후 조사성과에 따라 百濟初期 地域集團의 占有樣相, 中央과 地域集團의 관계, 그리고 統合過程 등을 살펴보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 유구

### • I地點

I地點은 丘陵頂上을 중심으로 西斜面의 上部에 해당하며 조사 전 養鷄場 조성으로 切土, 削平되 면서 古土壤層이 넓게 드러나 있었다. 遺構는 구릉 상단부에서는 等高線과 直交하여 溝 5基가, 하단 부에서는 4기가 나란하게 조사되었으 며, 圓形과 方形의 竪穴 8基, 爐蹟 2基, 集石遺構 1基, 民墓 2基 등 總 22基가 조사되었다.

이 중 縱方向 溝의 平面形態는 완만한 S字形이며, 최대깊이 50cm, 최대 폭 2m 정도의 완만한 U字形을 띠고 있다. 또한 溝間의 重複樣相을 살펴보면 북쪽의 5號에서 남쪽의 1號의 順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遺構의 性格은 바닥에서 5cm 정도의 純粹 모래층이 모든 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일단 排水나 集水와 關聯된 施設로 판단된다.

竪穴은 사면 하단부에서 南-北으로 一直線上에서 4基가 나란하게 확인되었으 며, 爐蹟은 2基가 조사되었다. 이 중 1호 노적은 후대의 攪亂溝로 인하여 半破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直徑 20cm 規模의 圓形으로 바닥면에는 1cm 두께의 목탄다짐층이 형성되어 있다. 목탄다짐층 上面에는 불막음돌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노 폐기 이후의 祭祀行爲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에서는 送風口片 1點, 爐壁片이 출토되었고, 周圍에서 採集한 土壤試料들을 물채질한 결과 多量의 鍛造薄片이 확인되었다.

溝는 造成方向에 의해서 두 가지로 區分할 수 있는데, 等高線方向과 直交해서 조성된 1~5호가 6

1) 湖巖美術館, 1996, 『華城 馬霞里 古墳群 - 虎巖美術館 遺蹟發掘調查報告 5冊』.

2) 李鮮馥·金成南, 2000, 『華城 堂下里 I 遺蹟』,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韓國高速鐵道建設工團.

3) 서울대학교박물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6, 『경부고속철도 서울·경기권 문화유적 지표·시굴조사 보고서』.

4) 畿甸文化財研究院, 2002, 『華城 發安宅地開發地區 追加 및 精密試掘調査 略報告書』.

5) 鄭仁淑, 1982, 『華城郡 鄉南面 吉城里土城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6) 국립중앙박물관, 2000, 『百濟』, 圖錄; 유물관리번호 본 13895~13912.

7) 주 16)의 앞의 책.

8) 京畿道博物館,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 화성군 해안지역 -』.

호로 連結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호의 경우는 다시 등고선과 직교되는 것으로 보아 서쪽으로 또 다른 단위의 遺構群이 形成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II地點



II地點 全景

II地點은 제토 결과 대략적인 유구의 분포상황은 파악되었으나 당시에는 周溝墓 형태의 구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 II지점은 유구의 분포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서방향의 2·9호 溝에 의해서 공간을 구획한 듯하며, 이 두 구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1~3호 工房址와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이 중 1호 공방지는 타원형의 小溝가 별도로 감싸

고 있다. 4호 공방지는 9호 구와 나란하게 구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1·2호 환구의 위치와 4호 공방지와의 중복관계를 보았을 때 環溝가 공방지보다는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호 환구내에는 1×1칸의 高上家屋이 위치하며, VII지점에서 조사되었던 것과 같이 柱穴 사이에 보조수혈이나 木柵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수혈들이 배치되어 있다. 1~4호 공방지는 평면형태에서 모두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고, 장벽 중앙부에 위치한 燒土部 장벽을 따라 외곽으로 排煙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뚜막시설로 판단된다. 바닥은 주로 이 부뚜막을 중심으로 강하게 점토다짐되어 있으며, 부뚜막 오른쪽에 모두 평면 말각방형의 돌출된 시설이 확인되는데 공방지 바닥과 마찬가지로 점토다짐 되어 있어 出入口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립주건물지는 다른 지점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며, 공방 외곽에서 고상가옥들이 확인되고 있어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주목된다.

유구의 전체적인 분포상황을 보았을 때 유구군의 중심은 서사면 하단부의 논층 하부에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유구군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다른 지점에 비해 그 출토량이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송풍관, 슬래그와 같은 제철과 관련된 유물이 적다. 그리고 공방지 내에서는 철정, 철촉과 같은 소형의 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 • III地點

III地點은 능선정상을 중심으로 북서사면의 下段部에 해당하며 조사 전 가건물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양생 중이었다. 現 地表는 고도양층이 발달해 있었으며, 서쪽으로 공사지역 외곽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배수로의 단면상에서 토기편이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는 가건물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를 정리하고 제토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溝狀遺構와 竪穴遺構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직선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6기의 구상유구와, 수혈유구 14기 등 20기의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구의 분포상황은 이 지역에서 조사된 遺構群 중 가장 산발적이며, 유구의 대부분이 공사지역 외곽인 서사면 하단부로 이어지고 있다.

구상유구 중 1·2·4호는 동-서방향, 3·5·6호는 남-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혈유구 중 1~3호는 3→2→1호의 순으로 중복되어 있었으며,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어 廢棄場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호 수혈유구는 2호 구상유구의 상부에 중복되어 있었는데, 서·남벽에 집중되어 다량의 토기편과 철편, 水晶 등이 출토되어 역시 폐기장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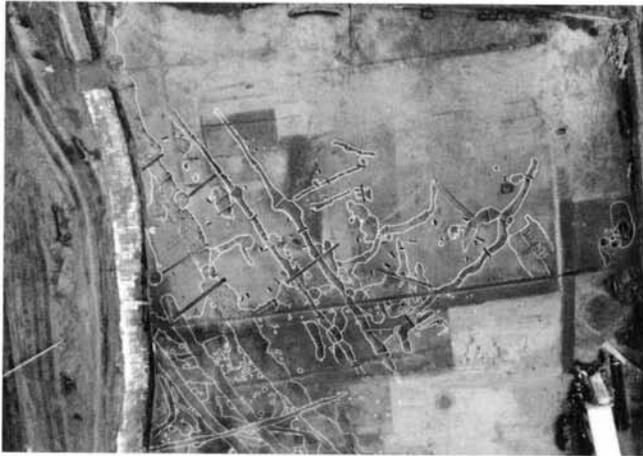
구상유구와 수혈유구의 분포상황을 보면, 3호 구상유구에 의해서 수혈유구는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고, 2호 구상유구와 5호 수혈유구의 중복상황으로 볼 때 등고선과 직교해서 조성된 구상유구는 유구의 남, 북을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북쪽은 완전히 切土되어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1~3호 수혈이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중복되어 있고 이들의 성격을 폐기장으로 본다면, 주변에 鐵生産과 관련된 유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토된 북사면이나 동쪽의 구릉 정상부쪽에 있었던 유구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 슬래그의 출토량이 현저히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서사면 하단부쪽으로 재퇴적이 집중적으로 된 결과일 것이다.

출토유물 중 5호 수혈유구내에서 출토된 수정은 密陽 沙村製鐵遺蹟에서의 출토예와 같이 제련과정 중에 鐵鑛石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추출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따라서 鍛冶 공정 이외의 작업이 본 유적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행해졌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유구의 내부에서는 다량의 樂浪系土器片, 百濟土器片과 소량의 슬래그 등이 출토되었다.

### • IV~VI地點

遺構의 重複樣相이 상당히 복잡하여 조사 기록을 위하여 조사지역을 약 500평 단위로 나눠 IV~VI지점의 3개 지점으로 구분하였다. 비교적 明確한 平面形態를 보여주는 12基의 溝를 중심으로 内部 調査를 하면서 竪穴, 爐蹟, 溝 등 각 遺構間의 중복 및 組合關係 규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層位는 다음의 5개 層으로 區分된다. I層은 두께 30cm 내외의 明褐色砂質土의 表土層으로 최근



IV地點 全景

까지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녹회색의 땀이 間層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II層은 최대 두께 50cm 정도의 褐色砂質土層으로 高麗~朝鮮時代の 磁器와 陶器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이 丘陵斜面 下段의 谷間部인 점을 감안하면, 流水에 의한 堆積일 것으로 판단된다. III層은 두께 40cm 정도의 暗褐色砂質土層으로 II층에 비해 짙으며, 百濟土器片이 포함되어

어 있기도 하다. 下部의 IV層이 보다 치밀한 粘性을 지니고 있어 上部에서 유입된 浸出水가 배출되지 못하고 有機物이 堆積되면서 보다 진한 색을 띠는 것으로 생각된다. IV層은 두께 40cm 정도의 黃色粘土層으로 百濟時代의 文化層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粘性이 강하며, 하부에 고토양층이 있어 浸出水가 원활히 排出되지 못해 물기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 유구가 없는 부분에도 土器片과 燒土, 木炭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V層은 古土壤層으로 두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IV층에 형성되어 있는 유구들이 고토양층 상면까지 파고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溝는 平面과 配置狀態로 보았을 때 2가지 이상의 目的을 가지고 造成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明確한 形態를 確認한 것은 總 12基이다. 이 중 海拔 33m以上에서 확인된 1~6號는 等高線方向과 直交해서, 海拔 33m以下の 7~12號 중 12호 구상유구를 제외하고는 登高선방향과 平行하게 構成되어 있었다.

이들 중 1·2·3호는 모두 7호와 連結되며, 溝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竪穴을 감싸며 配置되어 있다. 1次的으로 竪穴遺構 내부로 유입되는 流水를 防止하고 7호 내부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분적으로 集水하는데 容易하도록 溝 바닥면을 15cm 정도의 水槽같은 구덩이를 판 것으로 추정된다.

7·8호는 等高線方向과 平行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엄밀히 관찰해보면, 等高線方向과 無關하게 直線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登高선을 따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9·10·11호와는 對比되는 機能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9·10·11호는 약 2.5~3.5m 간격으로 登高선방향과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出入口의 위치와 중복관계로 보아 동일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9호는 内部에 多量의 集石이 확인되고 있는데, 斷面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완만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配置狀態로 볼 때 出入口를

중심으로 밀집된 양상을 보이며, 노 내부에 사용되었다가 폐기된 듯한 불에 닿은 석재도 있는 것으로 보아 구릉 위쪽의 溝와 爐蹟을 감싸는 空間區劃, 浸出水 制御 등의 기능을 상징할 수 있겠다.

炭窯는 IV地點의 가장 높은 부분인 1號 溝에서 북서쪽으로 약 2.5m 떨어져서 조사되었다.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配置되어 있다. 平面形態는 누에고치의 形象을 하고 있으며, 規模는 現길이 830cm, 灰丘部를 포함한 폭 430cm 정도이다. 煙道部는 남동쪽 높은 곳에 마련되어 있지만 火口는 削平으로 인해 破壞되었다.

煙道部는 길이 100cm, 폭 65cm의 長方形으로 벽은 최대 9cm 정도 燒結되어 있다. 煙道는 길이 35cm, 폭 40cm의 方形에 가깝다. 燒成室의 壁體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바닥만 확인되었으며, 8cm 내외의 두께로 燒結되어 있다. 사면의 하단쪽에는 總 6개의 火窓이 잔존하고 있는데, 가장 정연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길이 75cm, 폭 55cm, 소토두께 10cm 미만이다. 모두 燒成室이 좁고 灰丘部가 넓은 북주머니 형태를 하고 있다. 灰丘部는 燒成室과 동일한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規模는 現길이 610cm, 폭 210cm 정도이며, 바닥에는 목탄과 소토, 재가 混合되어 있었다.

#### IV-1號 爐蹟

1號 溝 동쪽에 있는 3~5號 竪穴의 重複樣相을 조사하기 위해 內部에 가득차 있는 燒土塊와 木炭片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5호 수혈유구 내부에 일정한 형태로 바닥에 安定되게 확인되었다.

竪穴의 平面은 橢圓形이며, 規模는 長軸 160cm, 短軸 120cm, 깊이 6cm 내외의 半竪穴式으로 推定된다. 노출된 爐蹟은 길이 80cm, 폭 50cm 정도의 長方形이며 가장자리에는 爐壁片이 세워진 채로 박혀 있다. 內部에서는 少量의 百濟土器片과 슬래그만 收拾되었고 土壤에서 少量의 鍛造薄片과 鐵粉이 檢出되어 鍛冶爐일 것으로 推定된다.

#### IV-2號 爐蹟

竪穴의 規模는 長軸 160cm, 短軸 150cm 가량의 圓形이며, 깊이는 일정하지 않고 동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爐蹟은 길이 65cm, 폭 40cm 가량의 長方形으로 바닥과 上面에는 다량의 土器片이 놓여 있었다. 燒結層이 명확하지 않고 주변에 流出率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일단 鍛冶爐일 것으로 추정된다.

#### IV-3號 爐蹟

9號 溝 內部의 集石部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平面 抹角方形 또는 方形의 半地下式이다. 規模는 長軸 200cm×短軸 170cm×깊이 30~35cm이며, 바닥에는 길이 80cm, 폭 35cm 범위가 붉게 燒結되어 있다. 爐床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져 深鉢形土器 1점이 直置되어 있었다.

바닥면 東壁 下段에 4점의 石材가 놓여 있는데, 이 중 1점은 砥石이며, 나머지 석재도 단야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V地點 全景

90cm, 폭 60cm 정도의 長方形이다.

#### V-3號 爐蹟

11·12號 溝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燒土와 砂質土가 혼재되어 있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 V-4號 爐蹟

百濟時代 文化層 상부의 堆積土를 除去하는 과정에서 밀집되어 있는 다량의 슬래그와 일부 燒結土가 확인되었다. 슬래그는 녹아내린 형태가 아닌 소형의 구슬 모양으로 덩어리진 것들이어서 精鍊 爐일 가능성이 있다.

#### VI-1號 爐蹟



VI地點 全景

#### V-1號 爐蹟

12號 溝의 북쪽, 9·10號 溝 사이에서 조사되었다. 상부에서 부분적으로 소토덩어리가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爐蹟의 規模는 길이 110cm, 폭 80cm이며, 형태는 長方形으로 판단된다.

#### V-2號 爐蹟

V-1호 노적에서 남동쪽으로 약 1.5m 가량 떨어져서 확인되었는데, 소토를 노출시킨 결과 길이

沈砂池와 인접한 부분에서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일부 突出된 부분이 있지만 長方形으로 판단된다. 長軸 160cm, 短軸 50cm 내외의 細長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내부에 소토가 가득차 있었고, 주변에는 약 5cm 정도 소결부가 확인된다.

IV地點에서 조사된 竪穴은 現在까지 11기이다. 수혈유구 중 대부분은 내부에 공통적으로 燒土와 木炭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10호의 경우는 대형 爐壁片과 樂浪系 筒

杯 등이 함께 출토되었으나 단순한 폐기장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복잡하게 중복된 유구들 사이에서 직경 20cm 내외의 주공열이 확인되고 있는데 유구를 감싸고 있던 목책의 일부분으로 추정된다.

#### • VII地點

VII地點에 대한 조사는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해 추석이 지난 2003년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등고선방향과 직교해서 일직선상으로 뻗어 있는溝들과 평면 'ㄱ' 상의 환구내에서 방향의 공방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V~VI지점의 조사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抹角方形의 環溝 내에 1×1칸의 高上家屋이 구성되어 있는 양상을 파악



VII地點 全景

할 수 있었다. 爐蹟은 4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3기는 方形의 鐵台爐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은 와우리에서 배양리로 진입하는 도로가에 위치하며, 조사 전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지표조사시에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어 유구의 부존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는 III지점에서 基準線을 移動해와 전체적인 기록의 통일을 기했으며, 등고선과 직교해서 10m 간격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의 부존여부와 범위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적인 지형은 남에서 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생토인 고토양층 사이에 谷部가 형성되어 황색점토가 재퇴적되어 있었다. 유구는 이 황색점토가 발달된 부분에서만 조사될 뿐 고토양층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유구는 해발 39~40m 사이에서 확인되었는데, 상단부에서는 等高線과 直交하여 溝 3개가 일직선상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평면 'ㄱ' 상과 원형의 구상유구 내에서 工房址와 掘立柱 2기가 각각 조사되었다. 노적은 2호 환구의 내·외에서 4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3기는 단야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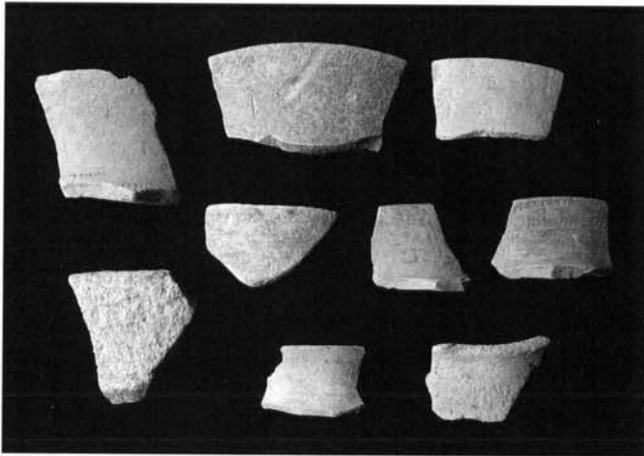
#### • 追加試掘調査 地域

學校敷地는 海拔 55m의 정상을 중심으로 花山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가지능선의 서사면 해당하

며, 20×20m의 그리드를 설치한 후 북에서 남으로 매 10m마다 폭 2m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정상부에서는 근대의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사면 하단부의 해발 45~49m 부근에서는 전혀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전반적인 유구의 밀도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사면 하단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황색점토층에서 평면 방향의 주거지 3기와 수혈유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제철유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물

### • 土器類



壺形土器 口緣部類



盆形土器 口緣部類 1

土器는 胎土와 器形, 製作技法에 의해 樂浪系와 在地系로 區分할 수 있다. 먼저 樂浪系土器는 壺形土器, 盆形土器, 甕形土器, 筒杯, 高杯 등이 있다. 在地系土器는 中島式無文土器와 深鉢形土器類, 大甕類, 圓底小甕類, 短頸壺類 등이 출토되었는데, 中島式無文土器類의 경우 대부분 小形의 甕 또는 深鉢形土器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후 정밀한 정리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점을 기형별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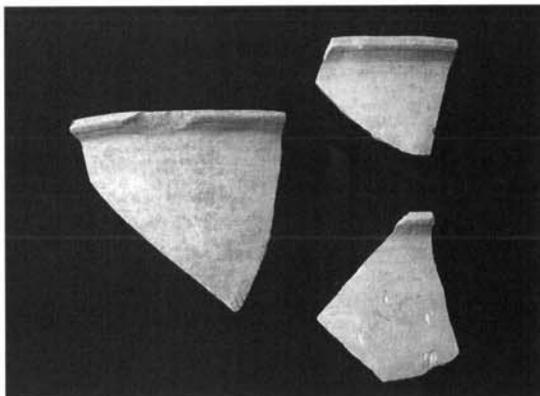
壺形土器는 모두 파편이어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고, 대체적으로 口緣部の 觀察에서 그特徵이 克明하게 區分되는데, 頸部가 肩部에서 口緣까지 거의 垂直성형된 것과 頸部에서 直선으로

약간 외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精選된 泥質粘土로 成形한 것이 대부분이며, 정면은 외면 목부분까지 종방향으로 繩文打捺한 후 강하게 回轉 調整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면에 횡방향의 繩文打捺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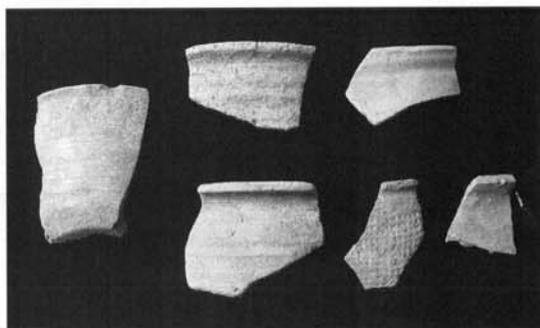
이외에도 북한에서 '배부른단지'로 불리는 소형호의 구연부편도 다수 확인된다.

盆形土器는 典型的인 形態의 樂浪土器 盆과 이와 유사한 口緣角度를 지닌 것들이다. 구연부의 형태는 동체부에서 바로 구연부로 이어지며, 거의 90° 정도로 外反한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보강제로 일부 굵은 석립이 확인되나 대부분 極細砂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소성은 대부분 회백색, 회청색, 황갈색계통의 와질소성이며, 일부 암갈색계통의 토기도 관찰된다. 成形方法은 테쌓기로 보이며, 成形한 후 內·外面 모두 강하게 회전조정하였으나 일부 繩文打捺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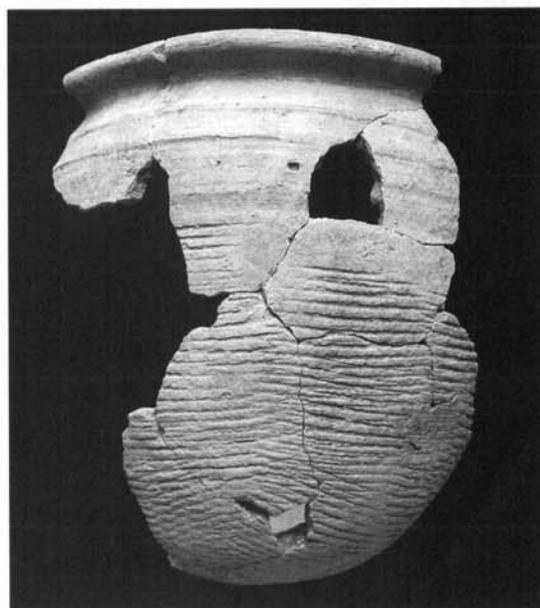
甕形土器는 저부형태에 따라 平底와 圓底로 구분할 수 있다. 圓底甕은 대부분 높이 20cm 미만의 소형이며 盆形土器에 비해 口緣部와 동체부의 연결부위가 약간 들어간 형태가 많고 태토는 니질이 많다. 반면에 평저의 경우 밋밋한 어깨에 긴 구연이 약간 외반하는 기형으로 판단되며, 胎土는 灰白色系統의 사질점토가 대부분이다. 成形은 테쌓기 후 회전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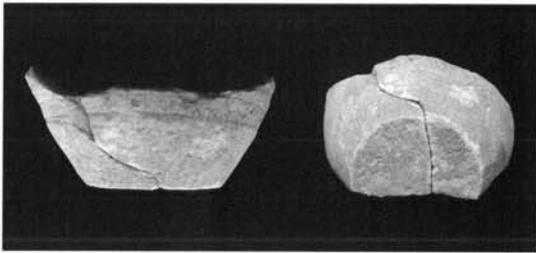
盆形土器 口緣部類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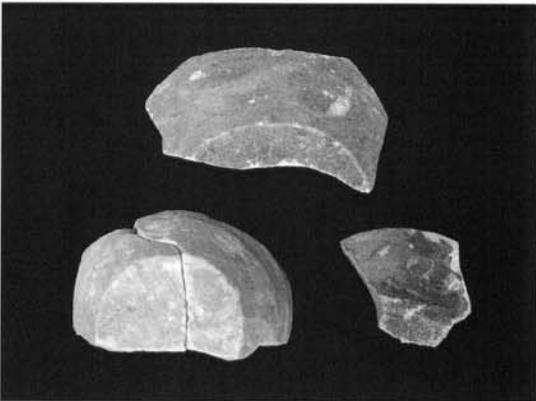
其他 口緣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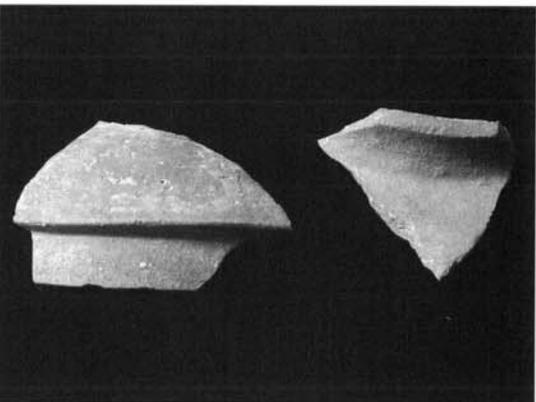
甕形土器 2



平底類 1



平底類 2



追加試掘地域(學校敷地) 收拾遺物

甑은 현재까지 3점이 출토되었다. 태토는 니질, 굵은 사질점토 등이다. 구연이 외반하는 것과 직립하는 것이 보인다.

深鉢形土器는 대부분 平底로 판단되는데, 打捺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胎土는 석립이 함유된 사질태토이며, 색깔은 적갈색, 암갈색이 많다.

甗은 주로 Ⅱ·Ⅳ·Ⅴ地點에서 출토되었다. 저부는 지름 1cm 미만의 小孔이 뚫린 것과 길게 찌진 두 종류만 확인된다. 전자는 둥근 각의 圓底로서 끝이 뾰족한 把手가 附着되어 있고, 燒成은 대부분 瓦質燒成이다. 胎土는 매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한 것과 細砂粒를 혼입한 것이 있다.

筒杯는 3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底部片으로 底部直徑은 10cm 미만이며, 器壁의 두께는 0.5cm 정도이다. 成形은 테쌓기한 후 회전물질하여 接合痕을 지웠고, 外面은 縱方向으로 폭 1cm 내외의 봉상구로 마연 조정하였다. 內底面에는 물레에 의한 回轉痕이 있고 外底面에는 絲切痕이 잘 남아있으며, 가장자리를 깎기 조정하였다.

高杯類는 모두 회백색의 니질의 臺脚만이 수습되었다. 胎土는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였으며, 燒成狀態도 良好하다. 투창이 있는 것과 없는 2종류가 있다.

大甕은 모두 片으로 대부분 Ⅳ~Ⅵ地點에서 出土되었다. 頸部는 直立해 있으며, 口緣部는 약 45° 이상 外反한다. 胴體部에는 繩蓆文이 稠密하게 打捺되어 있고, 태토는 점토에 굵은 石粒이 混入되어 있다. 胴體部와 頸部가 만나는 부분은 外面에 점토띠를 補強한 흔적이 보이며, 成形方法은 테쌓기이다. 대부분 瓦質燒成이며, 두께 2cm 내외의

것과 1cm 내외의 두 종류로 區分된다. 底部는 바닥 중앙부가 돌출된 것인데, 바닥면에까지 繩蓆文이 打捺된 것들이 있다.

기타 뚜껑, 臺脚과 黑褐色·赤褐色의 小形土器, 各種 把手, 기와류도 출토되었다.

#### • 製鐵關聯 遺物

제철관련 유물로는 送風管, 送風口, 鐵滓(slag), 爐壁片, 圓盤形土製品, 砥石, 공이, 鍛造薄片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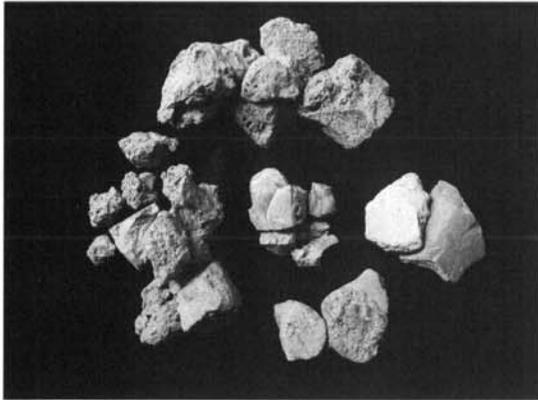
먼저 送風管이다. 製鐵에서는 높은 溫度를 一定하게 장시간 維持하는 것이 作業의 成敗를 좌우하는 중요한 要件이다. 따라서 自然送風으로는 限界가 있으므로 人爲的인 加風이 필요하다. 이때 送風管이 使用되는데 本 遺蹟에서 出土되는 송풍관은 모두 지름이 10cm 以上되는 大型이며, 이 중 爐內에 貫入되어 사용된 파편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製鍊爐 또는 精鍊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송풍관은 내면 횡방향, 외면 종방향으로 모두 繩文이 타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내면에 타날이 남아있는 것 중 模骨痕迹으로 보이는 단위가 관찰된다. 그리고 送風管의 連結를 容易하게 하기 위해 先端을 턱지게 처리하여 口徑을 좁혀 만든 것이 있어 注目된다. 鎭川 石帳里나 慶州 隍城洞에서도 선단부가 基部보다 조금 좁게 만들어지고 있으나, 旗安里에서처럼 段을 주어 구경이 좁아지는 형태는 없다. 또한 ‘ㄱ’모양으로 휘어진 送風管이 보이지 않으며, 다만 製作時 模骨로부터 分離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송풍관의 基部 바닥에 홈 자국이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리고 爐內部에 貫入된 送風管의 안쪽면에 굵은 모래와 벧짚이 섞인 점토를 발라 보강한 것은 爐內에서 送風管이 高열에 녹아 내리거나 부러져 떨어지는 것과 이로서 送風管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I-1號 鍛冶爐蹟에서 복원지름 1.5cm 정도의 送風口片이 출토되었다.

製鐵의 基本的인 要素가 되는 鐵鑛石은 8점 출토되었다. 크기는 4cm 부터 10cm 정도의 것 등 다양하다. 일부 가열된 것도 있는데, 제련에 앞서 작게 破碎한 후 豫熱하여 환원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석의 존재는 사용된 송풍관 및 鐵滓 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제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만 砂鐵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사철제련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鐵鑛石과 관련 예열 또는 爐內에 넣어 製鍊하기 위해서는 잘게 破碎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도구로서 공이 2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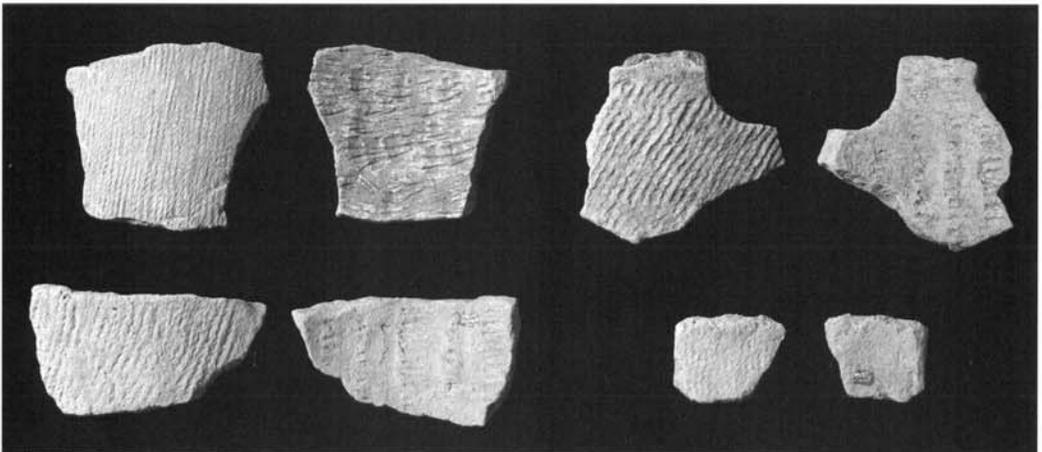
鐵滓는 현재까지 출토 양이 많지 않으나 제련로에서 유출된 流出滓와 爐內滓가 있고, 철녹이 덮힌 녹구슬 상태의 철재가 있다. 일반적으로 製鍊爐에서 배출되는 流出滓의 양은 다량인데 비해 조사지역에서 출토량이 많지 않은 것은 製鍊工程과 관련된 爐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규모였을 가능성이 높



弘益大 敷地 收拾 製鐵 關聯 遺物



製鐵 關聯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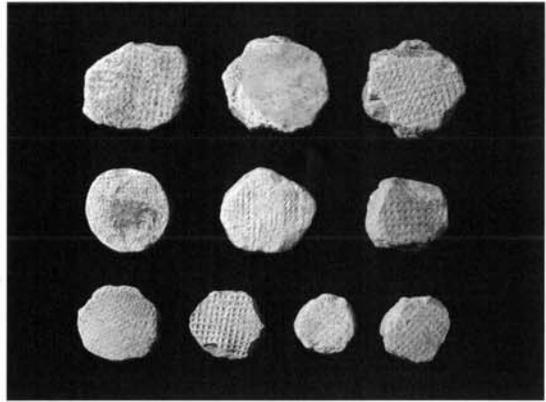


送風管片

으며, 후대의 개간으로 삭평된 연유에서 비롯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流出滓의 상태로 보아 본격적인 제련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鐵滓의 크기는 10cm 이상인 것부터 3cm 미만까지 다양하게 출토된다. 注目되는 점은 시굴조사시 수습된 鐵滓에 대한 분석결과 鐵素材는 磁鐵鑛系이며, 鐵器製作時 鍛造의 最終段階에서 배출된 鍛鍊鍛冶滓로 판명되었다.

爐壁片도 출토량이 많지 않지만 琉璃質化된 爐內壁片이 소량 보이고, 굵은 모래와 벗짚을 이겨 만든 점에서 석장리의 제련로 노벽과 유사하다. 이 밖에 爐壁의 中間部 또는 外面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黑色 또는 赤色の 燒土가 거의 조사지역 전역에 광범위하게 散布되어 있고, 특히 爐蹟周邊에 集中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製鐵이나 土器 또는 陶磁器가마 등의 생산관련 유적 발굴조사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圓盤形土製品이 약 20여점 출토되었는데, 직경 2cm의 작은 것에서 6cm 이상의 큰 것 등 크기가 다양하다. 또한 土製紡錘車 4점이 출토되었다. 砥石은 철기의 날을 세우는 도구로서 제철유적에서는 흔히 鍛冶工程과 관련되어 있다.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는데 1점은 예리한 도구의 날을 세우기 위해 마연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1점은 塊石의 형태로 높은 온도의 열에 닿아 깨진 것을 일부 접합한 것이다. 석질은 사암과 조장암이다.



원반형토제품

#### • 其他

이외에도 토기의 제작과 관련된 石製 內拍子 1점이 V地點 10號 溝 內部土 除去過程에서 출토되었다. 크기는 길이 7.75cm, 손잡이직경 3.9cm, 磨研部 길이 6.45cm, 폭 5.1cm인데, 砂巖系統 石材를 棒狀으로 다듬어 손잡이를 만들었고, 토기의 내면에 닿는 면은 타원형으로 매끈하게 마연하였다. 舊石器 2點, 靑銅器時代의 無文土器類, 有溝石斧, 磨製石鏃 등이 출토되었다.

#### 마) 調査成果

旗安里 製鐵遺蹟 발굴조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확인 調査된 대략적인 遺構는 爐蹟 18基, 溝 86基, 竪穴 192基, 環溝 9基, 高上家屋 13基, 工房址 5基, 炭窯 1基, 住居址 2基, 구덩이遺構 1기, 朝鮮時代 住居址 7基, 饌房址 3基, 其他遺構 20여 基 등 總 357基에 달한다. 특히 제철관련 유구는 복잡하게 중복되어 있어 그 수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유구의 특성상 개별번호를 부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자료정리과정에서 최종적인 유구의 수와 양상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製鐵工程은 鍛冶工程이 대부분이나, 소량의 流出滓와 精練滓로 보이는 鐵滓, 爐壁에 삼입되었던 琉璃質化된 送風管片 등으로 보아 精練段階의 工程도 추정할 수 있겠으나 조사 종료시까지 단야공정 이외의 노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화성 기안리 유적의 발견과 발굴조사를 통해 경기 남부지역 한성 백제문화의 성립과 지역상을 연구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당시의 제철기술과 이를 통한

정치체 확립이라는 견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土器類를 비롯한 출토유물 중 在地系의 유물보다 樂浪系로 분류되는 유물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中島式無文土器類가 극소량이고, 百濟土器類가 보이지 않는 중간단계의 어느 시점으로 編年되므로 향후 百濟土器 形成過程에 대한 연구 活性化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製鐵은 多量の 原料 및 燃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古代社會의 政治權力과 相關關係를 갖는 高度의 生産體系를 요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地域集團의 動向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넷째, 發掘調査 및 주변 地表調査를 실시한 결과 유적의 範圍는 현재 발굴조사 지역부터 수원대학교 방향의 84번 地方道 경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아울러 북쪽의 古琴山遺蹟과 남쪽의 花山古墳群과 住居-生産-埋葬空間이라는 세트를 이루는 점에 유의하면 동쪽의 黃口池川流域 沖積地에도 이와 관련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8) 수원 울전 벽산 2차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 가) 위 치 : 수원시 울전동 산168-81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3년 5월 3일 ~ 2003년 5월 15일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고려~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이번 조사지역은 우리 연구원에서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수원 울전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발굴조사지역과 동일 능선상에 해당하며, 50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어 유적의 밀집도가 상당히 큰 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그러나 위 지역은 대지면적 4,400평으로 지표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득 하였으며, 2002년 8월 23일부터 착공하여 일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2년 11월에 이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주)벽산건설 관계자에게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벽산건설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울전동 지역의 문화유적 보전 및 유적의 현황 파악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원형점토대토기 단계) 토광묘, 소형 장방형수혈, 원형수혈 및 고려~조선시대의 주거지, 적석유구, 건물지 관련유구 등이 확인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이들 유구는 기존의 2002년에 조사된 울전동 유적과 연계되는 유적임을 확인하였다.

### 유구

#### • 청동기시대 시대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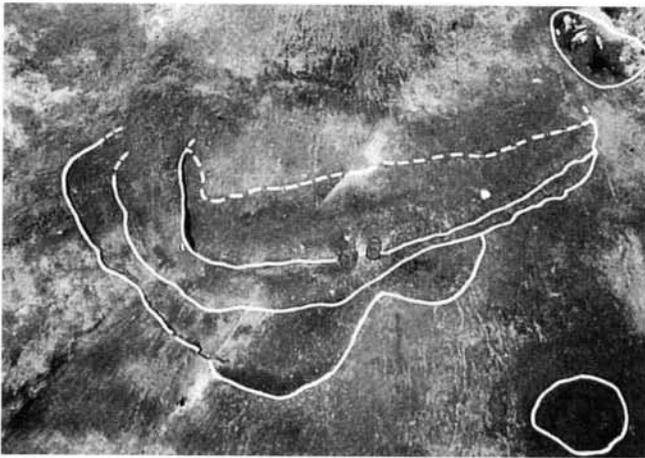
토광묘 2기와 소형 장방형수혈 2기 및 원형수혈 1기, 방형수혈 1기, 부정형수혈 1기가 구릉 사면부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토광묘 및 장방형수혈은 모두 구릉 정상부를 기점으로 동 사면에 위치한다는 특색이 있다. 이 중에서 2호 토광묘는 비록 부장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형태와 규모 및 주축방향이 1호 토광묘와 유사하므로 유구의 성격을 1호 토광묘와 같은 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장방형 수혈로 임의 가치한 유구 또한 동일한 성격으로 추정되나 일단 규모면에서 기존의 토광묘와 차이가 있으므로 수혈유구로 하였다. 하지만 위의 수혈 또한 토광묘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유적 전경

토광묘 및 소형 장방형 수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고려~조선시대 유구



주거지 노출 모습

의 배연부가 확인되었고, 바닥에도 그와 관련된 목탄재가 일정 범위에서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는 거의 표토층의 하층에서 확인되어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역시 내부시설물은 부뚜막 시설의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3호 주거지는 최초조사시 여러 유구의 중복이 예상되었으나 3호 주거지로 가칭한 부분만 인위적인 생활면으로 판단된다. 3호 주거지는 이 시기에 확인되는 수혈 주거로서는 규모가 큰 양상이며,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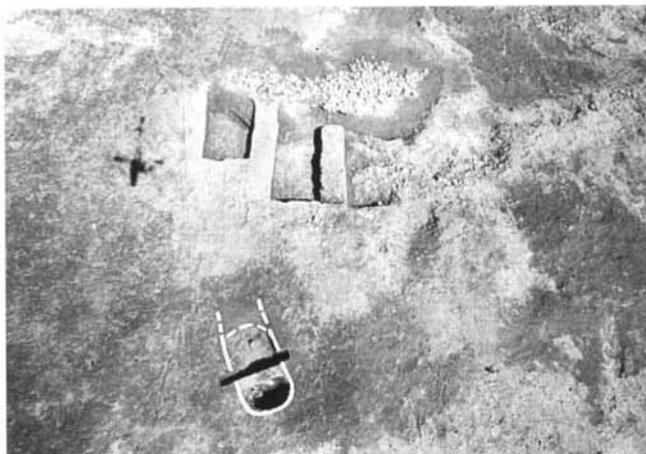
서쪽 사면부에서 확인된 원형 수혈과 장방형 수혈은 내부에서 목탄 및 목탄재가 다량으로 혼입되었고, 토기편도 다수가 수습되었으나 소토층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장방형 수혈(4호 수혈)과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형태로 노출된 점이 특이하다.

동사면의 타원형 수혈(5호)은 균일한 바닥층을 가지지 않는 불규칙한 양상으로 노출되어 기존의

주거지 3기와, 야외노지 1기, 적석유구 1기, 건물지 관련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1호 주거지의 경우 수혈 깊이는 지표면의 삭평이 심하지 않아 축조 당시의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지의 바닥은 암반층을 수평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처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남서쪽 벽면에 치우쳐 부뚜막 시설

뚜막이나 기타 주혈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바닥면에는 일부 목탄면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남쪽부분에서 바닥이 완만한 U자상을 나타내므로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수혈 주거지와는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바닥상면이 확인되고 있어 일단 생활공간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임의적으로 주거지로 명명하였다. 그 주변부에



적석유구 · 2호수혈 전경

서 중북유구로 판단했던 토층선들은 내부조사 결과 3호 주거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전초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단독 유구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마무리 조사를 통해 확인조사 할 예정이다.

적석유구는 암반층의 사면 경사부에 잡석 및 기와편, 자기편이 섞여 있는 양상으로 현재까지는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서사면 절개부에 걸쳐진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 역시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 마) 조사성과

##### •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로 추정되는 토광묘 2기와 소형의 장방형 수혈 2기 및 원형 수혈 1기, 장방형 수혈 1기, 타원형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한강유역의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거의 없는 토광묘가 확인되어 후기 무문토기시대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인접한 울전동 유적과 연계선상에 있는 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성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에 속하는 주거지 3기 및 야외노지 1기, 성격미상의 적석유구와 건물지 관련 유구로 추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근래 자료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2002년에 조사된 울전동 유적에서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 및 수원 구운동, 울전동 유적과 관련하여 이 시기의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면의 적



출토유물 각종

석유구는 주변 및 하단부의 형질  
변경이 심한 관계로 관련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석유  
구만으로는 성격파악이 힘든 상황  
이다. 건물지 관련유구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건물지가 위치  
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미  
조사전에 파괴된 상황이므로 정확  
하게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던 유  
구인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

만 일부분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밝혀질 자료와 타지역 및 유사 유구의 비교검토를 통한다면  
그 전모가 조금씩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 9)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2차 발굴조사

가) 위 치 :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 547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2년 10월 9일~2003년 2월 26일

다) 시 대 : 고려시대

라) 조사내용

용인 서리 상반 요지는 1998년 용인시 도요지 지표조사 당시 확인된 유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2001년 유적에 대한 현상파악과 범위확인을 위한 1차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가마의 존재와 유적의 범위가 길이 72m, 폭 42m임을 확인하였고, 2차조사에서는 당시의 트랜치를 확장 조사하여, 퇴적층의 일부를 전면 조사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서리 상반 요지의 정비와 보존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고려 도자사 연구의 학술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유구

#### • 석렬 유구 1

전체 평면형태는 직사각형 모양이며 갑발을 ㄱ자형태로 만든 부분과 나팔형으로 큰 돌을 놓고 앞쪽에 잔돌을 놓아 ㅁ자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길이 288cm, 폭 125cm이며 ㄱ자형태는 길이 150cm이며 ㅁ자형태는 길이 90cm이다.

ㅁ자형태는 돌을 2개 나란히 놓고 서측으로 50cm 떨어뜨려 돌을 비스듬하게 놓아 나팔형으로 만들었으며 그 앞쪽에 잔석렬들로 타원형 모양을 그리면서 돌을 맞춰 쌓고 나서 뒤쪽은 잔돌을 깔아 놓았다.

#### • 석렬 유구 2

유구의 절반 이상이 독에 묻혀 있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지만 노출된 석렬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축조방법은 장방



석렬유구 2



청자류



완류



명문 및 기호류



제기류

형의 석렬을 수직한 후 그 위에 직사각형의 할석을 놓아 두었는데, 할석이 없어진 부분도 있으며 할석의 크기는 37~39cm×13~14cm 정도이다.

유구 정면과 측면에 할석을 하나씩 놓아 두었는데 측면은 할석과 일렬로 갑발 3개를 바로 놓아 두었다. 그리고 서쪽으로 90cm 떨어진 곳에 20~24cm 간격으로 갑발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석렬과 갑발 사이에 갑발편과 도기편, 자기편들이 깔려 있다. 석렬 유구 1보다 먼저 사용한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 • 폐기구덩이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141cm, 폭 125cm, 깊이 35cm 정도이다. 갑발편, 자기편, 도기편, 기와편, 돌 등이 혼합되어 퇴적되어 있을 뿐 별다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 • 성격미상 유구

주공으로 추정되는 구덩이가 6개 확인되었으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정연한 평면형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주공은 생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주공 내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주공의 크기는 다양한 편으로 작은 것은 25×22×5.5cm이고 제일 큰 것은 50×37×7cm이다.

#### • 성격미상 수혈유구

성격미상유구와 바로 인접하여 있으며 현재 파악된 길이는 440cm, 폭은 45~77cm, 깊이는 63~86cm 정도로 일자형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퇴적상황은 옅은 흑갈색 점토, 갈색 점토순으로 되어 있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유물

출토된 유물의 종류는 청자, 고려백자, 도기, 기와, 요도구, 벽돌편 등인데, 이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백자와 도기편, 요도구편이며 나머지는 소량 출토되고 있다.

자기 기종으로는 완, 대접, 화판형 대접, 접시, 옥연형 접시, 종지, 대발, 병, 광구병, 호, 합, 잔탁, 향완, 제기(籠, 籠), 뚜껑, 항아리, 장구편이 있다. 완의 경우 접지면의 폭이 1~1.5cm 정도이며 유색은 담록색, 황록색 등이며 태도는 질이 좋은 편이며 명문과 앞모양, 화엽형, 연판문 등 문양이 확인되었다. 도기는 연질과 경질로 나눌 수 있으며 기종으로는 항아리, 시루, 동이, 단지가 확인되었다. 요도구로는 붓극, 갓모, 갑발, 고려형 받침, ▣, ▢자형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는 S2W2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어골문이 문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합문, 선문 등도 확인되고 있다.



요도구류



갑발류



토기류

## 마) 조사성과

금번 2차발굴조사에서는 석렬 유구 2기를 비롯하여, 폐기 구덩이, 성격미상의 수혈유구 등 생활 공간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어, 당시 도자기 생산유적을 복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습득 할 수 있었다.

출토유물 중에서 자기는 1차조사시 확인된 기종보다 더 다양하여, 완을 포함한 17개 기종이 수습되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사용기도 상당수 수습되어 제례유물도

많이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이 있는 유물로는 연판문과 화판형 대접편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출토되고 있다. 이들 유물의 제작시기는 한국식 해무리굽이 생산되어 정착되던 시기로 보여진다.

한편 도기의 경우 석렬 상부의 퇴적층에서도 보이지만 주로 바닥층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들 도기들이 가마와 관련된 시설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번조사에서는 기와류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수키와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차륜문, 선문, 복합문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와의 출토는 전술한 석렬유구와 함께 가마와 관련된 생산시설이 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0) 수원 이목동 골프연습장 건립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가)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42-3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3년 9월 17일 ~ 2003년 10월 4일

다) 시 대 : 청동기~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수원 울전택지개발사업(대한주택공사)지구내 발굴조사 및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 수원 울전백산2차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발굴조사를 통하여 이 일대에 청동기~조선시대의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인 이목동 유적은 울전동 유적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으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우리 연구원에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관련 조치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주)이카랜드에서는 이목동 유적의 보전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이번 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신라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민묘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지역에 설치된 트렌치의 평·단면 토층에 나타난 유구나 유물의 징후를 토대로 전면제토 및 평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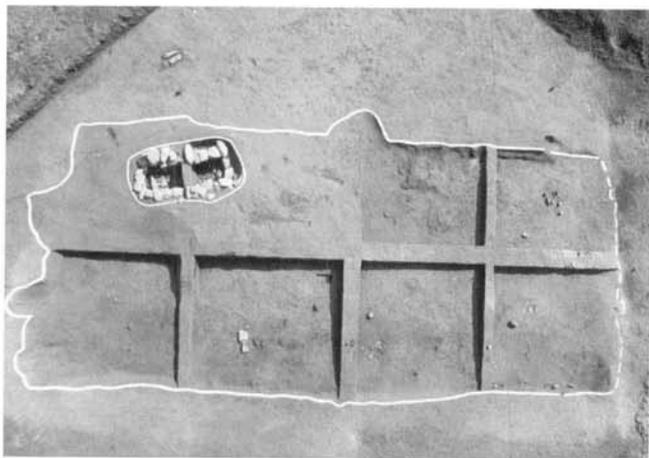


유적 전경

### 유구

#### •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사대상지역 중에서 남동측 저평한 능선부에서 확인되었다. 해발고도 83~85m 사이에 위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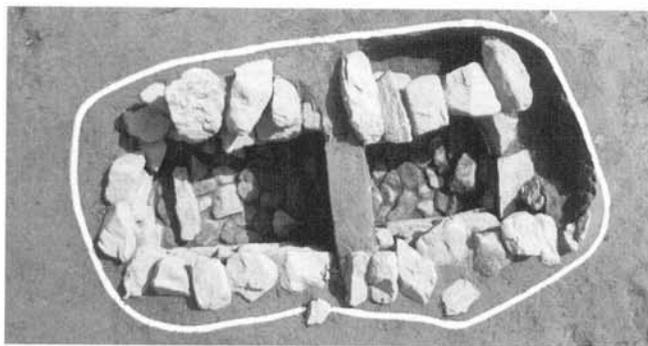
주거지

의 표토층 바로 밑에서 어깨선이 확인되었으므로 내부퇴적토상에 근래 교란이 심한 편이다. 기반토인 고토양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으며, 주거지 북동쪽에는 신라시대 석곽묘가 주거지 내부 퇴적토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남아있는 형태로 미루어 세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주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규모는 잔존 길이 15.4m, 너비 7m, 최대 깊이 64cm로 대형 주거지에 속한다.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편, 토제 어망추·방추차, 어형석도, 이단경식 석촉, 매부리형 석기 등이다.

기타 내부시설물 혹은 바닥처리 등 자세한 사항은 조사완료 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석곽묘



석곽묘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 퇴적토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해발 84m 부근에 위치한다.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최대 4단까지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규모는 묘광 길이 300cm, 너비 150cm, 석곽 길이 200cm, 너비 80cm, 깊이 60cm 정도이다. 장벽은

세로쌓기, 단벽은 가로쌓기 방식을 주로 하였으나 장벽쪽 일부에는 가로쌓기로 축조하였다. 석곽 내부에는 주로 갈색 점질토가 채워져 있으며, 시상석은 평균 10×10cm 규모의 천석을 이용하여 깔았다. 북쪽에 두침이 놓여져 있으며, 유물은 유구의 중심과 두침 사이 지점인 시상석 위에서 회청색 연질 완 및 연황색 연질 대부분이 출토되었다.

- 민묘

구릉 능선부를 중심으로 총 6기가 확인되었다. 내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 마) 조사성과

- 청동기시대

경기지역에서는 근래 여러 발굴조사에 의해 시흥, 안양, 수원, 화성, 용인, 인천 등지에서 청동기시대 고고학적 자료 확보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지역인 이목동에서 확인된 주거지 역시 이에 일조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접한 울전동 유적과 관련하여 수원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및 울전동·이목동 지역에 대한 청동기시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현황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지 출토 유물

-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이 시기의 석곽묘는 용인 보정리, 화성 천천리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수원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사례는 유일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목동 일대에서 이 시기 유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근의 저구릉에는 이러한 매장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의 자료확보와 아울러 이 시기의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곽묘 출토 유물

## 11) 용인 보정리 고려가마 2차 발굴조사

가) 위 치 :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원

나) 조사기간 : 2002년 5월 22일~2003년 5월 27일 현재

다) 시 대 : 고려시대

라)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죽전지구 내의 한 지점으로 1999년에 시행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곳이다. 2001년 12월 18일부터 2002년 1월 14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마에 대한 발굴과 함께 주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가마 2기, 석렬 13기, 석실 1기, 민묘 10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동절기에 잠시 중지하였다가 2003년 3월 3일부터 조사를 재착수 하여 가마 2기와 석렬 13기, 구 1기, 수혈 3기, 민묘 10기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중 구 1기, 토광묘 1기, 수혈 1기가 새로이 확인되었다.

### 유구



1-1호 가마

#### • 1-1호 가마

유구의 장축방향은 서쪽으로 15° 기울어진 북서에서 남동이며 봉통부를 포함한 규모는 최대길이 12m, 최대 폭 1m, 최대잔존높이 80cm 정도이다.

가마는 생토층을 굴착하여 만들었으며 등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체 평면모양은 벽을 울퉁불퉁하게 조성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자형 형태를 띠고 있다.

유구에서 보이고 있는 봉통부, 소성실 2칸 뿐이다. 봉통의 규모는 대략 길이 170cm, 폭은 158cm 정도이며 소성실과 구분할 수 있게 높이 62cm 정도의 불턱이 있다. 봉통은 진흙으로 벽을 조성하였고 아궁이쪽으로 갈수록 좁게 만들었으며, 앞쪽에 재와 모래, 흙으로 입구를 막고 그 위에 할석을 이어 붙여 입구를 좁힌 상황이다.

소성실의 평면형태는 細長한 모양이며 최대폭 100cm, 바닥 최대폭 105cm이고 경사도는 약 15° 정도로 보여진다. 소성실의 폭은 일정하지 않으며 좁아들었다가 다시 넓어지는 부분에 약간의 턱이 보이고 있다. 바닥은 소결이 강하게 되지 않아 푸석푸석한 편이다. 서쪽벽 한 부분에서 폭 10cm로 보이는 타원형의 불창 구멍이 확인되고 있으며 벽의 축조상태를 보면 돌과 진흙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 • 1-2호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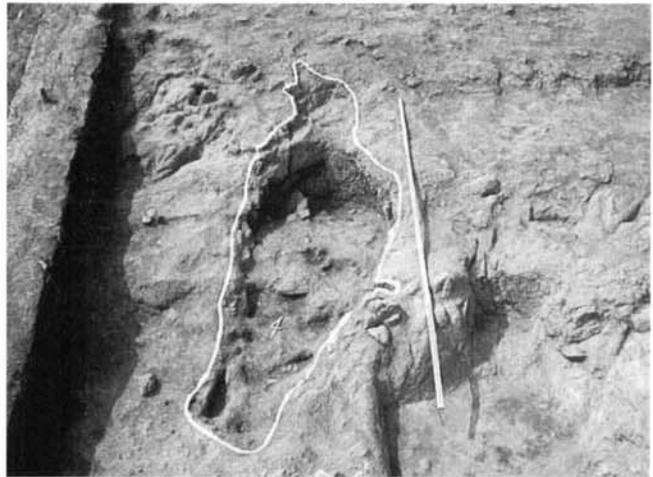
유구의 장축방향은 서쪽으로 10° 기울어진 북서에서 남동이며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390cm, 최대폭 140cm, 최대높이 10cm 정도로 1-1호 가마의 연도로 추정된다.

유구의 양벽은 돌로 조성하였으며 경사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끝 부분에 바닥이 평평해지면서 2줄 이상의 돌로 연도를 조성한 흔적이 있다. 현재 이 부분의 벽은 많이 파괴되어 있으며 평면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끝나는 부분에 흑색 재층이 묻어 있으며 인접하여 대략 60×50cm 크기의 수혈이 확인되고 있다.

#### • 2호 가마

유구의 장축방향은 서쪽으로 5° 기울어진 북서에서 남동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470cm, 최대폭 155cm이며 잔존 최대 높이는 100cm이다.

유구는 풍화암반층을 파고 들어가 지하에 조성하였으며 경사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 평요로 보여진다. 전체 평면모양은 타원형을 띠고 있으나 아궁이쪽으로 갈수록 모양이 틀어져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호 가마

아궁이쪽 폭은 80cm이나 인접한 민묘 조성시 거의 파괴되어 길이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바닥에는 흑색 재가 묻어 있는 상태이나 확인되지 않게 부서진 곳도 있어 바닥 상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구에서 연도부는 거의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뒤쪽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길이는 약 70cm로 보여지며 폭은 75cm로 파악되나 명

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소성실로 보이는 양벽은 수직에 가깝게 되어 있으며 흑색 벽체위에 명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가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가마 벽체와 자기편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다. 바닥과 인접하여 자기편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호 가마와 약간 앞선 시기나 동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 • 폐기장

폐기장은 가마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서쪽 지역은 자기편이 주로 폐기되어 있으며 동측은 적갈색 퇴적토, 흑색 재가 섞인 퇴적토에 자기편과 도기편이 섞여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 양상을 보면 서쪽은 소형의 일상기명과 도지미편, 벽체편이 보이고 있으나 동쪽은 대발, 대형호, 장구 등의 대형기명이 일상기명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도기편의 출토량이 조금 많은 편이며 벽체와 도지미편 등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 • 석렬

석렬 13기가 확인되었는데 구들유구 1기, 건물지 1기, 추정 공방지 1기, 기타 10기이다. 기타 10기 중 4기는 석렬에 재가 묻어 있어 불을 땀 흔적은 확실하나 정확한 성격은 알 수가 없다.

#### • 석실묘



석실묘

유구는 연도가 있는 황혈식 석실묘로서 해발 115m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동쪽으로 10° 정도 기울어진 북동에서 남서이다. 전체 규모는 길이 428m, 폭 280cm, 높이 110cm 정도이며 평면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천정부 덮개돌은 대부분 유실되어 있으나 벽과 갯도는 거의 온전한 편이다.

연도의 형태는 단면과 평면은 직사각형이며 길이 160cm이며 폐쇄석 일부는 없어진 상태이다. 동측벽은 제일 큰 것은 길이 94cm, 높이 32cm 정도의 돌로 축조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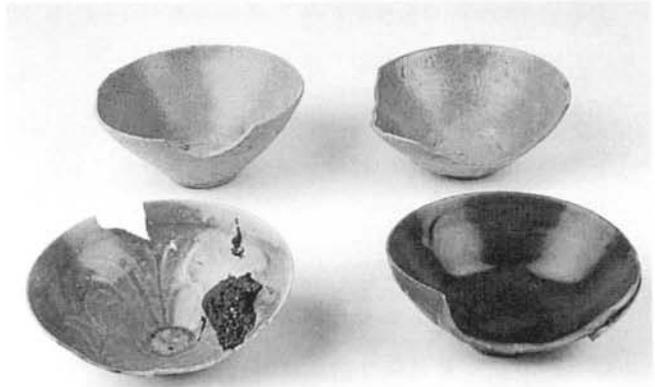
며 서측벽은 길이 40cm 정도의 돌을 사용하였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184cm, 폭 140cm이며 시상의 크기는 길이 184cm, 폭 92cm이다.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5단으로 축조하였으며 평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상은 서쪽 벽면에 작은 할석들을 1겹 정도 깔아 붙여 놓았다. 천정부는 덮개돌이 대부분이 없는 상태이나 벽위에 남아 있는 일부 돌로 보아 말각조정식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석실내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맨위층에서만 자기편과 도지미편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모두 가마에서 흘러들어온 유물들로 판단된다.

## 유물

현재 확인되고 있는 종류로는 청자편, 도기편, 철기편, 청동편 등이 있다. 청자의 종류로는 대접, 접시, 잔, 잔탁, 대반, 호, 합, 병, 뚜껑, 단지, 장고편(추정) 등의 11종과 불교 유물 1종, 요도구가 있으며 도기편은 호와 향아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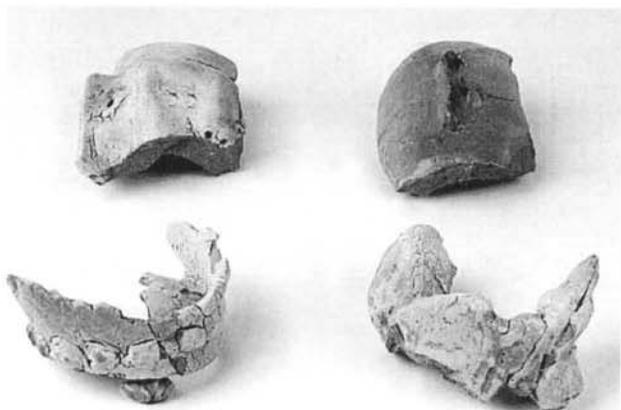
대접류

### • 청자류

대접 - 굽의 종류에 따라 일반 굽과 평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내저원각이 확인한 경우와 음각선으로 이를 흉내낸 경우가 있다. 굽지름 보다 크거나 작은 내저원각을 가지고 있다. 기벽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거나 직립한 경우가 있으며 구연은 직립하거나 내만한 하기도 한다. 유색은 녹갈색, 암록색, 황록색조를 보이고 있으나 광



청자편 각종



불상편

택이 좋지 않은 편이다. 문양은 앵무문, 초문 등이 보이고 있다.

접시 - 내저원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저부가 곡면인 형태, 각지게 꺾인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구연은 외반한 것과 내만한 것, 사선형이 함께 존재한다. 문양은 내저에 확인되고 있으며 초문, 파초문 등이 확인되었다.

잔 - 내저 원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저부가 곡면을 이루거나 직립하기도 하고 통형 모양을 한 경우도 보인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하거나 압출양각하기도 하며 뇌문을 구연 끝에 돌린 경우도 있다.

잔탁 - 받치는 부분이 오목하게 솟아 있으며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 유색은 청록색이며 태토는 좋지 않은 편이다.

대반 - 구연은 외반 되었고 기벽은 사선으로 내려오며 굽은 평저이다.

호 - 모양은 내만하였으며 내저면은 곡면을 이루는 것도 있고 원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굽의 접지면은 폭이 좁은 편이며 모래가 섞인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는데 접시의 내면에서는 포개구이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태토의 질은 좋지 않은 편이며 유색도 회록색, 짙은 녹색을 보이고 있다.

합 - 기벽이 결합한 모양은 원통형 모양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병 - 기형에 따라 정병, 통형병, 유병, 광구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태토의 질과 유색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하였다.

뚜껑 - 축과 꼭지의 유무에 따라 분류되며 꼭지와 축이 없는 경우는 상면이 편평하며 기벽이 사선으로 뺀 형이 있으며 꼭지가 있는 경우 보주형과 굽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발 - 굽은 평저이며 기벽은 사선으로 뺀 구연단에 음각선이 확인된다. 유색은 옅은 회록색을 띠고 있다. 모래를 깔고 구운 것으로 보이며 태토는 좋은 편이 아니다.

장고편(추정) - 장고의 가운데 부분으로 보이며 옅은 녹색의 유색을 보이고 있다. 초벌편으로 보이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보살상 - 인면편과 손, 발편이 발견되었다. 시유되지 않은 초벌편도 함께 출토되었다.

요도구 - 시변편이나 물레용구로 추정되는 ■형, ∩자형, ☐ 등이 출토되었으며 물레의 부속품인 갖도가 존재한다. 도지미는 원판형, 원통형, 절구형 등이 확인되고 있다.

- 도기류

구연이 외반된 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면에 사격자의 문양이 보이고 있다. 동체에 고리형 손잡이가 달린 경우도 있다. 색조는 흑회색을 보이고 있으며 태토는 거친 편이다.

- 기타

청동편은 방울로 추정되며 철제는 낫과 용도 미상의 철제편이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 추정벼루와 동물형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 마) 조사성과

이번 조사를 통해, 11~12세기에 사용된 도기와 자기 요지 각 1기씩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흥 방산동, 여주 중암리, 용인 서리 이후 경기도내 자기 생산 시설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요지와 관련된 부속시설인 공방지를 파악하였다는 점과 가마의 조업 당시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보여지는 석렬과 수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가마는 구조와 규모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자기가마의 경우 해남 진산리 가마와 유사하며 출토유물도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2층, 대전 구완동 청자가마, 음성 생리가마, 해남 진산리 가마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도기가마는 주변지역 3곳에서 파악된 도기 가마와 비교적 유사하나 아궁이 축조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은 청자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도기편, 철제품, 도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청자류는 대접을 비롯한 11개 이상의 기종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일상용기이며 신앙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유물과 악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시문기법으로는 음각, 양각, 압출양각 등이 보이고 있으며 소재는 앵무문, 연판문, 뇌문, 당초문, 초문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산 기물들의 수요처는 인근 지역 일대의 건물지나 사찰로 추정된다. 도기편은 대형으로 호나 항아리로 보여지며 외면에 사격자나 격자로 타날하였다. 철제품은 석렬과 구에서 확인되었는데 낫과 같은 제품 등으로 추정된다.

## 12) 포천 길명리 흑갈유자기 요지 발굴조사

- 가) 위 치 : 포천군 일동읍 길명 2리 도로개설구간내 350-5전 일대  
 나) 조사기간 : 2002년 8월 13일 ~ 2003년 7월 25일(조사중지기간 포함)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조사내용



포천 길명리 가마, 폐기장 전경

조사에서는 지장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약 1,000㎡(약 300평)과 도로구간의 지역 약 1,100㎡(약 330평)를 제외하고 약 4,500㎡(약 1,360평)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2002년 조사에서는 I·II·III구역에 총 17개의 시굴 트렌치 및 확장 트렌치를 설정하여 내부조사한 결과, 건물지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고 수혈 주거지와 원형수혈 유구 등이 확인되어 전면제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V구역의 가마는 지장물로 인해 탐색트렌치 이외에는 확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가마의 폭과 주축방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단락하였으며 대신 좌·우측 폐기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 유구

2003년도 조사에서는 지장물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지역을 포함, 유적 전체에 대한 전면 제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가마와 부속유구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가마는 전체 평면구조를 확인한 후 가마의 횡폭과 주축방향 길이를 감안하여 1개의 종방향 토층둑과 3개의 횡방향

이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효자건설이 2004년 완공 예정으로 일동~영중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01년 4월에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결과 추정 고인돌 및 유물산포지 3개소 등 총 4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어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사는 크게 2002년도 조사와 2003년도 조사로 구분된다. 먼저 2002년도

토층독을 남긴후 내부 퇴적토 및 벽체 함몰층을 걷어내면서 가마의 최후를 확인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도에 걸친 조사결과, 포천 길명리 유적은 1기의 가마 유구를 비롯하여 가마 좌·우의 폐기장 3기, 주거지(추정 공방지) 1기, 원형수혈유구 3기, 소형 소성유구 6기, 탄재구덩이 유구 2기, 집석유구 1기, 구들유구 1기, 기타 석렬 등 총 19개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이외 추정 건물지 지역은 시굴조사 및 전면제토 결과 건물지와 관련된 문화층을 확인할 수 없었다.

#### • 가마유구

조사전 공사로 인해 하단부가 잘려나가 봉통부와 회구부 및 소성실 일부의 정확한 원형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확인된 구조는 소성실 6칸 및 연도부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최하단의 가마폭을 감안하면 6칸 또는 7칸 정도의 소성실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좌측 측벽시설 및 출입시설, 불창시설 일부는 50~60년생 밤나무에 의해 구조적 파괴가 심한 편이며 오른쪽 측벽시설은 하부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

가마는 풍화괴석을 포함한 사질점토층(생토층)과 일부 고토양층을 굴착하여 구릉의 등고방향과 직교하게 조성된 반지하식 등으로 파악된다. 가마바닥의 최종 바닥면을 절개한 결과 가마가 조성되기 전 풍화괴석과 점토로 기초를 다진 후에 주로 점토를 사용하여 가마 벽체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좌우에 노출된 출입시설과 같이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에는 할석을 활용하여 보강하고 점토를 발라 측벽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가마의 주축은 동서방향(N-80°-W)으로 연도부쪽이 서편향되어 있다. 잔존한 가마의 평면구조는 긴 세장방향으로 상부의 연도부쪽으로 갈수록 가마폭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연도부 상단의 소결부부터 유구하단 소성실의 절개면까지의 길이는 약 15m에 이르며 최후 측벽시설을 기준으로 최소폭(소성실 하단부)은 약 162cm, 최대폭(연도부 상단)은 약 240cm이다.

#### • 소성부

잔존한 소성실은 하단부로부터 제 1소성실~제 6소성실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소성실은 무단식으로 5열의 불창시설에 의해 구분되고 있으며 소성실 가마폭이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과 함께 제 6소성실이 평면적으로 가장 넓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마 조사 전경



제2·3소성실 사이 불창시설

불창시설 역시 가마 하단부부터 제 1불창~제 5불창으로 명명하였다. 불창시설은 기본적으로 말각방형의 불창기둥을 8~11개 세우고 그 위에 원형에 가까운 점토덩어리를 보강하였다. 그 위로는 장방형의 벽돌형 점토 덩어리를 마치 '品'字形으로 쌓아 올리고 점토를 발라 구조물을 보강하였다.

측벽시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가마 시설이 수·개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초 측벽시설은 할석과 점토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2차와 3차 측벽시설은 점토로만 보강되어 자연스럽게 소성실 내부폭이 좁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성실 내부에서는 도지미나 유물이 안정된 위치에서 출토되지 않는다.

한편, 가마의 좌우측에는 폐기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감안, 가마 벽체시설 바깥쪽에 나타나는 붉은 색의 소토범위를 따라 할석 및 불창시설, 측벽의 꺾임현상 등을 관찰한 결과,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5개의 출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좌측벽의 출입시설은 각각의 소성실 하단부에 공통적으로 위치하며 우측벽의 출입시설은 각각의 소성실 상단부에 시설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소토범위의 정연한 정도나 잔존한 측벽시설의 상태로 보아 우측 출입시설이 먼저 활용된 후 막음처리되고 좌측 출입시설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후 보완조사 결과 양 출입시설이 동시성을 가지고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좌·우 출입시설의 바닥층 토층상태에서 그 차이가 확인되는데 잔존한 좌측 출입시설 3곳의 바닥층에서는 공통적으로 불먹은 할석과 목탄 및 소토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반면, 우측 출입시설에서는 목탄이나 소토량이 극히 적은 것에서 구분된다. 이로 보아 좌측 출입시설은 봉창부에서 올라오는 불열이 미약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족한 불량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측 출입시설은 이와 반대로 봉창부에서 올라오는 불량이 과다할 경우 이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좌우 출입시설이 공통적으로는 성형된 자기를 적재하거나 완성된 자기를 꺼내는 역할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니 시간적인 순차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가마 내부의 바닥에서는 유물의 출토량이 거의 없으며 벽체 함몰층에서 일부 자기편만이 출토되었고 특이한 점은 절개조사 과정에서, 제 2소성실 바닥 점토다짐층에서 향아리 1점이 출토되었다.

#### • 연도부

제 6소성실 상단에 6조의 연도가 할석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 평면적 규모는 내부폭이 약 260cm, 길이가 약 300cm(또는 200cm) 정도로 내부 바닥에는 목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한 연도의 구조는 장방형의 할석 2~3매를 가마의 종방향으로 1단 또는 2단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비교적 편평한 할석을 놓아 불길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도부 상단에는 큰 4매의 편평한 할석이 막음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위로도 약 1m의 소결된 바닥층이 확인된다. 그 정확한 용도나 기능은 자세치 않으나 연도부의 규모를 줄여 불길을 효율적으로 가마 밖으로 유도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도부 좌측에는 연도부내에 퇴적된 목탄재를 꺼내기 위한 출입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소결 측벽의 잔존여부와 목탄층의 연속성에 의해 구분된다.

내부에서는 일부 자기편과 도기편만이 출토되었다.

#### • 소성유구 및 폐기장

가마의 상부에서 부정형의 소결층 및 소토범위가 확인되었는데 기존에 자리한 지장물로 인해 대부분 삭평되고 바닥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결층을 제외한 내부바닥에서는 목탄과 함께 초벌편 일부만이 출토되어 처음에는 초벌실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그 성격이 분명치 않다.

또한 소성유구 오른편으로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에 가깝고 최대직경이 약 450cm에 이르는 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구의 위치상이 소성유구에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 유 물

본 흑갈유 가마에서는 주로 흑갈유 항아리, 대접이 출토되며 소량이나마 백자 대접 등도 일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출토되는 기종은 병, 뚜껑, 잔, 제기형 접시, 대반 등이며 기타 출토유물로는 갖모를 비롯한 요도구, 도기, 기와, 이형 토제품 등이다. 특히 초벌편들도 기종별로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분류된 유물 중에서 기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흑갈유

항아리 - 크기에 따라 大缸, 中缸, 小缸으로 구분되며 기형은 기벽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굽에는 굽은 모래받침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형태는 안굽이고 내저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연의 형태는 구연부가 말린 것이 대부분이나 직각으로 꺾이거나 직립한 것도 일부 나타난다.

유색은 흑색이 가장 많으며 갈색 또는 황갈색의 색조를 보이고 있다.

대접 -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직립한 것, 내만한 것, 살짝 외반한 것으로 구분되며 굽의 형태는 대부분 안굽이고 굽은 모래받침흔적이 남아있다. 내저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병 - 유병류가 많으며 구연의 형태에 따라 나팔형과 직립형, 외반형이 있다. 역시 굽은 모래받침이다.

뚜껑 - 대부분 항아리 뚜껑으로 추정되며 항아리 크기에 따라 그 규모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보주형 꼭지가 많으며 굽형도 일부 나타난다.

요도구 - 흑갈유 갓모편이 폐기장에서 출토되었다. 도지미는 원통형과 원반형 등이 확인된다.

#### • 백자

대접 - 백자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며 흑갈유 자기와의 차이점은 굽의 형태가 다양하여 안굽과 수직굽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수직굽의 형태는 세분될 수 있으며 내저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구연의 형태에 따라 직립한 것, 내만한 것, 외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반 - 저부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구연부는 말아 접은 형태이다.

제기형 접시 - 굽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과 다각형으로 구분되며 내저원각이나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도구 - 주거지 바닥과 그 주변 퇴적토, 폐기장 등에서 출토되며 흙은 마련되지 않았고 내면에 물레와의 마찰로 인해 깎인 흔적 등이 남아 있다.

이외 뚜껑편과 잔, 청화백자편 일부가 출토되었다.

#### • 기타 유물

도기와 기와, 이형 토제품, 철제품 약간 등이 출토된다. 기와는 폐기장과 집석유구 절개면에서 출토되었는데 시문면 문양은 반원집선문 형태와 반원집선문과 집선문이 복합된 형태, 무문의 형태 등이다. 도기는 폐기장과 원형수혈유구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특히 원형수혈유구에서는 기형복원이 가능한 파수부대반형 도기가 1점 출토되었는데 내면에는 물레흔적이 잘 남아 있고 저부는 평저이다.

한편 초벌구이편도 폐기장에서 상당량 출토되었는데 기종은 항아리가 가장 많다.

### 마) 조사성과

포천 길명리 유적에서는 1기의 가마 유구를 비롯하여 폐기장, 주거지(추정 공방지), 원형수혈 유

구, 소형 소성 유구, 탄재구덩이 유구, 집석 유구, 구들 유구, 기타 석렬 등 가마 및 가마와 관련된 부속유구 등이 함께 조사됨으로서 지금까지 조사성과가 드문 조선시대 흑갈유 자기 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본 유적의 흑갈유 가마는 소량의 백자도 함께 제작하여 동시기 백자가 마터와 좋은 비교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1호주거지 조사전경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자기는 매우 세련된 기술로 정성들여 만들어진 주문생산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용기인 항아리와 대접을 주종으로 하는 흑갈유 자기를 비롯하여 백자, 도기, 기와 등이 함께 확인되어 좋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조사된 유물 및 가마 유구를 통해 볼 때 흑갈유 자기요지는 조선시대 후기를 비롯하여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필요물품만을 생산, 공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물지 유적의 추정 초석열은 시굴조사 결과, 암반이 노출 또는 퇴적된 자연암반으로 추정되며 축대시설도 밭을 일구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건물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대상 지역 전반에 걸쳐 제 4기층이 확인되어 구석기 문화층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지역과 공사 절개면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구석기 관련 유물이나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 13) 서울 EMS테크센터 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가) 위 치 :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408-1번지 일원 2,100m<sup>2</sup> (약 700평)

나) 조사기간 : 2003년 3월 27일 ~ 2003년 6월 10일

다) 시 대 : 삼국시대

라)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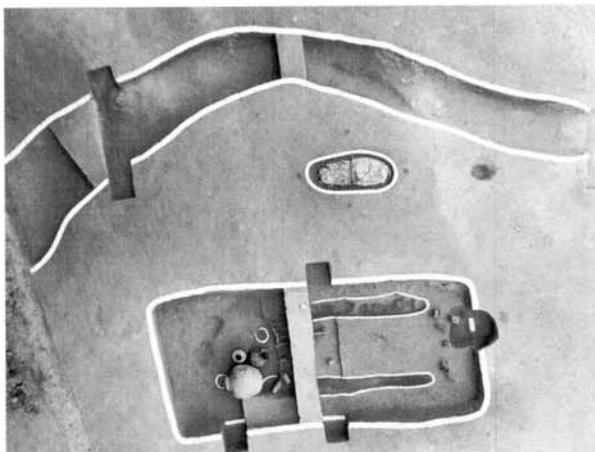
조사지역은 2002년 11월 우리 연구원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발견된 곳이다. 원래 이곳은 조사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었으나 주변지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물수습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적이 확인되었을 당시에 이미 (주)한국델파이가 '서울 EMS 테크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유물은 공사지역 외곽의 펜스 주변과 그 안쪽 법면 상단의 표토정리를 한 곳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가 잘려나간 타날문호와 철검 1점을 비롯하여 공사지역 주변에서 다수의 백제토기편을 수습하였다. 비록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적의 80% 이상이 훼손된 상태였으나 법면 예정부지의 일부가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공사시행처의 협조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유구

조사대상 유적은 2,100m<sup>2</sup>(약 700평)의 면적으로 해발 100m 미만의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터파기 공사로 유적이 훼손되기 전의 지형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던 지역으로 조사지역은 완곡한 'U'자 형태로 남아있는 법면 예정구간으로 공사지역 외곽 펜스가 조밀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풍화암반이 드러나 있었다. 조사편의상 북서쪽 구간을 I구역, 북쪽의 좁고 긴 구간을 II구역, 남서쪽 구간을 III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I구역은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다. II구역은 표토를 제거하자 퇴적층(암갈색 점토층)이 확인되는 범위와 풍화암반층이 바로 확인되는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퇴적층은 백제시대의 문화층으로 확인되었다. III구역은 표토와 부엽을 제거하자 10~25cm의 황갈색 사질토의 단일토층 만이 확인되었다.

I구역에서는 소량의 백제토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을 뿐,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II구역에서는 백제 토광묘 4기, 조선시대 주거지 2동, 구들 및 적석유구, 추정 청동기시대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III구역에서는 구들 1기와 소형의 원형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의 해발고도는 약 72m로 구릉 사면부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서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정확한 유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토기편과 함께 출토된 목탄 및 소토로 보아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잔존크기는 238cm×145cm이다. 잔존부 중앙에는 타원형의 소토범위가 확인되었으며, 크기는 80cm×110cm이며, 두께는 5cm 내외이다. 내부에서 공열문



주구목곽묘 전경

토기편 1점과 목탄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I, II구역의 표토에서 무문토 기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백제시대의 유구는 모두 분묘유적으로 총 4기가 II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3기의 토광묘는 북사면에서 확인되었으며, 4호묘는 구릉정상부 청동기시대 유구의 바로 남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상황은 아래와 같다.

#### • 주구목곽묘(3호묘)

4기의 백제토광묘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II구역 구릉정상부에서 확인된 주구목곽묘(3호묘)이다. 퇴적층(암갈색 점토층)의 경사면을 파서 조성되었으며, 주구를 포함한 묘역의 전체크기는 약 5m 정도로 중대형에 속한다. 주구는 공사로 인한 파괴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나 매장주체부의 남쪽을 두르고 있는 장타원형으로 짐작된다. 잔존길이는 770cm, 최대폭 100cm, 최대깊이는 25cm로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주구의 북쪽으로 약 1.2m 떨어져 목곽묘가 자리잡고 있으며, 주구와 목곽묘 사이에서 합구식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목곽묘는 장축방향은 N-80°-E이며, 전체 묘광의 크기는 장축이 384cm, 단축은 180cm이다. 서단벽의 일부가 나무뿌리로 인해 교란이 되었으나 유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원 지형자체가 남동~북서로 경사져 있으며 이는 토층상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인 토층양상은 크게 두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토층으로 보이는 황갈색 사질토층과 그 밑으로 암갈색 부식토층이 완만한 U자형과 함께 묘광의 바닥까지 다시 거의 곧게 내려가고 있다. 묘광의 절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강토는 크게 4개의 층위로 나누어지며 자연암반 레벨보다 약 20cm 아래로 부식토층이 계



주구목곽묘 출토 환두대두



주구목곽묘 출토 토기류



철기류 각종

양쪽 측판 추정열에서 총 22점의 관정이 출토되었다. 석제류는 숫돌이 도자와 함께 시신의 허리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용관묘의 장축방향은 매장주체부와 동일하고, 토기는 모두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굴광의 길이는 약 95cm이다.

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토층형태로 미루어 완만한 U자형의 토층은 木蓋가 부식되면서 토압으로 인해 함몰된 흔적으로 추정, 암반면보다 깊은 부식토층은 목곽을 세우기 위하여 굴광을 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양쪽 장판에서 모두 확인되며, 전체길이는 230cm 정도이다. 이에 비해 측판에서는 굴광을 다시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관정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목곽의 축조순서는 먼저 장판을 세우고 관정을 이용하여 측판을 세운 다음 그 위에 목개를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묘광의 크기와 유물의 출토양상을 통하여, 묘광의 동쪽에 부장공간을 따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 출토유물은 토기류, 석제류 및 금속류로 나누어진다. 토기류는 모두 시신의 머리쪽에 해당하는 부장공간에서 출토되었는데 회청색 승문타날호(大), 흑색 승문타날호(中), 무문의 흑색직구 유견호(小) 등 3점이 출토되었다. 금속류는 목곽의 내부에서 金裝細鑲耳飾, 환두대도 및 도자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부장공간에서 철부 2점, 철검, 鉞 등이 확인되었으며,

• 토광목관묘(2호묘)

주구목관묘의 북사면을 따라 약 5m 이격하여 토광목관묘(2호묘)가 확인되었다. 장축 방향은 N- 80°-E이며, 묘광의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75cm이다. 묘광의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장축 233cm, 단축 50cm이다. 주구목관묘와 다르게 별도의 부장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신의 머리 위쪽에서 흑색 승문타날문호와 회백색 무문연질호, 허리부분에서 철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토광묘 출토 장란형호

• 토광(목관)묘(1호묘)

1호묘는 2호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m 떨어져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N- 40°-W이며, 묘광의 규모는 장축 258cm, 단축 75cm(잔존)이다. 심한 삭평과 공사시 장비의 굴착으로 인하여 잔존상태는 극히 불량한 편이며, 이로 인해 정확한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구목관묘와 동일한 굴광의 흔적이 확인되어 같은 성격의 묘제로 추정된다.



2호 토광묘 출토 무문 평저호

다. 그러나 타날문 원저호와 철검이 수습된 곳이 바로 묘광의 내부이며 또한 출토당시 원저호의 밑에서 철검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출토되어 목관(관)을 사용한 토광묘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4호묘

4호묘는 나머지 3기의 묘와 다르게 구릉정상부의 평탄부에서 확인되었다. 인접한 청동기시대의 유구와 함께 삭평이 매우 심하여 정확한 축조방법을 알 수 없다. 잔존길이 150cm, 잔폭 60cm이며, 장축방향은 N- 20°-E이다. 다만 내부에서 관정과 보습으로 추정되는 철제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관정의 형태가 주구목관묘의 것과 매우 흡사하여 축조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 • 조선시대 유구

조선시대의 유구는 주거지 및 구들 각 2기와 원형수혈유구 및 성격미상의 적석유구 각 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주거지 2기는 모두 백제시대 문화층을 파괴하면서 조성되었다.

1호 주거지는 공사시 절반 이상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잔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60°-W이다. 내부에서 주혈 2개가 확인되었으며, 수혈의 깊이는 8~10cm이다. 주거지의 중앙에는 주거지의 벽선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굴광선이 확인되는데, 내부에는 할석과 기와가 놓여져 있으며,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2호 주거지는 나무로 인한 교란과 심한 삭평으로 바닥만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N-74°-W이며,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내부에는 장타원형의 소토층이 확인되며 크기는 120cm×80cm, 깊이는 5~12cm 정도이다. 외부에서 타원형과 원형의 주혈 2개가 확인되었다.

1호 구들은 Ⅱ구역과 Ⅲ구역의 경계부에서 확인되었다. 약 270cm 정도의 크기로 형태는 방형이다. 유구의 남동쪽은 나무뿌리로 인하여 교란되었으나, 북동쪽에서는 2줄 고래의 형태가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되었다. 고래의 덮개돌은 얇고 넓적한 할석을 이용하였으나, 남서쪽 부분은 돌의 두께 및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래가 북동쪽의 3열로 마감되는 것으로 보아 남서쪽과 구분하여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덮개돌의 상부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수기와와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2호 구들은 Ⅲ구역의 경사면에서 조사되었다. 잔존상태는 1호 구들에 비해 불량하며,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이다. 소토의 두께는 5cm 미만으로 얇은 편이다. 내부에서 도기편과 철제류가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1호 구들 주변에서 확인된 직경이 65cm인 원형수혈유구와 장방형의 적석유구는 유적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유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출토유물로 보아 시기는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기와류가 대부분이며 이 밖에도 도기류와 자기류가 수습된다. 기와는 회청색 경질과 회백색 연질이며 문양은 대체적으로 집선문과 반원집선문+기하문이 복합된 것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기와에서는 무문이 많이 확인된다. 자기류 중에서 도립삼각형 굽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대체적인 편년은 조선 전·중기로 가늠할 수 있다.

#### 마) 조사성과

이번 조사에서는 백제시대 분묘유적과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주로 확인되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무문토기와 인화문토기가 수습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 연속적으로 주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적은 전체적으로 백제문화층이 확인되나 최근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대부분이 유실되

었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주구목곽묘의 존재가 확인된 점이다. 이는 그 간 논의되어 왔던 주구묘의 지역성, 시간성 및 조영집단문제 등에 관한 점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주구묘는 천안 청당동에서 최초로 조사된 이래 진천 송두리, 청주 송절동, 공주 하봉리, 서천 당정리, 보령 관창리 등 주로 천안, 청주 등의 중서부 내륙지역 및 금강수계에서만 확인되어 다른 묘제에 비하여 그 분포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서해 안고속도로구간인 고창 성남리, 예지리, 영광 군동 등에서 주구묘의 존재가 확인되어 남한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었다. 이곳에서는 주구묘 대상부 중앙에 토광묘를 주매장 주체부로 안치하고 그 주위나 주구내에 옹관을 안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다장형식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주구묘 분포의 시공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구묘를 마한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의견이 개진되어 왔지만 용인지역에서 확인된 주구묘를 통해서 보았을 때, 조영주체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묘제 자체의 위계적 측면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MS테크센터 부지내 유적은 조사지역의 협소함과 건설공사로 인한 지형의 훼손으로 인하여 분묘군의 정확한 규모나 범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된 유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번에 조사된 주구목곽묘가 규모나 입지, 유물부장양상의 질과 양적인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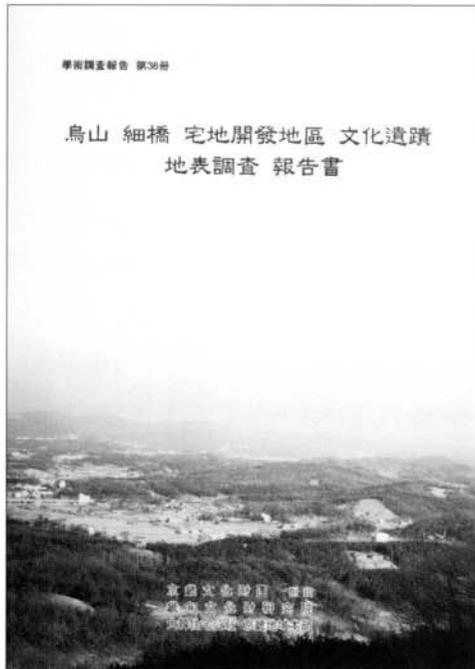
이 주구목곽묘의 축조시기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대략 4세기 후반~5세기 전엽으로 편년하고자 한다. 환두대도의 형식이 환두와 도신을 별주하고, 그 연결부분에 대금구를 돌린 발전된 형태로서 소위 고분시대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장세환이식의 존재와, 날이 호형을 띠는 철검의 존재 등도 상기의 편년설정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토기류에서 경질소성의 대형 회청색승문타날호의 존재 역시 회청색의 경질토기제작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 용인의 중심지역이었던 漢山州의 巨黍縣(一云 滅烏)이 자리했던 곳으로, 이 지역은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중심이었던 풍납동, 방이동, 석촌동 지역과 바로 탄천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바로 이 지역에서 백제시대의 주구목곽묘가 발견된 사실은 그 역사고고학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적석총을 축조했던 백제왕실과 주구목곽묘를 조영하였던 이곳 滅烏의 지역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주구목곽묘의 존재와 함께 최근 발굴조사 된 수지빌라트부지내 신라고분군, 수지 백제주거지,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백제고분군과 주거지, 용인 구갈지역내 대형 수혈유구 등의 유적은 삼국시대 경기남부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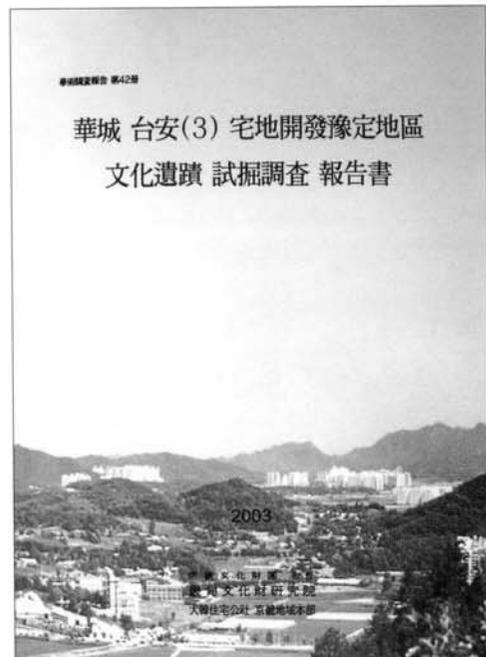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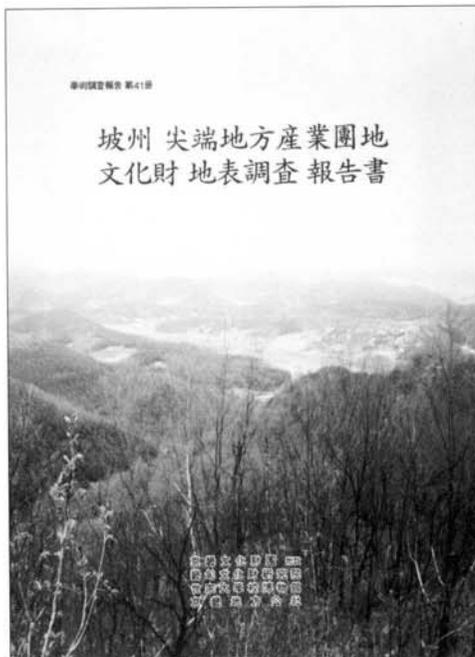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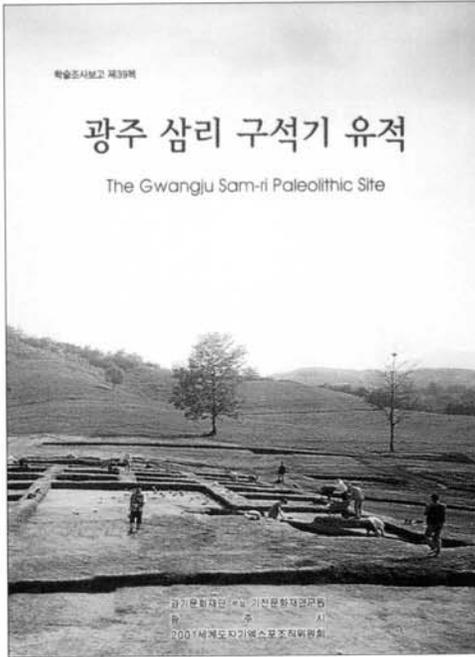
## 4.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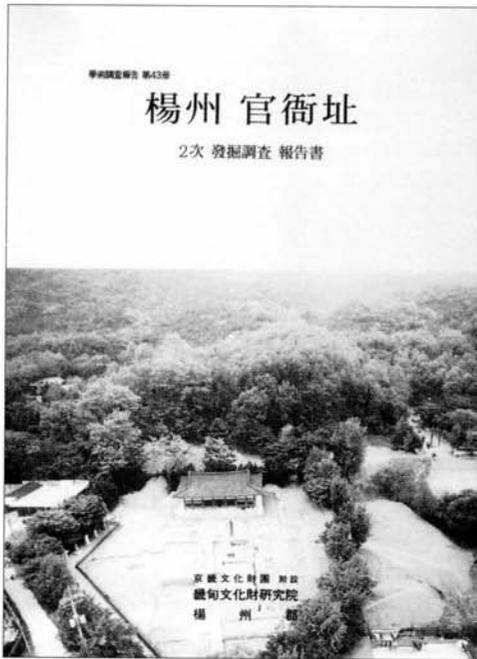
2003년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크고 작은 규모의 지표조사보고서 20건, 시·발굴조사 7건, 그리고 현장설명회자료가 18건 등이 있다. 그 중 학술조사보고는 아래와 같다.

### 1) 보고서

연 번	서 명
36책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37책	용인 서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39책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40책	시흥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41책	파주 첨단지방산업단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42책	화성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43책	양주 관아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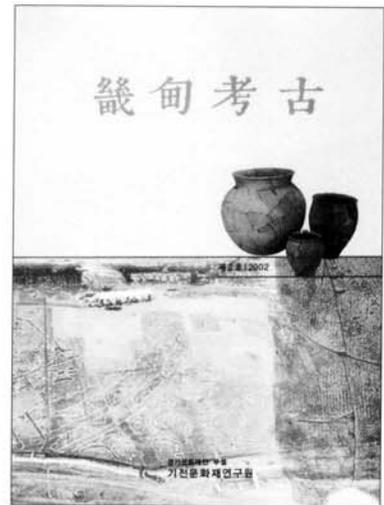






## 2) 연보

『畿甸考古』2호 간행



## 5. 문화재 사업

### 1) 『기전고고』 제2호 발간

#### ○ 주요내용

- 기전문화재연구원의 문화재 조사성과 및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연보형식으로 수록
- 경기지역의 연간 문화재 발굴조사 내용과 경기지역 고고학계 동향을 정리하여 수록
- 자체 문화재 관련사업 요약 수록
- 부록으로 1945년~1990년도까지의 경기지역 문화재조사 자료를 정리함

#### ○ 발간개요

- 판형 및 부수 : 4×6배판 318쪽, 1000부 발간
- 발간/배포시기 : 2003년 6월

### 2) 문화재 관련 학술기관 지원

#### ○ 목적

수도권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신설된 서울경기고고학회에 학술지원금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 관협회 회원 납부를 통해 학술지원에 협조함

#### ○ 주요내용

- 삼불추모사업회 주관 학술 강연회 및 추모 CD제작 지원
- 서울경기고고학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제2회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종합토론

### 3) 경기지역 유적발굴 학술대회 개최



#### ○ 목적

기전문화재연구원과 경기지역의 문화재조사 현장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문화재조사 연구자들 간의 학술적 의견 발표의 장을 마련함

#### ○ 개최내용

##### - 전국규모 학술대회

- 개최 일 : 2003. 07. 29(화) 10:00 ~ 18:00
- 개최장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 개최방법 : 경기도박물관과 공동개최
- 주 제 : 고려말 조선전기의 불교문화와 회암사
- 참석인원 : 150명

##### - 기문원 소규모 학술대회

- 개최 일 : 2003. 07. 05(토) 09:30 ~ 12:00
- 개최장소 : 경기문화재단 6층 강의실
- 개최방법 : 기문원 직무교육을 겸한 소규모 학술강연회
- 참석인원 : 기문원 직원, 외부기관 연구원 및 기타 학생 등 43명

### 4) 문화재 관련 위탁사업

#### ○ 광주 분원리 도요지 정비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사업

- (1) 국가 사적 제314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 분원리 도요지를 정비·보존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유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
- (2) 더나아가 조선왕실의 백자도요지를 입체적으로 복원하여 역사교육과 여가선용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

#### ○ 『한성백제 충서』발간사업

- (1) 최근 기전지역에서는 한성백제 관련 유적과 유물의 발굴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런 고고자료의 증가는 한성백제의 실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2) 특히 서울지역의 중앙세력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방세력과의 역학 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대사연구의 지평을 한층 넓힐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임진강·한강수계와 그 지류에 존재했던 소국들의 분포와 그 정치문화적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 역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학문적 바탕을 마련할 것임

(3) 사업내용 : 문헌사와 고고학으로 나누어 연구 진행 후 총서로 발간

문헌사 : 주제와 관련된 문헌과 사료 등 자료를 정리하고 고찰 시도

- 연구방향

- 한성기 백제연구의 기초가 되는 문헌사료의 특징과 이를 이용한 연구상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되,
- 이것이 한성기 백제영역내 지역집단의 형성과 백제의 지방지배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서술함

- 연구주제 및 집필자

- 漢城期 百濟研究와 文獻史料 ————— 김수태(충남대)
- 魏略·魏志 韓傳佚文輯本考 ————— 윤용구(인하대)
- 中國史書의 異民族 記載方式과 魏志韓傳 ————— 기수연(단국대)



한성백서 총서 편집회의

-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百濟記事 ————— 임기환(한신대)
- 中國史書의 漢城期 百濟史料 ————— 정재윤(독립기념관)
- 日本書紀의 漢城期 百濟史料 ————— 연민수(동국대)
-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樂浪와 靺鞨 ————— 윤선태(충남대)
- 馬韓의 공간적 범위와 百濟 ————— 문창로(국민대)
- 漢城期 백제의 地方勢力 ————— 강중원(충남발전연구원)
- 백제의 郡縣故地에 대한 경영 ————— 김기섭(경기대)

고고학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성백제 관련 유적을 권역별로 나누고 팀을 구성하여 기존자료 정리 및 고찰 시도

- 연구주제 및 집필진 구성
- 한성기 백제연구와 고고 자료(총론) ————— 박순발(충남대)
- 임진강 유역 : 집필책임자 ————— 권오영(한신대)
- 한강 하류역 및 서해안 지역 : 집필책임자 ————— 백종오(경기도박물관)
- 한강 중상류 유역 : 집필책임자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 안성천 유역 : 집필책임자 ————— 심광주(한국토지박물관)

## Ⅱ. 2003년 경기지역 고고학계 소식

1. 유적 조사 활동
2. 주요 유적 현장설명회
3. 각종 소식
4. 간행물

## 1. 유적 조사 활동\*

2003년도 경기지역의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실적을 제외하고도 80건 이상에 이른다. 조사의 대부분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제발굴로서 순수한 학술 목적의 발굴은 소수이다. 경기 북부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재 조사 건수도 증가하여 경기지역 전체조사 건수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연번	건명(조사유형)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내용(유구)	조사내용(유물)	시대	종류
1	용인 동백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20729~1223(예정)	황구식석실분,토기요지, 분묘,구석기문화층 등	각시대별 석기,토기, 자기,기와,철기 등	구석기~조선	발굴 시굴
2	김포 문수산성 서문지 시굴조사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204~0322	추정 문지 및 건물지	토기,백자,기와편 등	조선,근대	시굴
3	평택 송화리 군부대시설 부지내 유적	성공관대학교 박물관	030217~0409	제4기 지층	없음	구석기	시굴
4	하남 춘궁동 주택신축 부지내 시굴조사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227~0302	추정 건물지(담장지 및 추정 암거시설)	토기,자기,석기,철기, 기와편 등	라말여초	시굴
5	하남 신장동 도시계획 도로 공사구간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325~0403	유물산포지	없음	조선(추정)	시굴
6	김포 수안산성 봉수대지 발굴조사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401~0524	봉수대지 및 추정건물지	인화문 토기편, 자기, 토기, 기와등	통일신라~조선	시굴
7	용인 보정리 한진교통 사옥부지내 시굴조사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416~0425	없음	없음	/	시굴
8	하남 덕풍동 리치빌 2지역 주택조합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502~0527	청동기 수혈 주거지 1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 조선시대 토광묘 4기	토기, 자기편 등	청동기, 조선	시굴
9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발굴조사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030310~5	성내부 동벽·남벽 일부구간	고구려 토기, 백제 토기, 조철청자	삼국시대	발굴
10	용인~포곡간 도로 확보장 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중원문화재 연구원	030506~0607	고려시대 건물지 및 조선시대 분묘군(토광묘 5, 회곽묘 1-조선시대)	기와류,토기류, 자기류,철정 등	고려~조선	시굴
11	하남 덕풍동 덕풍골 약수터 한솔주택조합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509~030523	조선시대 건물지 2동, 수혈유구 2기	인화문 토기병 등	조선	시굴
12	하남 광주향교 정비부지내 유적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509~0516	건물지2기	토기,자기,기와편 등	조선	시굴
13	중앙선(덕소~원주간)복선 전철사업구간내 양평 앙수리유적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030530~0930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등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철기류 석기류	초기철기~고려·조선	발굴
14	여주 신접리 고인돌 발굴조사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605~0622	고인돌 1기	없음	청동기	발굴
15	탄도~송산간 도로 확보장공사구간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30611~0722	1구역/수혈유구2기,소성유구1기, 석축유구2기,부석유구1기, 석렬유구3기,추정건물지1개소, 2구역 부석유구기,석렬유구기	각 시대별 토기편, 자기편, 기와류 등	통일신라~조선	시굴
16	화성 발안지방 산업단지내 유적	중앙문화재 연구원	030620~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	시대별 토기편 기와류 등	고려~조선	발굴
17	성남 천림산 봉수 부속 건물지 조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030404~0520	건물지, 생산 관련 수혈유구	도가니3점,토기 및 도자류	조선	발굴
18	남한산성 행궁지 6차 발굴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030620~	건물지	자기,토기,기와류	조선	발굴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조사실적은 제외함.

연번	건명(조사유형)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내용(유구)	조사내용(유물)	시대	종류
19	여주 가업리 물류센터 조성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623~0802	조선시대 건물지 1기	백자, 도기편, 기와 등	조선	시굴
20	하남 종합운동장 건립부지내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030703~0728	없음	없음	/	시굴
21	하남 덕풍동 덕풍골 약수터 한솔주택조합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714~0812	건물지 유구, 수혈유구2기	토기, 자기편 등	조선	발굴
22	하남 광주향교 정비부지내 유적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728~0906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백자편, 분청사기, 기와류	조선	발굴
23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주변지역 유적	서울대학교 박물관	030801~0816	주거지(방형주거지 2기)	백제시대 토기편 등	백제	시굴
24	하남 덕풍동 리치빌 2 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806~1106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수혈기, 고려시대 토광묘1기, 조선시대 솟가마 1기, 와요 1기	공렬토기, 고려시대 동전, 조선시대 각종 토기, 자기 등	청동기~조선	발굴
25	용인~포곡간 도로 확장공사구간내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030909~1029	건물지, 분묘군	토기, 도자류, 기와, 동전	통일신라~근세	발굴
26	성남 금토동 군부대시설 부지내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030811	백자요지	백자편, 도자미	조선	시굴
27	안성 종리동 동광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030812~1031	와요지기, 은동시설기, 토광묘 11기, 토광묘관묘 7기, 화곽묘 2기	백자, 토기편	고려~조선	시굴
28	용인 보정리 고분군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030816~	석실묘 2기	신라토기 등	삼국	발굴
29	용인 신갈~수시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30818~1220	2구간/석곽묘2기, 화곽묘3기, 토광묘12기, 석열유구1기, 수혈유구15기, 5구간 토광묘2기, 수혈유구1기	백자, 청자, 청동손가락 등	고려, 조선	시굴
30	안양 발달동군사시설부지내 유적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030821~1020	조선시대 건물지 1동	자기, 도기, 기와류	조선	시굴
31	이천 설성산성 3차 발굴조사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030823~	건물지 2개소	백제토기 각종	통일신라	발굴
32	화성 군부대 체력단련장 조성부지내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030901~1011	토광묘7기, 수혈유구5기	없음	고려~조선	시굴
33	김포 정기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30909	유물산포지, 시대미상 토루	토·도자류		시굴
34	화성 금의 산업단지내 유적	한신대학교 박물관	030916	유물산포지	자기편, 도기편, 기와편 등		시굴
35	이천 백암 비스타 골프장 사업부지내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030917~0923	석축유구	없음	/	시굴
36	평택 신왕~도일간 도로공사 구간내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030924~	유물산포지	기와, 분청사기, 토기, 자기 등	조선	시굴
37	이천 설봉산성 4차 발굴조사	단국대학교 매장 문화재 연구소	031029~	문지1개소, 건물지6개소, 장대지1개소, 치성 4개소, 우물지1개소, 수구지2개소	백제·통일신라 토기류 각종	삼국시대~	발굴
38	하남 춘궁동 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1002~1011	없음	없음	/	시굴
39	평택 도곡리 골프연습장 신축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1008~1101	토광묘2기	도기, 기와류 등	고려	시굴
40	용인 마북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한신대학교 박물관	031009~	고려~조선시대	자기, 기와류 등	고려~조선	시굴

연번	건명(조사유형)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내용(유구)	조사내용(유물)	시대	종류
41	여주 가업리 물류센터 조성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1010	조선시대건물지	백자, 도기 등	조선	발굴
42	화성 요리 광산김씨 납골분묘부지내 유적	한신대학교 박물관	031013 ~1110	없음	백제토기편	/	시굴
43	화성 오산리 풍성아파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031017 ~	원형유구, 주거지60기 구석기문화층	구석기류, 토기편, 철제유물, 마노장산구	구석기~ 초기철기	시굴
44	안성 죽주산성 정비구간내 북벽발굴	단국대학교 매장 문화재연구소	031022~	성벽	토·도자류, 외편	신라 ~조선	발굴
45	안성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중원문화재 연구원	031022 ~	구석기 문화층, 유물산포지	석기, 무문토기, 자기편, 기외편 등	구석기 ~조선	시굴
46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6차 발굴조사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031022 ~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무문토기, 석기	청동기~ 통일신라	발굴
47	과천 군부대시설 부지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31023~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토기류, 외편	청동기 ~조선	시굴
48	평택 가재동 아파트 건립 부지내 유적	고려대학교 매장 문화재연구소	031113 ~1212	유물산포지	성과없음	/	시굴
49	용인 동백지구 주변도로 예정구간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31029 ~	유물산포지	토기편, 외류	통일신라 ~조선	시굴
50	화성 팔탄 북부 우회도로 구간내 유적	중앙문화재 연구원	031103 ~	석관요, 도기가마 및 생활유구	각 시대별 토기, 자기, 철기, 기외 등	통일신라 ~조선	발굴
51	하남 중궁동 주택 증개축부지내(조영규)유적	한양대학교 박물관	031111 ~	추정 건물지	통일신라 토기류	통일신라	시굴
52	이천 덕평 휴게소 건립부지내 유적	한국전통 문화 학교 부설 한국 전통 문화연구소	031112 ~	유물산포지 및 분묘군	무문토기 백자 등	청동기 ~조선	시굴
53	이천 후안리 석탑지 발굴	단국대학교 매장 문화재연구소	031113~	석탑지	백자 상환용기, 기외	고려	시굴
54	평택 칠과동 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031124 ~1202	유물산포지, 청동기 주거지	무문토기편, 편평편인 석부 외	청동기	시굴
55	용인 공세리 복합단지 건립 부지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031120 ~1220	유물산포지	성과없음	/	시굴
56	하남 하사창동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중앙문화재 연구원	031122~	유물산포지	토·도자류	/	시굴
57	화성 탄도~송산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0722 ~	1구역수혈유구2기, 소성유구 1기, 석축 유구2기, 부석유구 1기, 석렬유구3기, 추정 건물지 1개소, 2구역 부석 유구 1기, 석렬유구1기	각시대별 토기편, 자기편, 기외류 등	통일신라 ~조선	발굴
58	화성 와우리 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중앙문화재 연구원	허가 미통보	유물산포지, 건물지 등	성과 없음	/	시굴
59	안산 대부도 육곡 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	한양대학교 박물관	허가	고려시대 분묘	고려 중· 후기 청자류	고려	발굴
60	용인 동백 동원로알두크 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경기고고학 연구소에서 변경예정		유물산포지	조선후기 자기편	조선	시굴
61	파주 교하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발굴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512 ~1003	토광요, 조선민요 등	29건 40점	청동기~ 조선	시·발굴
62	고양 법곳동 먹절산 유적 발굴	경기도 박물관	030602 ~0730	주거지8기, 수혈2기, 구상 유구1기, 직석유구5기, 민요	고배, 시루, 회청색경 질토기, 광구장경호 등	백제	시굴

연번	건명(조사유형)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내용(유구)	조사내용(유물)	시대	종류
63	가평 봉수리 채석장 부지내 유적 발굴	경기대학교 박물관	030625~0702	석곽묘	백자편	조선	발굴
64	포천 일동~영중간 도로 확장공사구간내(포천 금주리 유적) 유적 발굴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813~1012	주거지 6개소, 구	토기류, 화살촉 2점 등	초기철기	발굴
65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내 유적발굴(5공구)	한림대학교 박물관	030721~1020	주거지 41기, 낙랑·고조 선계 토광묘 등	공렬토기 다수, 화분 형태토기, 석기류 등	청동기	발굴
66	파주 두포~천천간 도로확 포장공사구간내 토탄층 발굴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030918~1003	토탄층	없음	/	발굴
67	포천 자작리 유적 시굴	경기도박물관	030922~1108	주거유적	백제토기편 각종	백제	시굴
68	청평~현리간도로 개설 구간내 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	030925~	주거유적	중도식·격자문 등 각종 토기	초기철기~	시굴
69	파주 적성우회 도로개설 구간 발굴문화재연구소	한양대학교	030317~0622	제4기층	유물정리미완료 추후신고	구석기	발굴
70	파주 판매시설 부지 발굴	한양대학교 박물관	030228~0430	지석묘1기, 추정지석묘1기, 건물지1기, 원형수혈유구2기, 방형수혈유구2기	토기류, 백자	청동기~조선시대	시굴
71	연천 심원사지발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030331~	사지	기와류, 도자류	고려	발굴
72	안성 종리동 동광임대APT 신축지내 유적조사	중앙문화재연구원	030812~1031	와요지, 토광묘	백자류, 와류, 동순가락 등	조선	시굴
73	경의선 연결도로(비무장지대구간) 부지유적발굴	경기도박물관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311~0331	회곽묘, 건물지, 가마 석렬유구	수의 27점, 기와류, 토·도자류	조선	시굴
74	포천 일동~영중간 도로확장구간 발굴	세종대학교 박물관	030410~0504	집터, 건물지 징후	토기편	/	시굴
75	고양근린공원 부지내유적발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030506~0522	없음	없음	/	시굴
76	파주 혜음원지 3차 발굴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030425~0920	가, 나지구의 북쪽 및 동쪽 담장지	명문평기와 등 112점	고려	발굴
77	파주 두포~천천간 도로확장구간 유적 발굴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031125~	제4기층	구석기류	구석기	발굴
78	가평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유적 시굴	한양대학교 박물관	031105~	조사 진행중		/	시굴
79	양주 가업리 공동주택 건설부지 유적시굴	동국대학교 박물관	031105~1220	건물지	와편, 토·도자류	조선	시굴
80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전용진출입로 구간유적발굴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031117~	토탄층의 존재 여부	없음	/	발굴
81	의정부 금오동 산45~22번지 건축물신축부지유적 시굴	세종대학교 박물관	031120~	조선시대 건물지 일부	와편, 도자편	조선	시굴

## 2. 주요 유적 현장설명회\*

### 1) 가평 달전리 유적

- 가)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달전2리 603-10번지 일원
- 나) 조사기간 : 2002. 10. 10~2003년 6월 7일 현재
- 다) 시 대 :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 라) 조사기관 : 한림대학교 박물관
- 마) 조사내용

이 발굴조사는 현재 철도청이 추진 · 시행하고 있는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제6공구 가평역사건설 부지 내 청동기시대 공렬토기문화 마을유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번 발굴조사에 앞서 이미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전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제6공구 가평역사 부지 외 인접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당시 시굴조사 결과, 가평역사 예정부지 내에서 10기의 공렬토기계 무문토기문화 유구가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유구

발굴조사된 유구는 공렬토기계 무문토기문화 유구 41기와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 4기, 조선시대 아궁이로 추정되는 유구 5기 등 총 50기이다.

먼저 공렬토기계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유구 41기의 평면형태는 남북장축 또는 동서장축의 (세)장방형이 34기, 원형이 1기, 윤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형이 6기다. 동서장축 유구는 조사지역 동쪽에 편중된 반면, 남북장축 유구는 전역에 고루 퍼져있되 동쪽에서는 분포 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단다.

유구의 내부 바닥은 일부 맨땅을 다져 사용한 것도 있지만 대개 두께 1~2cm의 황적갈색 점토를 깔아 다졌고, 노지는 주로 토광형이 사용되었다. 유구의 상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둥구멍은 잘 확

\* 여기에 수록한 자료는 각 기관이 발표한 현장설명회 자료를 편집 · 수록함.

인되지 않는다. 또한 유구 벽 가장자리나 모서리에 저장구덩이를 조성하기도 하였는데, 9호 유구에서는 남벽과 북벽가의 저장구덩이에서 공렬토기가 묻힌 채 확인되었고, 36호 유구에서는 남서모서리의 저장구덩이에서 석재들이 출토되었다. 33호 유구의 경우 바닥에서 점토를 깔았던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토광형노지가 아니라 위석식노지가 사용되었으며, 5×2열의 기둥받침돌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는 유물이 반출되어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2호와 3호이고 나머지 1호, 그리고 16호 유구와 중복된 4호의 경우 내부에서 오히려 무문토기편만이 출토될 뿐이어서 명확히 성격을 규정짓기 어렵다. 다만 노출되는 양상이나 토광을 단이 지게 굴토하는 방식(4호)에서 서로 같은 성격의 유적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토광묘 1호는 남북장축의 300×123cm의 세장방형 토광을 굴토하여 관을 안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부 단면상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벽선으로 미루어 광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토광묘 2호는 280×130cm의 남북장축 세장방형 토광을 약 70cm 이상의 깊이로 굴토하되 북쪽에는 단을 만들고 단 아래에 관을 안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북쪽 단 위에서 출토되었다.

토광묘 3호는 330×120cm의 북동-남서장축의 세장방형 토광을 95cm 깊이로 굴토하되 북동쪽에는 2단으로 단을 만들고 남서쪽에는 1단을 형성하였다. 토광 바닥은 반으로 나누어 북서쪽에 치우쳐서는 관을 안치하고, 남동쪽에는 부장품을 안치하였다. 관 안치지점과 부장품이 놓인 지점을 덮는 나무 뚜껑(?)을 단에 걸치도록 해서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면상에서나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벽선, 그리고 벽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나뭇결의 흔적으로 보아 광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관 옆자리에서, 그리고 북동쪽 2단 중 상단에서 출토되었다.

토광묘 4호는 16호 유구와 중복된 상태로 16호 유구 북서지점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217×110cm



토광묘 3호



2호 토광묘 출토 토기

의 남북장축의 토광을 굴토하되 동쪽에는 단을 형성하고 그 서쪽 아래에 관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유물

공렬토기문화의 장방형 유구에서는 크게 토기류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로는 공렬토기가 다수 출토되는데, 완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9호 유구 저장구덩이에서 나온 대·소형 2점 뿐이다. 그리고 25호 유구에서는 장경호 1점과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고, 33호 유구와 39호 유구에서 굽다리잔편이 출토되었다. 토기 외에 33호 유구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흠이 나있는 타원형 토제 어망추 2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류 중에는 간석기는 별로 없다. 그나마 출토된 간석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석촉이 있는데, 특히 조사지역 중 동쪽에 치우쳐 분포하는 유구에서는 적어도 한 두개 이상은 반드시 출토된다. 스페가 납작해지는 1단경식이 주를 이루는데, 33호 유구에서는 2단경식 석촉편이, 36호 유구에서는 삼각만입형 석촉편이 출토되었다. 유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탐색갱에서 출토된 유구석부 2점이 있다.

유구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것은 소위 덴석기편, 또는 미완성 돌도끼, 미완성반월형석도편, 그리고 석재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강돌 등이다. 16호 유구와 17호 유구에서는 작은 격지가 다량으로 공반된다.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에서는 토기와 철기가 공반된다. 2호 토광묘에서는 전형적인 화분형토기와 소위 '배부른 단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타날문토기가 각각 1점, 그리고 대소 철부 각각 1점, 낫 2점, 가지창 1점이 북쪽 단 위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3호 토광묘에서는 화분형토기가 북동쪽 2개 단 중 상단에서, 그리고 관 옆의 부장간에서는 철기가 출토되었다.

## 바) 조사성과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마을유적과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유적이 확인되었다. 각 유적의 성격과 의미를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평지역에서 처음으로 41기의 유구가 확인된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은 공렬토기계 무문토기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시기는 무문토기문화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유구 장축 방향의 변화나 석촉의 형태 차이, 굽다리잔의 유무, 노지의 형태 차이 등에서 볼 때 조사지역 동쪽의 동서장축 유구와 중앙·서쪽의 남북장축 유구 사이에는 일정한 시기 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상한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평지역의 선사시대 고고학적 문화양상은 이제 겨우 그 존재만 일부지

역에서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 아직 가평지역 전체 양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춘천을 비롯한 영서지역과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중서부지대를 이어주는 교통 요지의 역할을 해온 가평지역에서 공렬토기가 공반되는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가평지역 선사문화의 일단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양평 등 북한강하류지역 무문토기문화와 춘천, 화천 등 북한강 상류지역 무문토기문화와 연결되는 북한강 무문토기문화권을 상정하는데 필요한 고리가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의 경우, 공반 유물과 함께 유구가 확인된 것은 가평지역 뿐 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곽을 사용하면서 토광을 단이 지게 굴토하는 것은 서북한의 황해도 외곽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형적인 화분형토기와 함께 공반된 '배부른단지' 그리고 대소철부와 낫 등의 출토유물을 고려하면 기원전 1세기 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동기가 공반되지 않은데다 서북한지역에서 가평지역으로의 이동기간을 고려하면 1세기 중엽까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되던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가 이번에 가평지역에서도 확인됨으로써 고조선 멸망 후 혼란기에 고조선유민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三國志』와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 문헌의 단편적인 기사로서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로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낙랑의 고조선계 서북한문화와 관련해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관계가 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한반도 중부-북한강유역과 서북한지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진다. 또한 향후 가평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에서도 같은 유형의 유적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번 발굴이 가지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용인 동백지구 1·4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 가) 위 치 :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중리일원
- 나) 조사기간 : 2002년 7월 29일 ~ 2003년 5월 9일
- 다) 시 대 : 삼국시대
- 라)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마) 조사내용

용인 동백택지개발사업지구는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중리 일원으로 수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시굴 및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에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지구 내에 분포하는 유적에 대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시굴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에 총 4개소, 약 12,150평이 발굴조사 대상범위로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조사구역 중 북동쪽에서부터 남동쪽 순으로 1구역~4구역으로 명명하여 조사하였다. 1구역에서는 삼국시대의 폐고분을 비롯하여 와요지 2기, 토광묘 1기, 성격미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조선시대 수혈유구 1기, 토광묘 8기, 회곽묘 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3구역에서는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조선시대의 수혈유구 6기, 탄요 4기, 토광묘 1기, 기타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4구역에서는 도기요지 15기, 와요지 1기, 탄요 4기, 토광묘 18기, 기타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 유구

#### • 1구역

용인 동백지구 조사지역 내에서 제일 북동쪽에 위치한다.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능선 상부에 폐고분 1기가 확인되어 유구가 확인된 능선을 시굴 조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석실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폐고분이 확인된 주변에서 추가적인 유구로 와요지 2기, 토광묘 1기, 기타유구 1기가 조사 되었다.

1) 수원대학교 박물관, 1999, 『용인 동백지구 지표조사보고서』.

## 석실분



1구역 석실분 및 주변유구 전경



1구역 석실분 전경(서→동)

조금씩 내경 시켜 쌓아 올린 후 상부에 개석을 덮었다. 시상은 모두 3회에 걸쳐 시설되었는데, 1차 시상은 북단벽에 대형판상 석재를 사용하여 횡방향으로 축조하였으며, 높이는 30cm이다. 2차 시상은 1차 시상 옆에 붙여 소할석을 덧대어 축조하였고, 석침이 잔존하고 있었다. 3차 시상은 1,2차시상과 직교(“T자형”)되고 양장벽과는 떨어진 중앙부에 종방향으로 설치되었다. 석실의 바닥은 명황갈색 사질계 점질층을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sup>2)</sup>.

### • 4구역

용인시 구성읍 중리 산33-4번지 일원으로 조사된 유구는 토광묘 19기, 요지 20기(도기요지 15기,

석실분은 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1매 및 벽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현 지표면 위에서 확인되었고, 도굴갱으로 보이는 구덩이가 개석과 벽면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입구가 남단벽에 위치한 횡구식 석실분이며, 지하식이다. 매장주체부 위로는 경사면을 이용하여 봉토와 호석을 조성하였다. 잔존한 호석의 평면형태는 매장주체부 서북쪽과 서쪽에서 각 약 270cm, 360cm 거리에 원형으로 돌리고 있다. 석실의 장축방향은 등고선방향과 평행하는 남남서-북북동(N-23°-E)방향이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198cm, 높이 190cm이다. 벽면은 잔존상태로 보아 북단벽을 먼저 축조하고 이어 兩長壁을 축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남단벽을 쌓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벽석은 최고 8단 정도 남아 있으며, 주로 최하단 석에서 4단까지는 수직에 가깝게 종평적하고 그 위부터는 종평적과 횡평적을 혼용하여

2) 석실분은 지도위원회의 결과 이전복원대상으로 선정되어 屍床에 대한 해체작업을 현재까지 못 하였다. 출토유물은 없었으나, 시상 해체시 금속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은 있다.

와요지1기, 탄요 4기), 기타 수혈유구 3기로 총 42기가 확인되었다.

### 도기요지

도기요지는 남북사면에 2기~6기까지 5개 지점에 군집되었다. 따라서 조사편의상 능선을 기준으로 북쪽사면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I 지점~V 지점으로 명명하였다. 도기요지는 I, III, IV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I 지점에서는 도기요지 5기와 폐기장 5기,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III 지점에서는 도기요지 9기와 와요지 1기, 그리고 폐기장이 확인되었으며 IV 지점에서는 도기요지 1기 확인되었다.

1호요는 I 지점의 窯址 중 북사면 끝에 위치하였다. 동쪽으로 200cm 거리에 2호요가 위치하였으며, 북서쪽 사면 아래로 약 40cm 거리에 D 폐기장이 위치하였다. 現 지표면에서 10cm 정도 아래에서 적갈색결부와 재층이 확인되었다. 근래에 주변에 형성된 배수로에 의해 窯의 연소부와 요전부 그리고 폐기장이 훼손되었다. 1호요는 2차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는 반지하식의 등요로서 소성부는 2차에 걸쳐, 1차 요지의 소성부 하단부를 연소부로 개축하여 다시 사용하였다.

1차 요지의 평면형태는 연소부와 아궁이가 근래의 배수로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잔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규모는 길이 696cm, 최대너비 210cm, 깊이 66cm이며, 장축은 남-북(N-14°-W)향에 가깝고 등고선과 직교하였다.

2차 요는 1차 요지의 폐기후 황갈색 점질토의 퇴적도 위에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의 아궁이에서 연소부로 올라오면서 최대너비를 형성한 후, 연도부까지 계속 좁혀지고 있어 삼각형을 나타낸다. 요의 규모는 길이 566cm, 최대너비 188cm, 깊이 66cm이다. 아궁이와 연소부의 경계부는 段과 같은 특별한 시설 없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 바닥과 잔존 벽체는 회청색으로 소결되었으며, 재층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부에는 소량의 도기편과 석재들이 확인되었는데 석재 위에 도기편들이 있었다. 소성부의 바닥은 계단상으로 축조되었으나 명확한 형태가 없었으며, 경사도는 32°이다. 소성부의 벽체는 회청색으로 소결되었으나 바닥은 적갈색조의 소결상태를 보여주었다. 연도부는 소성부 말단부에서 약 86cm 까지이며, 바닥에서 높이 48cm, 경사도 70°의 급한 경사를 이루었다. 연도부 바닥에는 길이 20cm 규모의 석재 1매가 있었다.

### • III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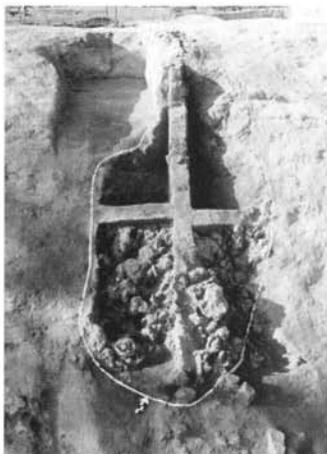
조사구역 중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유구가 확인된 입지를 살펴보면, 능선의 남쪽과 북쪽사면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남쪽사면에 6기, 북쪽사면에 4기의 요지가 입지하였다. 남사면은 북사면에 비해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르며, 유구의 잔존양상은 지형의 영향에 의하여 양호하지 못하다. 대체로 요지의 경우 바닥과 벽체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바닥의 회청색



4구역 Ⅲ지점 조사 중 전경(북-남)

소결부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었다. 또한 구릉사면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지점에는 民家들이 형성되면서 폐기장과 유구를 훼손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유구는 도기요지 9기, 와요지 1기, 수혈유구 1기, 폐기장이다.



4구역 Ⅲ지점 5호 요지

#### 8호요

8호요는 Ⅲ지점의 북사면에 위치하며, 지하식 등요로서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요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N-42°-W)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었다. 요의 규모는 길이 840cm, 너비 250cm, 잔존깊이 150cm이다.

요전부는 구의 윤곽선이 확인된 지점에서 바닥이 거의 편평하게 아궁이 쪽으로 이어져 다시 아궁이에서 약 20°의경사도를 유지하며 길이 160cm 거리까지 경사져 내려가 연소부와 경계된다. 아궁이부 좌측벽체에는 길이 30cm, 높이 70cm 규모의 판상석재를 세우고 그 위에 30cm 규모의 점토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석재를 3~4단 정도 쌓아 벽체와 천정부와 연결되는 보강역할을 하였다. 요전부의 규모는 길이 375cm, 너비 150cm, 깊이 120cm이다. 요전부의 단면형태는 터널형이다.

연소부는 요전부의 석재 앞에서 소성부와의 경계지점인 약 210cm 거리까지로 구분되고, 경사도 16°를 유지하며 소성부의 맨 첫 단이 시작되는 110cm까지 경사져 올라간다. 연소부 바닥은 회청색·적색소결부가 확인되며, 그 위로는 요의 벽체와 천정부가 함몰되어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토층상을 통해 살펴보면 소성부쪽의 천정부와 벽체가 연소부쪽으로 함몰된 뒤 외부 주변 토사가 뒤를 이어 흘러 들어오면서 퇴적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4구역 Ⅲ지점 8호 요지

요전부의 아궁이 벽 주변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벽체와 천정부를 축조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보다 견고하게 지탱되어 잔존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소부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240cm, 잔존깊이 150cm이다.

소성부는 경사도와 유단시설로 연소실과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240cm, 잔존깊이 약 130cm이다. 소성부 바닥의 경사도는 35°이다. 소성부는 유단식으로 상단부와 하단부로 세분할 수 있다. 상단부는 경사도가 약 49°이며, 段 중앙을 보다 깊게 굴착하여 凹형으로 관찰된다. 또한 좌, 우측에 다시 2단과 3단으로 각각 단을 조성하였고, 단의 높이는 30cm 정도이다. 단의 상면과 벽에는 전체적으로 점토를 발라 수평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발라진 점토에는 손자국과 너비 4~5cm 규모의 판목흔이 남아있었다.

#### • IV지점

IV지점은 I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60m 거리에 III지점에서는 동쪽으로 약 85m 거리에 위치한 다. 능선사면은 마을이 형성되면서 삭평되었고, 그 영향으로 유구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구는 도기요지 1기, 흑탄요 1기가 확인되었다.

#### 1호요

요지는 지하식 등요로서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규모는 연도부를 포함하여 길이 660cm, 최대 너비 200cm, 깊이 80cm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였다. 요전부와 연소부의 경계부에는 아무런 시설 없이 수평으로 연결되며, 바닥에는 재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연소부의 바닥에는 5~15cm 크기의 할석들이 길이 110cm, 너비 140cm 범위에 걸쳐 깔려 있으며, 돌들은 불을 먹은 상태이다.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부에도 단과 같은 시설 없이 급경사로 처리되었다. 소성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단벽 단부에서 60cm 아래 지점에 약 15cm 높이의 단을 마련하였다.

요의 벽체는 바닥에서 약 50cm 지점까지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며, 그 위에는 곡면 처리되어 안으로 급격하게 꺾이었다. 바닥과 벽체는 회청색으로 소결되었는데 소성부에서는 점토를 바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나 연소부의 벽체에는 일부 점토를 바른 것이 확인되었으며, 고온으로 인해 유리질화되었다. 연도부는 소성부 단벽의 중앙 상단부를 뚫은 후 그 위에 길이 170cm, 너비 120cm, 깊이 40cm의 말각방향으로 굴착한 다음 내부에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한 것이다. 연도부 벽체 역시 회청색의 소결상태를 보여주었다.

## 바) 조사성과

용인 동백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대상지역은 총 4개소이며, 그 중 1구역에서는 황구식석실분 1기를 비롯하여 와요지 2기, 토광묘 1기, 기타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황구식석실분은 입구를 남단벽 상단에 설치하였고, 봉토와 호석이 확인되었다. 석실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지하식의 황구식석실분이다. 屍床은 3회 시설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실분이 단 1기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고분의 축조시기를 정하기 어렵다. 단지 인근에서 조사된 용인 보정리 고분군<sup>3)</sup>과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유적들<sup>4)</sup>과 비교해 볼 때, 신라의 한강진출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용인 지역에는 보정리고분군<sup>5)</sup>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으나 앞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가까운 지역의 비교자료로는 여주 매룡리지역<sup>6)</sup>이 있으며, 그 외 석실분의 축조시기와 비슷한 비교자료로는 거리는 있으나 영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상주<sup>7)</sup>와의 자료 비교도 기대된다.

4구역에서는 토광묘 18기, 요지 20기, 기타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다. 그 중 도기요지는 15기가 조사되었으며 요지와 관련된 유물은 요지 및 폐기장(회구부)에서 회청색 경질도기편과 호형도기가 출토되었다.

용인 동백지구에서 확인된 도기요지는 비록 2기 외에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못하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기요지의 조사 및 연구활동<sup>8)</sup>과 관련하여 볼 때 앞으로 도기분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도기요지는 능선사면에 위치하였고,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또한 폐기장과 요의 중복관계를 통해 상대적 시간성을 살핀 결과 각 조사지점에서 요의 축조는, 사면 아래쪽에서

3) ① 畿甸文化財研究院, 2002, 『용인 보정리 수지빌라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시·발굴조사 중간 보고서』.

②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23.

4) ① 崔永禧·金正基·宋基豪, 1989, 『驪州 梅龍里 용강골 古墳群 II 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

② 경희대부설고고·미술사연구소·경기도, 1992,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보고서』.

③ 한국체육진흥(주)·경희대학교박물관, 1999, 『여주하거리방미기골고분』.

④ 김성태·김성수, 2000, 『驪州 上里·梅龍里 古墳群 精密地表調査報告書』, 畿甸文化財研究院·驪州郡.

5) 용인시·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p.323.

6) 김성태·김현준·윤소영, 2000, 『驪州 梅龍里 山4-25번지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畿甸文化財研究院

7)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道路公社, 2002, 『尙州 佳庄里 古墳群』.

상기유적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구간에서 조사되었다. 유구는 석실분 13기, 석곽묘 3기, 토광묘 13기, 기타유구 2기이며, 출토유물은 토기류 42점, 자기류 5점, 기와 2점, 철기 및 청동류 61점, 석기 1점 등이다. 이 중에서 석실분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에 해당하고, 석실분의 축조양상은 내부구조나 출토유물양상에서 황혈식석실분의 영향을 있으면서 황구식묘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혈계 황구식석실분은 출토된 유물에 비해 상당히 이른 시기의 묘제형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의 매장풍습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전통성이 강한 묘제임을 대변해주고 있다.

8) 용인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유적과 도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용인의 도요지 지표 조사보고서』.

②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안성시, 2000, 『安城 和谷里陶窯址』.

③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2000, 『대덕골 및 陶器가마 I 遺蹟 發掘調査』.

④ 한국상고사학회, 2003, 『도자(陶器)고고학을 향하여』.

⑤ 한혜선,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저장, 운반용 질그릇연구』 『한국상고사학보』 제40호, 한국상고사학회

위쪽으로 축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요의 규모 그리고 평면형태와 관련 할 수 있는 길이는 3m에서 8m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소성부와 연소부의 구분은 대체로 灰의 분포와 경사도로 구분되며, 소성부 바닥에서는 段의 유·무가 확인된다. IV지점에서는 1기만이 확인되었는데, 연도부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도기요의 연도부를 추정 복원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소성부의 바닥과 주변에서 소할석들이 확인되고, 또한 소할석 위에 토기편들이 깔려 있는 점을 볼 때 도지미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요지에 대해서는 축조시기와 번조회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조사과정에서 실시하였던 AMS분석이나 고고지자기분석 결과와 연관하여 살펴본다면 도기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3)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2차 발굴조사

- 가) 위 치 :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답 529-4 · 533-1번지 일대  
 나) 조사기간 : 2002년 11월 1일 ~ 2003년 2월 28일(현장조사시간 60일)  
 다) 시 대 : 고려시대  
 라)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마) 조사내용

여주 중암리 유적은 고려백자를 생산한 요지로 고려초기 백자의 발생 및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도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적이다.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1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전체 가마의 규모와 구조가 파악되었으며,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초기 고려백자에 대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여주 중암리 2차 발굴조사의 조사지역은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가마의 서쪽 논 경작지 일대로 전체규모는 남북 90m, 동서 30m이며, 면적은 800여 평에 이른다. 조사지역은 현상에 따라 3개의 지구로 구획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아궁이 주변으로 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남서쪽에서 공방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백자편, 갑발편, 요도구, 초벌구이편, 토기류, 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유구와 유물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후 전경

#### 유구

A지구는 가마의 아궁이와 접하고 있는 논 경작지 일대로 1차 발굴조사시 시굴트렌치에서 유구의 흔적이 확인된 곳이다. 조사결과 아궁이 주변에서 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이 확인되었으며, 가마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퇴적구의 층위가 노출되고 있다.

아궁이는 가마의 소성실 내부에 불을 때기 위한 공간으로 소성시 적당량의 화기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양질의 자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궁이 주변으로 적심석이 노출되어 가구를 갖춘 보호시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수시설은 아궁이의 북쪽면의 1차 적심 바깥면에서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1m, 너비 60~80cm이다. 안쪽면을 다듬은 석재를 2열로 하여 측면벽을 조성하였는데 바닥시설이나 뚜껑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수로의 방향은 가마의 주향과 동일한 동서방향이다.

B지구는 가마의 남서쪽 논 경작지로 조사지역의 규모는 남북 16m, 동서 6m이다. 이곳에서는 중앙에 기단부가 있고 바깥쪽으로 적심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노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논경작으로 인해 유구의 파괴가 심하게 진행되었다. 건물지 내부 중앙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단부는 할석재를 놓고 내부에 점토+갑발+토기+자기편들로 조성하였다. 기단부의 규모는 3×4m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모습이다. 기단부는 석재다짐층을 조성한 것으로 볼 때 상면에 무거운 하중을 지닌 시설물을 놓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 기단부 주변으로 일부 적심의 형태를 지닌 유구가 노출되고 있어 가구를 갖춘 건물지로 추정되고 있으나, 내부에 온돌시설 또는 벽체시설 등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건물지의 성격은 중앙부에 시설물을 놓고 주변에 작업공간을 갖춘 공방지의 용도로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A지구 유구 노출상태



B지구 유구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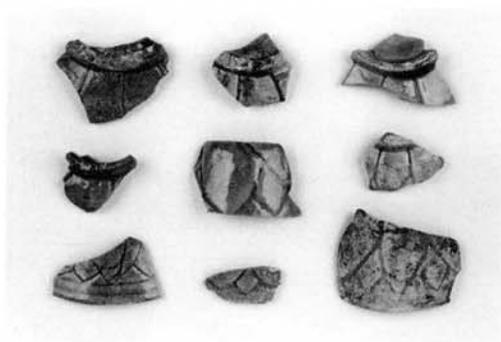


해무리굽 원류

## 유물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중 기종분류와 수량 파악이 가능한 개체수의 비율은 자기편 52.4%, 도기편 46.3%, 기타 1.3%이다. 출토된 기종은 완, 발, 접시, 잔, 병, 대반 등 모두 11종류로 분류된다.

먼저 해무리굽완은 우리나라 자기발생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굽 접지면이 넓은 것이 특징적이다.



연판문 자기류



요도구류



갑발

완의 입지름은 12~14cm, 굽지름은 0.6~1.4cm, 높이는 7~12cm이다. 유색은 담청색, 담록색, 담갈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유약의 고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멍치거나 흘러내린 경우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섞이지 않은 치밀질의 백토이다. 기형은 구연부에서 직사선을 그리며 몸체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굽받침은 입자가 고운 백색내화토를 굽접지면에 4곳 정도 받쳐 갑변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에서는 포개구운 경우도 나타난다.

발은 완보다 입지름이나 굽지름이 비교적 크며 굽의 높이도 높은 편이다. 유색은 대부분 담록색과 담갈색을 띠고 광택이 있다. 입지름은 16~18cm, 굽지름은 5.5~8.0cm, 높이는 6.5~7.5cm이다. 기형은 굽에서 몸체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굽지름보다 크게 돌아가고 있다.

접시는 기형과 크기에 따라 5종류로 분류된다. A형은 입지름이 14~16cm, 굽지름이 7~9cm로 내면에 내저원각이 굽직경보다 넓게 있다. 기형은 몸체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접시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B형은 입지름이 11cm, 굽지름이 6.5cm로 측사면이 굽에서 급하게 약 40° 정도 직사선으로 올라간 형태이다. C형은 입지름 6~8cm, 굽지름이 5~6

cm로 내저원각이 굽지름보다 크다. 기형은 외면의 구연부에서 굽다리 바로 위까지 도구로 눌러 세로로 홈을 내고 내측면에 돌출된 부위 양쪽을 다시 누른 화형이다. D형은 입지름이 9~11cm, 굽지름이 5~6cm로 내면에 내저원각이 없다. 기형은 굽에서 부드럽게 몸체로 이어져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구순이 90° 꺾여 외반된 형태이다. E형은 입지름이 10~11cm, 굽지름이 6~7cm로 내면이 편평하며 내저원각이 없다. 기형은 몸체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내경한 형태로 내면에 포개구이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잔은 기형과 크기로 보아 2가지형으로 나뉜다. A형은 굽이 높고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몸체는 둥근 곡면을 이루면서 구연부분이 곧게 직립한 형태로 기벽이 얇고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을 보인다. B형은 A형보다 소형으로 측사면이 굽에서 내만하다가 구연에 가서는 외반하여 입지름은 8~10cm 내외이다. 굽은 전체 크기에 비해 높은 편이며 밖으로 살짝 바라졌다. C형은 굽이 직립하고 측사면이 직사선을 그리다가 구연에서 외반되었다.

잔탁은 상면에 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의 지름이 5.5cm 내외, 굽지름 8cm 내외로 비슷하다. 유색에 있어서는 녹갈색과 갈색을 띠는데 갈색은 굽과 상면 잔을 놓는 곳의 면이 보다 높게 남아있다. 병은 기형이 완전히 복원되는 것은 찾아지지 않았지만 구연부의 형태로 보아 광구형과 나팔형이 있다. 입지름은 광구형이 7cm·2.5cm이고 나팔형이 3cm이다.

대반은 구연부가 파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고 굽지름이 25~30cm, 굽접지면 폭은 2~2.5cm 정도이다. 유색은 담갈색과 담녹색이 주류를 이루며 유약이 묻치거나 흘러내린 것도 있다. 태토는 잡물이 없는 정선된 백토이다.

대발은 굽지름이 7~10cm 정도로 완이나 발보다 크고 기벽이 두껍다. 유색은 담청록색이 대부분이며 내저원각의 유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내저원각이 있는 것은 몸체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진 형태로 내저원각이 굽지름보다 크게 있다. 내저원각이 없는 것은 몸체가 직사선을 그리며 굽으로 이어진 형태이다.

호는 구연의 바로 아래부터 최대경을 보이며 어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완만하게 좁아진다. 입지름은 25~30cm 내외이고 구연은 바깥쪽으로 휘감은 듯 단면상으로 보아 둥글게 처리하였다. 소호는 구연부가 0.5cm 정도로 직립하였고 동체는 어깨에서 완만하게 밖으로 향한 후 다시 안으로 오므라든다. 소호는 기벽이 얇고 유약이 제대로 고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경도가 약한 편이다.

뚜껑은 연봉형과 원형의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도구는 시편, 갓모, 붓긋, 도지미, 갑발 등이다.

시편은 대부분 담녹색을 띠고 “U”형으로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높이가 약 3~4cm 정도이며 양쪽 바깥면을 계단처럼 한단 낮게 만들었다. 갓모는 상면 톱니모양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A형은 지름이 약 6.5cm, 높이가 4.0cm로 상면에 톱니모양이 있다. B형은 지름이 약 11.5cm, 높이가 2.2cm로 상면을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붓긋은 외면이 회백색을 띠고 내면은 회록색을 띤다. 외면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불규칙한 너비로 깎은 흔적이 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잡물이 없는 치밀질의 백토이다.

도지미는 벽돌을 도지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지름 20cm 정도, 두께 15cm의 원통형의 2점이 출토

되었다. 갑발은 크게 3가지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은 원통형으로 안쪽에 자기를 놓은 것이 아니라 뚜껑처럼 씌워서 사용하므로 윗면 즉 외측의 바닥면에 그릇을 놓기 때문에 이곳에 그릇을 구운 자국이 남아 있다. B형은 바닥이 편평한 대발형태로 안바닥에 그릇을 놓고 구운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A형 갑발도 B형 갑발처럼 사용하였는데 이는 A형 갑발 안바닥에 굽이 놓인 흔적을 보고 알 수 있다. C형은 발형과 비슷하나 보통 기벽이 얇고 B형은 갑발과는 달리 뒤집어서 사용하였다. C형 중에는 비교적 큰 갑발이 있는데 최후 가마바닥에서만 출토되어 가마운영 후기에 대형기종을 많이 생산하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갑발받침이 한 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별도의 갑발받침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높이가 낮은 A형을 갑발받침으로 대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기와편, 도기편, 벼루편, 어망추, 수정, 갓모제작도구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편은 모두 회백색 연질의 무문이고 일부 내면에 빗질흔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도기편은 연질도기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 바) 조사성과

이번 발굴조사에서 가마와 관련되어 아궁이 주변으로 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남서쪽 일대에서 공방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궁이 보호시설은 아궁이와 접하여 출입부 앞쪽 좌우측면에서 적심석이 노출되어 가마 앞으로 가구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정 공방지는 중앙부에 석재+점토+폐기물 등으로 다짐층을 조성하여 기단부를 갖추고 시설물을 놓아 주변에 작업공간을 마련한 건물지임을 알 수 있었다.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가마 내부의 현황파악에 이어 주변의 아궁이 보호시설, 배수시설, 공방지 등의 가마와 관련된 부속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역사적 상황 등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현황실측, 평면도 작성을 통하여 도면복원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져 추후 유적 보존을 위한 문화재지정과 전시·교육을 위한 중요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유물은 A지구 퇴적구와 B지구 공방지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유물의 기종은 해무리굽 완, 발, 접시, 잔, 호 등으로 나누어지며 1차 발굴조사 기종의 특징과 동일양상을 보인다. 요도구는 갓모, 붓긔, 도지미, 갑발이 수습되었다. 도기류는 대형 호의 동체부편으로 연질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 벼루편과 어망추가 수습되었다.

#### 4)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발굴조사

가) 위 치 :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82-14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3년 3월 10일 ~ 5월

다) 시 대 : 삼국시대

라)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마) 조사내용

은대리성은 한탄강과 漳津川의 합류지점에 형성된 삼각형의 河岸段丘 위에 축조되었다. 현재는 은대리성 북쪽을 지나가는 37번 국도와 322번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에 의하여 전곡 방면과 연결되어 있으나 원래는 사방이 단애로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었다.

이 같은 은대리성은 1995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그 내용이 보고서로 발간되었으나 성의 축조 및 활용시기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이 같이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성내외부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민원이 제기되고있어 연천군에서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은대리성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본 연구소에 은대리성의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 유구

은대리성은 평지성으로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졌다. 외성의 전체 규모는 동서 400m, 남북 130m이며, 둘레 길이는 총 1,005m, 면적은 26,479㎡이다. 내성의 둘레 길이는 총 230m이며, 내부면적은 2,770㎡이다. 외성 안에 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당포성과 흡사하다. 하지만 내성에서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성과 외성 선후관계는 확인



연천 은대리성 원경

할 수 없었다.

성 내부 시설물로는 문지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치성 2개가 확인되었다. 문지가 개설된 지역은 성에서 지형이 낮은 지역이다. 북벽에서 확인된 2개의 문지는 성 내부의 배수를 주로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남벽을 통한 배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남벽에서는 8개의 배수로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곳은 주변 양성벽을 돌출시키고 있으며, 단애가 발달한 지형은 그대로 성벽 위로 배수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성내부는 현무암이 풍화된 점질토양이기에 우수를 배수하는데 많은 고려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문지 1은 현재 경작되어지는 평탄지의 전반적인 우수를 처리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북문지 2는 내성 및 대형건물지 북쪽 부분의 우수를 처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남문지는 암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강으로 내려가는 길이 협소하다. 또한 이 곳은 우수가 남문지로 배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대형 건물지는 남벽에 접하여 폭 3m 정도의 석재열로 둘러쌓여 있다. 석재열이 형성하는 공간은 동서 60m×남북 30m 정도이다. 건물지가 위치한 지역은 3개의 문지에 둘러 쌓여 있다. 대형 건물지에서는 건물지 벽체에 사용되었던 소토된 점토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건물지 서쪽에서는 석전용 석재로 사용되었을 석재무더기가 2군데나 확인되었다. 현재 은대리성에서는 인근 관방유적에서 보이는 적갈색 고구려 기와 및 신라기와 등 일체의 기와가 출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신중하게 인접 성들과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치성은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이 들은 북문지 2와 남문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치성은 기존 성벽에서 ‘ㄷ’ 자 형태로 돌출시켜 문지의 방어력을 높이고 있다. 규모는 8×5m(돌출길이)로 2개가 같다. 문지 주위에 방형치성을 설치하여 문지를 보호하는 구조는 고구려 산성에서 주로 확인된다. 치성은 적대(敵臺)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적대가 확인되는 주변의 관방유적은 포천 반월산성을 들 수 있다. 고구려 산성에서 이러한 적대가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 중기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구려 산성에서 보이는 치와 적대가 압록강 이북보다는 압록강 이남에 많으며, 청천강 이남의 성들에서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 치와 적대가 고구려 후기에 발달했을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또 다른 북문지 1에서는 문지를 북벽에서 15m 정도 들어와서 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지 양 성벽이 돌출되어 곡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벽에서 북벽으로 회절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석재 단이 확인되었다. 이 단은 폭이 20m 정도 되며 100여 m 북쪽으로 진행되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밝혀진 바가 없다. 전체적인 현황과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석단의 용도가 명확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 • 성벽축조방식

이번 은대리성 성벽조사 결과 은대리성의 축조방식은 토성이나 토석혼축성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으로 축조되어 주목된다.

우선 축조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벽 기저부를 조성하기 위해 구지표층을 정리하고, 황갈색 점토를 30~50cm 그 위에 다져 올렸다. 다시 황갈색점토 + 모래를 깔면서 성벽 중앙부에 현무암 부정형 석재를 활용하여 2열로



은대리성 동쪽 성벽 절개현황

석열을 쌓으면서 그 내부에는 현무암파쇄석과 점토를 섞어서 다져 넣었다. 그 위에는 다시 점토 + 모래를 30~50cm를 덮어서 성벽을 축조하고 있다. 또한 동벽 1 절개 트렌치 내벽 부분에서는 석열 바깥쪽에서 성벽 축조시 기둥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기둥은 기둥 내부로 석축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둥 바깥으로도 석재를 쌓아 올렸다. 기둥이 있던 곳에는 석재와 주변토사가 밀려든 흔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석축 후 기둥을 그대로 두었는지 아니면 석축 후 기둥을 뺐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내벽에서는 2차례 이상 수축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수축 방식은 기존 성벽이 붕괴된 상태에서 그 위에 석재나 점토를 덧씌우는 것이었다. 초축 석축 외부에 기둥을 세우고 성 안쪽으로 석재를 덧붙였던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동벽 내벽에서는 토성의 내벽 경사면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溝가 확인되었다. 溝의 규모는 동서 폭 2m 정도이며, 깊이는 약 30cm 정도이다. 이 溝는 동벽을 축조하면서 같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차 개축 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심 기저부 토층의 흐름으로 보아 1차 개축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2차 내벽 개축시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 내부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1차 개축시 석심 기저부 층에서 수습되고 있다. 성벽 내부에서도 같은 층위에서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이 토기들 분포상황이나 파손형태로 보아서 구가 폐기되는 시점에서 함께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은대리성 성벽의 가장 큰 특징은 성벽의 중앙 토축부 내·외부에 일종의 석심과 같은 석축을 한 것이다. 이 석축은 바닥을 고른 후 1~2단 정도 석재를 다져서 기저부를 만든 후 그 위로 막쌓기 형태로 축조하였다. 석축의 바깥에는 기둥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축조시 기둥을 세우고 석축

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석축의 두께는 내부가 외부에 비하여 훨씬 두꺼운데 이는 내부에 회곽도를 시설하거나 경사를 완만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초축 및 활용시기와 성격 문제



유물출토 상황

은대리성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여 초축 및 활용 시기 문제는 은대리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유구를 인근 고구려 유적과 비교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은대리성 발굴조사는 비록 일부 지역에 대한 한정적인 것이지만, 출토된 유물이 비교적 그 종류와 시대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편이고



은대리성 출토 고구려 토기

철제류도 소량이 출토되었다. 특이한 점은 삼국시대 성에서 흔히 출토되는 기와가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사한 형태의 호로그루나 당포성의 경우 후대까지 시간적으로 긴 폭을 가지고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과 비교되고 있다. 결국 출토 유물의 상황으로 보아 이 성은 호로그루나 당포성 등 주변의 유사한 형태의 다른 관방유적에 비하여 비교적 사용기간이 짧고 그 성격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토기편은 크게 백제토기와 고구려토기로 뚜렷이 구분된다. 이중 95% 이상이 고구려토기이고 백제토기는 극히 소량이다. 백제토기는 모두 경질토기로 연질토기는 없다. 파편으로 출토되어 기형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악할 수 없다.

은대리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일단은 양식적으로 한강유역 고구려유적에서 출토품과 유사

한 것이 대부분으로 판단된다. 출토품의 구성이 대형의 호류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후에 정면하였으나 타날문의 형태가 많으며, 다른 유적에 비하여 흑색이나 회색의 토기가 많다는 것은 은대리성 출토 고구려토기의 표면상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시기적 차이보다 대체로 기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볼 수 있어서, 은대리 출토 토기의 구성상의 차이가 편년의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호르고루나 당포성의 발굴 결과나 은대리성에 대한 연차발굴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벽에 대한 절개조사 결과 내벽 전면에 시설된溝 내부의 퇴적층에서 고구려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토층 조사 결과溝는 초축 및 1차 수축시까지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매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벽 기저부와 외벽 보강부에서도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 반면에 성벽의 중앙부 내외 석재열 사이 다짐층에서는 한 점의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로 보아 이 성벽은 출토된 고구려토기가 사용되던 시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초축시기를 추정하면, 이보다 앞선 시기에 것으로 보이는 소량의 백제토기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백제토기가 초축이나 활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은대리성에서 출토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은대리성을 축조하기 이전에 주거지나 백제가 시설한 소규모 방어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를 충족시킬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곳이 외부와 고립되어 군사적 활용가치는 있어도 주거지로서의 위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백제시대 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 않은가 한다. 또한 이 지역이 4~5세기 백제의 北境에 해당되는 곳으로 소량의 백제토기가 고구려토기의 사용과정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바) 조사성과

이상에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 보아 일단 은대리성의 축조는 고구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고구려토기에 대한 편년이나 고구려가 이 지역에 진출하였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5세기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신라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 일단 폐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에 성의 일부가 단기간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은대리성 성격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기존의 조사에서 은대리성은 유사한 형태의 호르고루나 당포성에 비하여 규모만 클 뿐 활용도 및 전략적 가치는 적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은대리성에서 기와가 출토되지 않는 점과 성벽이 석성으로 개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도 이 같은 기존의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무래

도 당포성이나 호로그루에 비하여 은대리성은 교통로로서 중요성이 덜하고 인근에 대전리산성이나 전곡리토성 등도 있어서 이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대리성이 호로그루나 당포성과 동시기에 축조되어 활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고구려토기에 대한 편년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 따라서 은대리성의 성격 문제나 고구려 방어체제에서의 역할 문제도 현재로서는 유동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이천 설성산성 3차 발굴조사

가)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을 선읍리 설성산성

나) 기 간 : 2003년 8월 23일 ~ 11월

다) 시 대 : 삼국시대

라)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마) 조사내용

설성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99년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발굴조사는 2001년도에 서문지와 그 주변의 건물지 및 성벽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2차 발굴조사는 2002년에 산성내부의 두 산봉우리 사이에 형성된 마안형 능선에 형성된 완만한 대지였다.

2차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수혈건물지, 저수시설, 토광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광에서 많은 양의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백제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신라토기는 소량에 불과하고, 수혈건물지 역시 백제의 것으로 추정됨으로 백제가 축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광범위하여 이와 연결된 유구를 모두 전면적으로 발굴할 수 없었다. 미 발굴지역을 시굴조사 한 결과 수혈주거지와 다수의 토광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나지구의 B열과 C열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나지구 주변의 경사면에 대해서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성벽에 대한 절개조사를 실시하여 수혈건물지와 토광과 성벽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는 이 산성을 초축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 유구

#### • 건물지

출토 유구 중 먼저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혈건물지이다. 2차 발굴조사에서 6동의 건물지가 출토되었고 3차 발굴조사에서 모두 9동의 건물지가 출토되었다. 이 중 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2동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것이지만 나머지 13동은 모두 백제시대 수혈건물지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토층의 교란이 심하고 여러 개의 기둥 구멍이 중복되었던 관계로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 주변에 둘러져 있는 기둥구멍이나 암반을 굴토한 굴광선의 형태로 원형을 짐작할 수 있다.



발굴조사 전경



성벽 절개상황



주거지 및 온돌시설

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토광

2002년도 발굴조사에서 10개의 토광이 노출되어 조사되었고 2003년도 조사에서는 18기의 토광이 노출되어 조사가 완료되었다. 2차·3차 발굴에서 총 28기의 토광이 노출되었다. 토광이 위치하는

각 건물지에서는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온돌시설이 노출되었다. 가장 형태가 잘 남아 있는 것은 건물지 2의 것이다. 전체 형태는 ‘L’ 자형이다. 2002년 조사시에는 ‘┌’ 형으로 파악되었지만 3차 조사에서 다시 주변을 정밀조사한 결과 ‘L’ 자형으로 확인되었다. 2차 발굴조사시 노출된 건물지 3·4·6 및 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건물지 7·8·9·10·11·12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온돌시설들의 형태를 다시 정리하면, 대체로 ‘┌’ 자형을 기본으로 한쪽 끝에서 ‘┐’ 자로 꺾어져 아궁이가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건물지 2와 같이 전체 형태가 ‘┐’ 형인 것과 아궁이가 중앙부에 있는 것도 있다.

이 건물지들은 백제시대의 수혈건물지로서 용도는 내부에서 생활용 토기나 철제무기류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제산성의 건물지는 굴립주를 사용한 수혈식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백제토기가 출토되면서 백제의 건물지는 출토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경기도 일대의 산성을 신라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백제 건물지가 삭토되거나 파괴되었을 가능

곳은 대체로 평탄지가 아니라 완경사면이다.

토광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토기이다. 일부 출토된 철기도 있으나 이는 모두 토광 상면에서 출토되어 토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기는 모두 백제토기이다. 토기가 출토되는 상황으로 보아 두 종류의 토광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토기를 보관하던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광, 둘째는 폐기된 토기가 들어 있는 토광이다.

그런데 폐기된 토기 역시 모두 백제토기이고 신라토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라가 이 산성에 진출하기 이전이나 신라의 진출과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백제토기의 경우 저장된 것이나 폐기된 것 모두 동시대의 것들로 보인다. 또한 토광에서는 모두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토광을 조성한 것은 일단 백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3차 발굴조사에서 총 28개의 토광이 출토되고 그 중 십 여점 이상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된 것이 6기이고 유물이 한 점이라도 출토된 것은 전체의 약 50%에 가까워지고 있다. 28기 토광 주변에는 13기의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보아 건물지와 토광은 거의 동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토광의 폐기시기는 건물지의 폐기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 성벽

3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 발굴조사시 노출하였던 성벽을 절개하여 조사하였다. 성벽의 구체적인 축조 방법을 파악하고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것인지 처음부터 석성으로 축조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성벽 절개조사 결과 성벽은 외벽과 석재 뒤채움과 토축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외벽기단부에는 보축성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외벽의 높이는 6.5m 정도이고, 석재 뒤채움의 폭은 6.5m이다. 토축부는 지형에 따라 3~7m 이상 확인되고 있다. 성벽은 내벽이 존재하지 않는 편축성벽으로 석벽과 암반 사이에 점토를 다져 넣었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토축부 폭에 차이가 있었다. 점토를 다져 넣었던 데는 성벽으로 우수의 침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성벽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것은 토성에서 석성으로의 개축 문제였다. 즉 토축부가 토성의 흔적이냐 석성의 공법 가운데 하나인가 하는 것이다. 절개 조사 결과 토성이 존재하였던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암반면을 따라 뒤채움 하부와 외벽 기저부까지 토축부 바닥 다짐층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석축부와 토축부는 서로 엇물리도록 축조되었다. 토축과 뒤채움재가 동일한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그러면 초축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성벽 절개 조사에서 석축부 하부 다짐층과 토축부에서 백제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이 성벽의 축조시기가 적어도 백제 이후라는 점을 보여준다. 백제 이후라면 아주 막연한 표현이다. 그러나 몇가

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벽이 백제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되는 백제토기는 적갈색 연질토기들이다. 경질토기는 없었다. 설성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는 호와 옹류를 중심으로 경질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질토기는 건물지와 토광에서 출토되는데 경질토기에 비하여 양이 적다. 이 같은 것은 경질토기가 사용되었던 단계이전에 성벽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일 신라가 성벽을 축조하였다면 경질토기편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지를 비롯하여 토광이 모두 백제시대의 것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백제시대에 대대적으로 설성산성을 활용하였던 사정을 반영하여 준다. 일부 건물지에서는 대도편이나 화살촉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건물지임을 알 수 있다. 토광에서 출토된 토기 역시 대형 호나 옹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대규모 물자의 저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성이 축조되어 백제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설성산성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백제토기와 신라토기로 구분된다. 그 중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백제토기이다. 신라토기의 경우 토기 출토량이 백제토기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개가 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8세기 경의 유물은 거의 없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에 이르는 유물도 있지만 양은 많지 않다. 아직 발굴이 더 진척되어야 분명하겠지만 지금까지 발굴 결과는 백제가 설성산성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축을 백제가 하고 신라는 여기에 약간의 보수를 더하여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설성산성의 성벽은 건물지, 토광 등과 함께 동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늦어도 5세기 초반에는 산성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물

### • 백제토기

설성산성에서는 그 동안 지표조사를 통해 백제토기편이 꾸준히 수습되었고<sup>1)</sup>, 근접한 거리의 이천지역 산성<sup>2)</sup>과 안성지역 산성<sup>3)</sup>에서도 유사한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백제의 산성축조와 활용

1) 서울대학교 박물관, 『이천시의 문화유적』, 1998.

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성산성 지표·시굴조사 보고서』, 2000.

3) 호암미술관, 『이천 효양산성 발굴조사보고서』, 1995.

서울대학교 박물관, 『이천시의 문화유적』,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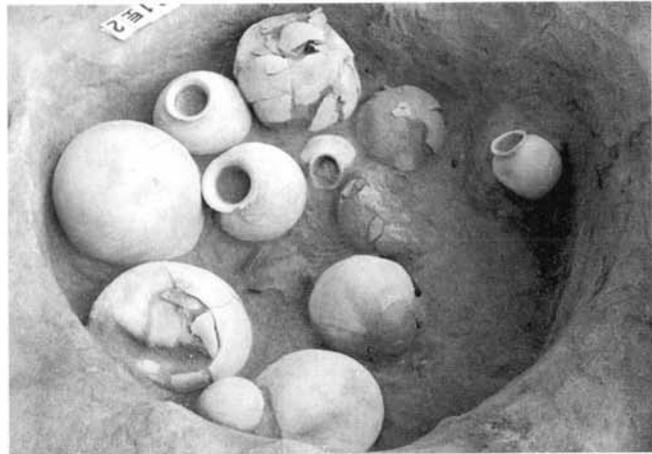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8.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조사 보고서』, 2001.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2.

에 대한 추정이 계속되었다.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1차 조사에서는 등성시설의 하부 판축층, 성벽으로 이어지는 암반과 점토의 최하부층에서 백제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sup>4)</sup>. 이어 2002년 2차 발굴조사에서도 굴립주형 건물터를 비롯하여 저수시설, 저장시설에서 수많은 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설성산성에서 생활 모습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유물출토 상황

특히 기대와 같은 고급기종의 출토는 설성산성 일대를 지배했던 집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7동의 건물지와 토광 18기를 확인하였다. 건물지는 훼손된 상태이나 내부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온돌 및 부뚜막 유구가 확인되었다. 토광은 2차 조사에서와 같이 백제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주로 많은 백제토기가 출토된 토광은 나-B확1트렌치 2호, 나-B확2트렌치 1호, 나-C확1트렌치 1호와 7호이다. 그 중 일부 토광의 토기 출토 상태는 중대형 호·옹을 얹어 놓은 후 그 사이에 중소형 호를 배치하였는데 열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와 토광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대체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나-B확2트렌치 5호 토광 내부에서 출토된 백제토기편이 토광의 상면 주위에서 확인된 토기편과 접합되는 동일 개체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설성산성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는 기술적 속성에 의해 산화연질(적갈색 및 황갈색연질), 환원연질(회색 및 회백색연질), 환원경질토기(회청색경질)로 구분된다. 또한 기종별로는 기대류, 삼족토기류, 시루류, 고배류, 호·옹류, 접시류, 완류, 장란형토기류, 심발형토기류, 동이류, 배형토기류 등으로 분류된다.

출토된 백제토기의 편년은 대략 4세기 후반경~5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 시기

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1)』, 199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 망이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1999.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안성 죽주산성 지도위원회자료집』, 2001.  
 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1.

특징은 고배에서 구연부와 굽높이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기형의 변화가 다양한 회청색 경질호가 다량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5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것은 접지면이 접힌 고배와 돌대가 돌아가는 광구장경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몽촌토성Ⅱ기, 풍납토성Ⅳ기, 설봉산성Ⅱ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5)</sup>.

설성산성 출토 백제토기는 4세기 중엽이후 백제가 이천지역에서 확보된 영역을 공고히 해나가는 지방통합 과정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의 설봉산성에서 3세기 후반까지 추정 가능한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3세기 후반 내지 4세기 초반에는 백제세력이 이천지역에 진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설성산성을 점유한 집단은 기대, 고배, 삼족기 등의 고급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토광을 파고 다량의 호·옹류를 사용하여 군사주둔에 필요한 물자를 저장하였다. 설성산성에서 기와를 엮은 건물지가 존재하고, 기대와 같은 비교적 고급품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아, 한성 백제시대의 남방진출과 지방 경영의 일개 거점일 가능성도 높다. 그 같은 정치적 이유로 이곳에 산성이 축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산성의 축조 시기는 출토되는 토기로 보아 일단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설성산성은 설봉산성과 비슷한 시기나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백제에 의하여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설성산성은 설봉산성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성백제시대의 지방지배체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2차와 3차에 걸친 설성산성 발굴조사로 인하여 많은 양의 백제토기가 조사되었다. 이 같은 백제토기의 출토상황은 백제의 설성산성 축조와 활용이라는 사실에 접근하는 확실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시행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신라토기

설성산성에서는 백제시대 이외에도 신라시대에 속하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설성산성은 신라시대에도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 기록으로 보아 설성산성에 신라가 진출한 것은 6세기 중엽 경으로 볼 수 있다. 설성산성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특히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설성산성에서 그 활용도의 변화는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이나 지방통치방식의 변화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5) 서울대학교박물관, 『몽촌토성-동남지구발굴조사보고』, 1988.

문화재연구소, 『풍납토성 I』, 2001.

방유리, 『이천 설봉산성 출토 백제토기 연구』, 2001,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설성산성의 신라토기는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과 양식상의 특징을 통해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신라유물은 9세기~10세기경의 것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편이고, 다음으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대에 해당되는 유물도 빈도수가 높다.

이런 신라토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고배편이다. 직사각형의 투창이 비스듬히 뚫려 있다. 굽다리는 낮은 편이며, 단부는 둥글게 말아 올려붙였다. 내외벽은 회청색경질이고, 속심은 적갈색이다. 이와 비슷한 양식의 고배는 설봉산성, 이성산성, 대모산성, 아차산성,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설성산성에서 가장 많은 출토 예를 보이는 유물의 양식은 9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통일신라 후기양식이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유물은 목에 파상문이 있고 동체부에 돌대가 둘러진 대형호, 줄무늬 토기, 덧띠무늬토기, 편병, 편구병 등이다. 이와 같은 양식의 토기들은 타 유적에서도 거의 비슷한 층위에서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대형호편에는 “大中十二年彌勒寺”銘(858)의 명문이 있어<sup>6)</sup> 이러한 일련의 유물들에 대해 9세기로 편년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부에 직선문과 파상문이 있고, 동체에 돌대가 둘러진 평저형의 대형호편은 조사 전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는 내외면에 박자흔이 남아있으며, 정선된 점토로 고화도에서 소성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이다.

줄무늬병과 덧띠무늬병은 저부나 동체편이 깨어진 파편으로 다량 수습되었다. 이러한 줄무늬병은 시문 문양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형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병류는 이전의 설성산성 조사에서 꾸준히 확인되어 왔던 기종이다.

편병도 역시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고 있다. 대체로 4면 편병 형태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편병의 기형은 평저를 이루고 바닥에서부터 어깨선까지 거의 곧게 뻗어 올랐으며, 반구형태의 구연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회청색 경질의 고화도로 소성되었고, 부분적으로 기벽에 자연유약이 묻어있기도 하다.

편구병은 완만한 곡선을 가진 덮개형을 두 부분으로 만들어서 포개어 맞붙인 형태이다. 굽은 따로 바닥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동체의 상면에는 두 줄의 침선을 돌려 문양대를 만들고, 그 안에 비스듬하게 선을 찍듯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린 소용돌이 모양의 누른 음각선문을 그었다. 이 같은 형태를 가진 편구병은 보령 진죽리 토기요지<sup>7)</sup>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형태는 같으나 문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천 설봉산성,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 안압지, 황룡사지, 미륵사지 등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6) 문화재연구소, 『미륵사 유적발굴보고서』, 1989, p.259, pp.385~386, p.390.

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통일신라·고려 질그릇』,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도록(6), 1987.

## 바) 조사성과

설성산성 2차·3차 발굴조사에서는 그 동안 막연한 가능성으로 여겨져 왔던 백제의 축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제 설성산성은 신라가 초축한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초축하고 후대에 신라가 진출하면서 수축하여 다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설성산성을 통하여 백제의 남방진출과 지방지배체제는 물론 삼국의 관계 변화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설성산성 발굴조사는 초기에 속하고 앞으로 수차례 걸친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고대와 역사고고학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백제에서 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설성산성의 변화상이 대략이나마 파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 성과는 산성의 커다란 줄기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획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세한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2차 및 3차 발굴조사는 가지구와 나지구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그런데 다지구 라지구 마지구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여러 종류의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차기 발굴조사는 우선 이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설성산성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 76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표조사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백제 한성도읍기 대표적인 산성의 하나로 밝혀졌다. 유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간의 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1차발굴 조사시 확인된 서문지와 이와 관련된 성내·외 부속시설은 현재 매몰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로 노출된 서문지 및 주변 유구에 대한 정비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설성산성 안내판은 발굴조사 이전에 작성되어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차에서 3차까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설성산성은 인근 군부대의 훈련으로 파괴의 위험이 있다. 군부대의 훈련을 중지시키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부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6) 포천 자작리유적 시굴조사

가) 위 치 : 포천시 자작동 250-3번지 외 6필지

나) 기 간 : 2003년 9월 22일~11월 22일

다) 시 대 : 한성백제시대

라)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마) 조사내용

포천 자작리유적은 경기도박물관에서 지난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긴급발굴조사를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원삼국시대에서 한성백제에 이르는 주거지 5동과 소형유구 6기, 굴립주 건물지 1기, 구상유구 4기 등이 노출되었다.

조사 직후에 이루어진 지도위원회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유적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를 위하여 전체적인 유적 범위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자작리유적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향후 자작리유적에 대한 중장기 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박물관에 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



시굴지역 전경



2001년도 유구 노출 상황

8) N1W2, N1W1 방안의 시굴경 조사 결과, 기존 긴급발굴조사시의 굴토선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현 방안의 동서 축선은 긴급발굴조사시의 동서 축선보다 4.458° 가량 북쪽으로 틀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는데, 이번 시굴조사는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 방법은 전체 유적의 면적을 고려하여 20m를 기본 단위로 방안을 구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0~2001년도 긴급발굴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기존의 조사 말뚝이 경작 과정에서 뽑혀져 나가 결국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sup>3)</sup>. 시굴갱은 각 방안의 북쪽과 서쪽에 연하는 “┌”자 시굴갱을 넣었는데, 향후 토층 유지 및 중장비 이동을 위

포천 자작리유적 각 시굴갱 별 검출 유구 집성표

구분	주거지	소형유구	구상유구	굴립주 건물지	기타	
N3W3 시굴갱	2	4	•	유	•	
N3W2 시굴갱	2~3	3	•	•	•	
N3W1 시굴갱	•	다수	1	•	•	
N3E1 시굴갱	1	다수	•	•	•	
N3E2 시굴갱	3	2~3	•	•	•	
N3E3 시굴갱	1	8	•	•	•	
N4E4 시굴갱	•	•	•	•	•	
N3E4 시굴갱	•	•	•	•	•	
N3E5 시굴갱	2	1	•	•	•	
N2E4 시굴갱	4	6	•	•	•	
N2E3 시굴갱	•	2	•	•	•	
N2E2 시굴갱	2	4	•	유	•	
N2E1 시굴갱	5	5	•	•	•	
N2W1 시굴갱	1	3~4	•	•	•	
N2W2 시굴갱	1	5	2	•	•	
N2W3 시굴갱	3	5	•	•	•	
N1W3 시굴갱	2	1	•	•	•	
N1W2 시굴갱	2~3	•	•	•	•	
N1W1 시굴갱	2	7	•	유	•	
N1E2 시굴갱	1	3~4	•	•	•	
N1E3 시굴갱	•	2	•	•	2(기동구멍)	
S1W3 시굴갱	1	•	•	•	•	
S1W2 시굴갱	•	4	1	•	•	
S1W1 시굴갱	1	1	•	•	•	
S4W2 시굴갱	2	2	•	•	•	
S4W1 시굴갱	2~3	2	•	•	•	
합계	최소	40	81	4	유	2
	최대	43	84			

한 뚝(baulk)을 남겨 놓기 위하여 1.5m 간격을 띄웠다.

한편 조사지역 내에서 기존에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과 牛畝, 그리고 아직 수확을 하지 않은 밭작물 등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시굴갱을 넣지 않았으나, 가급적 장애물을 피해서 주변 여건에 맞게 시굴갱의 크기를 조절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시굴갱 조사가 이루어진 면적은 1,720㎡(520평) 가량으로 전체 조사 범위의 11%에 해당된다.

시굴갱 내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주거지와 함께 용도미상의 소형유구, 굴립주건물지, 구상유구 등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중복이 많이 이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별 유구의 윤곽뿐만 아니라 중복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각 시굴갱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앞의 표와 같다.

#### 바) 조사성과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유적의 범위를 확인하여 유적 보호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대략적인 유구 분포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중장기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유적의 전체 범위의 26.6%에 해당되는 면적만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향후 잔여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시굴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작리유적 4,788평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26개의 시굴갱 조사를 실시한 결과, N4E4 방안의 시굴갱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굴갱에서 유구가 검출되었다. 조사 지역의 외곽 시굴갱에서 유구가 모두 검출되기 때문에 전체 조사 지역에 유구가 양호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소형유구, 구상유구, 굴립주 건물지 등으로 유구 간의 중복 상태가 심하고 시굴갱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각 유구 성격별 개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사자의 입장에서 전체 확인된 유구 현황을 개관해 두는 것이 유적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40기~43기 내외, 소형유구 81~84기 내외, 구상유구 4기, 굴립주 건물지 4기 등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는 전체 조사 지역의 11% 가량만을 확인한 수치이고 전면 노출하였을 때의 실제 유구 수는 갑절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긴급발굴조사에서 이미 거론되었지만, 자작리유적이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를 거쳐 한성백제에 이르는, 보기 드문 복합유적이라는 점에서 하남 미사리유적에 비견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기존에 자연층으로 파악된 II층이 신석기시대 문화층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는데, 향후 정밀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석기시대 유구를 찾는 노

력이 필요하다.

넷째, 자작리유적에서 검출된 주거지들은 주로 원삼국시대에서 한성백제에 이르는 시기에 속하는데, 주거지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된 토기편을 고려할 때, 원삼국시대 주거지보다는 백제시대 주거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을이 시간적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는 앞으로의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백제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시간 축 설정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유물은 즐문토기, 중도식무문토기와 함께 다량의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백제기와 및 기대는 자작리유적의 위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앞에서 언급한 자작리유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적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적 주변에서 다수의 사료저장용 구덩이가 확인되는데, 이들 사료저장용 구덩이에 의한 유적 파괴는 개인주택 건축에 의한 유적 파괴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 7) 용인 보정리 고분군 발굴조사

가) 위 치 :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 121-1임 일대 약 1,250m<sup>2</sup>

나) 조사기간 : 2003년 6월 3일 ~ 10월

다) 시 대 : 삼국시대

라) 조사기관 : 토지박물관

마) 조사내용

용인 보정리 고분군은 2002년 토지박물관이 용인시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확인한 유적이다. 당시는 고분군의 중심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려는 중이었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유구에 막대한 손상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히 용인시에 매장문화재발견신고를 하게 되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진 지표조사 결과 이 일대에는 적어도 30여기의 고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당시 조사자들은 “경기지역에서 유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형분으로 구성된 대고분군이라는 점에서 사적으로 지정한 후 유적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고분군이 위치하는 지역은 해발 186m의 소실봉 남쪽 능선에 해당한다. 이 소

실봉 능선은 동쪽에 있는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 2003년 성호건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25기의 석곽묘와 1기의 신라시대 석실묘 및 백제시대 생활유구들이 확인되어 적어도 삼국시대 관련 유구들이 다량



조사지역 전경



6호분 전경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조사당시 보정리 고분군은 A·B지구에는 비교적 대형 봉토분들이 다수 산재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가까운 C지구는 길으로 봉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비교적 소형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들 대부분이 도굴과 농로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고 계곡을 메우는 과정에서 일부 고분(A-5호분)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조사대상지역은 그 중 A구역으로 모두 11개의 고분이 확인되었고 이중 6번과 9번 고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본 조사방법은 4분독 조사법을 사용하여 남북방향을 기본으로 한 독을 설정하고 풍화나 후대에 의해 교란된 표토를 제거하면서 확실한 봉분면에서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으로 추정되는 쪽으로 다시 기준독을 설정하였다.

독을 기준으로 좌상단은 1사분면, 우상단은 2사분면, 좌하단은 3사분면, 우하단은 4사분면이라고 명명하였다. 조사결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대상 두 기 모두 횡구식석곽으로 매장주체부 설치, 시상, 호석, 입지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이 있음이 확인되어 그중 큰 규모인 9호분 조사내용을 간추려 수록하였다.

9호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자연경사면상에 위치하고 있다. A지구 다른 고분 중에서도 10호분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봉분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4분독 조사방법을 위한 구역 설정은 잔존 봉토의 최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서, 남-북 방향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선에서 50cm씩 좌우로 구역을 설정하여 총 1m의 기준독을 구획하였다. 당시 평면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3m 정도씩 확장하는 것으로 1차 구역을 설정하였다. 봉분 인근의 붉은색 점토 부분을 완전 제토한 결과 봉분은 약 1.5m 가량 묻혀있었고 남쪽면에는 거의 폭 1m에 달하는 거대한 호석이 확인되었다.

이 호석은 봉분으로 생각되는 면을 따라서 조성되었는데 남쪽에서 바라보는 면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정연한 상태였으나 북쪽면은 붕괴된 돌들과 함께 뒤섞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붕괴면을 제거한 후에야 비교적 정연한 호석의 가장 아랫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존하는 호석렬로 보아 봉분의 원래 형태는 원형으로 생각된다.

조사 이전에는 6호분과는 달리 표토에서 아무런 도굴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준독을 남기고 약간의 표토를 제거하자 2개의 도굴공이 확인되었고 추가 제토과정에서 1개를 더 확인하였다. 이 도굴갱 중 정상부에 뚫려있는 2개소는 개석이 너무 커서 묘곽내부로 들어가질 못하고 실패하였으나 마지막 횡구부 개석직하 벽석을 파괴한 도굴갱을 통해서 도굴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도굴에 의한 피해는 예상보다 커서 시상이 상당히 교란되어 있었고 유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란토 제거과정에서 3점의 토기편과 2차 시상부에서 반파된 완 1점을 수습하였을 뿐이다.

제토는 약 10cm 단위로 진행하되 개석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일단 멈추고 상황을 파악하였다. 지표하 약 1m 지점에서 개석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개석이 확인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횡구부와 추가장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봉분 서쪽면 일대에서 횡구부 관련 시설을 확인하였다. 이 시설은 토층상으로 비교적 넓은 나팔상을 하고 있었으며 매장주체부 한 벽 전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9호분 전경

매장주체부 일대는 개석이 일부 붕괴된 면이 확인되었고 이 유구는 향후 현장보존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원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석의 최상면 만을 노출시켜 대략의 형태, 축조방법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관련 시설로는 주변에 주구의 존재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나 뚜렷한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매장주체부 북서쪽 공간에서 조그만 석곽이 한기 확인되었는데 이는 매장시설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내부에서 유물이나 특별한 유기물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봉토 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횡구부 및 추가장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서쪽을 제외하고 남·북 그리고 동쪽, 모두 세군데에 설치하였다. 그 결과 수직, 수평 축조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직으로는 크게 4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윗부분을 파내고 일부 땅을 고르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벽석을 만들면서 동시에 봉토를 조성하는 작업, 다음으로는 개석을 덮고 그 윗부분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봉토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을 고르는 작업은 바닥면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데 상대적으로 지반이 높은 쪽은 필요한 만큼 굴토하였으며 낮은 쪽은 땅을 고르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면에 벽석을 바로 시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쪽트렌치의 경우 최상면 벽석까지 붉은색 암반풍화토로 시설하여 뚜렷한 경계를 형성하였고 북쪽트렌치는 벽석 최상면에 봉토 전반을 덮고 있는 얇은 회색층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벽석과 하부 봉토를 성토한 다음 개석을 덮고 다시 성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면과 최후 봉토면의 구분은 토층상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만 개석을 덮고 있는 약 60cm 정도 구간은 전반적으로 점성이 많은데 비해 마지막으로 작업한 봉토 최상단은 점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수평면에서본 성토양상은 크게 매장주체부 북동면과 남서면에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남쪽 트렌치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면이 벽석을 만들면서 축조한 붉은색 암반퇴적토인데 이 퇴적토가 북쪽 트렌치에서는 보이지 않고 동쪽트렌치 남벽에서만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 동쪽트렌치에 접하는 동단벽을 살펴보면 북쪽 상단 모서리에서 남쪽 하단 모서리로 비스듬하게 흐르는 구획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토층과 연계시켜 생각해보면 북장벽과 동단벽의 절반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동단벽 절반과 남장벽을 만들었고 이 벽을 축조하면서 붉은색 암반풍화토를 이용해서 봉토를 성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석 상면에서는 1사분면에 11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흐르는 석렬이 확인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서편에는 비교적 고운 흙과 작은 돌들을 이용해서 봉분을 만들었고 동편에는 지름 20~30cm 가량의 원판형 돌들을 이용한 토석혼축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석은 앞서 말한 봉분축조 단계 중 벽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봉분 끝자락을 일부 제거하고 만들어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6호분과 마찬가지로 벽석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쌓은 봉토면에 설치하였으며 남쪽면 일대는 비교적 장대한 괴석으로 호석을 쌓은 반면 북쪽일대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붕괴가 심한편으로 대부분 가장 아랫단 호석만 남아있으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약 4단정도, 높이는 82cm 가량 잔존하고 있다. 호석의 구획은 전면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매장주체부 앞쪽 약 130cm 정도 구간만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호석으로 추정된 전체적인 봉분 저경은 13m 정도이다.

개석면에서 가장 서쪽개석 모서리에서 바깥쪽으로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토층이 확인되었다. 이 토층은 특히 개석의 북쪽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노란색 석립이 다량 포함된 두께 약 10cm 띠모양 구분선이 확인되었고 그 끝단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이 토층은 기준 독으로 이어져있었다. 이 띠모양 구분층이 수직토층상으로 봉분면에서 완전히 면을 이루면서 구분되고 있어 황구부 시설이거나 추가장 흔적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확인하고자 개석의 장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황구부 전면을 가로지르는 폭 50cm 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가장 외곽에서 찾은 최초 축조선으로 추정했던 부분만 유의미한 층위 구분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층위양상은 황구부의 가운데를 최저점으로 하는 단면 포물선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은 얇은 회색 점토가 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수직으로는 흑갈색 점토층이 기준을 이루고 있었다. 이 공간을 황구부 혹은 추가장 공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의 폐쇄는 폐쇄석을 막으면서 남쪽에서부터 약간의 석립이 포함된 흑갈색 점토로 폐쇄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 최종적으로 마감하였다.

황구부 폐쇄석은 아랫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길쭉한 돌들을 이용하였는데 상부로 올라오면서 규모도 작아지고 틈 사이를 메꾸기 위한 작은 돌들이 많이 이용되었다.

매장주체부는 내부를 기준으로 장축 420cm, 단축 200cm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180cm 정도인 세장방형을 하고 있다. 출입시설로 황구부만 확인되고 별도의 연도나 묘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황구식석곽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축조양상은 암반면 위에 바로 벽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면상으로는 황구부인 동단벽과 양장벽을 ㄷ자형으로 먼저 만들고 서단벽을 황구부로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면상으로는 아랫부분 넓이가 약 200cm, 윗부분 넓이가 약 120cm 정도에 달하는 단면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었는데 상부는 대형 개석과 그 뒤를 받치는 뒷채움으로 보강하여 지지하고 있다. 북장벽 일부에 약간의 붕괴가 있어 황구부 폐쇄석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다.

상부 개석은 총 4매의 판돌로 시설하였는데 판석 사이에 형성된 틈새는 돌로 막음한 후 일부 밀봉토를 사용하여 막은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개석의 크기는 장축이 140cm, 폭이 100cm 내외이다.

묘곽 내부에는 북장벽에 붙여 판석을 이용한 시상(1차 시상)을 만들고 아랫부분에 최소 1회 추가장한 흔적이 보인다. 추가장 흔적은 1차시상과 관련한 넷돌 시상부의 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횡수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최소 2회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차 시상 규모는 길이 262cm, 폭 96cm 바닥에서 높이는 25cm 정도이다. 북동쪽 모서리는 완전히 막혀있지 않고 바닥면만 일부 시설되어 약 높이 20cm 가량 공간이 있는데 6호분으로 보아 이 부분에 약간의 부장품을 매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시상대 동쪽 편에는 두침이 1매 뒤집어진 채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추가시상이 남장벽과 황구부쪽에 연하여 만들어졌는데 도굴로 인하여 상부는 대부분 파괴되고 강돌로 묘역을 형성한 듯한 흔적만 확인할 수 있었다.

황구부 확인을 위해 개석 앞으로 전면적인 트렌치를 넣는 과정에서 소형석곽의 모서리가 확인되었다. 처음 확인된 양상은 트렌치 모서리에 두매로 짜맞춘 벽석과 그 위를 덮고 있는 개석같은 구조물을 확인했는데 매장주체부와 같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조그만 판돌로 바닥시설을 하고 비교적 큰 판석으로 벽을 만든 다음 개석을 덮어 폐쇄하였다. 개석을 제거할 당시 내부는 단순퇴적토로 가득 차 있었으며 유물과 특별한 매장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바) 조사성과

이번 조사대상 두 기 모두 황구식석곽으로 매장주체부 설치, 시상, 호석, 입지 등에서 상당히 유사

한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매장주체부 장축은 모두 등고방향에 평행하게 만들어진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높은 지역을 ‘ㄴ’자 형으로 얇게 파내고 주 석곽을 만들었으며 암반면 위에 바로 벽석을 시설하기 시작한 점, 벽석의 축조와 함께 봉토를 같이 만들어간 점, 횡구부를 제외하고 ‘ㄴ’자 형으로 일단 매장주체부를 축조하고 한 쪽을 마감한 점, 4매의 개석을 사용해서 마무리한 점, 매장주체부의 경우 횡구부쪽에서 바라보아 좌상단쪽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점, 호석이 설치되고 주변에 주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상의 설치방법, 추가장 방법 등에서는 일부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 유구의 추정연대는 6호분에서 확인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단각고배 세트 그리고 9호분에서도 직접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정 구지표 면이나 봉토,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확인된 유물에 인화문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6세기 중반, 적어도 7세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용인 보정리고분군은 한강유역 일대에서 확인되는 신라 고분군들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변유적과 관련해 보아도 현재 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 지역이 삼국시대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보정리 일대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신라의 중심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유적 일대에 대하여는 고분군의 규모에 걸맞은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보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8) 포천 금주리 유적 발굴조사

가) 위 치 : 포천시 영중명 금주리 1014-5

나) 조사기간 : 2003년 4월~5월(시굴조사)/2003년 8월~10월(발굴조사)

다) 시 대 : 초기철기시대

라) 조사기관 : 세종대학교 박물관

마) 조사내용

포천 금주리(金珠里) 유적은 포천 일동-영중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중 만세교IC 구간에 대한 조사에서 찾아졌으며, 영평천(永平川)을 따라 발달해 있는 논경작지대의 포천 영중면과 신북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 유적은 2003년 4~5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2003년 8월~10월 사이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주거지 6기와 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溝)유구 등이 찾아졌다.

### 유구

금주리 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6기가 찾아졌으며, 주거지 안과 밖에서 경질무문토기와 청동계 화살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들은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평면형태가 모두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출입구가 발견된 1호·2호·4호 주거지의 경우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돌출된 형태이다.

#### •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는 수혈식으로 평면형태가凸자형으로 출입구가 남쪽 벽선보다 약간 돌출되어 있다.

출입구 시설은 남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서쪽 긴 벽쪽으로 붙어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입구의 너비는 120cm로 좁은 편이고 입구 양쪽에 지름 28cm, 깊이 19×23cm의 기둥구멍이 2개 있다. 그리고 입구 바닥면은 주거지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약간 경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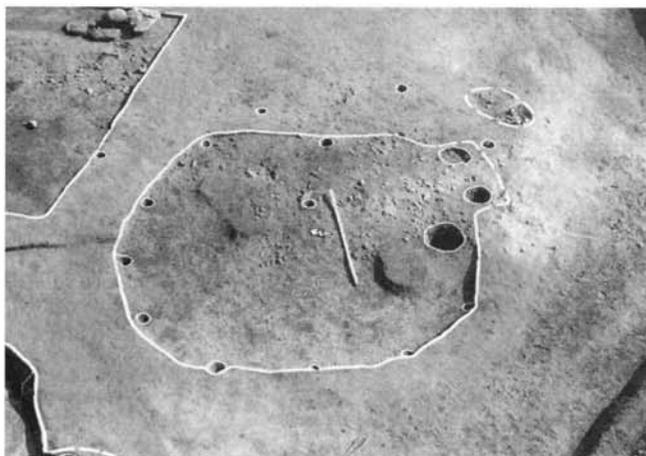
벽은 어깨선으로부터 바닥까지 수직으로 깎여져 있었으나, 판자를 사용한 가구시설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기둥구멍은 집의 벽면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기둥간의 간격은 160~170cm 사이 이고, 깊이는 어깨선으로부터 30cm 정도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출입구 안쪽의 동쪽 옆과 바닥 가운데 부분에는 불탄 흙이 큰 덩어리로 남아 있었는데, 조사 처음에는 화덕자리와 같은 시설로 보았으나 절개하여 조사한 결과 집과 관련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와 비슷한 조사 예가 있다면 비교·연구되어야 할 것 같다.

바닥치리는 찰흙을 깔고 불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 몇 조각이 출토되었을 뿐 다른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길이 720cm, 동-서 너비 520cm, 바닥까지의 수혈 깊이 25~30cm이다.



2호 주거지

#### •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 역시 수혈식이지만,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물이 흘러 바닥면이 유실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1호와 같은凸자형인데, 출입구가 남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 1호와 다른 점이다. 기둥구멍도 1호와 같이 출입구 양쪽에

마련되어 있고, 그 안쪽의 서쪽 옆에는 기능을 알 수 없는 구덩이 있다. 이 구덩이의 지름은 50cm 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원추형이며 깊이는 30cm 정도이다.

기둥구멍은 출입구쪽과 벽면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1호 주거지에 비해 기둥 간격이 100~240cm로 편차가 큰 편이다. 구멍의 지름은 35~40cm이고, 깊이는 10cm 정도이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바닥처리 방법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불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하였으며, 바닥 중앙 부 가까운 곳에 불땀 자리가 있다. 이 자리는 취사를 위한 화덕자리로 추정되어진다.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700cm, 동-서 500cm이고, 남아 있는 수혈 깊이는 10~20cm이다.

### • 3호 주거지

3호 주거지는 수혈식이고, 평면형태가 긴 네모꼴(長方形)이며 출입구는 찾아지지 않았다.

주거지의 남동쪽 모서리부분에는 돌을 이용한 시설물이 있는데, 넓적한 판석과 강돌을 서로 맞물리게 두었다. 이 시설물의 바닥과 돌에는 부분적으로 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으나 남아 있는 상태만으로 그 기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주거지



3호 주거지

의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는 다듬지 않은 할석 2개를 세워 두었는데 돌과 그 주변에 불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화덕자리로 추정되었다.

한편 이 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주거지의 가운데와 북서쪽 모서리에서 비교적 작고 평편한 돌이 몇 개 놓여 있는 점을 볼 때 기둥구멍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돌 위에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조각이 화덕자리와 북서쪽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길이 810cm, 동-서 너비 570cm이고, 남아 있는 수혈 깊이는 15cm 정도이다.

#### • 4호 주거지



4호 주거지



4호 주거지 출토유물

4호 주거지는 3호 주거지의 북서벽과 맞물려 있으며, 비교적 남아 있는 상태가 좋은 편이다.

주거지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凸자형으로 출입구가 남동쪽으로 마련되어 있다.

출입구 3호 주거지의 북서벽과 맞닿아 있는데, 바닥면이 1호 주거지의 출입구와 같이 주거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경사져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기둥 구멍은 출입구의 서쪽 옆에서 1개가 찾아졌는데, 동쪽 맞은편에도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 다른 벽이나 바닥에서는 찾아지지 않았다.

화덕자리는 북동쪽 모서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납적한 판석과 작은 할석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화덕자리 옆에서는 경질 무문토기 밑부분이 없어진 상태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벽체는 판자와 같은 목재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바닥은 불을 지펴 단단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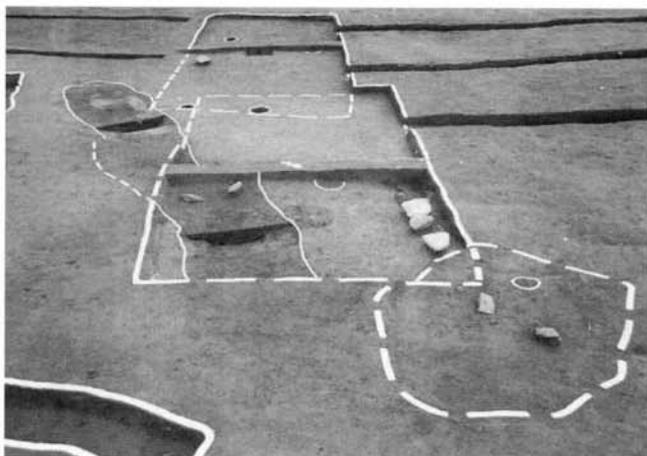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410cm, 동서 410cm이고, 남아 있는 수혈 깊이는 20~30cm이다.

#### • 5·6호 주거지

5호와 6호 주거지는 4호 주거지로부터 북서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서로 겹쳐진 상태로 찾아졌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긴 네모꼴(長方形)로 일부 벽체가 남아 있지만 출입구 시설이나 기둥 구멍, 화덕자리 등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특히 5호 주거지의 경우 집이 폐기된 뒤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 도랑이 생겨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두 주거지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경질무문토기 외에도 청동제 화살촉이 6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화살촉은 삼릉형으로 심에는 철이 남아 있으며 크기는 길이 3.7cm, 몸통 지름 0.9cm이다.

주거지의 크기는 5호의 경우 동-서 길이 585cm, 남-북 너비 300cm, 깊이 20cm이며, 6호는 동-서 길이 675cm, 남-북 너비 295cm, 깊이 20cm이다.



5·6호 주거지



5·6호 주거지 출토유물

## 바) 조사성과

이번에 조사한 포천 금주리 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6기가 발견되었다. 이 주거지들은 좁은 공간에 한데 모아져 있으며, 1호 주거지와 5·6호 주거지 그리고 4호 주거지의 벽쪽으로 구(溝)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주거지들의 평면형태는 크게 2종류로 구분되는데, 1·2·4호 주거지의 경우凸자형이고 3호와 5·6호 주거지는 장방형이다. 그리고 1·2호 주거지에는 기둥을 사용한 구멍들이 남아 있었지만 4호의 경우 기둥구멍이 출입구 쪽에서 1개만 조사되었다. 또한 3호 주거지에서는 모서리쪽과 가운데 부분에 작고 평편한 돌이 몇 개 놓여 있기 때문에 기둥 받침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한편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경질무문토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질과 경질 승문토기조각, 청동제 화살촉 등이 있다. 경질무문토기의 기종은 주로 단경호이고, 심발형 토기조각도 있으며 주로 토기 안쪽면에 검은 색의 이물질(異物質)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4호 주거지와 주거지 주변에서 수습한 유물 중에는 토기의 안쪽면에 포자국이 남아 있거나 입술이 직각으로 외반된 것도 있어 주목된다. 이 토기조각들은 남아 있는 기형으로 보아 화분형 토기로 보이는데 가평 달전리유적<sup>1)</sup>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청동제 화살촉 2점이 출토되었는데, 2점 모두 축의 머리가 삼릉형(三稜形)으로 축의 심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동제 화살촉은 최근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양평 양수리 상석정마을 유적의 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이므로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다. 또한 주거지 평면형태도凸자형과 팔각형 등의 주거지가 있어 주목된다<sup>2)</sup>.

이와 같이 이번 조사에서 찾아진 주거지 중 1호와 2호 주거지는 포천 지역에서 이제까지 조사된 주거지들과는 다른 평면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 가장 큰 특징이며 출토된 유물 중 화분형 토기와 청동제 화살촉<sup>3)</sup>이 다른 유적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거주 집단의 성격과 활동 시기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주리 유적에서 채취한 목탄 시료를 AMS분석을 해 본 결과, 8개의 시료 중 최근 4개의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다.

1)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3, 「가평 달전리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4.3,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3) 韓修英, 2004, 「靑銅鐵 小考」, 『研究論文集』第4號, (財)湖南文化財研究院, 53~71쪽.

〈표〉 1~3호 주거지 AMS 분석결과

유 구 명	LAB번호	방사성탄소연대(BP)	연대년금맞춤 결과 (Calibrated Age)
1호 주거지	SNU 04-195	2020±60	20BC
2호 주거지	SNU 04-196	2000±60	10AD
3호 주거지	SNU 04-197	2000±40	10AD
3호 주거지	SNU 04-198	2020±80	20BC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금주리 유적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각 주거지들간의 시간적인 선후문제와 다른 주거지들의 분석결과 등은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9)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

- 가) 위 치 : 양평군 양수면 양수리 868번지 일원  
 나) 조사기간 : 2003년 6월 2일 ~ 2003년 11월 24일  
 다) 시 대 : 삼국시대~조선시대  
 라) 조사기관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마) 조사내용

양수리 유적의 위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되는 지점에 위치한 하중도인 양수섬의 동쪽 끝부분으로 북한강의 수계로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기존의 중앙선(덕소-원주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시행 전에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찾아졌으며, 이에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 발굴 의뢰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허가번호 2003-153호 ; 03. 04. 08)를 받아, 2003년 6월 2일부터 2003년 11월까지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삼국시대 전기 주거지, 수혈유구, 적석유구 등과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11, 508, 519, 521번지 일대로 주민들은 상석정마을로 부르는 곳이다. 상석정마을 일원은 북한강의 수계에 속하고, 긴 타원형으로 생긴 양수섬의 머리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홍수 시에는 북한강물을 정면으로 맞는 지점이다.

양수리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실시된 것은 현재까지 총 4차례이다<sup>1)</sup>. 그간의 조사에서 양수섬 일원 유적의 연대는 청동기시대 중기가 중심연대이고, 문화층의 퇴적깊이는 두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위는 크게 보아서 위로부터 경작층인 암갈색토층을 띠는 부식토층, 암갈색 사질점토층, 황색토층을 띠는 모래층으로 볼 수 있다. 이 주요한 층위는 섬의 중앙부에서는 수평적인 퇴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강안으로 갈수록 경사를 이루고 II층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의 두께가 4m에 달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1) ① 문화재관리국, 1974, 『팔당·소양담수물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서』

②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지표조사에서 공렬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의 위치를 급변의 조사지역의 인접지점인 철길 건너편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현장을 재조사하고 공렬토기 출토당시 조사에 참여하였던 인근 학교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급변 조사구역의 인근이 아닌 양수섬의 남단 부 근으로 확인되었다.

③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시·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 양수섬 남단에 대한 조사로 청동기시대 중기가 중심이 되는 장방형계 주거지와 공렬토기 편이 출토되었으며, 경질 무문토기기의 유적과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④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3, 『중앙선복선전철 제3공구건설구간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유구 및 유물의 출토 양상을 통해서 보면 부식토층에서는 경작과 근래의 토지이용 양상에 따라 파헤쳐진 경질무문토기편 등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었으며, “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에서는 주거지와 수혈유구,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서 보면 “부식토층”을 “제 I 문화층”,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제 II 문화층”으로 볼 수 있다.

## 유구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전기 주거지 19기, 원형 수혈유구 3기,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5기 등이다. 현재의 유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조사가 진행되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구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 · 주거지

이번 조사에서 주거지는 총 19기가 확인되었다. 평면상에서 주거지간의 중복횟수가 4회까지 확인되는 주거지군이 확인되었으며, 수직상에서 3회까지 중첩되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또한 외출연도가 2기 확인되었으나 유구는 모두 결실되었다. 지상건물의 기초로 보이는 토심들이 확인되어 최소한 3회 이상 시기를 달리하여 주거지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5호 주거지

주거지 가운데 2·5·6·10·11호는 평면상에 시차를 두고 중첩되어 있다.凸자형 주거지인 10호와 다각형(8각형?) 주거지인 5호주거지는 같은 레벨상에 있으며 화재로 소실된 주거지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그리고 철기를 공반하고 있다. 장방형 주거지인 2호주거지는 10호와 5호주거지의 내부를 파고 만들어 졌으며 토기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시기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소실된 주거지인 5호주거지는 평면이 8각형으로 추정되는 다각형 주거지로 종교적인 건물내지는 특수용도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방형계의 6호주거지는 화재로 소실된 5



9호 주거지

호주거지와 남동측 장벽이 중첩되어 있다. 6호주거지는 바닥면 아래에서 5호주거지의 불탄면이 그대로 드러나며,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타날문토기와 적색과 수부토기만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5호주거지와 사용 시기에 있어서 시간 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중첩관계가 수직선상에서 드러나는 7호주거지의 경우 가장 상층에 지상건물의 기둥자리

인 토심이 남아있고 토기편들이 산재한 유구가 있으며 그 하부에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장방형계의 주거지가 2개 중첩되어있는 형태이다.

장방형계인 1호의 경우 유구내부에서 50cm 내외의 강돌들이 전체 유구의 2/3정도 면적에 충전되어있어 그 용도를 알기 어렵다. 다만 특별한 용도로 석재들을 모아둔 장소가 아닌가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평면凸자형태인 9호주거지의 경우凸자형의 윗부분이 출입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9호주거지는 이 부분에 30cm 두께의 소토가 쌓여있어 출입구 시설이 아닌 주거지의 단벽에 치우쳐진 노지와 배연시설로 보여진다. 따라서 9호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계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과 장방형, 다각형, 철자형의 여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노지시설은 평면 형태가 원형을 이루는 무시설식과 점토띠식의 형태를 띠는 것도 확인된다. 노지는 중앙에서 단벽 쪽으로 약간씩 치우치거나 주거지의 모서리 쪽에 근접하여 설치된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바닥의 처리는 5호의 경우 불다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주거지들에 있어서는 다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화재주거지인 5호의 경우 벽체에 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관찰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주공시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바닥면에 바로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 · 수혈유구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는 모두 3기이며 평면형태가 원형이다. 주거지에 근접되고 있어 저장공의 성격이나 특별한 성격을 가진 주거지 부속시설로 판단된다. 특별한 내부 시설이나 출토유물

은 확인되지 않는다.

#### · 건물지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B구역과 C구역에서 모두 5동이 확인되었다. 정면 1칸에 측면이 1~2칸이 기본 구성으로 보이나 석렬들과 적심이 많이 흐트러져 전체적인 규모의 판단은 어렵다. 명갈색 모래층 위에 약간의 점토와 모래를 섞어 바닥을 다짐한 후 적심과 줄기초들을 배치하여 건물을 지었다. 기와의 출토량으로 보아 기와를 사용한 건물지로 보인다. 기와



B지구 건물지 전경

의 문양은 전형적인 어골문들로 건물지의 연대를 고려시대로 추정하는 자료가 된다. 줄기초들을 사용한 것과 적심석을 사용한 것으로 건물지의 성격이 2개로 나누어진다. 레벨상의 모습으로 상대적인 사용 시기를 추정해보면 우선 적심초석을 사용한 건물들이 2회 이상 중복되어 사용된 후 줄기초를 사용한 건물들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적심석들은 북동쪽으로 계속되고 있으나 조사지역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소량의 고려토기와 고려청자편이 출토되었다. 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황갈색점질토를 채워 넣은 토심이 일부 보이나 건물지와는 구명되지 않았다. B지구의 건물지의 배치는 남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북향으로 강물을 바라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물지의 다짐층은 평균 70cm 이상의 두께이며 북동쪽으로 치우친 건물지의 다짐층 아래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를 공반하는 장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C지구 건물지는 교란이 심하여 전체적인 윤곽의 복원이 어렵다. B지구와 마찬가지로 줄기초와 적심건물의 두 가지가 있으며 강돌을 사용하여 기둥의 둘레를 고정시킨 임시주거지용 초석이 별도로 보인다. 임시주거지용 초석은 “무술?月 十四日”이라는 목서가 있는 강돌이 같이 나와 연대추정의 단서가 되고 있다.

### · 외출연도

A지구에서 3기의 외출연도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등 관련유구가 모두 교란되어 정확한 유구내 배치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 내에서 쓰인 강돌과는 달리 자른면이 날카로운 산돌들을 판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돌들을 세로방향으로 세워서 지면에 2열로 고정된 뒤 판석으로 덮었으며, 돌틈들을 황갈색의 점토질모래로 마감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주변에서 회색무문토기(와질토기?)편들과 삼각형 청동화살촉, 선각인화문회청색토기편이 발견되어 유구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유물

### · 토기류



기종 구성을 보면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적색파수부토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질무문토기는 구연부편과 저부편이 보이는데 구연부는 짧은 목에 외반하고 있다. 기형은 발형으로 전형적인 중도식토기 형태이다. 태토는 사질태토에 굵은 석립이 혼합되어 있으며 표면을 마연하거나 점토를 바른 후 물손질 조정하였다.



5호 주거지에서는 완형의 경질무문토기가 옆으로 누인 채로 출토되었으며 兩耳에 작은 구멍이 뚫린 등잔(?)형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타날문토기(송석문)는 기벽이 매우 두텁고 사립이 많이 함유되어있으며 원형의 저부는 손빚음을 하고 토기의 중앙이후부터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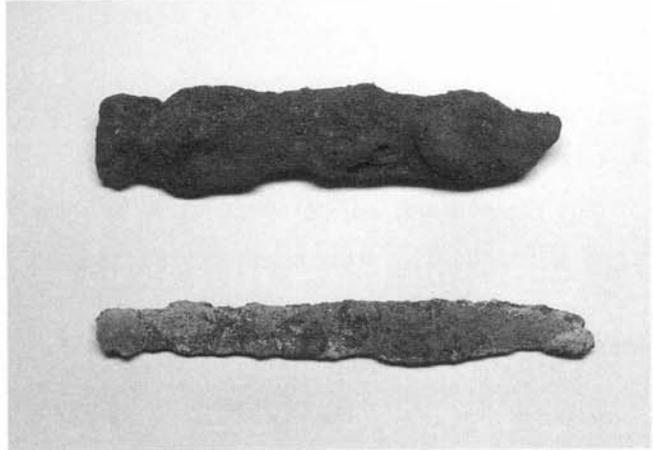
림판을 사용하였다. 격자형 타날문, 단사선문, 사선문 등의 문양이 보이며 소성온도차에 의한 경도의 차이가 보여 진다. 구연은 단경에 외반된 형태가 많으며 동체는 호형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각형 파수, 중앙에 구멍이 뚫린 파수 등이 일부 보인다.

6호주거지에서는 적색파수부토기 1점과 평저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적색파수부토기는 밴드 형의 파수부를 지니고 있으며 평저광구소호는 구연부와 동체의 상부에 파상문을 시문하고 기벽전체에 걸쳐 승석문을 시문하였으며 표면을 마연한 것이 보여진다. 고구려토기와의 친연성이 관찰된다.

그 외에 빗살문토기편, 홍도편, 구순각목공렬토기편, 공렬토기편 등이 일부 보이나 모두 유구와의 연관성 없이 출토되었다.

#### · 철기류

5호와 10호의 불탄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었으며, 외출연도 관련유구에서 일부가 출토되었다. 철부 2점과 철창 1점이 10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5호주거지에서 환두의 소도자가 1점 출토되었다. 철부는 단면 마름모꼴형태로 잔존길이 6cm 내외이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2점이 1set로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정황으로 보아 자루를 꼽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었던 듯하다.



환두소도는 잔존길이 18cm로 4등분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단면 역삼각형의 외날을 지닌 소도이며 검신의 형태로 보아 날이 안쪽으로 흰 만도(彎刀)로 추정된다. 검의 몸체에는 목질흔이 일부 남아있다. 5호 주거지의 남동쪽 벽에 치우쳐서 불타서 내려앉은 기둥 밑에서 3점의 경질무문토기와 겹쳐진 채로 출토되었다. 사용위치에서 화재로 인해 그대로 방치된 채 보존된 듯 하다.

외출연도 출토철기는 7~10cm 내외의 외날철기로 크기 및 형태로 보아 철촉으로 추정된다.

#### · 기타

7호 주거지 내부에서 토제 방추차가 2점 출토되었으며, 6호주거지에서 은제 뒤꽂이 1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에 마제석촉 몇 점과 석기의 반제품들이 일부 출토되었다.

### 바) 조사성과

조사결과 삼국시대 전기 주거지 19기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5동, 원형 수혈유구 3기, 외줄연도 3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로 양수섬 내에서 경질무문토기를 공반하는 삼국시대 전기의 주거지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2001년 조사된 양수섬 남단의 주거지의 중심연대가 청동기시대 중기인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인접한 공간 내에서 여러 기간동안 형성된 취락의 변천과정을 제공하는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평면 내에서 3차에 걸친 5번의 중복이 나타나는 주거지와 2차례 이상의 수직중복을 나타내는 주거지가 확인되어 주거지구조의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5호 주거지의 경우 단면 8각 형태로 특수용도의 건물지로 보여 지며 화재에 의해 탄화된 벽체 및 기둥구조가 잘 남아있어 건물의 건축구조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 중 경질무문토기와 공반출토 된 철기류들은 향후 한강유역에 철기문화가 보급되는 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와 경질무문토기, 철기의 출토는 삼국시대 전기 북한강유역의 생활문화를 파악·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 고양 먹절산 유적 발굴조사

가) 위 치 : 고양시 법곳동 740-22번지 일원(2,948.64㎡)

나) 조사기간 : 2003년 6월 2일~2003년 7월 31일

다) 시 대 : 삼국시대

라)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마) 조사내용

먹절산 유적은 2001년 경기도박물관의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강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중에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초기 한성백제 유적이 확인 및 발굴조사된 바가 없었으나 기록상으로 먹절산은 『輿址圖書』에 二山으로 표기되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사포면 들판가운데에 고토성의 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먹절산은 한성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작과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절반 이상 깎여간 상태이다. 이에 유적보호를 위한 기초 학술 자료를 확보하고 초기 한성백제 연구의 고고학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유적을 발굴조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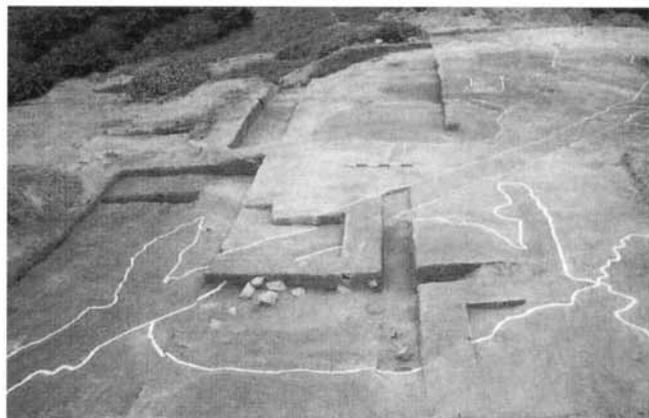
따라서 유적의 범위조사에 주력하고 층위 등 유구의 성격 파악뿐만 아니라 등고선 및 평판측량으로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을 규명하는 데에 발굴의 목적을 두었다. 손상위험이 있는 유구를 우선순위로 발굴하였으며 향후 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시굴하여 유구양상을 파악하였다.

### 유구

#### • 주거지

수혈주거지는 모두 8기가 확인되었으나 그 중 1호 주거지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위치만을 확인하였다.

1호 주거지는 적석유구가 노출된 회색점토층에서 약 15m 떨어진 남서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먹절산 지형 중 서쪽에 해당되는 지



주거지 노출광경

형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동서 지름은 5m29cm이고 남북의 길이는 3m80cm이다.

I 층인 명회색사질점토층은 고운 명회색 점토로 구성되어 있고 10%미만의 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회청색경질타날토기편과 적갈색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고 목탄, 고운 사립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벽절산 하단에 있는 적석들처럼 장방형으로 석렬이 놓여 있다. II 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은 I 층에 비해 회색점토의 양이 줄어들었고 점질성이 강하다. 일부 고운 사립이 섞여 있는 점토층으로, 목탄, 소토, 석재, 흑색연질토기편이 함유되어 있다. 깊이는 10~43cm로 퇴적되었고 목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III 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은 II 보다 더 밝은 갈색을 띠고 사립이 더 섞여 있으며 점질성이 더 강화되었다. 명갈색에 회색점토가 약간 섞여 있으며 목탄과 소토 등이 함유되고 있고 삼족기, 고배 등이 수습된다. 퇴적층의 두께는 약 40cm이며 석재가 올려져 있다.

2호 주거지는 토루에 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못했다. 노출면의 지름은 393cm이며 장방형 수혈주거지로 추정된다. 3호 주거지는 1호주거지와 구상유구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凸字形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입구 부분이 북쪽에 놓여 있고 규격은 140×30cm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동서의 길이는 425cm이고 남북의 길이는 334cm이다. 주거지 내부는 평면상으로 볼 때 명회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4호 주거지의 서남부에 6호 주거지가 위치해 있는데 凸字形 입구부분이 나와 있고 유구내부는 다른 주거지들과 같이 명회색사질점토층으로 채워져 있다. 이 주거지의 남서면은 후대에 만들어진 토루이며 그 뒤는 절벽으로 깎여 나가 주거지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거지의 표면에서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호 등이 노출되었다.

#### • 수혈구덩이

##### 방형 수혈구덩이

구상유구 노출 중 토루를 절개 조사하면서 확인되었다. 8호주거지의 동쪽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토루 안에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격은 130×145cm이다. 유구내부는 암회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 원형 수혈 구덩이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격은 120×134cm이다. 유구내부는 암회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으며 중간에 석재가 노출되었다. 이 수혈구덩이는 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판단된다.

### • 구상유구

구상유구는 S3W1, S3W0 그리드를 동북에서 남서방향으로 길게 관통하며 1호 주거지 동남쪽에서 7호 呂字形 주거지까지 폭 70cm의 溝가 이어진다. 이 유구는 배수로로 생각되며 溝를 중심으로 서북 쪽으로는 1,2호주거지, 원형수혈구덩이, 방형수혈구덩이, 8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동남쪽으로는 3,4,5,6,7,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溝내부는 평면에서 볼 때 암회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 • 적석유구

#### 1호 적석

규모는 330×170cm이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남~서북방향이다. 적석 사이에는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편과 연결 토기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석재는 평평하며 중첩되어 쌓아진 것이 특징이다. 적석유구 하단에는 명갈색사질점토층이며 목탄이 발견되었다.

#### 2호 적석

백색풍화암반층인 생토와의 경계선 안쪽 명회색사질점토층 위에 적석이 놓여 있었다. 헬기장층인 회갈색층을 걷어내자 원지표인 황갈색사질점토층이 나왔고 그 아래 암갈색점토층에서부터 적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생토와의 경계선에 석재가 고정되어 있어 대형 주거지의 벽체시설로 생각되었다. 적석사이에는 심발형토기 등 토기 완형들이 출토되었고 교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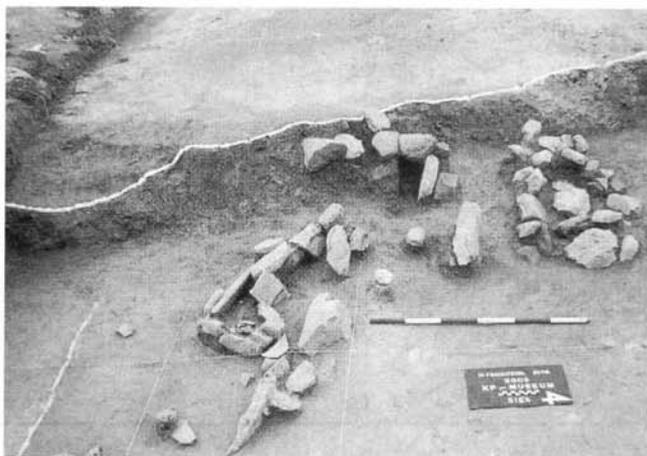
2호적석

적석의 장축방향은 동남~서북방향이고 규모는 길이 7m, 폭 230cm이며 적석유구 동쪽에 뼈와 관련된 유구가 나왔다. 적석의 끝 부분에 서북쪽으로 생토를 파고 할석을 집어넣은 배수로와 같은 시설이 이어지고 있다.

### 3호 적석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규모는 250×570×5cm이다. SOE0의 적석과 연결된 유구로 중간의 독에 수혈구멍이가 구성되어 있어 적석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적석사이에 토기편들이 산포되어 있는 양상은 2호 적석과 같으며 암회색사질점토층 위에 떠 있고 일부만 명회색사질점토에 고정되어 있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적석도 벽체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3호 적석의 서북쪽에는 수혈구멍이가 있고 깊이가 낮은 장타원형 수혈구멍이가 생토층 위에 구성되어 있다.

### 4호 적석



3호 적석

생토층과 암회색점토층의 경계선에 적석이 있어 3호 적석과 이어지는 유구로 생각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길이는 동서방향이다. 규모는 310×120cm이며 적석의 남쪽에 민묘가 조성되면서 적석은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적석은 명회색사질점토에 세워져 직사각형으로 박혀 있다. 원형적석은 건물의 적심석처럼 배치되었다. 이러한 원형의 적심석

은 5호 적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적심석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격은 140×70cm이다. 이러한 적심석과 정연한 시설이 생토층인 벽과 가까이에 있어 벽체나 건축물시설과 관련된 적석으로 판단된다.

### 5호 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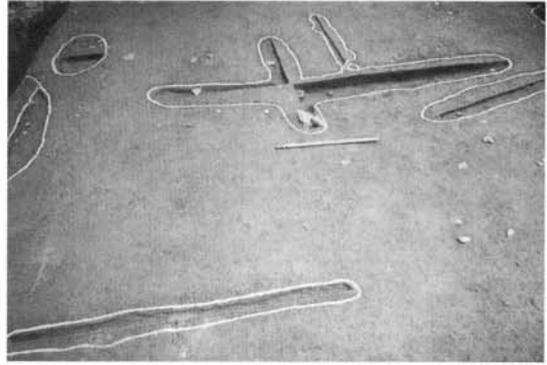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주위에 일부 석재가 흩어져 있다. 암갈색사질점토층과 명갈색사질점토층 그리고 그 하단까지 적석으로 채워져 있다.

이외에도 6와 7호 적석이 Test Tr의 암회색사질점토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이 적석의 특징은 석재들을 다듬어서 점토층 사이에 고정시켰다. 표토와 적석 사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은 적갈색연질토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적석들도 향후 발굴조사 하여 성격에 규명해야 할 것이다.

## • 기타유구

### 수혈구덩이

수혈구덩이는 SOE1 Pit의 암회색사질점토층을 파고 형성되어 있다. S1E1 수혈구덩이 중에는 생토를 파고 만든 것도 있어 주목되었지만 표토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이 구덩이 안에 채워져 있어 근래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구덩이 안에서 백제토기편이 나왔으나 모두 쓸려 들어간 것으로 정형화된 시설은 없었다.



SOE1 수혈구덩이

## • 토루

토루는 먹절산의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남쪽은 모두 손상되어 없어졌다. 남서쪽의 구상유구를 확장하면서 토루를 절개하였는데 토루 하단에 8호 주거지와 방형 수혈구덩이가 존재하고 있어 주거지와 수혈구덩이 이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루에서 백제토기가 발견되었으며 성토하여 다진 토성으로 보인다.



토기류 각종



흑색마연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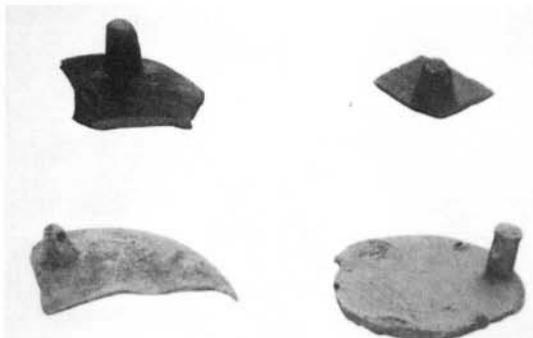
## 유물

먹절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매우 다양하다. 층위별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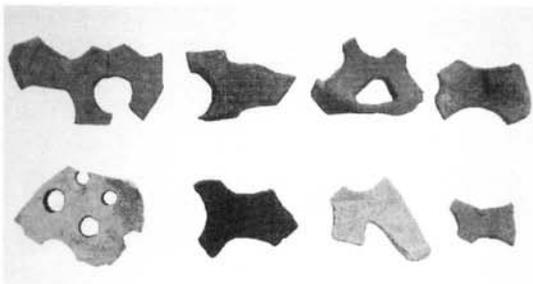
I층 표토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을 보면 연질토기로 심발형토기류, 흑색마연토기류, 회색연질승문토기류, 회색연질타날문토기류,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류, 회색연질토기소호류, 적갈색연질우각형파수류, 회색연질우각형파수류 등이 수습되었다. 경질토기로는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호류, 회청색경질직구호류, 회청색경질토기대옹류, 삼족토기, 고배, 회청색경질타날문토



심발형토기 저부류



삼족토기류



시루 저부류

기원저대용류, 회청색경질파수부직구호, 개배, 시루 기대편 등이 출토되었다.

Ⅱ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에는 심발형토기, 회색연질토기호류,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류, 회색연질토기류, 회청색경질토기호류,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류, 고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Ⅲ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은 심발형토기,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류, 회색연질토기류, 회청색경질토기호류, 회청색경질토기대용류, 개배, 이형토기류 등이 출토된다.

Ⅳ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에서는 심발형토기류, 회청색경질토기호류, 회색연질토기류, 개배류, 회청색경질토기대호류, 회청색경질토기소호류, 파수의 끝이 둥근 파수류, 삼각형모양으로 투공한 시루저부편류 등이 출토되고 연질토기의 양이 증가한다.

Ⅴ층인 명갈색사질점토층에서는 심발형토기류, 회청색경질토기호류, 회색연질토기류, 원형의 시루저부편, 주거지벽체편, 흑색마연토기편, 흑색으로 마연한 삼족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는 철촉 6점, 철부 2점, 철제보습 1점, 철검 1점, 용도를 알 수 없는 철기 1점과 청동기 1점이 나왔으며 토제방추차 2점도 수습

되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가 99%이상 차지하고 철기류와 방추차는 1%도 되지 않는다.

## 바) 조사성과

벽절산 유적은 고양에서 최초로 발굴된 백제유적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는 수혈주거지 8기, 수혈구덩이 2기, 구상유구 1기, 적석유구 7기, 근래에 조성된 수혈구덩이 9기, 민묘 5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목적이 유적의 범위와 성격파악에 있었기 때문에 Test Trench를 이용하여 토층과 회색점토층의 범위파악을 위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수혈주거지 중 1호 주거지만 발굴조사 되었고 나머지는 유구의 존재만 확인하였다. 회색점토층위에 형성된 적석유구는 민묘로 인하여 중간마다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성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SOEO의 적석은 생토층과 점토층사이에 석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벽체시설과 관련된 적석일 가능성이 있다. 회색점토층과 생토층의 경계선중 회색점토층에만 적석이 있는 점도 주목된다. 회색점토층의 성격은 1호 주거지의 토층양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회색점토층의 범위가 대형 주거시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회색점토층의 전면발굴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벽절산 유적의 편년은 상한이 A.D.200년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삼족토기와 흑색마연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이 등장하고 1호 주거지의 명갈색사질점토층에서도 고배와 삼족기가 출토되었다. 흑색마연토기의 출현시기는 3세기 중후반으로 편년하고 있으므로 이 편년을 적용시키면 명갈색사질점토층의 연대는 A.D.250 중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명갈색사질점토층 아래에 회색점질토층과 목탄층이 존재하여 벽절산 유적의 연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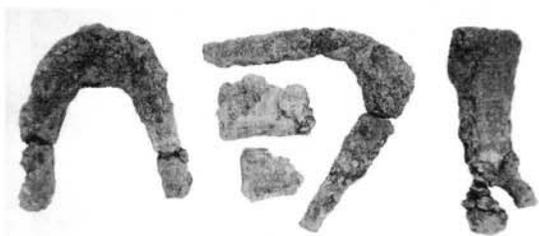
5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백제토기는 새로운 기종이 나타나며 호류는 유견형으로 변하고 광구장경호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벽절산에서 이러한 단계는 암회색사질점토층과 명회색사질점토층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암회색사질점토층에는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대용, 회청색경질토기호가 증가하고



회색경질유공이형토기 출토 모습



철기류 및 방추차·청동기



철기류 각종

SOEO Test Trench 명회색사질점토층에서는 회청색경질유공이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적석유구가 있는 회색점토층은 5세기 중반이후로 생각된다. 층위와 관련된 백제토기의 편년은 추후 토기의 세밀한 검토후 편년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떡절산 유적은 한강하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당시 西쪽과 교류하는데 중심지 중계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 한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관련된 越州窯 靑磁 등의 유물은 강을 따라 발달된 교통로를 통해 한강하류로 교역하였을 것이다. 흑색마연토기는 당시 고급 토기로 떡절산 유적과 몽촌토성의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떡절산 유적은 이 시기에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심지 중계무역을 하여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의 각 층위마다 풍부한 유물의 양과 그 다양한 양상은 당시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말해주는 것이다. 떡절산 유적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초기 한성백제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비록 손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색점토층과 수혈주거지, 수혈구덩이, 구상유구 등은 문화재로 지정·보존해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문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장기적으로 종합 발굴 및 복원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떡절산 유적의 성격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각종 소식

#### 1) 고구려연구회 - 국내성 천도 2000년 기념학술대회

- (1) 일시 : 2월 5일(수) 오후 1~5시
- (2)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3) 발표내용
  - 흥분성(환인)과 국내성(집안)의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
    - 발표 : 서길수(서경대학교)
    - 토론 : 심정보(한밭대학교)
  - 국내성 천도의 역사적 의의
    - 발표 : 금경숙(강원대학교)
    - 토론 : 김현숙(경북대학교)
  -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계 - 압록강 루트를 중심으로-
    - 발표 : 윤명철(동국대학교)
    - 토론 : 서영일(경원대학교)
  - 국내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옷놀이판에 대한 연구
    - 발표 : 김일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토론 : 송화섭(원광대학교)

#### 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학술대회

- (1) 주제 : 新羅의 王權과 身分制
- (2) 일시 : 2003년 5월 3일(토) 12:30~17:00
- (3) 장소 : 동국대학교(서울) 문화관(1층) 덕암세미나실
- (4) 발표내용
  - 제1부(주제발표) 12:30~15:05 사회 :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 신라의 왕권과 정치구조 : 이인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신라의 왕권과 귀족사회 : 이영호(상주대학교)

- 신라의 왕권과 촌락사회 : 김재홍(국립전주박물관)
- 신라의 왕권과 관직제 : 김희만(성화대학)
- 신라의 왕권과 노비제 : 조법중(우석대학교)

제2부(종합토론) 15:20~17:00 사회 : 이기동(동국대학교)

좌장 : 최효식(동국대학교) 이기동(동국대학교), 이인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보돈(경북대학교), 이영호(상주대학교), 선석렬(부산대학교), 김재홍(국립전주박물관), 강봉룡(목포대학교), 김희만(성화대학), 신형석(경북대학교), 조법중(우석대학교), 김수태(충남대학교),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최효식(동국대학교) - 주제순 -

### 3) 전곡리 구석기유적 기념 제2회 국제학술회의

- (1) 주제 : 전곡리유적의 지질학적 형성과정과 동아시아 구석기
- (2) 일시 : 2003년 5월 4일(일) 오전 9시
- (3) 장소 :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3층 대강당
- (4) 주최 : 연천군
- (5) 주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한국구석기학회
- (6) 발표일정

제1부(09:00~09:30) 개회식

제2부(09:30~13:30) 동아시아 구석기고고학의 새로운 진전-사 회 : 이현중(목포대학교)

- 전곡리유적의 편년 - 발 표 : 배기동(한양대학교)
- 전기구석기 호미니드가 이용한 지형적 패턴의 고고학적 자취  
(Archaeological Traces as Patterns of Hominid Land use in the Lower Palaeolithic : The Case of Olduvai.)  
- 발 표 : Fidelis T, Masao(Open University of Tanzania)
- 단양 수양개Ⅲ지구의 구석기문화와 그 연대  
- 발 표 : 이용조(충북대학교), 공수진(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岩手縣 宮守村 金取遺跡 - 발 표 : Kyoichi Kikuchi(日本 金取遺蹟 調査團)
- 화순 도산 구석기유적 - 발 표 : 이기길(전북대학교)
- 석영계 석재의 재고찰 - 평창리유적의 예  
- 발 표 : 유용욱(McGill University, Canada)

-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문화의 기원 - 발표 : Kazuto Matsufuji(日本 同志社大學校)
  - 중국 구석기고고학의 새 진전
    - 발표 : Gaoxing(Inst. of Vertebrate Paleontology and Paleoanthrop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
  - 한국 세석인기법 - 발표 : 장용준(국립대구박물관)
  - 흥천 하화계리 Ⅲ 구·중석기유적 조사연구 - 발표 : 최복규(강원대학교)
- 제3부(13:40~16:00) 전곡리유적의 지질학적 형성과정 - 사회 : 안신원(한양대학교)
- 연천 전곡과 인접지역의 선사고고유적을 고려한 임진-한탄강 유역의 제4기 지질 연구
    - 발표 : 김주용(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배기동(한양대학교), 양동운(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세선(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전곡리 용암대지 피복물의 기원 및 퇴적 후 변형 양상
    - 발표 : 오경섭(한국교원대학교)
  - 한반도 4기 지질의 화산재연대
    - 발표 : Tohru Danhara(Kyoto Fission-Track Co.Ltd, Japan)
  - 전곡리 구석기유적의 퇴스-고토양 연대
    - 발표 : Toshiro Naruse(日本 兵庫教育大學校)
  - 전곡리유적 4기층의 자기장연구 - 발표 : Hayasida Akira(日本 同志社大學校)
  - 전곡리 구석기유적 토양미세구조의 약보고 - 발표 : Christian Perrenoud  
(Centre Europeen de Researches Prehistoriques de Tautavel, France)
- 제4부(16:00~18:00) 종합토론 - 사회 : 정영화(영남대학교)

#### 4) 고구려연구회 시민강좌

- (1) 주제 : 대륙에 남은 고구려
- (2) 일시 : 2003년 5월 7일 ~ 5월 28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3) 장소 : 영풍문고 이벤트홀
- (4) 강좌일정
  - [5월 7일] - 강연 : 서길수(서경대학교)
    - 고구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5월 14일] - 강연 : 김일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고구려 벽화 - 고구려는 천문학의 대국, 벽화에 나타난 별자리에 대한 강의  
[5월 21일] - 강연: 윤명철(동국대학교)
- 고구려는 해양 강국이였다 - 당시 동아시아중해를 지배한 고구려 해군  
[5월 28일] - 강연: 서길수(서경대학교)
- 첫수도 흥분, 두번째 수도 국내성, 고구려 산성 -현장에서 찍은 슬라이드 상영

## 5) 한국고대사학회-한국고대사학회 제72회 정기발표회

(1) 일 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후 2시

(2) 장 소 : 고려대학교 박물관

(3) 발표내용

주제발표 - 사 회: 박현숙(고려대학교)

- 북조, 수당 석각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자료
  - 발 표: 윤용구(인하대학교)
  - 토 론: 정운용(고려대학교)
- 고대 結負制 복원과 대제의 기원
  - 발 표: 新井宏(경상대학교)
  - 토 론: 전덕재(규장각)
- 황룡사 9층목탑 건립과정에 대한 재검토
  - 발 표: 양정석(서울여자대학교)
  - 토 론: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 6) 경기도박물관 학술세미나

(1) 주 제 :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2) 일 시 : 5월 22일(목) 10:00 ~ 17:40

(3)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4) 발표내용

【부 주제발표】 사회 : 김용철(경기도박물관)

10:10 ~ 11:00 발표 (1) - 고려시대 경기의 위상과 역할 : 신안식(명지대학교)

- 11:00 ~ 12:00 발표 (2) - 개경 10사와 불교 사원 : 이강근(경주대학교)  
 13:00 ~ 14:00 발표 (3) - 고려시대 석조미술 : 최성은(덕성여자대학교)  
 14:00 ~ 15:00 발표 (4) - 고려도자와 경기: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5:10 ~ 16:00 발표 (5) - 개성지역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방안: 장호수(문화재청)

【2부 종합토론】 사회 : 김용철(경기도박물관)

16:10 ~ 17:40

- 홍영의(국민대학교), 강호선(서울대학교), 배진달(용인대학교)
- 이종민(해강도자미술관), 하문식(세종대학교)

## 7) 한국제4기학회 제33차 학술발표대회

(1) 일시 : 2003년 5월 31일(토) 13:00 ~ 18:00

(2) 장소 : 한국해양연구소 서해관(회의실)

(3) 발표일정

1:00 ~ 1:30 등록

1:30 ~ 1:40 학회장 인사

〈제1부 발표〉 사회 : 제종길

1:40 ~ 2:00 단양 수양개와 구남굴 구석기유적 출토 숯의 수종으로 본 고환경

- 박원규(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김요정(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이용조(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00 ~ 2:20 우리나라 제4기 갯신세의 동물상과 구석기시대 옛사람들

- 조태섭(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20 ~ 2:40 전국리 유적의 지질과 연대 연구의 현황 - 배기동(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제2부 발표〉 사회 : 김주용

2:50 ~ 3:10 MSCL를 이용한 동해의 환경변화 - 이희일(한국해양연구원)

3:10 ~ 3:30 시화호 간척지에서의 연체동물 연구의 필요성

- 제종길(한국해양연구소), 구분주(한국해양연구소), 신상호(한국해양연구소)

3:30 ~ 3:50 동해 남서 대륙붕의 퇴적물과 유공충 특성

- 우한준(한국해양연구소), 박장준(한국해양연구소), 최재용(한국해양연구소)

〈제3부 발표〉 사회 : 신숙정(연세대학교)

- 4:00 ~ 4:20 강원도 동해안 문암리 신석기유적지 퇴적층의 조직 특성  
- 김수정(한국해양연구소), 박용안(서울대학교)
- 4:20 ~ 4:40 황강천 유역 최종빙기 하성퇴적층과 고토양층 형성환경과 시기 고찰  
- 김주용, 양동윤, 남옥현, 홍세선, 이진영, 봉필윤, 이윤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 4:40 ~ 5:00 한국 영산강 하구 염생습지 일대에 대한 플라이스토세말-홀로세초 제4기 퇴적환경 연구  
- 남옥현, 김주용, 양동윤, 홍세선, 봉필윤, 이윤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염종권(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 5:00 ~ 5:20 동해안 화진포 외호의 홀로세 동안의 진화 : 동해의 해수면 변동과 관련된 환경변화  
- 염종권(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유강민(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竹村惠一(Hyogo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成瀬敏郎, 北村晃壽(Shizuoka University)

## 8)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

- (1) 주제 : 역사속의 '타자(others)' 읽기
- (2) 일시 : 2003년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 (3) 장소 : 서울대학교
- (4) 주최 : 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 (5) 주관 : 역사학회
- (6) 고고학부 분과학회 발표일정
  - 장흥 송정리 갈두유적 조사개보(10:10 ~ 10:40)  
- 발표 : 김규정(호남문화재연구원)
  - 대전 가오동유적 발굴조사 개요(10:40 ~ 11:10)  
- 발표 : 도문선(중앙문화재연구원)
  - 울주 서부리 남천유적(11:20 ~ 11:50)  
- 발표 : 유병일, 이현석, 김성미(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 밀양 교동유적 발굴조사 개요(11:50 ~ 12:20)

- 발표 : 문백성(밀양대학교박물관)
- 연천 학곡리 적석층 발굴조사 개보(13:50 ~ 14:20)
  - 발표 : 이미란(기전문화재연구원)
- 청양 장승리 고분군 발굴조사 개요(14:20 ~ 14:50)
  - 발표 : 전일용(충청문화재연구원)

## 9) 연세대 박물관 교양강좌

- (1) 주제 :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
- (2) 일시 : 2003년 6월 4~5일
- (3) 장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 (4) 발표일정

6월 4일(수) I 부 [자연환경 · 사람 · 삶] - 사 회: 신숙정(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개 회(10:00~10:30)

강 연(10:30~16:50)

-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개관 - 임효재(서울대학교 교수)
- 신석기시대의 자연환경 - 김주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석기시대의 농경 - 안승모(원광대학교 교수)
- 신석기시대의 사냥 · 채집(동 · 식물) - 이준정(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 연구원)
- 신석기시대의 질그릇 제작기술 - 이기길(조선대학교 교수)
- 신석기시대의 사람 - 박선주(충북대학교 교수)

6월 5일(목) II 부 [유적과 문화] - 사 회: 최삼용(연세대학교 박물관)

강 연(10:00~16:50)

- 북한지역의 신석기유적과 문화 - 신숙정(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중부내륙지역의 신석기유적과 문화 - 임상택(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서해중부지역의 신석기유적과 문화 - 김장석(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유적과 문화 - 고동순(강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영남지역의 신석기유적과 문화 - 하인수(부산광역시박물관 학예연구관)
- 호남지역의 신석기유적과 문화 - 이상균(전주대학교 조교수)
-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정징원(부산대학교 교수)

## 10) 서울경기고고학회 - 6월 춘계학술발표회

(1) 일시 : 2003년 6월 13일 오후 3시

(2) 장소 : 국민대학교 박물관

(3) 발표내용

• 15:00 ~ 15:20 개회사

개회사 배기동 (서울경기고고학회 회장)

환영사 박종기 (국민대학교박물관 관장)

주제발표 사회 : 안신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15:40 배기동(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탄자니아의 선사문화 및 현대물질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

• 16:10 장명수(국민대학교박물관) 신례 도검류 그림 암각화에 대한 검토

• 16:40 임영진(전남대학교 인류학과 / 호남고고학회 회장) - 영산강 유역권 장고분의 제 문제 유적조사발표

17:20 서영일(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발굴조사 개보

17:40 현남주 · 황정욱(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검단 2지구 2구역 발굴조사 개요

## 11)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강연회

(1) 주 제 : 해외 문화재의 발굴조사 사례 (중국과 유럽 및 아프리카)

(2) 일 시 : 일 시 : 2003. 7. 5(토) 오전 9시 30분 ~ 12시

(3) 장 소 : 경기문화재단 6층 강의실

(4) 발표내용

岳洪彬(중국 사회과학연구소) : 중국 고고학 발굴조사의 최근 사례

• 통역 : 안신원(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홍미영(기전문화재연구원) : 유럽과 아프리카 구석기유적 발굴조사의 몇가지 사례

## 12) 한국고대사학회 제73회 정기발표회

(1) 주 제 : 신라사의 제문제

(2) 일 시 : 2003년 6월 14일(토) 오후 1시 ~ 오후 6시

(3) 장 소 :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본관 대세미나실

(4) 발표내용

주제발표 - 사 회 : 김수태(충남대학교)

- 신라 황남대총관의 기술적 계보
  - 발 표 : 이승란(홍익대학교 예술학과)
  - 토 론 : 김창호(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 신라 중대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 발 표 : 이현숙(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 토 론 :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학과)
- 재당 신라인의 대일본 무역활동
  - 발 표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사학과)
  - 토 론 : 佐藤長門(일본 국학원대학 일본사학과)
- 남말여초 복원경의 정치세력 재편과 불교계의 동향
  - 발 표 : 이인재(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 토 론 : 남동신(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범례 모색
  - 발 표 : 조인성(경희대학교 사학과)
  - 토 론 : 이강래(전남대학교 사학과)

### 13) 회암사 특별전 기념 학술강연회

(1) 주 제 : 고려말 조선전기의 불교문화와 회암사

(2) 일 시 : 2003년 7월 29일 (화) 10:00 ~ 18:00

(3)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4) 주 관 : 경기도박물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공동

(5) 발표내용

- 발굴을 통해 본 회암사의 위상 - 발표 :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
- 회암사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위치 - 발표 : 허홍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회암사지의 건축사적 중요성 - 발표 : 윤희상(신홍대학)

- 회암사지 출토 도자기 - 발표 : 김영원(국립제주박물관)
- 회암사지 석조 및 소조유물 - 발표 :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 회암사 봉안의 조선전기 불화 - 발표 : 박은경(동아대학교)

#### 14) 제1회 한국 - 베트남 고고학 학술대회

- (1) 일시 : 2003년 7월 30일 오후 1:30 ~ 6:00
- (2)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3) 주제 : 베트남 호아빈 문화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 (4) 주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5) 발표내용
  - 베트남 호아빈 문화의 성격
    - Lam Thi My Dzung(하노이 국립대학 고고학과)
  - 호아빈 문화의 자연 환경
    - Vu The Long(베트남 국립 고고학 연구소)
  - 호아빈 문화인의 형질인류학적 특성
    - Nguyen Kim Thuy(베트남 국립 고고학 연구소)
  - 베트남 호아빈 문화의 연대 -새로운 AMS 연대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 이준정(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6) 토론
  - 이용조(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안승모(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이선복(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15) “발해 고고학의 최신성과” 국제학술대회

- (1) 일시 : 2003년 8월 22일 (금) 11:00 - 18:00
- (2) 장소 : 서울대학교박물관 강당
- (3) 발표내용
  - ラスキノ土城の調査とその意義 : 田村晃一 (日本 青山學院大學 名譽教授)

- 13:30 ~ 14:20 : 연해주 체르냐피노 5 발해고분군 :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14:20 ~ 15:10 : 발해 불교미술의 신 해석 : 강희정(서울대박물관 객원연구원)  
 15:20 ~ 15:50 : 渤海上京龍泉府考古發現?研究 : 陶剛(中國牡丹江市文物管理站)  
 15:50 ~ 16:20 : 上京城 주위의 渤海 무덤 : 金太順(中國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  
 16:10 ~ 16:30 : 장내정리 및 휴식  
 16:30 ~ 18:00 : 종합토론(사회 : 송기호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한규철(경성대학교), 차용걸(충북대학교), 강현숙(동국대학교),  
 배진달(용인대학교)

## 16) 한신대학교 학술원 제1회 국제 학술대회

- (1) 주제 : 漢城期 百濟의 物流시스템과 對外交渉  
 (2) 일시 : 2003년 9월 26일 (금) 오전 9:00 ~ 오후 6:00  
 (3)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4) 발표일정

### 발표 및 토론

1부 개회사 및 기조 발표 / 사회 : 김창석(한신대학교 학술원)

개회사 : 김정재 (한신대학교 학술원장)

축사 : 서울역사박물관장 / 오영석 (한신대학교 총장)

기조 발표 : 漢城 百濟期 物流시스템과 對外交渉 研究의 諸問題

- 이남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 2부 논문 발표 및 토론

• 古代國家의 物流시스템과 對外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接近

- 발표 : 김장석(전남대학교 인류학과)

- 토론 : 이성주(강릉대학교 사학과)

• 科學的 分析을 통한 漢城期 百濟 土器의 生産과 流通

- 발표 : Peter M. Day · 조대연(쉐필드대학 고고학과)/Vassilis Kilikoglou  
 (Laboratory of Archaeometry, N.C.S.R)

- 토론 : 최종택(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百濟의 成長과 對外交渉의 展開過程

- 발표 : 임기환(한신대학교 학술원)
- 토론 : 문동석(한신대학교 학술원)
- 南朝 瓦의 變遷과 周邊地域으로의 擴散
  - 발표 : 賀云翱(南京大學 歷史系)
  - 통역 : 정대영 (한신대학교 박물관)
  - 토론 : 성정용(京都大學 考古學研究室)
- 考古資料를 통해 본 5세기 百濟와 倭의 交流
  - 발표 : 吉井秀夫(京都大學 考古學研究室)
  - 토론 : 서현주(전남대학교 박물관)
- 漢城期 百濟와 樂浪과의 交涉
  - 발표 : 권오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 토론 : 김무중(기전문화재연구원)

3부 종합토론 사회 : 박순발(충남대학교 고고학과)

- 발표자, 토론자 전원 참여

##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18회 추계학술대회

- (1) 주 제 : 문화재의 또 다른 보존 - 복제와 모사
- (2) 일 시 : 2003년 9월 25일(목) 오후 2시
- (3) 장 소 : 용인대학교 단호관 세미나실
- (4) 주 관 : 용인대학교 박물관
- (5) 후 원 : 宇鶴文化財團/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6) 발표내용
  - 중국 서화유물 복제의 역사와 현황 및 복제공예기술에 관하여
    - 발표 : 曹靜樓·郭文林(中國 北京故宮博物院)
  - 한국 서화유물 모사의 역사와 현황
    - 발표 : 박지선(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고전조각 모조의 의의 - 보존·수리복제의 교육 및 보급
    - 발표 : 牧野隆夫(日本 東北藝術工科大学)

- 서양에서의 유물 복제의 의미와 현황

- 발표 : 김 겹(영국 Lincoln대학)

둘째날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제18회 추계학술대회

(1) 일 시 : 2003년 9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용인대학교 단호관 세미나실

(3) 주 관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4) 발표내용

- 옥외의 석조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사이트 환경 관리의 중요성
  - 발표 : 김수진(서울대학교)
- 천안 운전리 청동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석기와 토기의 정량분석, 소성조건 및 원산지 추정
  - 발표 : 이찬희(공주대학교)
- 익산 미륵사지 출토 녹색유리의 과학분석
  - 발표 : 강형태(국립중앙박물관)/김성배(국립부여박물관)/허우영(호암미술관)
- 고고자료의 잔존지방분석 연구
  - 발표 : 유혜선(국립중앙박물관)
- 조선시대 회곽묘 출토 염습의에 부착된 회백색 물질의 동정 및 그 생성메커니즘
  - 발표 : 오준석(국립민속박물관)/유혜선 · 윤은영(국립중앙박물관)
- PEG처리 후 동결건조한 수침고목재의 습도조건에 따른 상태변화
  - 발표 : 김수철 · 이용희(국립중앙박물관)/박원규(충북대학교)
- 전 황룡사지 출토 장방형 은판의 이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
  - 발표 : 박학수 · 유혜선(국립중앙박물관)
- 영산강 유역 출토 철기유물의 미세조직 분석
  - 발표 : 이재성(경기도박물관) · 김수기(용인대학교)
- 함판에 그려진 유화의 보존 및 복원 -이중섭 '서귀포의 환상'
  - 발표 : 김주삼(호암미술관)

[포스터발표]

- 흙 벽화의 보존처리 재료에 관한 연구
  - 장은혜(서울역사박물관)/김수기(용인대학교)
- 감은사지 석탑의 구성 석재에 대한 정량분석과 풍화훼손도 연구

- 이찬희 · 서만철 · 이명성 · 김만갑 · 채상정 · 최석원(공주대학교)
- 한국 전탑의 구성 재질, 풍화 및 훼손도 평가
  - 이찬희 · 임재남 · 이명성 · 최석원 (공주대학교)
- 경주 서악동 삼존불 입상의 암석학적 구성과 기계적 파괴
  - 이찬희 · 최석원 · 정연삼 · 이효민(공주대학교)/김사덕(국립문화재연구소)/한경순(경주대학교)
- 출토 금동유물의 표면색에 따른 금합금비에 관한 연구
  - 백승희(국립부여박물관)/한민수(국립문화재연구소)/김수기(용인대학교)
- 출토 복식의 염료분석 - 경의선 연결 구간 비무장지대 한산이씨
  - 이영은(경기도박물관)/고민정(공주대학교)
- 한국 전통 표장에 쓰이는 유소의 제작기법 연구
  - 박지선(용인대학교)/전지연(정재문화재연구소)
- 출토 지류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
  - 임주희(정재문화재연구소)/박지선(용인대학교)
- 회화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쓰이는 풀에 관한 연구
  - 전지연(정재문화재연구소)/박지선(용인대학교)
- 베이징안 통계를 이용한 고고학 편년 설정의 재검토
  - 한반도 중부지역 청동기 전기가락동 유형을 중심으로
  - 김명진(한국고환경연구소)
- 한국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유적의 광 여기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연대 측정
  - 김명진(한국고환경연구소)
- 흑요석의 미세결정과 자기적 성질과의 관계 및 산지분류
  - 조남철 · 강형태(국립중앙박물관)/한민수(국립문화재연구소)
- 미립자법에 의한 옛소성물의 열발광연대측정
  - 경기도 광주 실촌면 삼리 기와가마(I · II호)
  - 정광용(대전보건대학)/강형태(국립중앙박물관)

## 18) 한국고대학회 2003년 추계 학술회의

- (1) 주 제 : 온조와 초기 백제
- (2) 일 시 : 2003년 9월 29일 (월요일) 10시

(3) 장 소 : 암사동 선사주거지 원시생활전시관 영상실

(4) 주 최 : 강동구청 · 한국고대학회

(5) 발표 논문

- 기조 강연 : 백제 전기 사회의 성격 - 신형식 (이화여자대학교)
- 백제 건국기 정치세력의 동향 - 박찬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토론 : 이도학 (한국전통문화학교)
- 백제의 성장과 서부 경영 - 김기섭 (경기대학교)  
- 토론 : 박현숙 (고려대학교)
- 한성기 백제 도성의 문제점 - 풍납토성 축조 시점 검토를 중심으로 - 박순발 (충남대학교)  
- 토론 : 신희권 (문화재청)
- 적석총을 통해 본 백제의 건국 과정 - 임영진 (전남대학교)  
- 토론 : 강현숙 (동국대학교)
- 한성시대 백제의 국가제사 - 박승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토론 : 채미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종합토론 - 사 회 : 양기석 (충북대학교)

## 19) 잃어버린 한국고대사연구회 학술회의 “한일 고대역사”

(1) 일 시 : 2003년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2) 장 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3) 주 최 : 잃어버린 한국고대사연구회

(4) 발표내용

기조발표 - 홍순주(잃어버린 한국고대사연구회)

주제발표

- 중국 대륙에 있어서의 백제의 활동  
- 발표 : 최 진(전 주중공사)
- 광개토왕 비문의 백잔국과 잔국  
- 발표 : 김성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고대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한일관계  
- 발표 : 최재석(고려대학교)

- 왜의 실체에 관한 고찰
  - 발표 : 김산호(태천단)
- 고대 한일 관계 -백제왜
  - 발표 : 홍원탁(서울대학교)
- 일본어의 뿌리로 살펴본 고대 한일 관계
  - 발표 : 이남교(국제교육진흥원장)

종합토론

## 20) 제5차 암사동 선사문화 국제학술대회

- (1) 일시 : 2003년 10월 13일 (월)
- (2) 장소 : 암사동 선사주거지 전시관 회의실
- (3) 주제 : 동아시아 속의 암사동 선사문화의 위치
- (4) 발표내용

1부(오후 1시 30분) : 사회 박명호(암사동 학예연구사)

- 개회사 : 최무장 한국선사고고학회 회장
- 환영사 : 김중환 강동구청장
- 축사 : 이진무 국립중앙박물관장

2부(오후 2시~4시 30분) : 사회 이상균(전주대학교 교수)

- 중국 선사주거지의 변천 - 암사동과의 관련성 : 박양진(충남대학교 교수)
-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특성 : 송은숙(전남대학교 강사)
- 일본 선사주거지의 변천 - 마쓰도(松戸) 지역을 중심으로 : 이와사끼(일본 松戸 박물관 관장) / 구라다(일본 松戸 박물관 학예실장)
- 기능적 측면에서 본 암사동 첨저형 토기 : 임효재(서울대학교 교수), 사라넬슨 (미국 덴버대학교 교수)

3부(오후 4시 30분~5시 30분) : 종합토론

좌장 : 최정필(세종대학교 박물관장) / 지건길(전 국립중앙박물관장) / 니시다니(구주대학교 명예교수) / 신종환(대기아박물관장) / 이동주(동아대학교 특별 연구원) / 이준정(서울대학교박물관 특별연구원) / 최복규(강원대학교 교수)

## 2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 (1) 일 시 : 2003년 10월 16일(목) ~ 10. 18(토)  
 (2) 장 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3) 발표내용

## [10. 16] 참가자 등록/특별전관람/협회 운영위원회

- 개관기념특별전 『Origins- 인류의 진화, 한민족의 기원』
- 협회개최기념전 『토기』

## [10. 17] 추계학술발표회 『토기』

- 빗살무늬토기문화의 형성과 그 해석 - 이동주(동아대학교 박물관)
-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의 연구 - 최종택(고려대학교)
- 중국 동북지역의 선사토기와 한반도의 관계 - 박순발(충남대학교)
- 원통형 토기를 통해 본 삼국시대 한일교섭 - 임영진(전남대학교)

## [10. 18] 발굴조사 현장 관람

-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 파주 적성면 금파리 구석기유적

## 22) 해상왕장보고연구회 학술연구발표회

- (1) 일시 : 2003년 10월 18일 토요일  
 (2) 장소 : 코엑스 본관 3층 컨퍼런스센터 313호  
 (3) 발표내용

- 840년 장보고의 대일조공의 배경과 그 실체 - 전미희/김은숙
- 신라와 당, 일본의 국가제사체계 비교와 그 의미 - 나희라/채미하
- 장보고 선박 복원 - 이창억 외 4명/참가자 전원

## 2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제18회 정기연구발표회

- (1) 일시 : 2003. 11. 7  
 (2) 장소 :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세미나실  
 (3) 발표내용

- 최근 조사된 한강유역의 고인돌에 관하여 - 하문식
- 고려 전기 탑전 공양상 고찰 - 홍대한
- 토론 : 유용태, 최선주

#### 24) 고구려연구회, 제9회 고구려 학술대회

- (1) 주제 : 고구려 국내성 천도 2000년 기념행사(5) - 벽화
- (2) 일시 : 2003년 10월 22일(수) ~ 24일(금)
- (3) 장소 : 세종문화회관
- (4) 발표내용
  - 10/22 수 世界文化遺産 高句麗 壁畫
  - 10/23 목 [A-Group] 高句麗 社會와 思想
  - 10/23 목 [B-Group] 高句麗 美術
  - 10/24 금 [A-Group] 高句麗人의 生活과 文化
  - 10/24 금 [B-Group] 高句麗人의 社會經濟

#### 25)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1) 일시 : 2003년 11월 7일(금)~8일(토)
- (2) 장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
- (3) 주제 :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 (4) 주관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 연세대학교 박물관
- (5) 후원 : 삼성문화재단,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한국학술진흥재단
- (6) 발표내용
  - 개 회 사 - 이백규(한국고고학회 회장)/ 사 회 : 한창균(한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 高句麗 古墳 -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高句麗 土器의 編年에 대하여 - 최종택(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 고구려산성의 연구 동향과 전망 -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 中國 東北地方과 高句麗文物의 비교연구-東 潮(德島大學總合科學部)
- (7) 토론 - 사 회 : 박순발(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조영현(계명대학교 박물관), 심광주(토지박물관)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이상울(부경대학교 박물관)

(8) 유적조사 발표

- 오전 사회 : 하문식(세종대학교 역사학과)

-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 심재용 · 김용탁(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경춘선 가평역사부지(달전리) 발굴조사 - 박성희(한림대학교 박물관)
- 密陽 琴川里遺蹟 - 이상길(경남대학교 인문학부) · 김미영(경남대학교 박물관)
- 華城 發安里 마을遺蹟 - 정상석(기전문화재연구원)
- 淸道 陳羅里遺蹟 發掘調査 - 박달석(영남문화재연구원)

- 오후 사회 : 김 건 수(호남문화재연구원)

- 星州 禮山里木棺墓 發掘調査概要 - 정창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華川 龍岩里 遺蹟 - 김권중(강원문화재연구소)
- 원주 갈동유적 발굴조사개보 - 한수영 · 진만강(호남문화재연구원)
- 고고학 유적 출토 인골을 통한 선사-근대 생활사 연구 - 박순영(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이준정(서울대학교 박물관)

## 2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제6회 동원학술대회

(1) 일시 : 2003년 11월 22일(土) ~ 23일(日)

(2)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강당

(3) 주최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4) 후원 : 국립중앙박물관

(5) 발표일정

첫째날

- 애니메이션(Animation)을 이용한 전시기법(윤종균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의 면진시스템 활용(양성혁 : 건립추진기획단)
- 보스톤미술관의 박물관정책에 관한 고찰(선승혜 :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 도자 연구사론(김영원 : 국립제주박물관)
  - 토론 : 최건(조선관요박물관)
- '이왕가박물관' 설립의 시론적 검토(김인덕 : 건립추진기획단)

- 토론 : 최석영(국립민속박물관)
- 우리나라 석조미술의 문비(門扉) 고찰(김은화 : 국립춘천박물관)
- 토론 : 박경식(단국대학교 사학과)

둘째날

- 수침목재유물의 보존처리 및 보관환경에 따른 상태변화 연구  
(김수철 : 국립중앙박물관)
- 토론 : 김용한(국립문화재연구소)
- 記錄을 통해 본 韓國古代의 漂流(이귀영 : 국립제주박물관)
- 유물을 통해 본 백제의 도량형(김규동 : 국립부여박물관)
- 흥천 물걸리사지 제1차 발굴조사 개보(장은정 : 국립춘천박물관)

27) 조선관요학술세미나(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기념)

(1) 일 시 : 2003년 10월 11일(土) 13:30~17:00

(2) 장 소 : 이천세계도자센터 대강당

(3) 세미나 일정

사회진행 : 김재열 (호암미술관 부관장)

개 회 사 : 남기명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

기조연설 :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현 경기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장)

논문발표

- 조선관요의 설치와 그 의의 - 김영원 (국립제주박물관장)
- 조선관요의 분포와 변천 - 전승창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원)
- 조선시대 관요와 지방요의 문제 - 장기훈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연구원)
- 시론 : 오늘의 관점에서 본 조선백자의 의의  
- 최건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 문화재전문위원)

종합토론 - 사회 : 최건 (광주조선관요박물관장)

강경숙 (충북대학교 교수) / 윤용이 (명지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 구일희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 진화수 (한국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 28) 서울경기고고학회 제2회 학술대회

- (1) 주 제 : 한성기 백제고고학의 제문제(I) - 연대문제를 중심으로  
 (2)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3) 장 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2층 세미나실  
 (4) 발표내용

## 【주제발표】

- 백제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박순발(충남대학교)
- 백제 한성양식 토기의 형성과 변천 시론 - 발표 : 김성남(서울대학교)  
 - 토론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 백제의 한성기 지역토기 편년 - 발표 : 김무중(기전문화재연구원)  
 - 토론 : 권오영(한신대학교)
- 한성시기 백제산성 - 발표 : 심광주(토지박물관)  
 - 토론 : 백종오(경기도박물관)

## 【종합토론】

권오영(한신대학교) / 류기정(충청문화재연구원) / 백종오(경기도박물관)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 신희권(국립문화재연구소)

## 29) 한국고대사학회 “중국 고구려사 왜곡대책 학술발표회” 논문 발표회

- (1) 주 제 : 중국 고구려사 왜곡대책 학술발표회  
 (2)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13:00  
 (3)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4) 발표내용
-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 발표 : 최광식(고려대학교)
  - 동북 고대 종족 및 고조선 연구 동향 - 발표 : 조법종(우석대학교)
  - 고구려의 종족 기원과 건국 문제 - 발표 :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 고구려의 중국에 대한 조공 문제 - 발표 : 임기환(한신대학교)
  -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 천도 문제 - 발표 : 공석구(한밭대학교)
  - 고구려와 수, 당전쟁의 성격 - 발표 : 박경철(강남대학교)

- 고구려 붕괴 후 고구려 유민의 거취 문제 - 발표 : 김현숙(경북대학교)
- 발해의 고구려 역사 계승 문제 - 발표 : 한규철(경성대학교)
-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성 - 발표 : 안병우(한신대학교)

###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대회

(1) 주제 :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2) 일시 : 2003년 12월 15일(월) 10:00~16:30

(3) 장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발표내용

개회사 - 장을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오전회의 - 사회 : 권희영(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중국 고대문헌에 나타난 동북아관 - 발표 : 이성규(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이개석(경북대학교 교수)
- 단군신화 연구의 제문제 - 발표 : 신종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토론 : 서영대(인하대학교 교수)
- 부여사 연구의 제문제 - 발표 : 박경철(강남대학교 교수)  
- 토론 : 송호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오후 회의 - 사회 : 최진옥(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고구려사 연구의 제문제 - 발표 : 임기환(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원)  
- 토론 : 김기홍(건국대학교 교수)
-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지역간 교섭관계 - 발표 : 오강원(세명대학교 강사)  
- 토론 : 노혁진(한림대학교 교수)
- 철기시대 전기의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금속문화  
- 발표 : 이청규(영남대학교 교수)  
- 토론 : 이남규(한신대학교 박물관장)

종합토론 - 사회 : 정구복(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31) 고구려연구회 “고구려 = 중국사” 학술토론회

- (1) 주제 : ‘고구려 = 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
- (2) 일시 : 20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 (3)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4) 발표내용

제1부 / 사회 : 강선(숙명여대학교)

- 고구려 = 중국사이다. 중국의 논리와 국가 프로젝트 “동북공정” - 서길수 (서경대학교)
- 고구려와 수, 당전쟁은 중국의 국내전쟁인가? - 윤명철(동국대학교)
- 고구려족 = 중국 소수민족, 그 논리는 무엇인가? - 서영수(단국대학교)
- 발해 = 중국사, 중국의 논리는 무엇인가? - 한규철(경성대학교)

제2부 / 사회 : 박성봉(경북대학교)

종합토론

- 정구복(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광식(고려대학교), 김육훈(전국역사교사모임)  
 이부영(국회의원), 황우려(국회의원), 문병호(중앙일보 시사미디어)  
 김지하(시인), 김현욱(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임진택(연출가)  
 변중호(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 32)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6회 개최

서울경기고고학회에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발굴조사 현황과 중요사안에 대해 정보교류를 위하여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3년도에 개최된 월례발표회는 아래와 같다.

#### (1) 제7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 시 :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단국대학교(서울) 서관 701호
- 주제 및 발표자
  - ①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 정성권(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② 화성 천천리 유적 발굴조사 약보 - 이기성(한신대학교 박물관)

## (2) 제8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 시 : 2003년 2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박물관(서울) 시청각실
- 주제 및 발표자
  - ① 이천 설성산성 출토 백제기대 연구 - 방유리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② 시흥 목감유적 발굴조사 약보 - 윤선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③ 파주시 교하지역에서 새로이 찾은 구석기 유물 - 서인선 (연세대학교 박물관)

## (3) 9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 시 : 2003년 3월 31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3층 회의실
- 주제 및 발표자
  - ① 한강유역 고구려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하여 - 양시은 (서울대학교박물관)
  - ② 인천 원당, 검단동 유적발굴 약보 - 박준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③ 풍납토성 서벽 발굴조사 개요 - 신희권 (국립문화재연구소)

## (4) 제10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 시 : 2003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경기도박물관 1층 강당
- 주제 및 발표자
  - ① 경의선 연결도로 비무장지대구간 문화유적 시굴조사 개보 - 한준영(경기도박물관)
  - ② 파주 월릉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 권순진 (경기도박물관)
  - ③ 한국의 연변봉수 - 김주홍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④ 일본 초기 구석기유적 관찰 약보 - 배기동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 (5) 제11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 시 : 2003년 7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 6시
- 장 소 : 한국의 집 민속극장
- 주제 및 발표자
  - ① 용인 동백지구 1.4구역 발굴조사 개보 - 송대남 · 노선호(한국문화재보호재단)

- ② 인천 삼목도유적 발굴조사 개보 - 양시은(서울대학교박물관)
- ③ 서울 EMS테크센터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개보 - 이동준 (기전문화재연구원)
- ④ 제2회 세계고고학대회 참가기 - 배기동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6) 제12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 2003년 10월 31일 오후 4시
- 장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
- 주제 및 발표자
  - ① 금속유물의 보존 - 김수기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② 이태리 목제유물 보존처리의 현황 - 박성희(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
  - ③ 파주 가월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개보 - 김대일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4. 간행물

### 1) 각종 조사 보고서

서 명	기 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I 안성천 Vol.2 문화유적(1)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II 안성천 Vol.3 문화유적(2)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VI 생업기술·공예	경기도박물관
과천 관아지 추정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농성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평택 칠원동 기와가마 유적	세종대학교박물관
포천 길명리 유적 발굴조사	세종대학교박물관
양주 삼승리 공동주택 건립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중앙문화재연구원
화성 발안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중앙문화재연구원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남한행궁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신답리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성남 천림산 봉수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길성리토성	한신대학교박물관
풍납토성 III- 삼화연립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보고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 마북리 사지	한신대학교박물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연천군
김포 문수산성·수안산성 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광주 향교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간보고서와 광역지표조사를 제외한 지표조사보고서는 제외함

## 2) 도록 및 학술대회 기념 논문집

서 명	기 관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고려말 조선 전기의 불교문화와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묻혀있던 조선 최대의 왕실사찰 회암사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한국의 기마민족론	마사박물관
고고학 2	서울경기고고학회
한성기 백제고고학의 제문제(1)	서울경기고고학회
이성산성 출토 유물집	하남시
한성기 백제의 물류시스템과 대외교섭	한신대학교학술원
한양대학교박물관 개관기념 도록	한양대학교박물관
인류의 진화·한민족의 기원 - ORIGINS	한양대학교박물관
한반도 토기문화의 흐름	한양대학교박물관
조선도자 500년전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학술 세미나 - 조선의 도자문화와 관요의 의미 -	(재)세계도자기엑스포

### Ⅲ. 연구노트

1. 고고학에서 이용 가능한 考古地磁氣 분석법 / 성형미
2.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土器分析에 관한 일 고찰 / 조대연
3. 人骨의 分析과 고고학에서의 應用 / 김재현
4. 화성 발안리 출토 鐵斧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 / 김웅신

# 고고학에서 이용 가능한 考古地磁氣 분석법

성 형 미 \*

- I. 서언
- II. 원리
  - 1. 지자기와 영년변화
  - 2. 열잔류자화와 고고지자기 영년변화
- III. 시료의 채취와 잔류자화의 측정
  - 1. 시료의 채취
  - 2. 잔류자화의 측정
- IV. 측정결과의 이용방법
  - 1. 고고지자기년대의 추정
  - 2. 서력기원전의 고고지자기 데이터
- V. 전망

## I. 서언

암석이나 소토가 자기를 띠고 있으며, 그 자화의 방향은 암석이 생성된 시기, 혹은, 점토가 구워진 시기의 지자기 방향에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부터이지만, 古地磁氣·考古地磁氣學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20년대가 되어서 부터이다. 특히, 이탈리아 시실리섬의 에트나(Etna)화산 용암류의 자기측정 결과는, 화산암의 자화가 분출·냉각때의 지자기를 충실히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sup>1)</sup>. 에트나화산은 12세기 이후 몇번이고 분화하였으며, 그 당시에 흘러내린 용암류 중에는 분출연대가 정확히 알려진 것이 몇개 있다. 이와 같은 용암류의 자화방향을 측정하여, 로마에서 17세기초 부터 연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자기의 관측기록과 비교해 보니, 17세기 이후에 분출한 용암류의 자화방향은 로마의 관측기록과

\* 부산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1) Chevallier, R., 1925, L'aimantation des laves de l'Etna et l'orientation du champ terrestre en Sicile du XII<sup>e</sup> au XVII<sup>e</sup> siècle, Ann. Phys. 4, 5-162.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암석이 가지는 자화(殘留磁化라고 한다)의 방향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 과거의 지자기 변동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渡邊直經가 1950년대 말에 고고지자기학적 연구를 시작해, 繩文時代 및 古墳時代 이후의 지자기방위의 변동(地磁氣 永年變化라고 한다)을 측정한 것을 통해, 연대추정을 시도해 본 것이 최초이다<sup>2)</sup>. 그 후, 川井直人の 그룹이 陶邑古窯跡群을 중심으로하여, 5세기 이후의 영년변화를 명확하게 하였다<sup>3)</sup>. 川井그룹의 연구를 계승한 廣岡公夫는, 東海·北陸에서부터 九州北部에 이르는 지역의 많은 고고유적에 대해 고고지자기측정을 행하여, 과거 2000년간의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을 작성하였다. 이 영년변화곡선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sup>4)</sup>.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에 의해, 지자기 변동의 양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나<sup>5)</sup>, 아직 표준곡선인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이 작성된 단계까

- 2) Watanabe, N., 1959, The direction of remanent magnetism of baked earth and its application to chronology for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in Japan., Jour. Fac. Sci. Univ. Tokyo, Sec. V 2, 1-188.
- 3) Kawai, N., K. Hirooka, S. Sasajima, K. Yaskawa, H. Ito and S. Kume, 1965, Archaeomagnetic studies in southwestern Japan, Ann. Geophys. t. 21, 574-577.
- 4) Hirooka, K., 1971, Archaeomagnetic study for the past 2,000 years in Southwest Japan, Mem. Fac. Sci., Kyoto Univ., ser. Geol. & Mineral, 38, 167-207.
- 5) 金光浩, 喪 永富, 1983, 「史蹟 68號 高麗靑瓷陶窯址의 考古地磁氣」 『광산지질』 16권 4호, 253-256.  
 伊藤晴明, 時枝克安, 尹銃, 金英道, 1991, 「昌寧余草里瓦窯址의 熱殘留磁氣測定」 『昌寧余草里瓦窯址』 國立晉州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5冊, 附錄35-42(43-50).  
 伊藤晴明, 時枝克安, 尹銃, 金英道, 1992a, 「昌寧上谷里瓦窯址의 自然殘留磁氣測定」 『昌寧上谷里瓦窯址』 國立晉州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6冊, 附錄47-54(55-60).  
 伊藤晴明, 時枝克安, 尹銃, 金英道, 1992b, 「昌寧余草里土器窯址의 考古地磁氣測定」 『昌寧余草里土器窯址』 國立晉州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7冊, 111-118(119-127).  
 伊藤晴明, 時枝克安, 尹銃, 金英道, 1992c, 「珍山里7號窯址의 自然殘留磁氣測定結果について」 『南海珍山里靑瓷窯址』 木浦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第二十七冊, 附錄 I 155-162.  
 伊藤晴明, 時枝克安, 尹銃, 金英道, 1993, 「軍浦山本洞白磁窯址의 自然殘留磁氣測定」 『軍浦山本洞靑白磁窯址發掘報告書』 忠北大學校先史文化研究所 研究所叢書 3, 185-191.  
 伊藤晴明, 尹銃, 時枝克安, 1995, 「檢丹里遺跡橫口付窯址의 考古地磁氣法による年代測定」 『蔚州檢丹里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總書 第17輯, 460-468.  
 伊藤晴明, 時枝克安, 尹銃, 金英道, 1998, 「千軍洞遺跡의 橫口付4號窯跡と用途不明7號遺構燒土의 考古地磁氣測定結果」 『慶州千軍洞遺跡發掘調査』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411-420.  
 朴 昌庫, 1994, 「청원 궁평리유적의 '가마터'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淸原宮坪里靑銅器遺蹟』 京釜高速鐵道建設間內文化遺蹟發掘報告書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附錄7 323-329.  
 朴 昌庫, 1995, 「忠州 彌勒里 白瓷가마터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測定」 『중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査報告 第45冊, 附錄 2 287-306.  
 Baag, C., 1996a, Archeomagnetic study of white porcelain kiln, Mireog-ri, Jungweon-gun, Chungbuk and Bauer plot from 7 kiln in south Korea, Jour. Geol. Soc. Korea Vol 32 No. 3, p. 313-323.  
 朴 昌庫, 1996b, 「보령군 미산면 평라리 청동기 시대의 가마터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평라리 선사유적(보유편)-保寧郡 水沒地域 發掘調査 報告②』 忠北大學校 博物館, 88-114.  
 朴 昌庫, 1999, 「서울시 江東區 岩寺洞 先史住居址에 대한 考古地磁氣 測定結果」 『岩寺洞Ⅱ』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三十冊, 附錄 303-314.  
 이 윤수, 이 동영, 서 광수, 1996, 「충남 보령 읍수리 천방 와요지의 가마터에 대한 시험적인 한국의 영년변화 곡선의 적용성에 관한 고지자기 연구」 『保寧郡 水沒地域 發掘調査報告① 千房遺蹟』 韓國水資源公社·公州大學校博物館, 255-276.  
 도 성재, 1999, 「청원군 송대리 유적 솟가마터에 대한 고고지자기 연구」 『淸原 梧倉遺蹟(Ⅲ)』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學術調査報告 第23冊, 417-430.

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지자기영년 변화곡선을 어쩔수없이 準用하고 있으나, 추정년대치에는 지자기의 지역차에 의한 오차가 항상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고고지자기 연대추정법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축적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변동을 명확히 밝혀내어 영년변화곡선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국내 각지에서 대규모 국토개발에 동반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수의 고고지자기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고지자기 데이터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의해, 시대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세한 고고지자기영년변화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sup>6)</sup>.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나라에서도 고고지자기 연대추정법이 실용화되어, 고고학에서 이용가능한 유력한 분석법의 하나로 정착되리라 생각된다.

## II. 원리

### 1. 지자기와 영년변화

지자기는 방향과 크기(강도)를 가진 벡터量이다. 어떤 장소의 지자기는 偏角(declination), 伏角(inclination), 全磁力(total force), 또는 水平分力(horizontal component)의 3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그림 1). 이것들을 지자기 3요소로 부르고 있다. 편각과 북각은 지자기의 방향을, 전자력은 지자기의 강도(geomagnetic field intensity)를 결정한다. 자침은 대략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數度정도 동쪽 혹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리학적인 북쪽(진북)으로 부터 어긋난 각을 편각이라고 하며, 수평면으로 부터의 경사각을 북각이라 한다. 편각은 극에 가까워 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등편각선은 대략 위도선에 평행하며, 동서방향으로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편각은 數度정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북각도 위도가 높아 질수록 커지며, 자극의 근처에서는 90°가 되며, 반대로, 적도에서는 경사가 거의 없는 0° 전후의 값이 된다. 지자기의 강도도 위도에 따라 달라지며, 극근처에서는 적도부근 자장세기의 2배가 된다.

지구상의 위치가 다르면, 지자기의 방향은 물론 강도도 달라지며, 같은 지역에서도 일정한 것이 아닌 불규칙한 시간적 변동을 하고 있다. 이 지자기변동에는 짧은 것에서 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6) Sung, H. M., 2001, Archaeomagnetic Study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to Archaeology, 일본 富山大學 박사학위논문, Fig. 17.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10년이상 경과하여 처음으로 변화가 현저해지는 듯한 완만한 지자기변동을 地磁氣 永年變化(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한다.

동일 지점에서 지자기관측이 행해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에서 16세기후반에 시작한 편각과 복각의 연속적인 관측으로, 400년정도의 기록이 남겨져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중순경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직접관측에 의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지자기 영년변화의 주기에 대해서는 그리니치의 관측기록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00년이상의 더욱 긴 것인 모양이다. 따라서, 백년이나 이백년의 관측기록만으로는 그 전모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보다 이전의 지자기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정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암석이나 소토의 잔류자화를 이용하는 고지자기·고고지자기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 2. 열잔류자화와 고고지자기 영년변화

일반적으로 흙이나 암석에는 자석이 될 수 있는 광물, 즉 자성광물(magnetic mineral)이 1~3퍼센트 정도 함유되어져 있다. 이들 광물은 자철광(magnetite,  $Fe_3O_4$ )이나 적철광(hematite,  $Fe_2O_3$ ) 등의 철의 산화물이며, 일반적으로 '사철'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자성광물이 고온에서 가열되어지면, 각각의 광물이 가지는 고유의 온도에서 이제까지 保持하고 있던 殘留磁化(remanent magnetization)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온도를 퀴리점(Curie point)이라고 한다. 반대로, 그 광물이 자성을 잃어버린 고온의 상태로 부터 식혀져, 자화를 잃어버린 온도(퀴리점)까지 내려가면, 그 당시에 작용하고 있는 자장과 같은 방향의 자화를 취득한다. 이 자화는 熱殘留磁化(thermoremanent magnetization, 간략하게 TRM)라고 불리는 것으로, 常溫에서는 자기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자철광의 퀴리점은  $578^{\circ}C$ , 적철광은  $675^{\circ}C$ 이다. 요지나 주거지의 노지와 같은, 고온에서 구워진 소토를 가지는 유구는, 燒成時에 작용하고 있던 지구자장중에서 냉각되었기 때문에, 소성되었을 당시 지자기의 방향을 열잔류자화로써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소토의 잔류자화는, 과거 소성당시 지구자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자기의 화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소토를 공반한 유구의 열잔류자화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 그 시기 지구자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각 시대에 걸쳐서 축적함에 따라, 지자기의 관측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에 대한 지자기 변동양상도 알 수가 있다. 고고학적인 유구나 유물의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구해진 지자기의 영년변화를 考古地磁氣 永年變化(archa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東海·北陸지방에서 九州북부에 이르는 서남일본 각지의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에 의해, 상당히 상세한 과거 2000년간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이 구해져 있다<sup>7)</sup> (그림2).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을 임의의 척도로 하여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에서 볼 때, 일부의 시대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적으로 서남일본의 지자기영년변화와 거의 같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 Ⅲ. 시료의 채취와 잔류자화의 측정

#### 1. 시료의 채취

고고지자기 시료의 채취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구의 소성상태가 좋은 부분을 골라, 소토를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 칼로 깎아서, 18×18×25mm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다. 이 때, 시료채취를 행하는 유구의 소토부분은 유구가 마지막 소성된 이후 이동되거나 움직이지 않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시료채취시에도 물론,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토의 뿌리 부분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다음은, 물에 갠 석고

7) Hirooka, K., 1971, op. cit., 167-207.

廣岡公夫, 1977. 「考古地磁氣および第四紀古地磁氣研究の最近の動向」 『第四紀研究』 vol. 15, 200-203.

8) 成 亨美, 廣岡公夫, 1998. 「新院里土器窯址の考古地磁氣研の研究」 『清道新院里土器窯址』 中央僧伽大學校佛教史學研究所學術調査報告 6, 67-77.

成 亨美, 廣岡公夫, 1999a. 「勿川里遺蹟の考古地磁氣研の研究」 『慶州競馬場予定敷地C-1地區 發掘調査報告書(本文)』 韓國文化財保護財團學術調査報告 第25冊, 附錄 1-15.

成 亨美, 廣岡公夫, 1999b. 「太平洞磁器窯址の考古地磁氣研の研究」 『鎮海太平洞磁器窯址』 昌原大學校博物館學術調査報告書 第二十四冊, 附錄 1-16.

成 亨美, 廣岡公夫, 2000a. 「良將里遺蹟の考古地磁氣研の研究」 『務安良將里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第63冊, 271-283

成 亨美, 廣岡公夫, 2000b. 「亭下洞 遺蹟の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안동 정하동 유적』 안동대학교박물관총서 17, 부록2 533-552.

成 亨美, 廣岡公夫, 2001a. 「院北里遺蹟 焼成遺構の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論山 院北里遺蹟(本文)』 中央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報告 第9冊, 附錄2 394-409.

成 亨美, 廣岡公夫, 2001b. 「龍院里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龍院里遺蹟 C地區 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주)고려개발, 附錄 195-204.

成 亨美, 廣岡公夫, 2002. 「高興 雲堡里 粉靑沙器 陶窯址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高興 雲堡里 粉靑沙器 陶窯址』 國立光州博物館 學術叢書 第44冊, 附錄 165-175.

成 亨美, 廣岡公夫, 2003a. 「함평 중랑유적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함평 중랑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99책, 189-195.

成 亨美, 廣岡公夫, 2003b. 「숫가마터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대전 노은동 유적』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총서 15, 429-442.

를 넣은 시료채취용의 플라스틱 큐브를 위에서 부터 기둥모양 소토에 뒤집어 씌운다. 기둥모양 소토의 뿌리 부분에도 물에 갠 석고를 뿌려 보강해 둔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 큐브 背面(상자의 底面)의 최대 경사선의방위(pitch)와 그 경사각(dip)을 고고지자기용의 특제 클리노미터로 측정하여, 야장에 기록한다. 큐브의 背面에는, 그 면의 走向(strike)을 나타내는 선과 시료의 번호를 적은 후, 유구로부터 시료를 떼내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보통, 한기의 유구로부터 이와 같은 시료를 15개전후로 채취하여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큐브의 開口部도 석고로 막아서 측정용 시료로 한다.

시료의pitch 방위는 클리노미터의 자침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적의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이므로, 진북으로 부터 數度 어긋난 수치가 된다. 그 어긋난 각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유적에 대한 현재의 편각치를 알 필요가 있다. 유적의 위치가 확인되는, 2만 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 지형도에 기재된 편각의 값을 보정치로 하여, 잔류자화의 측정시에 보정작업을 행한다.

시료는 보통 요지, 주거지, 제철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소토에서 채취한다. 소토의 잔류자화로 부터 소성당시의 올바른 지자기 방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砂地의 급경사면에 있는 요지 등에서는, 요가 폐기되어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지반이 불안정하여 요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의 벽면은 土壓에 의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벽면을 제외한 요의 바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면에서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닥과 가까운 부분등 잘 변형되지 않는 부분에서 채취한다. 또, 양측의 벽면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그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벽면의 경사를 데이터를 통해 識別할 수 있다. 언제나 신경써야 할 것으로, 교란되어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유구의 넓은 범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배려가 중요하다. 좁은 범위에서 채취된 시료는 교란에 의해 동시에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료들의 잔류자화 방향이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소성시의 지자기 방향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넓은 범위에서 채취한 시료의 잔류자화 방향이 모여져 있다면, 이것들이 한꺼번에 같은 정도로 움직이거나 기울어지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소성시의 지자기 방향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끝으로, 제철유적에서는 자성이 강한 철을 취급하기 때문에, 제철유적의 소토는 철의 자화에 의한 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잔류자화가 지자기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철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능한한 떨어진 곳에서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있다. 역시, 철이 발생시키는 자장은 철에서 떨어질수록 약해져서 철에 대한 방향에서 차이가 나므로, 철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의 측정데이터를 비교하면, 철의 영향의 유무와 정도를 식별할 수 있다.

## 2. 잔류자화의 측정

시료에 대한 잔류자화의 측정은 플라스틱 큐브의 여섯면을 한면씩 바꿔 놓아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한번에 자력계의 회전축에 직교하는 평면내의 직교 2성분이 측정 가능하므로, 여섯번 바꿔 놓아 측정하면 합계 12성분 즉, X, Y, Z의 직교 3성분을 각각 4회씩 측정하는 것이 된다. 4개 데이터의 평균치를 각각 X, Y, Z의 성분으로 한다. 이 X, Y, Z와 유적에서 측정한 pitch와 dip의 값을 이용하여 그 시료의 편각, 복각, 자화강도를 계산에 의해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시료 각각의 편각은,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이므로, 진북을 기준으로 한 편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적이 위치한 장소의 현재 편각의 값만큼 보정한다. 주로 이용되는 측정장비는 Shonsted社의 spinner 磁氣力計와 夏原技研製の ring core 型 spinner磁力計 등이다.

시료에는 여러 종류의 자성광물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그중에는 자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자화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적으로 불안정한 성분의 비율이 커진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화성분에는, 최종소성이 행해져 열잔류자화를 획득한 이후부터 현재가 되기까지 지구자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세의 지구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화방향을 바꿔버린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자화성분은 소성당시의 지자기의 화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여 최종소성당시의 지자기의 방향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 안정된 자화성분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실험적인 수단으로, 시료를 交番磁場中에 두어 자기적으로 혼든다고 하는 交流消磁實驗이 고안되어져 있다. 시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잔류자화(自然殘留磁化, 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간략하게 NRM)를 측정한 후에, 단계적으로 교번자장의 세기를 올려가는 단계교류소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법이다. 無磁場空間內에 두어진 코일에 교류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내에서 교류의 주파수에 응답하여 방향이 反轉하는 交番磁場이 발생한다. 코일의 중간에 시료를 두어, 교번자장에서 자기적으로 혼드는 것에 의해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 보다 불안정한 자화성분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해 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段階交流消磁라고 한다.

교류소자에는 교류소자장치를 이용하여, 시료의 상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소자자장의 단계를 설정하여 행해진다. 각 단계마다 소자실험이 끝나면 잔류자화의 측정을 행하여, 자화방향의 분산정도나 자화강도의 감소정도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불안정한 잔류자화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던 단계(최적소자단계)를 판정하여, 그때의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터로 채용한다. 잔류자화의 측정결과로부터 각 유구의 평균자화방향 및 자화의 분산정도를 구하는 통계계산에는 Fisher의 통계

법<sup>9)</sup>을 이용하였다.

#### IV. 측정결과의 이용방법

측정결과가 정리된 고고지자기 데이터 중에서, 本稿에서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행한, 남양주시 평내유적(3지구), 남양주시 호평동유적, 용인시 구갈리유적(3지구), 용인시 죽전리유적에서 분석한 19점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측정결과의 이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적 4곳의 19기 유구(서력기원전 유구 3기, 서력기원후 유구 16기)로 부터 총 262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각 유구에 대한 상세한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는 표1에 정리하였다.

##### 1. 고고지자기년대의 추정

표1의 서력기원후 각 유구에 대한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를 Schmidt의 等積stereof投影圖에 plot한 것이 도3이다. 비교를 위해, 과거 2000년간의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도면에서 원 중간의 검은 동그라미가 유구 각각의 평균자화방향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원이 Fisher의 신뢰각( $\alpha_{95}$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원안에 95%의 확률로 진실의 자화방향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검은 동그라미에서 가장 가까운 영년변화곡선의 부분에 垂線을 그어 내렸을 때, 그 교점의 연대가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추정되는 소토의 연대가 된다. 또한,  $\alpha_{95}$ 의 원으로 덮혀지는 곡선의 선분의 길이가 추정연대의 연대폭(오차범위)이 된다.

표1의 유적들에 대해 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으로부터 실제로 고고지자기 연대를 추정해 보면, 표2에 나타낸 것과 같다. 지자기의 영년변화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변동하고 있는 모양으로, 시대는 달라도 지자기의 방위가 비슷한 경우가 자주 있다. 때문에, 고고지자기학적으로 복수의 추정 연대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고학적인 견해에 맞는 연대를 채용하면 된다. 복수의 연대값중에 고고학적 추정년대와 가장 가까운 연대치를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9) Fisher, R. A., 1953, Dispersion on a sphere, Proceedings of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vol.217, 295-305.

## 2. 서력기원전의 고고지자기 데이터

일본에서는 과거 2000년간(서력기원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상세한 영년변화가 구해져 있으나, 서력기원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영년변화곡선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연대 추정을 행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서력기원전의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요지의 발견례가 거의 없으며, 가끔 있다고 하더라도 요지내의 소토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기원전의 유적에서 고고지자기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보통 주거지이며, 요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 서력기원후의 시대에 비해 데이터의 정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정된 시대의 것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고고지자기 데이터를 통해 서력기원전의 고고지자기 변동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대규모로 발견된 유적이 각지에서 확인되어 다수의 유구로부터 고고지자기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아직 분석중에 있어서 本稿에서는 소개할 수 없으나, 시료의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라, 가까운 시일내에 청동기시대의 일부시기에 대해서는 고고지자기 변동양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측정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한유적 내 각각의 유구들이 동시기의 것인지 아니면 시기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한, 선후관계는 어떠한지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유적들을 고고지자기 데이터를 통해 비교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4는 용인 죽전리 7번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 3호와 청동기시대 소성유구의 고고지자기 데이터를 확대된 Schmidt 투영도에 plot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 서력기원후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의 변동범위를 빗금을 쳐서 표시해 두었다. 그림4를 통해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지자기변동도 서력기원후의 변동범위내에 있으며, 기원후의 지자기변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변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균자화방향에서 볼 때, 1호와 3호 주거지는 잔류자화의 방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이거나 시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지만, 주거지 2기와 소성유구의 사이에는 편각에서  $10^\circ$  이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력기원전의 고고지자기 데이터의 축적은 아직은 시작 단계로 상세한 지자기 변동양상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되지만, 추정년대치를 산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데이터간의 비교검토는 가능하며, 영년변화곡선을 완성하는 과정중에도 고고학적으로 충분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 V.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고고지자기 변동의 전체적인 양상을 측정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력기원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서력기원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안에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데이터가 부족한 시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정작업이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지자기의 지역차에 의해 지자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등의 여러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어, 세부적인 수정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영년변화곡선이 완성되면 고고지자기 연대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여러가지 응용을 할 수 있으며,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 응용범위는 확대될 것이다. 고고학은 고고학관련 학문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문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고고지자기학도 마찬가지이며, 고고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有力한 분석법중의 하나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 참고문헌

- 金光浩, 裒永富, 1983. 「史蹟 68號 高麗靑瓷陶窯址의 考古地磁氣」 『광산지질』 16권 4호.
- 도성재, 1999. 「청원군 송대리 유적 숯가마터에 대한 고고지자기 연구」 『淸原 梧倉遺蹟(Ⅲ)』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學術調查報告 第23冊.
- 朴昌庫, 1994. 「청원 궁평리유적의 가마터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 『淸原宮坪里 靑銅器遺蹟』 京釜高速鐵道建設區間內文化遺蹟發掘報告書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 朴昌庫, 1995. 「서주 彌勒里 白瓷가마터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測定」 『충주미륵리 백자가마터』 忠北大學校博物館調查報告 第45冊.
- 朴昌庫, 1996b. 「보령군 미산면 평라리 청동기 시대의 가마터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평라리 선사유적(보유편)-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查報告②』 忠北大學校 博物館.
- 朴昌庫, 1999. 「서울시 江東區 岩寺洞 先史住居址에 대한 考古地磁氣 測定結果」 『岩寺洞Ⅱ』 國立中央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三十冊.
- 成亨美, 廣岡公夫, 1998. 「新院里土器窯址의 考古地磁器學的研究」 『淸道新院里土器窯址』 中央僧伽大學校佛教史學研究所學術調查報告 6.
- 成亨美, 廣岡公夫, 1999a. 「勿川里遺蹟의 考古地磁器學的研究」 『慶州競馬場子定敷地C-I地區 發掘調查報告書(本文)』 韓國文化財保護財團學術調查報告 第25冊.
- 成亨美, 廣岡公夫, 1999b. 「太平洞磁器窯址의 考古地磁器學的研究」 『鎭海太平洞磁器窯址』 昌原大學校博物館學術調查報告書 第二十四冊.
- 成亨美, 廣岡公夫, 2000a. 「良將里遺蹟의 考古地磁器學的研究」 『務安良將里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第63冊.
- 成亨美, 廣岡公夫, 2000b. 「亭下洞 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研究」 『안동 정하동 유적』 안동대학교박물관총서 17.
- 成亨美, 廣岡公夫, 2001a. 「院北里遺蹟 燒成遺構의 考古地磁氣學的研究」 『論山 院北里遺蹟(本文)』 中央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查報告 第9冊.
- 成亨美, 廣岡公夫, 2001b. 「龍院里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研究」 『龍院里遺蹟 C地區 發掘調查報告書』 서울대학교 박물관·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주)고려개발.
- 成亨美, 廣岡公夫, 2002. 「高興 雲垆里 粉靑沙器 陶窯址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研究」 『高興 雲垆里 粉靑沙器 陶窯址』 國立光州博物館 學術叢書 第44冊.
- 成亨美, 廣岡公夫, 2003a. 「함평 중량유적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함평 중량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 99권.
- 成亨美, 廣岡公夫, 2003b. 「숯가마터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대전 노은동 유적』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총서 15.
- 이윤수, 이동영, 서광수, 1996. 「충남 보령 용수리 천방 와요지의 가마터에 대한 시험적인 한국의 영년변화 곡선의 적용성에 관한 고지자기 연구」 『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查報告① 千房遺蹟』 韓國水資源公社·公州大學校博物館.
- 伊藤清明, 時枝克安, 尹銑, 金英道, 1991. 「昌寧余草里瓦窯址의 熱殘留磁氣測定」 『昌寧余草里瓦窯址』 國立晉州博物館遺蹟調查報告書 第5冊.
- 伊藤清明, 時枝克安, 尹銑, 金英道, 1992a. 「昌寧上谷里瓦窯址의 自然殘留磁氣測定」 『昌寧上谷里瓦窯址』 國立晉

- 州博物館遺蹟調査報告書 第6冊。
- 伊藤清明, 時枝克安, 尹 銑, 金 英道, 1992b, 「昌寧余草里土器窯址の考古地磁氣測定」『昌寧余草里土器窯址』國立晉州博物館遺蹟調査報告書 第7冊。
- 伊藤清明, 時枝克安, 尹 銑, 金 英道, 1992c, 「珍山里7號窯址の自然殘留磁氣測定結果について」『南海珍山里録青瓷窯址』木浦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第二十七冊, 附錄 I。
- 伊藤清明, 時枝克安, 尹 銑, 金 英道, 1993, 「軍浦山本洞白磁窯址の自然殘留磁氣測定」『軍浦山本洞青畫白磁窯址發掘報告書』忠北大學校先史文化研究所研究所叢書 3。
- 伊藤清明, 尹 銑, 時枝克安, 1995, 「檢丹里遺跡横口付窯址の考古地磁氣法による年代測定」『蔚州檢丹里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總書 第17輯。
- 伊藤清明, 時枝克安, 尹 銑, 金 英道, 1998, 「千軍洞遺跡の横口付4號窯跡と用途不明7號遺構焼土の考古地磁氣測定結果」『慶州千軍洞避幕遺蹟』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 中島正志, 夏原信義, 1981, 考古地磁氣年代推定法, 考古學ライブラリー9。
- 長友恒人編, 1999, 考古學のための年代測定學入門。
- 広岡公夫, 1977, 「考古地磁氣および第四紀古地磁氣研究の最近の動向」『第四紀研究』vol. 15。
- 広岡公夫, 成 亨美, 2000, 日本と韓國の古代における地磁氣永年變化の比較, 研究年報 第25卷, 富山大學環日本海地域研究センター。
- Baag, C., 1996a, Archeomagnetic study of white porcelain kiln, Mireog-ri, Jungweon-gun, Chungbuk and Bauer plot from 7 kiln in south Korea, Jour. Geol. Soc. Korea Vol 32 No. 3.
- Chevallier, R., 1925, L'aimantation des laves de l' Etna et l' orientation du champ terrestre en Sicile du XII<sup>e</sup> au XVII<sup>e</sup> siecle, Ann. Phys. 4.
- Fisher, R. A., 1953, Dispersion on a sphere, Proceedings of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vol.217.
- Hirooka, K., 1971, Archaeomagnetic study for the past 2,000 years in Southwest Japan, Mem. Fac. Sci., Kyoto Univ., ser. Geol. & Mineral. 38.
- Kawai, N., K. Hirooka, S. Sasajima, K. Yaskawa, H. Ito and S. Kume, 1965, Archaeomagnetic studies in southwestern Japan, Ann. Geophys. t. 21.
- Sung, H. M., 2001, Archaeomagnetic Study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to Archaeology, 일본 富山大學 박사학위논문.
- Watanabe, N., 1959, The direction of remanent magnetism of baked earth and its application to chronology for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in Japan., Jour. Fac. Sci. Univ. Tokyo, Sec. V 2.

표 1.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번호	유구	D	I	$\alpha^{95}$	K	n/N	소자자장(mT)
1	용인시 구갈리유적(3지구) A-5호주거지	-6.9	54.5	4.03	164.2	9/13	5.0
2	용인시 죽전리 9번유적 도기가마 1호 도기가마 2호 탄요	8.5	54.3	1.70	719.3	11/14	5.0
3		9.8	56.3	1.01	1325.3	16/22	NRM
4		-19.5	54.6	1.71	795.2	10/13	10.0
5		용인시 죽전리 10번유적 도기가마 1호 도기가마 2호	1.6	56.0	0.85	2166.8	14/14
6	4.1		57.4	1.78	659.5	11/14	NRM
7	남양주시 평내유적(3지구) 1호 와요지 2호 와요지 3호 와요지 4호 와요지 5호 와요지 6호 와요지	0.8	44.4	1.74	692.9	11/13	NRM
8		0.6	45.0	1.23	1144.1	13/13	15.0
9		1.0	44.5	1.08	1994.3	10/13	10.0
10		0.6	43.1	1.19	1332.1	12/13	10.0
11		0.9	42.2	2.08	711.2	8/13	15.0
12		-1.3	45.4	1.74	1010.3	8/12	10.0
13	남양주시 호평동유적 I 지구 1호 와요지 I 지구 2호 와요지 III 지구 탄요 III 지구 와요	-3.3	46.4	1.52	1012.7	10/14	10.0
14		-2.7	48.2	1.46	741.1	14/14	NRM
15		4.5	58.3	1.43	846.5	13/15	10.0
16		-8.2	56.1	1.34	1301.3	10/15	10.0
17	용인시 죽전리 7번유적 주거지 1호 주거지 3호 소성유구	-16.0	52.6	2.29	398.4	11/13	15.0
18		-6.8	53.9	2.45	749.2	6/11	5.0
19		6.4	54.9	0.92	2247.5	12/13	10.0

D : 平均偏角, I : 平均伏角,  $\alpha^{95}$ : 95% 誤差角, K : Fisher의 信賴 度係數  
n/N : 採用試料數/採取試料數.

표 2. 고고지자기년대의 추정

유 구	고고학적 추정년대 (A.D.)	고고지자기 연대
용인시 구갈리유적(3지구) A-5호주거지	4C	A.D.730±60년 또는 A.D.1110±70년 또는 A.D.110±40년
용인시 죽전리 9번유적 도기가마 1호	12C-13C	A.D.1240±40년 또는 A.D.170±20년
도기가마 2호	12C-13C	A.D.1240±10년 또는 A.D.190±10년
탄요	불명	A.D.595±15년
용인시 죽전리 10번유적 도기가마 1호	12C-13C	A.D.1190±10년 또는 A.D.150±10년
도기가마 2호	12C-13C	A.D.1210±20년 또는 A.D.170±20년
남양주시 평내유적(3지구) 1호 와요지	15C-16C	A.D.1400±15년 또는 A.D.1760±35년
2호 와요지	15C-16C	A.D.1400±10년 또는 A.D.1770±25년
3호 와요지	15C-16C	A.D.1400±10년 또는 A.D.1760±20년
4호 와요지	15C-16C	A.D.1415±10년 또는 A.D.1750±20년
5호 와요지	15C-16C	A.D.1420±20년 또는 A.D.1740±40년
6호 와요지	15C-16C	A.D.1400±15년 또는 A.D.1800±40년
남양주시 호평동유적 I 지구 1호 와요지	17C-19C	A.D.455±10년 또는 A.D.1850±40년 또는 A.D.80±10년
I 지구 2호 와요지	17C-19C	A.D.1850±40년 또는 A.D.90±10년 또는 A.D.450±10년
III 지구 탄요	불명	A.D.180±20년 또는 A.D.1215±15년
III 지구 와요	14C-15C	A.D.715±15년 또는 A.D.1125±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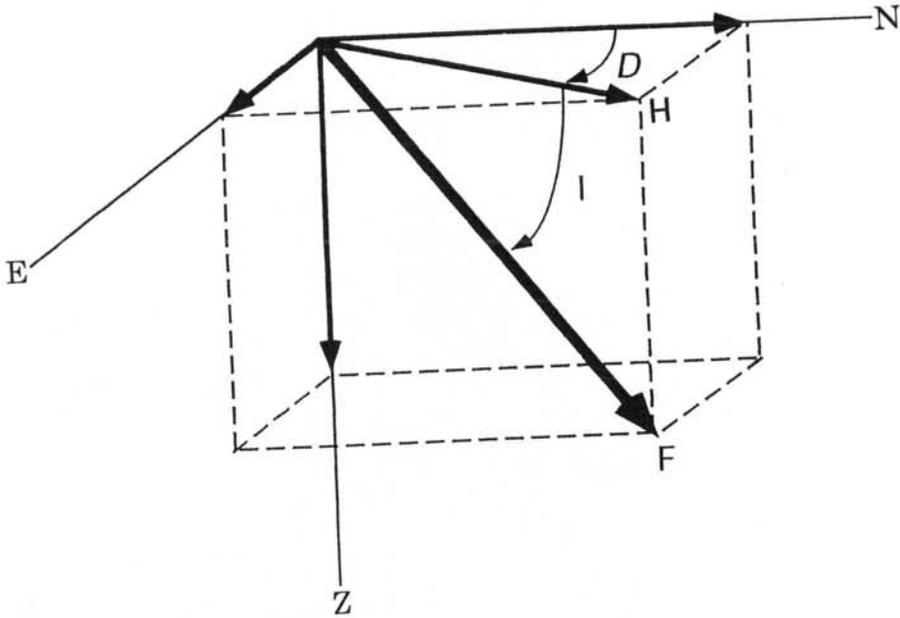


그림 1. 지자기의 요소  
 (N : 北, E : 東, Z : 鉛直, D : 偏角, I : 伏角, F : 全磁力, H : 水平分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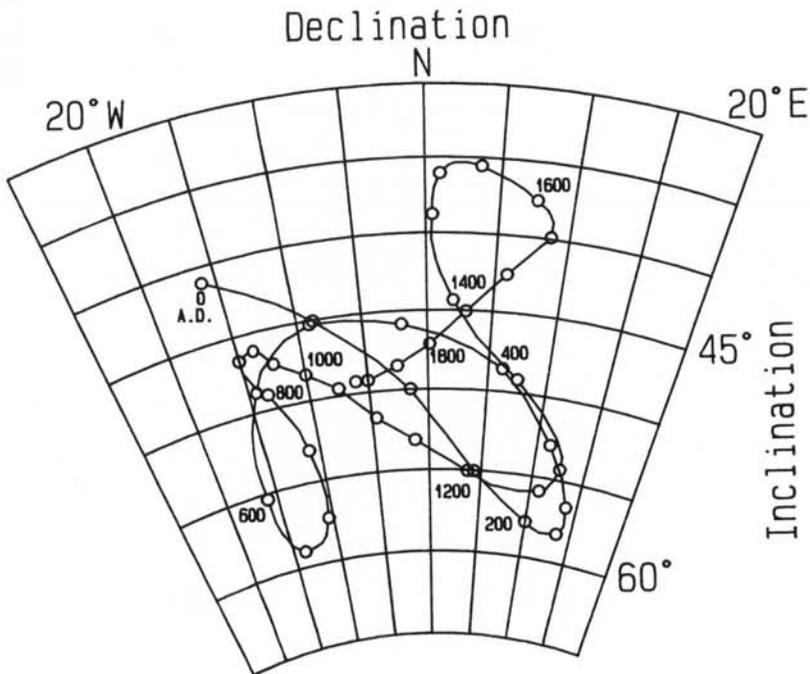


그림 2. 서남일본의 과거 2000년간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  
 Declination : 偏角, Inclination : 伏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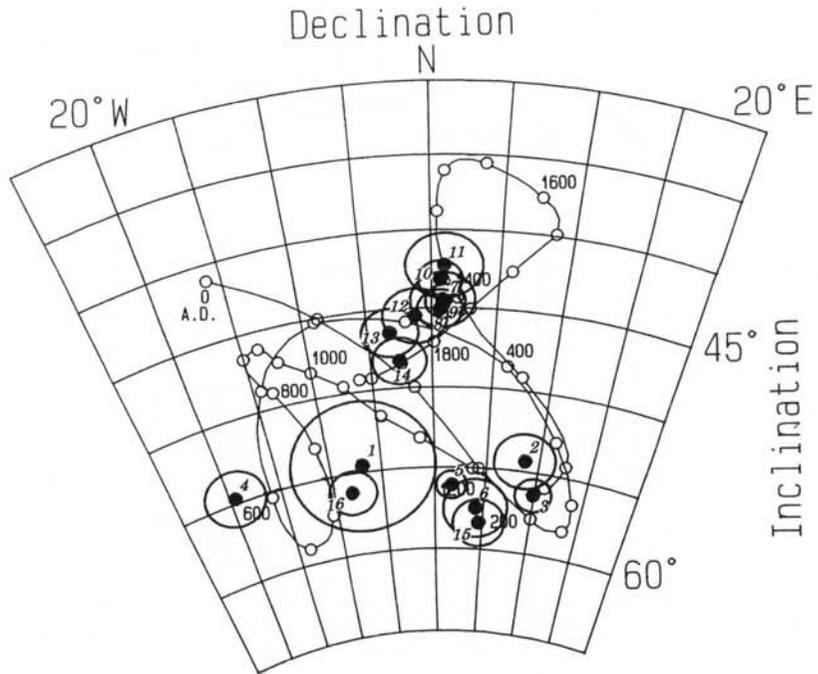


그림 3. 서력기원후의 유구에 대한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1-16은 표1의 번호에 대응한다.  
 곡선은 廣岡公夫에 의한 과거 2000년간의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연년변화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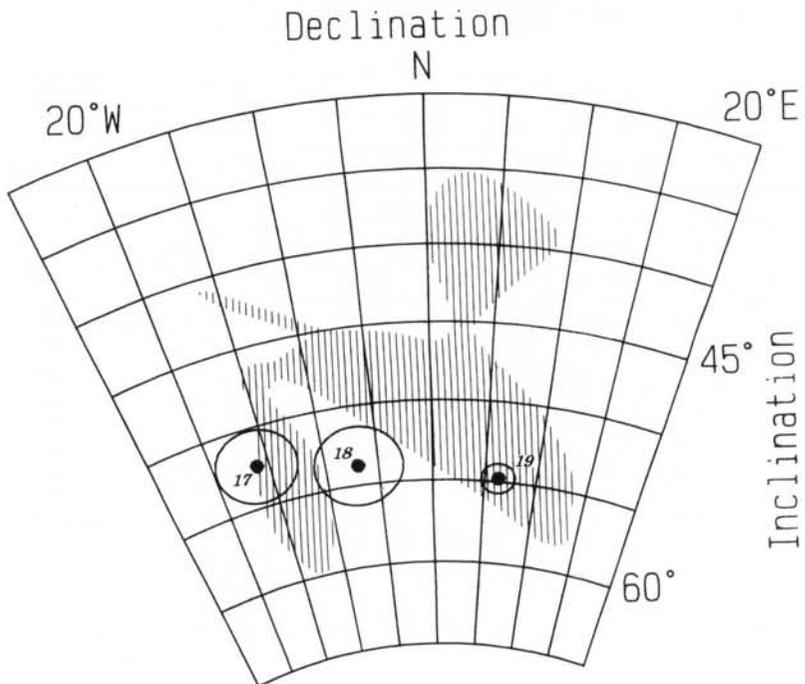


그림 4. 서력기원전의 유구에 대한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17-19는 표1의 번호에 대응한다.  
 빗금친 부분은 廣岡公夫에 의한 과거 2000년간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연년변화에 대한 변동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土器分析에 관한 일 고찰

조 대 연 \*

- I. 서언
- II. 토기와 생산기술, 그리고 고고학적 관점
- III. 토기 생산과 유통 각 단계의 자연과학적 분석 영역
  - 1. 토기 생산 과정
  - 2. 토기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
  - 3. 산지 분석
- IV. 결어 - 자연과학을 이용한 토기분석의 방향

## I. 서언

한국고고학에서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토기분석은 점차로 대중화되어 많은 발굴보고서에서 그 분석 결과를 흔히 접할 수 있고, 전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토기분석 논문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굴보고서나 개별논문들에서 다루어지는 토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어떠한 고고학적 과제를 풀기 위한 것인지, 이를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고학 연구에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고고학적 연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우선 고고학 연구에서 토기자료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어떠한 연구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지 개괄하겠다. 이를 통해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한 토기분석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논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자연과학적 분석의 방향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겠다.

\* 영국 셰필드대학 고고학과 박사과정

## II. 토기와 생산기술, 그리고 고고학적 관점

과거 물질문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문화를 영위한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기 연구의 목적 역시 과거 인간의 행위를 재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생산 및 사용과 관련된 제반의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고고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토기는 고고학자에게 과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토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1차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물질자료 사이에서 여러 단계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열에 의해 가열되어 그 화학적 특성이 비가역적(非可逆的)으로 변화된 2차 가공품이라 할 수 있다. 토기 제작자들은 원료점토의 선별과 채취, 정선, 성형 및 문양 장식, 그리고 소성 및 건조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과정을 조율하는데, 최종 생산품에는 제작자들의 개인적인 선호에서부터, 환경적 제약, 전통, 문화적 상징성, 사회정치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기와 같은 물질문화를 생산하는 기술(技術)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과정고고학(Processual archaeology)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론(Steponaitis 1984; Braun 1983, 1987; Neff 1990; Neff 외 1997; O'brien 외 1994)이나 문화진화론(Rice 1981, 1996, 1999)에 입각하여 기술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한 토기연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가정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료(raw material)이 선택되는 이유가 그것이 토기로 만들어져 사용될 때 토기의 태토에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극단적인 시각은 토기 생태학자(ceramic ecologist)들이 잘 보여주는데, 그들은 토기 생산의 과정을 계절성, 지역적 부존자원(賦存資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 구체적인 제한요인을 고려한 경제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Arnold 1985). 확실히 시간에 따른 토기 기술의 진화(evolution)라는 개념에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발전(progress)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민족지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반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 사회적 요인이나 문화적 신념 등이 토기의 생산과 유통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등 효율성이나 발전과 같은 개념과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 고고학적 사례들이 항상 보고되고 있다. 오히려 기술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며,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술은 사회적 생산이 표현되고 정의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 볼 수 있다(Phaffenberger 1992). 특히 토기생산과 관련하여 기술에 대한 주된 통제 요소는 아무래도 자연이라기보다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Lemonnier 1986). 바꾸어 말하면, 기술은 단순히 물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에 사회적 행위, 세계관,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이 내재된 역동적인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Dobres 외 1994). 결국

정치,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이 특정한 기술의 선택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변수로 상정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환경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제한들도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이것들은 특정 기술을 선택하는데 현실적인 조건으로 작동한다(Gosselain 1998).

### Ⅲ. 토기 생산과 유통 각 단계의 자연과학적 분석 영역

한국에서 토기의 고고학적인 연구는 그간 형식학적 검토를 통해 시, 공간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유물, 유적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사회 성격을 논하는데 비중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토기의 제작과 사용의 거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토기자료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들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사회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찍이 쉬퍼(Schiffer 1976)에 의해 고안된 토기의 일생(一生)(life cycle)은 토기와 관련된 고고학적 이슈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우선 토기생산의 단계에서는 원료의 선택과 채취, 그리고 성형, 표면처리, 소성 등의 변수가 있다. 또한 토기분배 혹은 교환을 통한 소비의 단계로 이어지며, 이후로는, 보관, 수리, 재(再)사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폐기되고 매장된다.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어떻게 토기생산과 유통이 조직화되고, 기술적인 선택과 혁신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토기의 일생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회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기술체계가 존속하는 사회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해석할 수 있다(Dobres 외 1994).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토기의 일생에 대한 연구에서 자연과학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개괄해 보기로 한다.

#### 1. 토기 생산 과정

토기 생산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원료흙이 어디에서, 어떻게 채취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토기가 성형되고, 장식되고 소성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기 생산기술의 전모를 알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거에 토기를 생산했던 가마나 노천요, 혹은 이와 관련된 작업장에 대한 조사를 해 보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토기 생산의 양상과 생산조직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회는 그리 흔치 않으며, 대개의 경우 주거지나 고분과 같이 생산유적과 별 관련 없는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토기제작에 관련된 제 양상을 연구함으로써 당시 제작자들의 면모를 재조명할 수 있다.

## 1) 태토(paste)의 준비과정

태토와 첨가제의 조율을 통해 성공적인 토기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종합예술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틱한데, 그 이유는 여기에 원료흡과 첨가제의 선택, 재료의 혼합 비율, 좁은 지역(micro-scale)에서 나타나는 지질학적인 조건 등 온갖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토의 제작은 단순히 토기의 기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토기 제작의 전통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를 통해 특정한 태토가 특정 기종의 토기에 선호되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기의 광물학적 분석은 태토와 첨가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분석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첨가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원래 첨가제는 소성될 때 최종 생산품의 수축율을 줄이고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O'Brien 1994) 모든 경우에 기계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가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 단적인 사례가 기존에 만들어진 토기편(grog)을 다시 파쇄하여 이를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그 사례로 Sterner 1989). 이러한 경우는 첨가제가 기술적인 필요성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생산기술이 제작집단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Wright 1993).

태토의 준비과정과 관련된 또 다른 고고학적 이슈는 토기의 성능(performance characteristics)과 토기 기능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인데, 이는 토기생산에 있어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토기를 어떻게 차별화시켜 만들었는가의 문제이며, 또한 역으로 추정되는 해당 토기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장용기, 자비(煮沸)용기, 의례용기 등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는 위신재용 토기들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용도에 의해 사전에 기획된 것이며, 따라서 생산 단계에 있어서 이미 서로 다른 성능이나 사용방식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자비용기야말로 이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자비용기의 생산과 이용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고려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저들이 있으나(Brintsky 1986; Skibo 외 1989; Schiffer 외 1994; Kilikoglou 외 1995), 토기의 형태 뿐 아니라 그 광물학적 화학적 성분, 바탕흙, 미세조직(micromass), 그리고 첨가제의 제 양상들이 토기의 경도, 거친 정도, 열전도성, 그리고 소성될 때 열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thermal shock resistance)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시금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여러 변수들이 토기의 일생에서 단지 생산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유통 이후의 다른 영역들과 관련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토기의 일생에는 정치, 사회, 경제, 이데올로기, 기술,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생산기술에 관련된 기술적 선택들 역시 이런 복잡다단한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다. 자비용기의 생산에 있어서 열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thermal shock resistance)은 토기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이 토기생산을 규정하는 요인이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료흙, 첨가제, 소성온도 등에 있어서 매우 많은 대안들이 항상 선택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해당 물질문화의 변용을 주도하는 특정 사회의 문화적 성격에 달려 있다(Van der Leeuw 1993). 하지만 생산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선택의 고고학적 사례들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실험고고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통계를 축적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생산기술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는 토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기는 원료흙 채취 및 수비, 성형 및 소성, 그리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이후 소성되기까지 자연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그 화학성분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토기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의 가정과 방법론을 확정하고 적용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최근의 분석 사례에 의하면, 특정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 복수의 산지에서 원료흙을 운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하며, 이는 산지 분석에 있어서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즉 원재료와 최종 생산품의 관련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태토의 준비과정에 제작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Buxeda 외 2003). 상술하자면, 태토(paste)와 원료흙(raw material)의 관계는 간접적인데, 이는 복합적인 원료흙을 혼합하는 정도와 침전과정에 따라서 태토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완성된 토기와 태토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이며, 비록 소성과 사용, 폐기 후의 화학조성의 변화가 있으나 전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 2) 토기 성형기법

토기 성형기법은 토기의 기술적인 전통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 특히 고대사회에서 토기제작에 회전판의 도입(영어로 wheel throwing 기법이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연속적인 회전력의 채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은 흔히 대량생산, 생산전문화, 혹은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지곤 한다. 한국고고학의 경우에도 삼국시대에 회전판의 사용과 함께 성형기법에 변화가 있었다고 흔히 믿어지는데, 이는 X-ray 분석(X-radiography)과 광물학적 분석(thin section petrography)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분석(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연구사례에서 토기가 회전판에서 몸체를 돌려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었으나, 자연과학적 분석에 의해 테쌓기(coil building)로 몸체를 만든 후 회전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Courty 외 1995). 이러한 사례는 토기 성형기법을 규명할 때 태토의 미세조직(microstructure)에 대한 고려 없이 표면흔에 대한 육안관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외관상 보이는 회전판 사용의 흔적들은 순전히 몸체성형 후 마무리 기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회전판 도입이 토기 대량생산체제의 성립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생산전문화를 상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다. 즉 고난도의 생산기술 등장, 또는 원재료 성분의 표준화(standardisation) 내지 동질성의 현저한 증가 등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토기의 소성과 가마

토기의 소성은 토기생산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 및 연료의 사용을 담보해야 하고, 소성이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성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분석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인데, 이는 아무래도 민족지적 방법과 실험 고고학적 방법에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고고학자들은 노천요(open firing structure)와 실요(kiln)를 구분하여 그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하곤 하는데, 최근의 민족지적 사례 연구에 의하면 토기 생산시설의 구조와 그 소성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Gosselain 1992). 즉 가마의 디자인과 건축 재료, 연료의 종류, 연료 투입시간, 토기의 배치방식 등 많은 변수들이 소성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맥락에서 그간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토기 소성온도에 대한 연구(Maggetti 1982; Maniatis and Tite 1981)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고대 토기의 소성온도에 대한 분석만을 통해서도 과거의 소성 기술에 대해 규명하거나 구별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한다. 고고학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소성 변수들이 서로 다른 소성 정보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소성과정 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 4) 표면처리

토기나 자기는 성형이후나 초별구이 후, 혹은 완성 후에 일련의 표면처리를 통해 거듭날 수 있다. 슬립(slip), 페인트(paint), 그리고 유약(glaze) 등은 장식적, 상징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채택된다. 이들에 대한 육안 관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차적으로 광물학적 분석(thin section petrography)을 통해 제작공정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 주사전자현미경분석(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추가적인 화학 분석을 통해 표면처리가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표면처리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토기제작의 다른 공정(특히 태토의 준비과정과 소성 방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청동기시대의 흑도, 홍도, 그리고 백제토기 중 흑색마연토기 등은 표면처리의 방법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유약의 사용은 토기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지만(Cardew 1969; Philips 199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고학적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약을 사용할 때

대개 초별구이 이후 유약을 바른 후 재별구이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때 반드시 재별구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각기 다른 종류의 유약이 다양한 작업공정 속에서 사용될 때,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며, 각각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가 현재 분석고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밖에 일부의 경우 유약은 토기 몸체에 침투하여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양자간에 상호작용하여 결정(crystallite)이 흔히 생기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성공정에 대한 보다 정밀한 파악이 가능하다.

## 2. 토기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

토기는 만들어진 후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었을텐데, 저장, 음식조리, 자비(煮沸), 식사, 음주 등 실생활 용기로, 그리고 제의 행위 따위의 사회, 정치, 문화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정한 토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토기의 출토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발견된 토기의 몸체 내외면에서 확인되는 유기물질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특히 음식의 잔존물에 대한 확인을 통해 토기의 용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토기의 성능(performance characteristics)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토기 기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산지 분석

토기의 산지추정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토기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원재료가 어디에서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정은, 동일한 지점 혹은 지역에서 유래된 원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유물은 그 화학조성에 있어서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비록 토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 흙 자체가 토기 생산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민족지적 사례 분석에 의하면 토기제작자들이 원료흙이나 첨가제를 대부분 1~10km 이내의 거리에서 채취하였으므로(Arnold 1985) 산지분석에서 이 변수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적들 사이의 성분상의 변이가 유적 내의 성분상의 변이보다 크다는 전제(provenance postulate)가 성립한다면 산지 분석이 가능하다(Weigand 외 1977: 24).

이론적으로 하나의 생산유적은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그룹(화학적, 광물학적으로 동질적이어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기준 그룹(reference group)으로 대표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주로 통시적으로 발생하는 토기 원재료의 변화나 혹은 동

시기에서 토기 기종별로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소비유적만으로 산지추정을 시도할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설사 생산유적을 끼고 산지분석을 하더라도 언제나 예상 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연구자는 이를 적절한 원칙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산지 분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준그룹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 기준그룹을 설정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를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조사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이나 대상유물의 특성 및 연대, 기존의 자연과학적 분석사례, 고고학적 연구성과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런데 산지분석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토기의 화학적 조성이 단순히 특정한 원재료의 출처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의 제작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염(alteration and contamination)된다는 점이며, 이에 따르는 변수를 어떻게 추적하며 통제할 것인가가 최근 분석고고학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이다(예를 들면, Buxeda 1999).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기의 화학성분에서 보이는 변이를 광물학적, 화학적으로 다양한 분석기법에 의해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변이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것이 산지나 기술과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화학성분의 오염에 따른 것인지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 IV. 결어 - 자연과학을 이용한 토기분석의 방향

1930년대에 안나 쉐퍼드(Anna O. Shepard)가 자연과학을 이용한 토기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수많은 자연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토기자료 해석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는 이렇게 고고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는 부문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서, 일찍이 archaeometry(분석고고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고고학 연구에서 다양한 자연과학적 방법들을 채용하는 것은 일반화된 추세이며, 이것은 고고학자 및 자연과학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가능성과 함께 한계 역시 일깨워 준다. 확실히 형식학적 이해에 근거한 기존의 토기연구는 그간의 광범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에 의해 보완되거나 혹은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연과학적 방법의 이용에 있어서 고고학자들이 항상 유의해야 할 대전제가 있다. 그것은 자연과학을 이용한 토기분석은 철저히 현실에 당면한 고고학적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한다 해도, 그 결과는 그야말로 분석을 위한 분석에 머물며 그 연구성과는 바로 사장되고 말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자연과학

적 분석에 의해 산출되는 다종다양한 자료들이 그 자체로서 자명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과거사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고고학자에 의해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토기의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이를 뛰어 넘는 보다 큰 주제의 고고학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토기 생산기술과 조직에 대한 이해, 새로운 토기 생산기술의 발견, 도입, 혹은 수용과 관련된 주제들, 토기의 유통 및 소비와 관련된 고대 사회체제의 성격규명, 그리고 시간에 따르는 토기의 변화 등이 그러한 과제들이다. 이렇게 보다 큰 이론적 논점들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기법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토기와 관련된 과거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rnold, D. 1985. *Ceramic Theory and Culture Proc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un, D. P. 1983. Pots as Tools. In *Archaeological Hammers and Theories*, edited by J. A. Moore and A. S. Keene, pp. 107-134. New York: Academic Press.
- Braun, D. P. 1987. Coevolution of Sedentism, Pottery Technology, and Horticulture in the Central Midwest, 200 B.C. - A.D. 600. In *Emergent Horticultural Economies of the Eastern Woodlands*, (ed W. F. Keegan) pp. 155-184. Center for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ccasional Paper no. 7,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Bronitsky, G. 1986. The Use of Materials Science Techniques in the Study of Pottery Construction and Use. *Advances in Archaeological Theory and Method* 9: 209-276.
- Buxeda I Garrigos, J. 1999. Alteration and contamination of archaeological ceramics: the perturbation problem.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6: 295-313.
- Buxeda I Garrigos, J., Cau Ontiveros, M. A. and Kilikoglou, V. 2003. Chemical Variability in Clays and Pottery from a Traditional Cooking Pot Production Village: Testing Assumptions in Pereruela. *Archaeometry* 45: 1-17.
- Cardew, M. 1969. *Pioneer Pottery*. London: Longman.
- Courty, M. A. and Roux, V. 1995. Identification of wheel throwing on the basis of ceramic surface features and microfabric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2: 17-50.
- Dobres, M. A. and Hoffman, C. 1994. Social Agency and the Dynamics of Prehistoric Technolog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 211-258.
- Philips, A. 1990. *The Complete Slips and Slipware*. Australia: Kangaroo Press.
- Gosselain, O. P. 1992. Bonfire of the Enquiries. Pottery Firing Temperatures in Archaeology: What For?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19(3): 243-259.
- Gosselain, O. P. 1998. Social and Technical Identity in a Clay Crystal Ball. In *The Archaeology of Social Boundaries* (ed. M. T. Stark) pp. 78-106.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Kilikoglou, V., Vekinis, G. and Maniatis, Y. 1995. Toughening of ceramic earthenwares by quartz

- inclusions. *An ancient art revisited, Acta Metallurgica et Materialia* 43(8): 2959–2965.
- Lemonnier, P. 1986. Anthropology of technical systems.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5: 147–186.
- Maggetti, M. 1982. Phase Analysis and its Significance for Technology and Origin. In *Archaeological Ceramics* (ed Smithsonian Institution), pp. 121–133.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Maniatis, Y. and Tite, M. S. 1981. Technological Examination of Neolithic–Bronze Age Pottery from Central and Southeast Europe and from the Near East.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8: 59–76.
- Neff, H. 1990. Culture Contact and Ceramic Evolution: Mesoamerica. In *The Changing Roles of Ceramics in Society: 26,000 B. P. to the Present, Ceramics and Civilization*, vol. 5. (ed W. D. Kingery) pp. 159–182. Westerville O. H: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Inc.
- Neff, H., Larson, D. O. and Glascock, D. 1997. The Evolution of Anasazi Ceramic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ositional Evidence from a Pueblo–III Site in South–Central Utah.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24: 473–492.
- O'Brien, M. J., Holland, T. D., Hoard, R. J. and Fox, G. L. 1994. Evolutionary Implications of Design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Prehistoric Potter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3): 211–304.
- Pfaffenberger, B. 1992. Social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491–516.
- Rice, P. 1981. Evolution of specialized pottery production : A trial model. *Current Anthropology* 22(3): 219–240.
- Rice, P. 1996. Recent Ceramic Analysis: 1. Function, Style and Origins.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 4: 133–163.
- Rice, P. 1999. On the origins of potter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6(1): 1–54.
- Schiffer, M. B. 1976. *Behavioral Arche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Schiffer, M., Skibo, J., Boelke, T., Neupert, M. and Aronson, M. 1994. New perspectives on experimental archaeology: surface treatments and thermal response of the clay cookingpot. *American Antiquity* 59(2): 197–217.
- Skibo, J. M., Schiffer, M. B. and Reid, K. C. 1989. Organic Tempered Pottery: an experimental study. *American Antiquity* 54: 122–46.
- Sterner, J. 1989. Who is signalling whom? Ceramic style, ethnicity and taphonomy among Sirak Bulahay Antiquity 63: 451–9.
- Van der Leeuw, S. 1993. Giving the potter a choice: conceptual aspects of pottery techniques. In *Technological choices: transformation in material cultures since the Neolithic* (ed P. Lemonnier) pp. 238–288. London: Routledge.
- Weigand, P.C., Harbottle, G. and Sayre, E. V. 1977. Turquoise sources and sources analysis: Mesoamerica and the southwestern U.S.A. In *Exchange system in prehistory* (eds T.K. Earle and J.E. Ericson) pp. 15–34. New York: Academic Press.
- Wright, R. 1993. Technological styles: Transforming a natural material into a cultural object In *History from Things: Essays on Material Culture* (eds W. D. Kingery and S. Lubert) pp. 242–269.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人骨의 分析과 고고학에서의 應用

김재현 \*

- I. 인골, 인류학과 고고학
- II. 인골, 무얼 말할 수 있나
- III. 인골, 왜 나오는가
- IV. 인골, 자료로서 활용되기까지
- V. 인골, 唯我獨尊인가
- VI. 인골, 발굴 이야기
- VII. 맺으면서

## I. 인골, 인류학과 고고학

고고학에서는 이제까지 발굴에서 출토되는 古人骨을 해부학자 또는 법의학자들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고고학과의 접목보다는 인골 그 자체의 분석으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발굴에서 출토되는 인골에 대한 고고학에서의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새로운 고고학의 연구법으로서 고인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sup>1)</sup>, 중국은 길림대학 고고학팀을 중심으로 한족과 그 외의 민족들에 대한 형질 분석과 DNA분석을 통한 중국인 계보 작성에 임하고 있다<sup>2)</sup>. 한국 고고학에서도 인골의 발굴례와 그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고고학에서 인골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최몽룡<sup>3)</sup>·홍형우<sup>4)</sup>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결과, 고고학에서도 직접 고인골의 분

\* 동아대학교 인문학부 조교수

1) 田中琢·佐原眞, 1995. 「新しい研究法は考古學になにをもたらしたか」, クバプロ.

2) 朱泓·魏東(今村佳子 譯), 2002. 「內蒙古放漢旗小泉遺跡出土の青銅器時代人骨」『東北アジアにおける先史文化の比較考古學的研究』,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 69~93쪽.

3) 최몽룡, 1993.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연구—인골과 토기분석의 연구상황과 검토—」 『한국상고사학보』13, 7~92쪽.

석결과를 연구에 사용한 논문들이 얼마간 나오게 되었으며, 또한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발굴된 인골에서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sup>5)</sup>과 형질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정리한 연구성과<sup>6)</sup>도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성과는 무엇보다 인골이 발굴되고 그것이 고고학적 자료로서 인식되어짐으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골이 고고학에서 왜 필요한가를 인식시키던 초급 단계를 넘어서 실제 어떠한 추론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시점에 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형질(체질)인류학에서의 관심 대상은 무엇보다 인골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형질인류학은 인골이 가지는 제반의 특성을 연구하여 그 소속(형질적 분류)을 분명히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데이터 작업이 가능한(즉 상태가 아주 양호한) 인골만이 선별되어져 연구되어진다. 이에 비해 고고학에서는 주로 발굴지에서 출토되는 古人骨이 연구대상인 만큼, 그 인골의 출토상태가 양호한가 아니면 불량한가에 관계없이, 그것이 매장방법이나 장송의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는 공반하는 유물·유구들과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가, 인접하는 유구들의 인골들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등과 같이 유적 전반에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인골의 상태는 인류학적인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로서 동해시 추암동고분군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이 청동관을 가진 점<sup>7)</sup>과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도 여성에 大刀가 부장된 점<sup>8)</sup> 등의 지적인 출토인골을 자료로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연구결과이며, 이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부장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고분군을 형성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를 추론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골과 부장유물 등과의 관계에서 장송의례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sup>9)</sup>.

최근 발굴기술의 향상과 인골에 대한 인식고양으로 인골 출토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유적에서 발굴되는 인골은 새로운 고고학 자료로서 주목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II. 인골, 무얼 말할 수 있나

고고학은 옛사람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 등을 통해 과거를 연구한다. 옛사람이 남기는 것들 중에

4) 홍형우, 1994. 「고고학에 있어서 인골의 연구성과와 방향」, 『한국상고사학보』17, 497~519쪽.  
 5) 박선주, 1996. 「한국인의 기원과 형성」 『先史文化』4,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65~198쪽.  
 6) 小片丘彦·金鎮晶·峰和治·竹中正巳, 1997. 「朝鮮半島出土先史·古代人骨의 時代的特徵」 『靑丘學術論集』10, 5~43쪽.  
 7) 김재현, 1994. 「동해시 추암동B지구고분군의 매장례」, 『石堂論叢』20,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97~136쪽.  
 8) 武末純一, 1992. 「韓國禮安里古墳群의 階層構造」, 『古文化談叢』28, 九州古文化研究會, 91~106쪽.  
 9) 김재현, 1998. 「東海市湫岩洞B地區古墳群의 埋葬과 副葬行爲」 『文物研究』2,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재단, 27~49쪽.

는 이들이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버린 물건들만이 아니고 무덤이나 동굴이나 조개무지 같은 곳에서 옛사람들의 인골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 인골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古人骨에서 얻어지는 정보로서는 ①성별 ②연령(사망연령) ③형질(귀속그룹) ④ 신장 ⑤체격 ⑥ 생활흔(일상적노동활동·특수노동활동) ⑦습관적 자세 ⑧골절력 ⑨질환력(선천성·후천성) ⑩발육지체·영양실조력 ⑪출산력 ⑫식생활 내용 ⑬주로 사용된 손 ⑭ABO식 혈액형 ⑮사망원인 ⑯매장방법(장송의례) ⑰신체의 인공변형분석 ⑱생존연대 ⑲DNA분석 ⑳개체간의 혈연관계 등<sup>10)</sup>을 들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우리 조상인 옛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지금의 우리와 모양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즉 현대의 우리 모습이 되기까지 옛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인골의 발육 상태에서 옛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먹었으며 당시의 식량 사정은 어떠했으며 신분차이에 따라 먹는 것들이 어떻게 달랐으며 주로 어떠한 질병에 고생하였으며,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였는가 하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옛사람들의 키는 어느 정도여서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과 여성의 경우는 생전에 몇 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으며 몇 명의 아이를 낳았는가를 통해 옛사람들의 결혼 시기와 당시의 인구밀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DNA분석을 통해 같은 무덤이나 주변에 함께 묻힌 사람들의 혈연관계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인골은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언제나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골의 출토상태나, 발굴 단계에서의 대처방법과 처리방법 등에 의해서 정보의 득과 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 Ⅲ. 인골, 왜 나오는가

인골은 고대 유적을 발굴할 때마다 반드시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성 토양에서는 발굴에서 인골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간헐적이지만 인골의 검출은 있어 왔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검출되고 있고, 이후로도 발굴 기회와 발굴 기술의 발달로 점차 검출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인골이 검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위적인 경우와 자연적인 경우, 즉 우연의 경우가 그것이다. 인위적인 경우란 유해를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하여 방부제와 같은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집트의 미라(mirra)가 그러한 예이다. 그에 비해 자연적인 경우란, 말 그대로 유해를 매장한 뒤, 여러 가지 우연한 조건들이 작

10) 片山一道, 1990. 『古人骨は語る』, 同朋舎.

용하여 썩지 않고 미라나 인골의 상태로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미라로 남게 된 경우는 피부조직과 함께 인골도 남게 되지만 인위적으로 미라를 만든 경우라도 반드시 미라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리시의 미숙함이나 매장 후의 환경에 의해 미라가 되지 못하고 인골만 일부 남게 되던지 아니면 모두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우연에 의해 미라가 되거나 인골이 남게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매장할 때에 유해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잔존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자연적인 미라는 그 발견 예에서 극도로 추운 지역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극히 건조한 사막지역일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알프스 산록에서 발견된 아이스맨(외찌인)과<sup>11)</sup> 타클라마칸사막에서 발견된 누란의 여인골<sup>12)</sup> 들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만년설이나 건조한 모래사막이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환경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미라나 인골이 남게되는 예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미라가 발견된 예로서는 파평 윤씨의 미라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목관이나 목곽을 둘러싼 회곽이 밀폐된 공간을 형성하여 진공상태를 유지한 결과, 유골의 부식이 멈추어져 미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원인은 단지 회곽 때문만은 아니며 사망시의 추운 날씨도 부식을 억제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골이 검출되는 경우는 매장된 지역이 우연히 패총(조개무덤)이거나 석회암지대여서 유골의 부식과정에서 생성되는 산(酸)과 알칼리성 토양이 중화된 결과이다. 그러한 예로는 연대도유적<sup>13)</sup>, 사천 늑도유적<sup>14)</sup>, 김해시 예안리고분군<sup>15)</sup>, 동해시 추암동고분군<sup>16)</sup>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모래땅에서 인골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식되며 산화하는 살이 모래의 배수작용으로 인하여 뼈 주위에 머물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예로서는 원주 법천리고분군<sup>17)</sup>이 있다. 그리고 저습지와 같이 수분을 유지하는 뽕 속에서 살은 부식되어도 물의 성분에 따라 인골은 계속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경주박물관 부지내의 신라우물 속에서 나온 어린이 인골<sup>18)</sup>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단순한 하나의 요인만이 인골을 검출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며 여러 가지 우연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때, 비로소 인골은 검출되게 되는 것이다.

11) 콘나드 슈핀들러(최몽룡역), 1995, 『5000년전의 남자』, 청림출판.

12) 櫻井清彦, 1992, 「中國のミイラ」『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 朝日新聞社, 22~23쪽.

13) 국립진주박물관·통영군, 1993, 『煙臺島 I』.

14) 김진정, 2001, 「늑도유적 매장인골의 연구」『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 交流』 269~283쪽.

15) 김진정·小片丘彦·峯和治·竹中正巳·佐熊正史·서영남, 1993, 「김해예안리고분군 출토인골(II)」『김해예안리고분군 II (본문)』, 부산대학교박물관, 281~334쪽.

16) 김재현, 1994, 「古墳群 出土人骨(1)」『東海北坪工團造成地域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關東大學校, 431~488쪽.

17) 김재현, 2002, 「인골로 본 원주 법천리고분군」『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한국상고사학회, 113~123쪽.

18) 김재현, 2002, 「連結通路敷地内 우물 出土人骨에 대한 소견」『國立慶州博物館敷地内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博物館, 471~477쪽.

#### IV. 인골, 자료로서 활용되기까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실제 발굴에서 인골이 항상 출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연한 제반 조건들의 작용에 의해 인골 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인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검출되었다기보다는, 발굴 담당자의 노력과 인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현장에서 인골이 검출되었을 경우, 곧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질문을 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의문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때도 있다. 그것은 검출된 인골, 대부분은 습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마치 물에 젖은 비스킷과도 흡사한 상태일 경우가 많다. 노출된 상태에서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무리하게 만지거나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면 곧 가루로 되어 파손된다. 그러므



조선 민묘의 인골출토 상태(기전문화연구원)



인골의 수거모습

로 인골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최대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기록한 다음, 신문지에 싸서 수거한다. 신문지는 습기의 흡수력이 뛰어나며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구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통풍성과 습기의 흡수력이 좋은 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그리고 두개골이나 골반은 특히 주의하여 탈지면으로 먼저 싸거나 두른 후, 신문지에 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탈지면 대신 화학습을 사용한다든지, 신문지에 쓴 뼈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밀폐시키는 경우는 인골의 부식을 촉진시키게 되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수거한 인골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최소한 3개월이상 천천히 건조시킨 후, 정리하여 부패방지 및 경화를 위해 약품 처리한다. 약품은 Binder-17이나 Caparol-Binder를 물에 20% 희석하여<sup>19)</sup>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약품 처리가 끝난 후는 복원하여 카드를 작성한다.

## V. 인골, 唯我獨尊인가

인골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인골이 고고학의 모든 의문점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역시 고고학 발굴 자료의 한 부분이며 다른 자료들과의 종합적 검토에 의해서만이 풍부한 정보가 축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골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골 자체에서 관찰되어지는 분석 이외에 자연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DNA분석이나 고병리의 검증이 필요하며, 연대측정에서는 고고학적 정보가 절대적이지만 그 외에 탄소연대측정법이나, 아미노산 라세미법 등과 같은 전문 측정법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에는 먼저 발굴담당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인골의 중요성은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발굴상태에서부터 인식되어야 한다. 즉 인골 자체 뿐만 아니라 인골의 출토상태도 고고학에서는 역시 중요하기 때문임은 누누이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분석에 있어서는 고고학이 속한 인문대학은 그 시설이나 전문가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골의 분석이나 연대측정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중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DNA분석이 있다. 그러나 古人骨의 경우는 오랫동안 흙 속에 있으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DNA가 추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 VI. 인골, 발굴 이야기

### 1. 상촌리유적 14호 주거지내 화장골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한 상촌리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는 주거지 내의 옹관에서 화장골이 검출되었다<sup>20)</sup>. 인골이 검출된 옹관은 제14호 주거지의 북동쪽 어깨선에 접하여 위치하는데 구연부가 상부로

19) 물은 실내작업인 경우 증류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증류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수를 사용한다. 처음 용액을 20%로 묽게 하는 것은 뼈의 해면질이나 내부까지 잘 침투시키기 위해서이다.

20) 김재현·舟橋京子·田中良之, 2001. 「상촌리유적 출토인골에 대하여」 『진주상촌리유적(도판·부록)』경상남도·동아대학교박물관, 255~258쪽.

향해 매납된 單甕이다. 옹관은 구연부와 저부에 시문을 가진 첨저심발형토기로서 토기내부에 위치하는 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부와 저부에 해당하는 내벽에서 인골편들이 확인된다. 인골은 모두 파편으로만 잔존하고 있어서 보존상태는 지극히 불량하다. 토기 내부의 흠에서는 인골편 이외에 재나 목탄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내부에서 확인되는 골편은 모두 長骨로서 잔존하는 골편 치밀질(Snstantia compacta)의 두께가 두꺼운 것에서 사지골로 추정되지만 소편들이어서 정확한 부위동정은 불가능하다. 골 표면과 내면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被熱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는 파열선들이 다수 확인된다. 결국 제14호 주거지 내 옹관B 출토인골은 보존상태가 불량한 소편들이어서 정확한 부위동정은 불가능하였지만 사지골에 해당하는 成人의 인골로 추정되었다. 또한 골 표면과 내면에서 화열에 의한 회백색의 색조와 파열선이 확인되는 점에서 노천의 7~800도 화열에서 처리된 화장골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출토된 옹관 내부에서는 재나 목탄편이 함께 검출되지 않는 점과 기벽 가까이에서 골편이 확인되는 것에서 화장 후 인골편만 수습하여 이 옹에 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지 내부의 옹관에서 출토된 이 인골은 그 출토상태에서 추정컨대 어떠한 이유에서 사망한 성인을 노천에서 화장하고 그 뼈만을 추려서 다시 옹관에 담아 주거지 내의 벽 쪽에 모셨던 것임을 알게 한다. 그것은 남강의 신석기인들이 어떠한 장송의례를 행하는 사회였나를 알게 하며 더욱이 여기서 나온 인골이 火葬骨이라는 사실에서,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화장은 일본의 신석기시대인 繩文人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 것과 야요이시대 옹관에서 화장골이 확인되는 것을 증거로 야요이문화가 한반도에서의 도래가 아닌 鈔蒙계의 재래인들이 주체가 되어 야요이문화를 수용한 결과라 주장한 것에 충격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남강유적의 상촌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화장골 파편은 비록 그 크기에서는 2cm도 안되는 소편이지만 그 인골이 출토된 위치와 함께 한국 신석기시대의 장송의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은 물론 한일의 장송의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례라 할 것이다.

## 2. 진주 대평 옥방 5지구 A-1호 석관묘

옥방 5지구는 선문대학교에서 발굴을 담당한 유적으로<sup>21)</sup> 이 중 A구역 1호 석관묘에서 인골이 검출되었다. 인골의 출토상태에서 보면 두개골은 두향을 남동쪽으로 하고 얼굴은 좌측(출토인골의 시점 입)을 향한 左側臥이지만 四肢는 屈葬을 하고 있다. 두개골은 부식과정에서 완전한 측와를 이루면서 하악골을 연결하던 咬筋은 부식되어 마치 입을 벌린 것같은 이탈상태를 보인다. 上肢는 우측 전완골

21) 이형구,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남강땀수물지구유적발굴조사보고서』6, 선문대학교·경상남도.

이 복부에 위치하면서 약간 굽어진 상태이다. 좌측 전완골도 팔굽관절을 굽히고 있다. 좌우 손등은 복부 위에 위치하며, 하지는 膝關節이 강하게 굽어진 형태이다. 좌측 대퇴골의 길이는 39cm이고, 석관의 내부는 길이가 130cm에 너비가 45cm이다. 여기서 매장자의 성별은 여성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사망시의 연령은 노년(60세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퇴골의 길이가 390mm로 보고된 것에서 Pearson식에 의한 추정신장은 148.7cm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석관의 내부길이가 130cm임을 감안한다면 굴장은 자연스러운 매장형태이다. 종래 한국의 대표적인 매장자세는 伸展葬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 성과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의 매장자세에서 신전장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屈葬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차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특히 좌우의 팔을 굽혀 매장한 자세에서는 일본과의 관련성에서 일본 弥生文化와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한반도를 기원지로 하는 설과 함께 고고학에서도 야요이문화의 기원지를 한반도 남부로 보는 견해를<sup>22)</sup> 감안한다면 단순히 매장자세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 이러한 매장자세, 즉 정신세계를 반영한 장송의례가 한일 문화 기원과 교류에 하나의 증명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또한 충치의 확인에서는, 물론 개인차도 있겠지만 전체 발생 빈도의 확인을 통해 대평 사람들의 주식을 파악할 수 있어 상당량의 곡물류, 즉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음을 인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3. 진주 대평 옥방 7지구 17호 석관묘

옥방 7지구는 경남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한 지역이다. 이 지역 17호 석관묘에서는 인골이 검출되었다. 인골은 잔존상태로 보아 두향을 남쪽으로 한 양와신전장이다. 석관은 바닥면이 융기되어 있는 상태여서 융기에 의해 좌우 膝關節이 이탈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절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사망 후 적어도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기에 묻혀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sup>23)</sup>. 그러나 출토된 인골에서는 두개골과 치아만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골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비록 좋지 않지만 거의 전신부위가 확인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두개골과 치아도 반드시 확인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중 두개골과 치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斷首된 인골일 가능성이 대두되어 현지에서 신중한 조사를 행하였다. 결과 17호 석관 인골은 거의 전신의 관절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 이동은 생각되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인골과 단벽까지의 거리가 좌측 견갑골에서 12cm, 우측 견갑골에서 9cm 정도이고 잔존하는 최상위의 경추에서 겨우 6cm 정도였다. 그러

22) 田中良之, 1999. 「南江地域出土人骨について」『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127~137쪽.

23) 김재현, 2002. 「체질인류학에서 본 고대 한일관계사」『고대 한일관계사의 새로운 조명』 제15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309~337쪽.

므로 도저히 두개골이 매장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만약 두개골이 존재했다고 하여도 심하게 두개골을 앞으로 구부려서 일으키는 자세가 아니면 매장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런 경우는 경추에서 흉골에 걸치는 위치에 두개골편, 특히 치아나 하악골이 남아 있어야 하겠지만 전혀 그러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석관에는 매장 당초부터 두개골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골의 성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斷首된 인골에서는 먼저 「전쟁」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골은 여성이어서, 고대 전쟁에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대개 戰士에 한정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여성이 전쟁에 의한 희생자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 씨족·부족사이에 행해진 충돌에서의 斷首風習, 즉 목 자르기도 기본적으로는 남성사이에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다. 형벌에 의한 斬首도 생각되어 지지만 죄인을 다른 성원과 같은 묘역에 묻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으로서의 의례에 의한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자에 깃들여져 있던 악령이 재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이나 발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 일본에서는 조몽시대 山鹿貝塚에서 늑골이나 척추골, 골반을 제거함과 동시에 목을 자른 예가 있다. 손이나 발을 자른 예는 弥生時代に 있었으므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풍습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일본의 土井ヶ浜 토광묘에서도 斷體의 예가 확인된다. 이것은 출산 중 사망한 여성을 신생아와 함께 매장하면서 양쪽 발목을 절단하여 가까운 곳에 둔 예가 검출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청동기시대에도 이와 같은 풍속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 5. 김해 대성동 57호분

대성동 57호분 A호 여성 인골은<sup>24)</sup> 두개골이 양호하게 남아 있어서 복안(復顔)이 가능하였다. 인골을 가지고 생존의 얼굴을 복원해 내는 방법에는 복안법(reconstruction of facial feature)과 슈퍼임포즈법(superimposing method)이 있다. 이 중 슈퍼임포즈법은 인골사진과 생전의 사진을 겹쳐, 양자의 합치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법의학에서 실종자의 유골을 찾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성동 인골의 경우는 고대인이기 때문에 복안법을 사용하여 얼굴을 복원해 낸다. 이것은 두개골 표면에 점토를 붙여 생존의 모습을 재현해 내는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인골 계측치의 비율에 기초한 입체 그림(lenticular)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성동 인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렌티큘라에 의한 복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복원된 얼굴에서 정확한 모발이나 피부색, 눈썹의 형태, 눈과 눈동자

24) 57호 목곽분에서는 여성 3개체가 확인되어 이 중 A호 여성은 복원된 모습이 현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의 형태, 귀모양 등은 알 수 없다. 그 부위들은 이미 부식되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재의 한국 남부지방 여성들에 많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형질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복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두개골의 형질적 특징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얼굴에서 이목구비 전체는 다소 얼굴 아래쪽으로 모여진 상태이며, 둥그런 눈주위, 약간 넓은 코폭과 편평한 미간, 가름한 턱부분, 다소 앞으로 물려있는 입모습 등은 인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6. 원주 법천리고분군 27호 옹관

원주 법천리고분군은 백제시대에 해당한다<sup>25)</sup>. 그 중 27호 옹관의 경우는 옹 내부에 두개골이 상하로 겹쳐진 상태에서 검출되었다. 두개골은 위부분에서 숙년(40대) 남성, 아래 부분에서 성년후반(30대)의 여성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출토상태에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두개골만 동시에 옹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옹 하부에서 출토된 여성의 경우는 옹관 내부에서 두개골만이 검출된 것으로 하악골이나 경추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상부의 남성은 두개골과 함께 하악골, 경추, 흉추1·2번, 좌측 1번 늑골이 확인된다. 이것은 하부의 여성은 적어도 이 옹에 매장될 당시에는 이미 두개골과 하악골을 연결하는 咬筋이 상실된 상태, 즉 백골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하악골은 물론이며 경추, 흉추와 늑골편도 함께 검출되는 것에서 적어도 이들이 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 옹에 매장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혹 같은 시기에 이 옹에 매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들 두개골이 이 옹에 매장된 시기가 동일 시기임을 말하는 것일 뿐, 이들이 반드시 같은 시기에 사망하여 두개골만 옹에 매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옹관 하부의 30대 여성은 완전히 백골화가 이루어진 어느 시기에 인대가 아직 연결된 상부의 40대 남성 두개골과 함께 매장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골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백골화를 10년 정도로 생각하였을 때 추정연령을 적용하여 생각한다면 먼저 여성이 30대에 사망할 당시는 상부의 40대 남성도 30대였음이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추정연령이 성년후반(30대)과 숙년(40대)이라고 하지만 생존시에는 동일 세대의 인물로 상정된다. 물론 이들이 함께 두개골만 매장되었었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클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부관계인지 아니면 오누이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25) 윤형원, 2002. 「南漢江流域 馬韓·百濟·新羅의 무덤-原州法泉里古墳群을 중심으로-」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한국상고사학회, 37~61쪽.

## 7. 김해 유하리고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금관가야의 2대왕인 거등왕(居登王:199~259)의 능이라고 전해져 오던 김해 유하리고분을 발굴하였다<sup>26)</sup>. 여기서 9개체의 인골이 검출되어 분석을 하였다. 결과 성인 여성 5개체와 어린이 인골 4개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무덤은 7세기의 횡혈식석실묘로서 계속적으로 추가장이 가능한 무덤이었고 인골의 출토상태에서도 시간차를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이 무덤은 居登王이 출현하는 시기와는 훨씬 동떨어진 시기의 것이었고 출토된 인골도 모두 여성이거나 어린이여서, 居登王으로 비정할 수 있는 남성인골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傳 居登王陵〉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무덤의 인골들이 시기가 내지는 세대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그 출토인골의 구성으로 볼 때 반드시 남성이 죽어야 묘를 축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즉, 만약 부계계승권이 확립되어진 사회였다면 첫 피장자가 남성이거나 적어도 남성의 배경을 등에 업은 여성이 먼저 죽어서 묻혔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남성이 매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무덤에서는 남성인골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성도 사회적으로 무덤의 축조계기가 되는 인물일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국립경주박물관내 우물지유적

경주박물관은 본래 신라의 월성궁내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내의 수장고와 전시관 확충을 위한 공사가 행해짐에 따라 왕궁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sup>27)</sup>. 왕궁지에서는 당시의 회랑을 비롯한 건물지들이 발굴되었다. 그 중 통일신라시대의 우물지도 함께 확인되었다. 우물지는 외부와 경계되는 궁벽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것인데 폭 80~120cm에 깊이 12m의 원형 우물을 중앙에 두고 주위 약 3m의 방형구조물을 설치하여 돌로 메우고 있다. 또 서쪽으로는 길이 2m 정도의 배수로를 두고 있다. 우물에서 인골이 검출된 곳은 깊이 9m에 해당되는 지점이다<sup>28)</sup>. 우물은 내벽 중 돌로 쌓여진 곳이 깊이 약 8m 정도까지이며 그 아래는 빨층이 형성되어 있다. 인골은 8세 전후의 小兒로 확인되었는데 같은 층에서 동물뼈(牛骨의 上半身)와 토기도 출토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인골이 검출되는 단계에서 확인한 바, 우물 상부에서 소아의 하반신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26) 임효택·곽동철, 1996. 「金海柳下里 傳王陵」『東義史學』9·10합집, 東義大學校史學會, 1~44쪽.  
김재현·田中良之, 1996. 「金海柳下里 傳王陵 出土人骨」『東義史學』9·10합집, 東義大學校史學會, 45~70쪽.  
27) 국립경주박물관, 2002.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28) 註18)과 같음.

상반신이 확인되어졌으며 우물 바닥에 두개골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동물뼈는 상부에 상반신이 위치하고 있었다. 처음 우물은 인골이 위치하는 지점에서부터 약 4m 가량이 지름 30~40 cm 정도의 강들로 메워진 상태여서 인위적으로 우물을 메운 것이다. 검출된 인골에서는 전두골의 우측에 함몰흔이 확인되고 있어 우물에 추락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인골은 우물에 추락한 단계에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살아있었다라도 추락할 당시에 즉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인골이 우물내에서 출토된 점에 있어서는 그 인골이 어린이인 만큼 단순한 사고사에 수반된 제사행위였을 가능성과 의도된 제사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아 다른 예를 기다린다.

## VII. 맺으면서

이상으로 인골에 대한 중요성과 얻어지는 정보, 인골의 검출가능성과 수거방법, 관련학문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 인골 발굴사례 등을 들어보았다. 거듭 말하거니와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인골은 현장에서의 발굴담당자가 얼마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고고학·인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상태가 불량한 경우라도 인골이 주는 정보는 고고학에 더 풍성한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하나의 연구 자료로서 소중히 취급되어지기를 바란다.

# 화성 발안리 출토 鐵斧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

김 응 신 \*

- I. 머리말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I. 머리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제암리 일원 63,000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던 중 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 이후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원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산포지를 확인하였으며, 2001년 8월부터 2003년까지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고는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금속유물 가운데 주형틀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주조철부에 대하여 금속학적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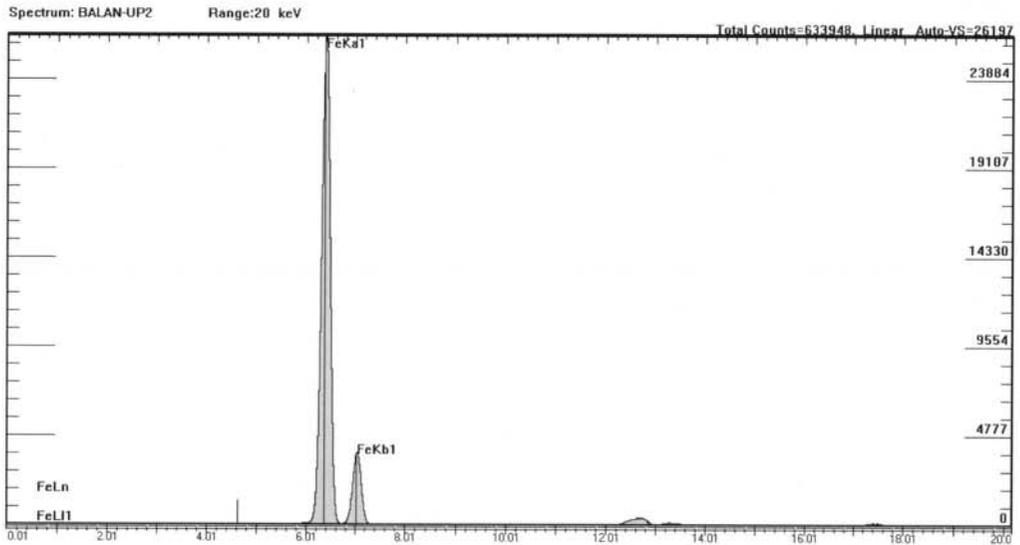
대상유물인 철부의 형태는 길이 120mm, 너비 65mm의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가 흙으로 덮혀 있고 공부의 상단면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며, 날부분도 1/2가량 결실되어 출토 되었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따라서 요구되는 철부의 시편 채취는 잔존된 철부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표면을 덮고있는 흙과 이물질은 보존처리용 기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였으며, 노출된 금속면

\* 기전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팀장

은 사진 1에서 보듯 공부의 결실된 부분을 따라 상단면과 바닥면을 다이아몬드 curter로 절단하여 미량의 시편을 얻었다. 날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결실된 면을 일부 절단한 후 시편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편은 석출상을 알기 위하여 에폭시 수지로 고정시킨후 연마기에 실어 표면에 대한 광택연마를 실시한 후 5% Nitric - acid에 부식시켜 금속현미경을 사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미세구조에 대한 확대 촬영을 실시하였고, X-선 형광분석기(XRF)<sup>1)</sup>를 통하여 부식층의 원소화합물을 판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채취한 철부 시편에 대한 미세구조는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다. 공부 바닥면은 사진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검은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덮혀있는 상태로 펄라이트는 선택적으로 부식되어 있으며, 철심 내부에는 밝은 부분의 시멘타이트(cementite)와 어두운 부분의 펄라이트(fearlite)가 혼합된 형태



조성원소	Mg	Si	Fe	Pb
조성량(wt/%)	0.13	0.15	99.47	0.25

주조철부 산화물의 조성원소 분포도

1) 주사전자현미경(SEM)과 X-선 형광분석기(XRF)는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에 의뢰하였으며, X-선 형광분석은 35KV, 0.25mA, vacuum의 조건으로, 주사전자현미경(SEM)은 가속전압 20KV의 조건에서 분석값을 얻었다.

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긴 막대모양의 형태는 펄라이트와와 시멘타이트가 층을 이루어 나타나는 共晶構造의 레데브라이트(ledeburite)<sup>2)</sup>로 형성되어 보여진다. 또한 어두운 부분의 흑점으로 보이는 표면을 확대한 사진 3을 살펴보면 곳곳에 나타난 일정하지 않은 가지모양은 응고후에 727℃를 거치면서 오스테나이트가 펄라이트로 생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사진 4의 공부 상 단면에서도 뚜렷히 볼 수 있으며, 흑점으로 보이는 표면을 확대 관찰하여 보면 사진 5에서 보듯 층상의 펄라이트 조직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 6은 날부분 표면의 미세구조로 산화 피막층이 넓게 분산되어 철심은 부분적인 미량으로 잔존해 있으나, 공부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다. 표는 X-선 형광분석기(XRF)를 이용하여 산화 피막층에 대한 함유원소 조성 분포값으로 매장 상태에서 Si, Mg, Pb 등의 원소가 첨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된 철부의 미세구조는 백주철 조직으로 탄소 함량이 4.3%이하로 포함되어 있고 규소(Si) 함량이 낮은 경우에 나타나는 미세구조를 가진 아공정 백주철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조철부는 대기상태에서 응고한 후 공기중에 냉각하고, 열처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철부는 탄소함량에 따라 저융점(1150℃)에서 쇠물을 주형틀에 넣어 비교적 쉽게 주조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주철(鑄鐵)에서 나타나는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와의 공정조직을 말한다. 백주철에서 뚜렷히 나타난다.



사진 1. 주조철부 전경 및 시편이용 절단부



사진 2. 공부바닥면 미세구조(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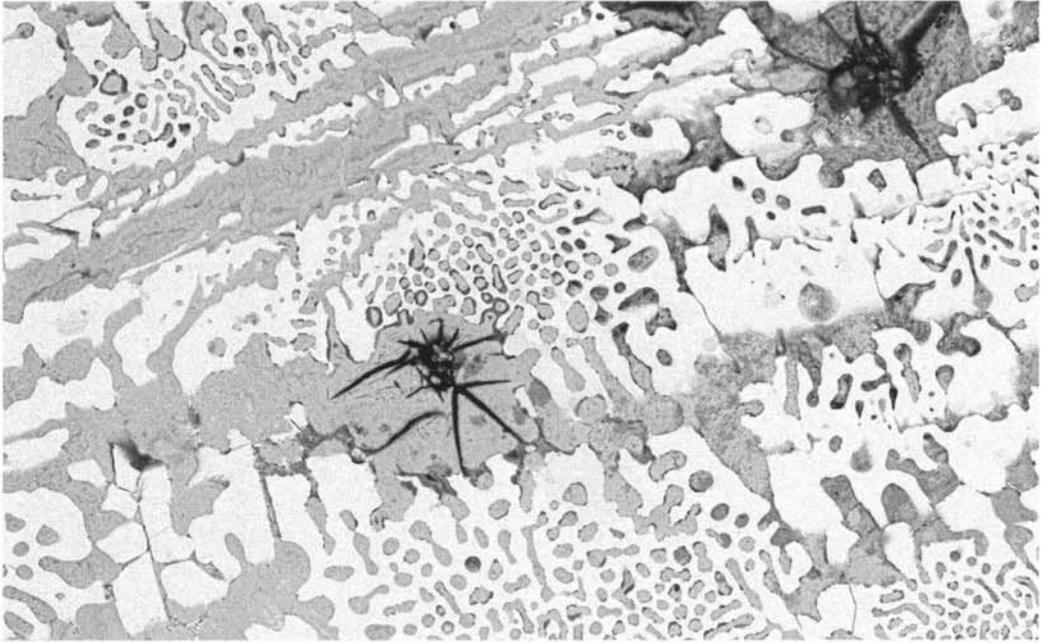


사진 3. 공부 바닥면 미세구조 전자현미경(SEM)사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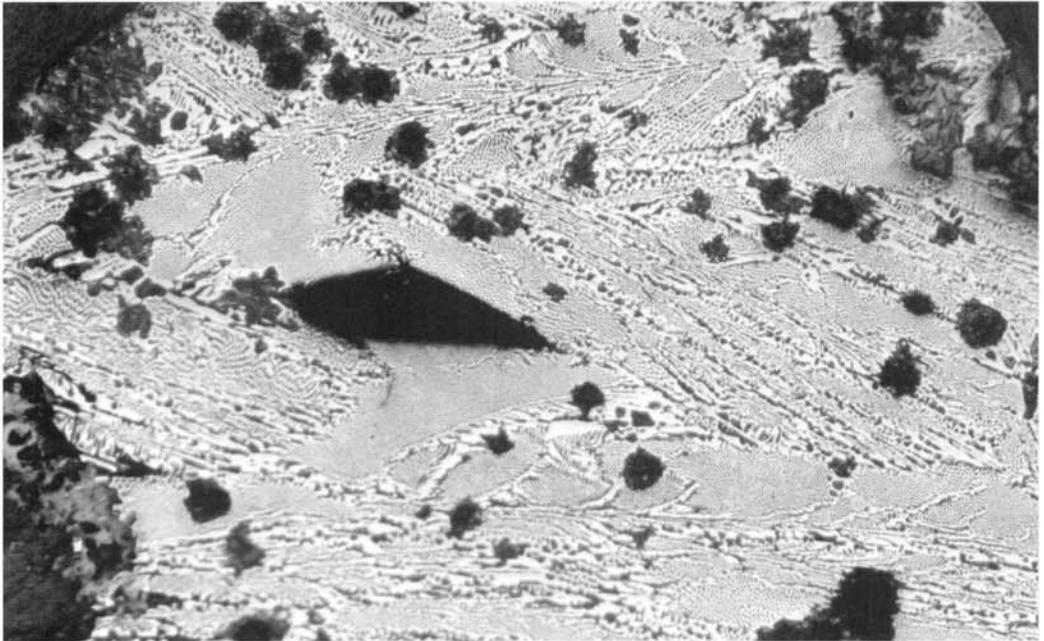


사진 4. 공부 상단면 미세구조(×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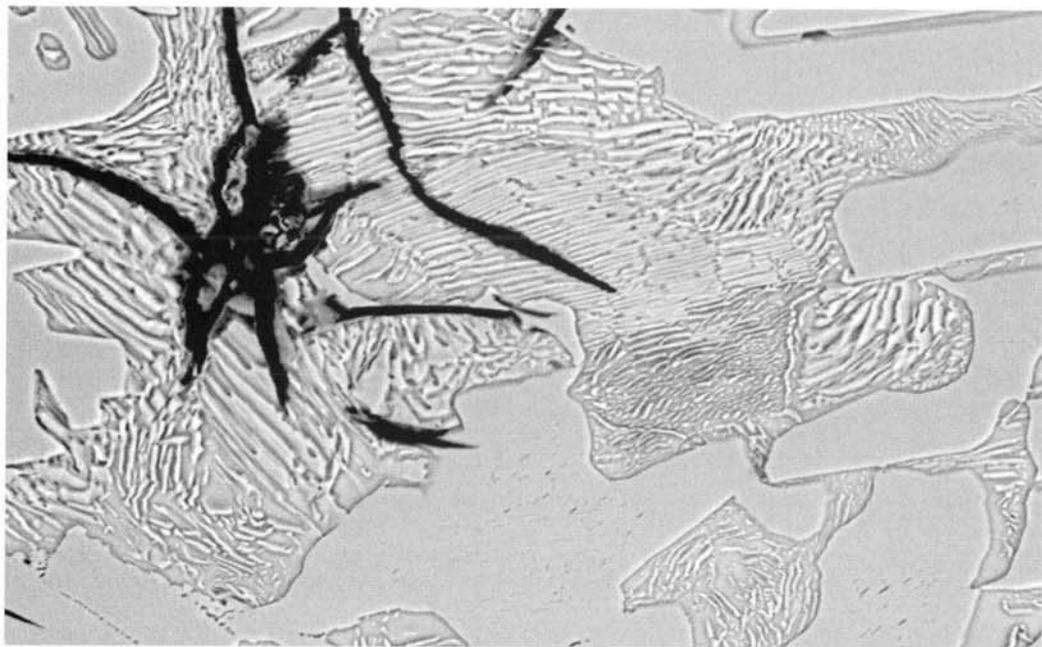


사진 5. 공부 상단면 미세구조 전자현미경(SEM)사진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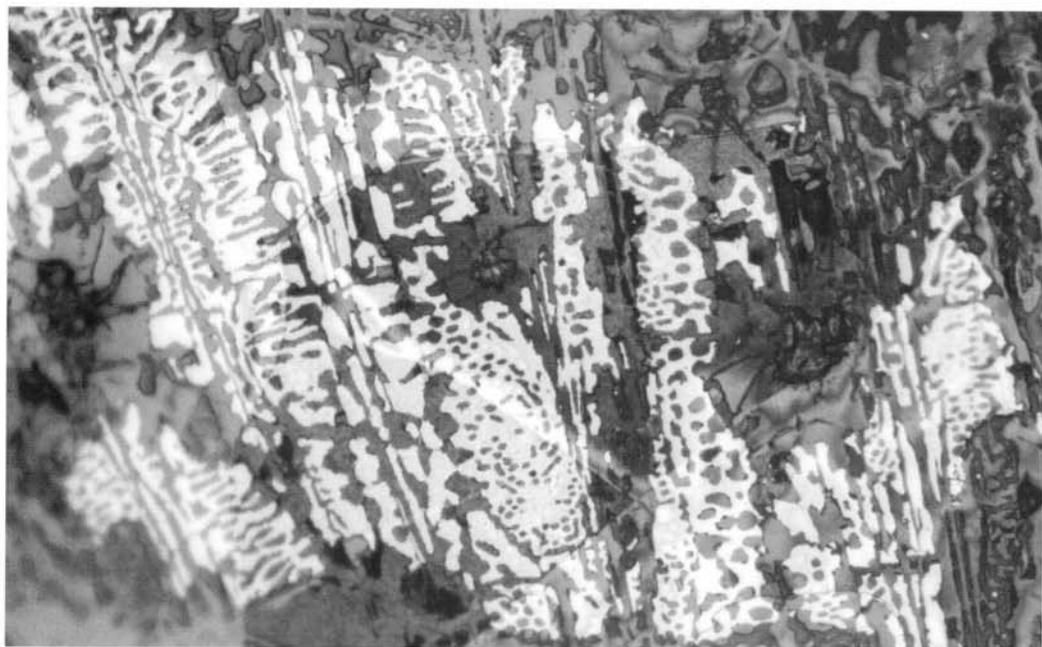


사진 6. 날부분 미세구조(×200)

## 특별기고

· 倭의 五王과 朝鮮 / 田中俊明 著 · 河廷龍 譯

〈특별기고〉

## 倭의 五王과 朝鮮

田中俊明\* 著 · 河廷龍譯\*\*

### 翻譯者의 辯

이 글은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일본 학자인 滋賀縣立大學 人間文化學部 田中俊明(다나카 토시아끼)교수가 같은 학부의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신 姜德相教授의 고희 및 퇴직 기념 논문으로 2003년 5월에 제출한 논문이다. 일본 동경의 新幹社에서 한정판으로 간행된 이 논총 『姜德相先生古稀退職紀念日朝關係史論集』(姜德相先生古稀退職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篇)은 韓國近現代史論文이 대부분이고 고대사 논문으로는 이 글이 유일하게 실렸다.

일본의 여타 論叢과 같이 한국에서 구하기 매우 힘든 자료가 될 것이기에 접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한 논문의 내용이 당시의 백제, 가야, 왜, 고구려, 신라 등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기전문화재연구원의 호의로 『畿甸考古』에 일부 수정 번역하여 기고하게 되었다.

하정용

### I. 머리말

倭의 五王이란 『宋書』를 비롯한 中國의 史書에 등장하는 다섯명의 倭國王을 總稱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특히 中國 南朝 宋王朝와 외교관계를 가졌다. 外交란 朝貢하고 冊封을 받는 것이며, 倭가 南朝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국제관계가 가진 의의 등에 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기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倭 五王의 全般的인 問題가 아니다. 倭 五王의 稱號와 宋에 보낸 上表文 가운데 韓半島와 관계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우선, 倭 五王의 遣使 및 授爵을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年次順으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 滋賀縣立大學 人間文化學部 教授 / \*\* 松広寺 聖宝博物館 先任研究員

年代	王朝	年號	王	遣使	自稱稱號	授爵
四一三	東晉	義熙九	讚?	○		
四二一	宋	永初二	讚	○	? (除授하다)	
四二五	↓	元嘉二	讚	○		
四三〇		元嘉七	(讚)	○		
四三八		元嘉一五	珍	○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 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 東大將軍·倭國王	安東將軍·倭國王
四四三		元嘉二〇	濟	○		安東將軍·倭國王
四五—		元嘉二八	濟	△		使持節·都督倭新羅任 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 軍事·安東大將軍
四六〇	大明四	(濟)	○			
四六二	大明六	興	○			安東將軍·倭國王
四七七	昇明元	(興)	○			
四七八	昇明二	武	○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 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 ·安東大將軍·開府儀同三 司·倭國王	使持節·都督倭新羅任 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 軍事·安東大將軍·倭王
四七九	南齊	建元元	武			鎮東大將軍
五〇二	梁	天監元	武			征東將軍

이 가운데 遣使한 王名에 대해서는 ( )에 들어간 것은 推定이다. 議論이 나눠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坂元義種說에 따른다<sup>1)</sup>.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倭의 五王은 어떤 稱號를 自稱하고 나서 그 後에 授爵하고 있다. 自稱이란, 中國王朝가 正式로 인정하기 前에 스스로 멋대로 稱하는 것으로 그것은 正式로 敍任될 것을 구한 것이다. 正式의 敍任을 除正이라고 하며, 自稱은 除正을 要求하기 위한 것이다. 敍任은 또한 冊書를 가지고 행해지기 때문에 冊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四三八年의 倭王 珍의 경우,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自稱하고 除正要求했으나, 실제로 인정된 것은 安東將軍·倭國王이었다.

이와 같이 倭五王의 外交, 특히 中國皇帝으로부터 冊封을 받는 것으로 지속되는 듯한 관계에 대해서는 上記한 바와 같이 各양각색의 議論이 있었지만, 적어도 倭王이 그러한 稱號를 必要로 했던 배경은 있었다. 결코 中國王朝側으로부터 一方的으로 수여된 것은 아니었다.

1) 坂元義種, 一九七八年.,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一九八一年 同 「倭の五王」, 教育社.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그러한 稱號 가운데 韓半島의 地名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Ⅱ.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號에 대하여

韓半島의 地名이 포함된 稱號란 都督諸軍事號이다. 원래 都督○○諸軍事란 ○○地域의 軍事指揮權·軍事支配權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地域에 韓半島의 地名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번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四三八年 倭王珍의 自稱「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四五一年 倭王濟의 授爵「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四七八年 倭王武의 自稱「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四七八年 倭王武의 授爵「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이러한 형태로, 諸地域의 軍事指揮權을 요구해서 인정된 것도 있었던 것이다. 地名이 가장 많은 것은 四七八年の 倭王 武의 自稱으로 七國이다. 그리고 「倭」를 제한 六國은 韓半島의 地名이다. 그 가운데의 「加羅」는 四三八年 倭王 珍의 自稱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後 등장하는 것이다. 거기서 비로소 「加羅」를 제한 五國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加羅」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 「五國」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또 宋朝 및 倭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 두고자 한다.

### 〔百濟〕

百濟란, 三世紀의 馬韓 五〇餘國 가운데 伯濟國이 성장한 것으로, 三世紀末에는 유력한 세력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四世紀 중엽 무렵, 近肖古王의 時代에는 太子 近仇首의 힘으로 크게 飛躍하고 領土의으로도 擴大하여 三七一年에는 高句麗와 싸워 故國原王을 戰死하게 하였다. 倭國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다. 百濟가 先進國으로 飛躍하였기 때문에 高句麗와의 對決은 不可缺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百濟로서는 南方에 友好 勢力을 확보해 두고 싶어했다. 거기서 우선, 韓半島의 西海岸으로부터 南海岸를 지나 東南部の 加耶南部勢力과 通交關係를 가진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加耶南部勢力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加耶諸國 가운데 任那國 즉 金官國을 中心으로 하는 卓淳·安羅 등을 포함하는 海岸에 가까운 諸國이다.

한편, 倭도 그 加耶南部勢力과 以前부터 友好 關係에 있었다. 日本列島와 오래 전부터 交流가 있었던 것은 距離的으로도 가까운 南海岸地域이며, 外交交渉으로서 가장 빨리 통한 곳이 加耶南部였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것이었다.

百濟와 倭國 關係의 시작을 기록한 것은 『日本書紀』의 神功皇后攝政四六年(干支二運 修正하면, 三六六年)條이다. 그 해에 倭國으로부터 加耶南部의 卓淳에 派遣된 使者 斯麻宿禰가 卓淳王으로부터 들은 情報를 근거로 從者를 百濟에 派遣하고 卓淳王도 臣下를 派遣하여 隨行시켰다. 이렇게 해서 倭國과 百濟의 通交가 시작되어, 翌년에는 百濟로부터 倭國으로 使者가 派遣되었다고 한다. 이 逸話는 실로 象徴的인 것으로서 百濟는 앞에서 서술한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加耶南部에 통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加耶南部가 仲介하는 형태로 百濟와 倭國의 通交關係가 시작된 것이다.

石上神宮所藏의 『七支刀』(三六九年)는 그와 같은 百濟와 倭國의 外交關係 成立을 기념하여 百濟가 만들어 倭에 보낸 것이었다. 百濟는 나아가 三七二年 東晉에 使者를 보내 朝貢하였고, 이에 東晉 - 百濟 - 加耶南部 - 倭라는 連係의 line이 成立된다. 그것은 一種의 軍事同盟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그러한 關係는 基本的으로는 六世紀 前半까지 이어졌다.

『廣開土王碑』에 百濟가 倭의 臣民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그와 같은 百濟의 倭에 대한 接近을 高句麗의 立場에서 서술한 것이며, 高句麗로서는 스스로 隸屬되어야 할 百濟가 잘못하여 倭에 追隨하고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故國原王의 戰死에 대한 復讐를 하기 위해서 高句麗는 三九六年 百濟를 攻撃하고 커다란 勝利를 얻고 있다. 그러한 攻撃의 名分이 되었던 것이 百濟와 倭의 通交關係였다. 碑文에 의하면, 高句麗에 대한 從屬姿勢를 선택한 新羅가 高句麗에 對하여 救援을 청하였다. 그에 응한 高句麗가 新羅王都에 가득한 倭兵을 驅逐하고 나아가 도망가는 倭兵을 쫓아 任那加羅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安羅人의 戍兵(守備兵)이 倭의 편에 서서 參戰하고 있다. 任那加羅와 安羅는 加耶南部의 諸國이며, 여기에도 百濟 - 加耶南部 - 倭의 連係가 살아 있다.

義熙九年(四一三), 倭國의 東晉 遣使는 「貂皮·人參」을 가지고 갔으며, 또 高句麗使와 나란히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實際로 倭國으로부터의 使者인지 어떤지는 疑問이 든다. 高句麗에 從屬하는 倭라는 圖式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使者를 동반해서 가는 것이 좋은 機會이며, 高句麗가 보낸 倭國使라고 보는 것은 꽤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江南王朝에의 遣使는 永初二年(四二一)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二六六年 晉에 使者를 보냈다는 記事(『晉書』卷三·武帝紀·泰始二年十一月己卯條)를 最後로 記錄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倭國으로부터의 使者가 오랜만에 등장한 것이지만, 그곳에 百濟가 介在되어 있던 것으로 상상하는 것은 무리한 것은 아니다. 百濟는 그 해 宋에 使者를 보내지 않았고, 百濟 最初의 宋 遣使는 四二四年의 것이었다. 그러나 百濟는 이미 三七二年 이래 여러 번 東晉에 使者를 보냈으며, 특히 四一二年 이후에는, 宋의 建國者 劉裕가 實權을 잡고 있었

기 때문에 宋의 建國前이라고 해도 實質的으로는 劉裕에게 遣使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일도 있어 四二〇年の 建國에 즈음하여 百濟王 映이 鎮東大將軍에 昇進되고 있다. 百濟는 同盟關係에 있는 倭國에 對하여 建國을 機會로 宋에의 遣使를 권장한 것이다.

五世紀 百濟와 倭의 關係는 『三國史記』 百濟本紀·腆支王 卽位紀에 보이는 바와 같이 腆支王의 卽位(四〇五年)에 즈음하여, 또 『日本書紀』 雄略二三年(四七九)條에 보이는 바와 같이 末多王(東城王)의 卽位에 즈음하여, 각각 倭에 체재중인 王子를 倭兵이 衛送한다는 事例를 들어 百濟王이 倭王의 從屬下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倭王이 百濟王權을 統率下에 두고 있다는 事例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東城王이 異母兄인 武寧王에 앞서 卽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祖父 牟都(文周王)의 힘이 크게 作用한 때문이며, 倭는 그것을 援助한 것 뿐이었다. 東城王 卽位後도 倭王權이 百濟政治에 關係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四世紀 後半에 成立한 同盟關係가 基本的으로 維持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새로운 樣相이 생긴 것은 아니다.

百濟는 宋에 對하여 四二四年에 처음으로 遣使한 후, 四二九·四三〇·四四〇·四四三·四五〇·四五七·四五八·四六三·四六七·四七一年에 使者를 보냈으며, 倭와도 頻繁한 交涉을 하고 있다. 宋에 있어서 百濟는 高句麗에 대한 背後 牽制役으로 期待할 必要가 있으며, 倭로부터도 높은 評價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倭王이 받는 將軍號가 安東將軍을 基本으로 하는 것에 對하여, 百濟王은 한 단계 위인 鎮東將軍을 基本으로 하고 있는 點으로도 알 수 있다. 또 義熙一二年(四一六)에 東晉으로부터 餘映(腆支王)이 都督百濟諸軍事를 授爵하여, 宋이 된 후에도 繼續되고 있다. 太元一一年(三八六)에 餘暉가 「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이 되었지만, 이 「都督」도 都督百濟諸軍事를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면, 한 발 앞선 것이 된다. 따라서, 百濟王이 이미 授爵하고 있는 稱號를 倭王도 要求한 것이며, 그러한 것의 意味에 대해서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더욱이 百濟는 四七五年에 王都 漢城(現在의 서울江南)이 陷落되고 나라도 일단 망한 듯한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 왕족의 一人(文周)이 熊津(現在의 公州)에서 나라를 再興시킨 덕분에 百濟는 繼續되었지만, 그 內實은 크게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四七五年을 전후하여, 倭王의 自稱이 보이며, 모두 「都督百濟諸軍事」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지역은 어떻든 간에, 倭가 百濟에 대한 軍事權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문제는 다음에 고찰하기로 한다.

#### [新羅]

五世紀 段階의 新羅는 그 發祥地인 현재의 慶州市로부터 그다지 領土的으로 擴大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五世紀에 慶尙北道 지방을 종속 하에 두는 것처럼 되어 갔지만, 각각 獨立한 상태로 존속해

있으며, 新羅領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新羅連盟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연합체가 있으며, 新羅는 그 盟主였지만, 固有의 領土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新羅는 宋과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三七七年에 高句麗使와 함께 前秦에 朝貢하고 나아가 三八二年에도 單獨으로(高句麗의 許可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前秦과 通交하고 있다. 그 후에도 高句麗에 종속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南朝인 梁과 通交한 것은 百濟使에 동반한 五二一年의 일이다.

倭와의 관계는 『日本書紀』에 「神功皇后의 三韓征伐」은 논외로 하더라도, 神功皇后 攝政 四九年條에 新羅에 대한 攻撃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敵對勢力으로 位置 짓고 있는 것이 많다. 四〇〇年前後에 倭에 對하여 質子(微叱己知波珍干岐=末斯伏)를 보낸 적도 있다. 그 時點에는 高句麗에 從屬된 것도 아니었으며, 倭에 의존한 部分도 있었을 테지만, 毛麻利叱智(毛末·堤上)의 悲劇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결코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 〔任那〕

任那라는 말은 『日本書紀』에서는 加耶諸國 전역을 가리키기도 하며, 또 倭가 韓半島에 설치했다는 直轄支配地 「任那官家」(任那의 官家)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狹義로는 加耶諸國 가운데 一國의 이름이며, 金官國이라고도 한다. 예전의 狗邪國의 後身이다.

朝鮮에서 「任那」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 用例를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은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任那加羅」이다. 「任那加羅」는 第二面 第九行에 한 줄 登場한다. 永樂一〇年(四〇〇)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新羅의 救援要請을 받아 新羅에 진군한 高句麗軍이 新羅의 王都에 침입해 있던 倭軍을 쫓아내고, 나아가 「任那加羅」까지 追擊하였다는 한 줄의 문장이다.

이 「任那加羅」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金官國說과 高靈의 大加耶國說로 의견이 나뉘져 있지만, 大加耶國說은 任那=高靈說에서 나온 것이며, 碑文만으로 얻은 결론은 아니다. 新羅의 王都에 侵入한 倭軍이 北으로부터의 高句麗軍에 쫓겨 退却하는 루트로 南下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즉 金官國 方면으로 退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생각하기 쉽다. 倭와 金官國은 四世紀에 上記한 바와 같이 友好關係가 成立하여 있었다. 따라서 「任那加羅」는 金官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

다음으로 나오는 用例는 한참 내려와 九二四年에 崔仁滾이 撰한 「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이다(同碑는 본래 慶尙南道 昌原의 鳳林寺址에 있었지만, 現在는 서울의 景福宮內的 屋外에 展示되어 있다). 그 一節에 「大師, 諱는 審希, 俗姓은 新金氏, 그의 선조는 任那의 王族이며, 聖枝를 草拔하고 매양 隣兵에 고통받자 우리나라에 투항하였다. 遠祖인 興武大王은 龜山에 稟氣하고 嗣水에 騰精하고 文符를 잡고 나서 相庭으로부터 武略을 가지고 王室을 高扶하고 …… 끝내 二敵(百濟·高句麗)을 평

정했다」고 한다. 新金氏는 金官國 最後의 王 仇亥(仇衡)가 新羅에 來投한 후 수여된 姓이다. 金氏에 對하여 말한 것으로, 興武大王은 그 曾孫에 해당하며, 新羅의 三國統一에 活躍한 金庾信의 追封號이다. 여기에 보이는 「任那」가 金官國를 가리키는 것임에는 전혀 문제없다.

『三國史記』에도 한 줄 보이고 있다. 그것은 卷四六 強首傳에 보이는 것으로, 文章으로 알려진 強首가 新羅의 太宗武烈王이 묻자 「臣은 본래 任那 加良人입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 경우, 그 自體로는 判斷하기 어렵다. 역시 金官國說과 大加耶國說이 있지만, 앞의 두 例 특히 後者의 明確한 例를 참고하면 金官國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만하다.

朝鮮古代의 史料로 「任那」가 登場한 것은 위의 세 가지 例 뿐이다. 그리고 대개 金官國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理解해도 문제는 없다. 적어도 加耶諸國全體를 가리키는 汎稱으로서의 용례는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中國의 「任那」 用例이지만, 가장 오래된 예가 지금 問題가 되고 있는 倭王 珍의 自稱 稱號이다. 그것 이외에 예를 들면 『翰苑』 卷三〇·蕃夷部·新羅條에 「땅은 任那를 거느린다」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뿐이라면, 任那는 加耶諸國의 汎稱처럼 보이지만, 直前의 本文은 「國은 資路를 싸고 있다」로 이것과 對句를 이루고 있다. 둘다 主語는 新羅이다. 撰者 張楚金은 分註에 여러 가지 書物을 引用하여 本문을 補足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翰苑』이라는 책은 본래 韻文(賦)을 짓기 위한 用例를 보인 것으로, 本文·分註는 一體의 것이다. 「國은 資路를 싸고 있다」는 分註로는 『魏志』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 「資路」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魏志』의 引用은 辰韓·辯辰의 二十四國의 國名을 나열한 곳으로 「資路」란, 「辯辰古資彌凍國」의 「資」와 「辯辰半路國」 혹은 「尸路國」의 「路」를 취하여 나열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辰韓·辯辰諸國을 「資」 「路」로 나타낸 것이다. 結局, 「國은 資路를 싸고 있다」란, 新羅가 「資」 「路」를 비롯한 辰韓·辯辰諸國을 併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對句를 이루는 「땅은 任那를 거느린다」의 경우도 分註를 參照하여, 「任那」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分註에서는 『齊書』(南齊書)의 加羅國傳을 引用한 후 「撰者 張楚金이 新羅의 耆老로부터 들었을 때, 加羅·任那는 옛날 新羅가 멸망시킨 것으로, 故地는 國의 南쪽 七·八百里에 있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本文의 「任那」는 「加羅·任那」를 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땅은 任那를 거느린다」란, 新羅가 加羅·任那를 병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翰苑』 本文의 「任那」는 加耶諸國의 汎稱이 아니라, 「加羅·任那」를 省略한 것으로, 본래 「加羅」와 對比되는 다른 實體를 가진 「任那」인 것이다.

또 한가지 『通典』의 例를 들어 보자. 卷一八〇·邊防門一·東夷·新羅條 「新羅」 加羅任那諸國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한다. 이 「加羅任那」 역시 「加羅·任那」로 나뉘야 할 것이다.

이상 中國의 「任那」用例 그 것 만으로는 「任那」가 무엇인가 特定하는 것은 어렵지만, 「加羅」와 對比되는 다른 실체를 가진 것이며, 加耶諸國의 汎稱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確認되었다. 나아가 「加羅」와 「任那」가 併記된 것으로부터 이 兩者가 加耶諸國의 대표적인 존재라고 보고 「加羅」를 大加耶國, 「任那」를 金官國에 비정해도 그다지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朝鮮과 中國의 예를 통해서 보면 「任那」를 加耶諸國의 汎稱으로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이 된다. 더욱이 「任那」란, 金官國을 가리킨 것이라고 봐야 좋을 듯하다. 『日本書紀』에는 金官國을 비롯하여 特定의 一國을 가리킨다고 여겨지는 것 외에 汎稱으로서 사용한 예가 확실히 있다. 그러나 朝鮮과 中國의 예를 본 지금 그것은 『日本書紀』의 獨特한 用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任那」란, 본래 金官國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다.

日本の 學界에서는 『駕洛國記』에 首露王妃가 처음으로 배로 來着한 「主浦村」의 「主浦」를 朝鮮語의 訓으로 읽으면 nim-nae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任那」에 통한다는 鮎貝房之進氏의 說<sup>2)</sup>을 받아들인 것이 많다.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金官國은 여러 邑의 集合이며, 그 하나가 「任那」였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日本列島와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한반도 東南端의 이 金官國일 것이다.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길게 이어지고 그 결과, 「任那」란 말이 퍼지게 된 것이다. 「가라」가 언젠가 中國의 唐을 부르는 말로서 사용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金官國이 中國王朝와 通交關係를 가졌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다. 앞서 언급한 『南齊書』 加羅國傳에 보이는 四七九年 南齊에 遣使한 加羅國이 加耶諸國 가운데 유일하게 記錄되고 있는 사례이다. 그 加羅國을 金官國에 비정하려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大加耶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金官國의 전신은 『魏志』 韓傳·倭人傳에 등장하는 狗邪國이지만, 그 시기에는 公孫氏와 帶方郡에 通交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宋이 「任那」를 예전에 알려진 狗邪國의 後身이라고 認識할 수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宋에 있어서는 未知의 나라였다고 여겨진다.

#### [秦韓] [慕韓]

秦韓은 『魏志』 韓傳에 「지금, 그것(=辰韓)을 이름 붙여 秦韓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音이 통하므로 秦韓=辰韓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慕韓은 그와 같은 記事는 없지만 「慕」와 「馬」란 音도 가깝고, 秦韓=辰韓과의 關係로 봐서 慕韓=馬韓으로 생각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 秦韓·慕韓에 대해서는 架空의 것이라는 意見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江上波夫는 「각각 新

2) 鮎貝房之進氏의 說 鮎貝房之進, 一九七一年, 『日本書紀朝鮮地名攷』, 國書刊行會復刻.

羅, 百濟의 建國前에 있었던 나라로 倭國이 中國에 遣使한 五世紀에는 이미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다. 倭王이 「지금만 망해 過去의 나라였던 秦韓·慕韓의 管轄權을 요구한 것은 「三韓時代 그 선조가 南鮮을 支配하고 있다는 傳承을 가지고 있던 때부터이며, 그와 같이 「南鮮을 지배하고 있던 大陸 北方系 騎馬民族의 一派가 日本에 渡來하고 「그 騎馬民族의 中心勢力을 이룬 것이 天皇氏」라는 것이다<sup>3)</sup>. 또 金錫亨은 倭王이 支配를 主張한 이들 諸國은 「五世紀 韓半島에는 없었지만, 「實際로 存在한 때가 있으며, 「이것은 日本列島內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한다<sup>4)</sup>.

그러나 그 한편으로 實在한 것으로 보는 생각도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那珂通世는 「辰韓 馬韓의 遺種으로 國邑을 가진 者가 어느 정도 殘存했을 것」<sup>5)</sup>이라고 했다. 山尾幸久는 그것을 具體的으로 「慕韓」國은 「馬韓國」으로 益山일 것이다 「秦韓」은 蔚珍이 아닐까라고 했다<sup>6)</sup>.

三世紀에 存在한 辰韓·馬韓의 가운데서 新羅·百濟가 成長하여 갔지만, 從來는 그 성장을 빠르게 생각해서 新羅가 辰韓을 百濟가 馬韓을 통합하고 辯韓의 지역은 통합되지 않은 채 加耶로서, 三韓으로부터 新羅·百濟·加耶로 이행했다는 이해도 있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 보이는 秦韓·慕韓은 오히려 五世紀를 통하여 아직 잔존하여 있던 辰韓·馬韓의 세력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秦韓은 慶尙北道方面, 慕韓은 全羅南道方面에 비정해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百濟가 그러한 慕韓=馬韓地域을 制壓하여 간 것은 四七五年 熊津으로 옮기고 난 후의 일로, 五世紀末부터 六世紀初에 걸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까지 全羅南道 지역에는 甕棺古墳이라는 獨特한 墓制가 남아 있으며, 在地首長의 墓로 보이는 많은 副葬品을 가진 墓가 알려져 있지만, 五世紀末부터 橫穴式石室古墳으로 이행하여 간다. 그것은 百濟의 進出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韓國에서 前方後円墳이 알려져 있는 것도 이 지역이며, 그 造營의 배후에 百濟의 進出과 그것에 抵抗한 在地勢力의 갈등을 살필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하자면, 韓國의 前方後円墳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① 10 基 程度가 榮山江 流域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② 한군데에 밀집하지 않고 넓게 분산되어 있다.
- ③ 다른 古墳群과는 떨어져, 독립된 위치에 있는 것이 많다.
- ④ 規模는 전장 33m의 明花洞古墳으로부터 77m의 海南長鼓峰古墳까지이지만, 日本의 前方後円

3) 江上波夫, 「日本民族=文化の源流と日本國家の形成」, 『江上波夫著作集』.

4) 金錫亨, 一九六三年, 「三韓三國の日本列島內分國について」, 『歴史學科』一號.

5) 那珂通世, 一九五八年, 「三韓考」, 『外交譯史』, 岩波書店.

6) 山尾幸久, 一九八九年,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二二二頁.

墳에 비하면 대개 소형이다.

- ⑤ 築造 계획에는全體의 통일적인 규격이 없다.
- ⑥ 主體部 埋葬施設은 자라봉古墳이 竪穴式石槨이며, 다른 것은 橫穴式石室로 보인다.
- ⑦ 日本의 前方後円墳과 같은 段築·造出과 葺石은 보이지 않는다. 周濠가 있는 것도 있다.
- ⑧ 副葬遺物은 대개가 百濟的 성격을 갖는다.
- ⑨ 埴輪形土製品(円筒形土器)와 盾形木製品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것들은 倭의 성격이 짙다.
- ⑩ 가장 오래된 것은 자라봉古墳으로 異論도 있지만, 5世紀後半의 造營으로 여겨진다.
- ⑪ 그것 이외의 것도 6世紀 中葉까지로 보인다.

이로써 이 지역과 倭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음이 명확하며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이다. 造墓를 推進한 것은 倭와 頻繁하게 왕래하고 在倭의 세력과도 교류·정치적인 관계를 가진, 이 지역 특정의 首長層으로 보인다. 그 경우에, 倭의 고유한 墳形을 선택한 것은 단지 影響이라기 보다는 對外的이고 政治的 어필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百濟의 領有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을 全面的으로 受入하는 것에 저항하는 세력이 倭의 세력과도 통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墳形이었다. 즉 이 지역은 倭와의 관계도 깊고, 倭와의 왕래도 頻繁하게 있었으며, 또 倭人の 유입도 많은 지역으로 百濟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세력이 산재하여 있었다고 想定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現實·意識을 공유하고 共感하는 首長들의 관계가 想定가능하다. 百濟와 철저히 적대한 것은 아니며, 倭와 百濟와 等距離的인 관계를 維持하고 싶다는 程度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百濟의 진출로 外見的으로 倭에 의탁하게 된 것일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이, 5世紀 末로부터 6世紀 初에 걸쳐서 百濟가 馬韓의 殘存勢力을 제압하여 간 것이지만, 거꾸로 그때까지는 馬韓=慕韓이 존재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倭와 교류를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馬韓諸國으로서는 특히 三世紀에 晉에 對하여 使者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宋朝와 교섭을 가졌다는 記錄은 없다. 秦韓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五國」은, 韓半島內에 당시 존재한 세력이었다. 倭王 珍은 그러한 지역에 대한 軍事支配權을 宋에 요구한 것이 된다. 다만 倭王 珍의 요구에 대하여 宋은 일절 인정하고 있지 않다. 宋이 倭王에 都督○○諸軍事號를 인정한 것은 다음의 倭王 濟부터이다.

四五一年 倭王 濟는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에 冊封되고 있다. 이것을 앞의 倭

7) 자세한 것은 (田中俊明, 「韓國의 前方後円形古墳의 被葬者·造墓集團についての私見」, 二〇〇一年, 『朝鮮學報』一七九輯)에 논하였다.

王 珍의 自稱과 비교하면, 「百濟」가 없어지고 대신에 「加羅」가 더해지고 있다. 이 때의 冊封은 前王인 珍의 요구에 대하여 뒤늦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 濟도 또한 珍과 마찬가지로 自稱하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自稱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 뿐으로 실제로는 濟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濟의 요구 가운데 새로운 「加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五國」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다. 四七八年の 倭王 武의 사례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는 앞서 인정하지 않았던 「百濟」도 다시 포함시켜서 要求를 하고 있다. 이 사이 四六二년에 興이 授爵을 하고 있지만, 그 때도 除正要求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倭王은 韓半島의 諸國에 대한 軍事支配權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宋王朝의 領土內에서는 宋의 皇帝가 실제로 그 지역의 軍事支配權을 수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宋王朝의 영토보다도 밖의 지역까지 현실의 軍事支配權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倭王이 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의 軍事指揮權·支配權을 요구한 것은 倭王이 이미 그들의 지역에 대하여, 실제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을 追認받고 싶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權利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가 강하다. 물론 「倭」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어느 정도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지만, 보아온대로 다른 五國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坂元義種에 의하면, 北魏의 孝文帝가 太和一八年(四九四)에 宋 文帝의 子 劉昶를 宋王으로 하고 「使持節·都督吳越楚郢城諸軍事·大將軍」라 하고 있다. 이 당시의 吳·越·楚의 땅은 宋에 대신해서 齊(南齊)가 지배하고 있으며, 孝文帝가 그 땅의 실제 軍事支配權을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宋帝의 子라는 名分도 있으며, 「期待的인 意味」로 任命한 것이다. 高句麗의 경우에도 宋은 「都督營平二州諸軍事」號를 주고 있지만(四二二年), 그들은 당시 北燕의 영역이며, 「中國南朝는 다른 中國王朝 영역의 軍權을 高句麗王에 준 것이다. 다만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營·平二州가 高句麗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칭호를 생각할 때,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칭호는 期待的인 내용을 가진 것이라 해도, 그것은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高句麗王은 실력만 있다면 宋朝로부터 받은 「都督營·平二州諸軍事」를 계기로 그 지역의 軍事的 지배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을 근거로 「珍은 倭國 - 「都督倭國諸軍事」 - 와 朝鮮南部 - 「都督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五國諸軍事」 - 에 걸친 軍事的支配를 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倭國王에 있어 의미가 있는 요청가능한 최대한의 領域支配權 이었다는 것이 된다」라 하고 있다<sup>8)</sup>.

그럼 왜 이러한 한반도 제지역의 軍事支配權 인정을 要求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高句麗와 對抗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 널리 받아들여진 듯하다. 예를 들면 鈴木靖民은 「倭가 百濟를 개입시

8) 坂元義種, 「倭의 五王」, 前掲書.

켜 朝鮮에 關與한 目的은 우선 百濟와의 友好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 그 倭兵導入策에 應하여 高句麗에 對抗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對宋 外交에서 倭王이 百濟의 軍事權을 주장한 것도 그 확실한 보증을 구한 것이다<sup>9)</sup>.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간 鈴木英夫는 「高句麗의 勢威가 미친 韓半島 南部 諸地域의 軍事的 制壓을 意圖하는 意思表示이」며 「事實上, 當該 地域의 覇者로서 君臨해 온 高句麗와의 軍事衝突=高句麗 征討를 表明하는 稱號이었다고 理解」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高句麗가 이들 제지역을 제압하고 있다고 할 증거는 없으며 그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바와 같이, 高句麗 자신이 스스로의 입장에서 주위의 諸國을 屬民으로 위치정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은 客觀的인 事實은 아니었다. 五世紀에도 그러한 狀況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倭王쪽이 高句麗의 主張에 맞추어 그 覇權을 인정하 위에 그 制壓을 指目한 것이라는 것은 올바른 理解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對하여 高寬敏은 「珍 自稱의 都督管區의 朝鮮國名일까, 舊說의 말한 바와 같이 倭의 支配地도 아니며, 또 鈴木英夫氏의 말처럼 高句麗의 支配地도 아니었다면, 여기는 鈴木靖民說을 한 발 나아가서 百濟가 對 高句麗戰을 遂行하는 즈음에 倭兵의 導入을 期待한 地域이라고 볼 수 있다」라 하고 있다<sup>11)</sup>. 「一旦 緩急하면, 그들의 땅에 倭兵이 들어가 百濟와 함께 싸울 것이 期待되었다는 것이다. 즉 珍의 自稱稱號에는 百濟王의 期待가 들어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傍證하는 것이 秦韓·慕韓의 이름이 있는 것과 四五年에 濟가 除正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秦韓·慕韓에 대해서는 獨自의 考察을 근거로 慕韓을 「高句麗에 의해 奪取되었던 舊馬韓 - 舊百濟의 땅」 즉 漢水(漢江) 以北의 高句麗領으로, 秦韓을 「高句麗가 새롭게 領域化한 舊辰韓 - 舊新羅領」 즉 嶺南 一部地域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대로 高句麗領을 直接 가리키는 것이라면 宋이 인정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宋은 倭 보다도 百濟를 上位에 位置시켰지만 高句麗는 보다 한층 上位한 것이다. 그것은 宋의 對外(특히 對北魏)戰略에 있어 重要했다는 意味이며, 客觀的인 序列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宋이 준 稱號이며, 宋의 뜻에 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러한 이름이 百濟와 倭가 생각한 高句麗에는 알 수 없는 呼稱이라면 애초에 稱號의 意味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百濟王이 권한 稱號라면, 都督百濟諸軍事를 포함한 것일까. 鈴木靖民說은 그 解釋도 있어서 百濟側이 倭兵을 導入하기 위하여 생각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百濟의 意圖가 背景에 있다면, 倭王이 要求하여 인정받지 못한 時點에 百濟王이 그것을 辭退하면 좋았을 것이다. 百濟王이 繼續하여 그 稱號를 받아 倭王이 인정받지 못해도 반복해서 要求

9) 鈴木靖民, 一九八四年,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講座日本歴史』一卷, 東京大學出版會.

10) 鈴木英夫, 一九九六年,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一六二頁.

11) 高寬敏, 一九九七年, 「古代朝鮮諸國と倭國」, 雄山閣, 二〇一~二〇二頁.

하는 事態는 百濟側의 意圖대로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稱號要求는 倭 獨自의 것으로 볼 만하다. 倭王은 高句麗의 領域이 아닌 그 以外의 韓半島 勢力의 대부분에 대한 軍事支配權을 要求한 것이다. 그것은 倭王이 스스로를 高句麗에 對抗하는 第一의 勢力이라고 한 것이며, 그 自負의 표징인 것이다. 百濟를 아래에 位置지어 생각한 것은 결코 百濟가 그것을 승낙했다던가 권한 것은 아니며, 百濟가 관여할 수 없던 때에 그러한 外交戰略을 취한 것이다.

宋이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宋과 通交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고 利害關係가 없는 諸地域이며, 唯一하게 關係가 있는 百濟에 대해서는 明確하게 拒否하고 있는 것이다. 當然, 宋이 그들 地域의 실제 軍事支配權을 수여할 수 있었을 리는 없고, 倭王으로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稱號上으로 必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 Ⅲ. 都督加羅諸軍事의 意味

元嘉一五年(四三八)에 珍이 自稱한 稱號 가운데 都督諸軍事는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였지만,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濟의 시대가 되어 元嘉二八年(四五二)에 인정하고 있다. 高寬敏이 들고 있는 또 한가지의 理由도 이것을 둘러싼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러 問題가 있다.

濟의 自稱 稱號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없지만, 珍의 때에 自稱하여 除正要求한 것이, 이 때가 되어 인정된 것은 이상하다. 記錄에는 없지만 濟도 自稱하여 除正要求했을 것이다.

그 경우 濟의 最初의 遣使로 여겨지는 四四三年에 珍에게 배운 대로 自稱·除正要求를 한 것이다. 珍의 自稱稱號는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는 것이었지만, 濟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 아마도 都督諸軍事 以外는 같은 自稱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때에 珍이 인정된 것은 「安東將軍·倭國王」이었다. 거기서 四五一年의 遣使의 때에도 또 自稱·除正要求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四四三年의 때와 같은 稱號일 것이다. 그리고 그에 對하여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가 새롭게 인정된 것이다.

거기서 問題는 都督諸軍事號이다. 만약 珍의 때처럼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를 自稱하고 除正要求한 것이었다면,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가 인정받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다. 즉 要求하지 않은 「加羅」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百濟」에 대해서는 宋은 一貫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百濟」를 인정하는 대신에 要求에 없던

「加羅」를 인정한다는 것이 「好意的인 配慮」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우선 틀림없이 濟가 「加羅」도 포함해서 自稱·除正要求를 했을 것이다.

즉 濟가 自稱한 것은 「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였다는 것이다. 그것에 對하여 宋은 「百濟」를 빼고 남은 「六國」에 대하여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점은 왜 濟가 「加羅」를 새롭게 포함해서 要求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것에 대하여 우선 필자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日本書紀』卷九·神功皇后攝政六二年條에는 「六十二年에 新羅가 조공하지 않자, 곧 襲津彦을 보내 新羅를 공격했다 『百濟記』에 이르기를, 壬午年 新羅가 貴國을 받들지 않자, 貴國은 沙至比跪를 보내 신라를 공격했다. 新羅人이 美女 二人을 莊飾하여 포구에 마중 나가 유혹하였다. 沙至比跪는 그 美女를 거두고 도리어 加羅國을 공격했다. 加羅國王 己本早岐 및 아들인 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蝦至 등이 그 人民을 거느리고 百濟에 도망하였다. 百濟가 두렵게 그를 예우하였다. 加羅國王妹既殿至가 大倭에 향하여 啓하여 이르기를, 天皇이 沙至比跪를 보내어 新羅를 공격시켰다. 그런데 新羅의 美女를 거두면서 공격하지 않았고 도리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다. 兄弟人民이 모두 그 때문에 流沈하고 憂思하였다. 그러므로 와서 보고한다고 하였다. 天皇이 크게 노하여 곧 木羅斤資를 보내어 兵衆을 거리고 와서 加羅에 모아, 그 社稷을 회복시켰다라는 記事가 있다.

『日本書紀』의 紀年에 의하면 二六二年의 일이 되지만, 一般에는 干支二運 내리면 修正하여 三八二年의 일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木羅斤資가 登場하고 있으며, 木羅斤資에 關한 記事는 干支三運 내러서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sup>12)</sup>. 필자도 그에 贊成이다.

『日本書紀』에는 木羅斤資는 三回 登場하지만, 그 最初는 神功紀 四九年條로 「春三月, 荒田別·鹿我別으로서 將軍이 되었다. 곧 久氏 等과 더불어 兵을 억지로 건너게 하여, 卓淳國에 이르고 장차 新羅를 공격하려고 했다. 때에 혹자가 이르기를, 兵衆이 적으면 新羅를 물리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沙白·蓋盧를 奉上하고 軍士를 증강시킬 것을 청하였다. 이에 木羅斤資·沙マ奴跪【이 二人은 그 姓과 인물을 모른다. 다만 木羅斤資는 百濟의 장수이다】에 命하여 精兵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그를 보냈다. 함께 卓淳에 모여, 新羅를 공격해서 물리쳤다. 인하여 比自嫩·南加羅·旆國·安羅·多羅·卓淳·加羅의 七國을 平定한다. 이에 兵을 옮겨 西로 둘러서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枕彌多禮를 죽이고서 百濟에 주었다. ……」라고 하였다.

上記의 記事들을 사이에 두고, 應神紀 二五年條에도 「百濟 直支王이 죽었다. 곧 아들인 久爾辛이 즉위하여 王이 되었다. 王의 나이가 어려서 木滿致가 國政를 잡았다. 王母와 相姪하고 많은 無禮를 行했다. 天皇이 듣고 그를 불렀다. 【百濟記에 이르기를, 木滿致는 이 木羅斤資가 新羅를 공격할 때,

12) 山尾幸久, 前掲書.

그 나라의 婦를 취해서 난 소생이다. 그 父의 功으로 任那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貴國을 往還했다. 天朝에 承制하고 우리나라의 國政을 잡고 權重世에 이르렀다. 그러자 天朝가 그 璽符를 듣고 그를 소환했다고 한다.】

여기에 木羅斤資의 子 木滿致가 登場하지만, 木滿致는 이에 의하면 父가 新羅를 공격했을 때, 新羅女性을 취하여 난 아들이다. 木羅斤資가 新羅를 공격한 것은 記錄으로는 위의 神功紀 四九年條 밖에 없으며, 만약 그 무렵에 태어났다면, 神功 四九年이 一般的으로 干支 二運修正하여 三六九年이 되므로 三六九年頃에 태어난 것이 된다.

그러나 그 木滿致와 同一人物로 보이는 人物이 『三國史記』 百濟本紀·蓋鹵王二一年(四七五)條에 보이고 있다. 百濟王都 漢城이 高句麗에 攻擊받아 陷落되고 王이 살해되게 된 때에 王子인 「文周는 곧 木飯滿致·祖彌架取【木飯·祖彌, 모두 複姓이다. 隋書, 木飯을 二姓이라고 한다. 아직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와 함께 南行하였다」고 하였다. 이 「木」은 「木蝶」이 옳바르며, 그것은 木羅=木氏이다. 즉 木飯(木蝶)滿致는 木滿致과 同姓同名이다.

만약 이가 同一人物이라면, 木滿致는 四七五年경에 百歲를 넘는 나이가 되었던 것이 된다. 그것은 극히 不自然스럽다. 거기서 神功紀 四九年條를 나아가 六〇年 내리면, 四二九年의 일이 된다. 그 무렵에 木滿致가 태어난 것이 된다면, 四七五年에는 四〇代 壯年이 된다. 그 뿐만은 아니지만, 木羅斤資 關係의 記事는 이와 같이 六〇年 내리는 편이 合理的이다.

그렇다면 앞서 神功紀 六二年條는 三八二年이 아니라, 四四二年의 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때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하자면, 新羅를 공격해야 할 沙至比跪가 加羅(大加耶)를 멸하려하고 加羅王들은 百濟에 逃亡한다. 加羅王의 妹가 倭에 와서 窮狀을 읍소하자, 天皇이 木羅斤資를 派遣하여 나라를 復興케 한 것이다. 그러나 木羅斤資는 百濟의 將軍이며, 加羅王들이 百濟에 逃亡했음에도 불구하고, 妹가 倭에 救援을 구한 것도 이상하다. 이것은 百濟王이 救援要請을 받아 木羅斤資를 派遣하고 國을 復興시켰다는 事實을, 倭의 立場에서 바꿔 쓴 것이다. 즉 倭國은 四四二年에 加羅進出을 시도했으나 失敗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高寬敏은 沙至比跪의 記事는 造作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造作으로 보는 이유는 「왜 倭人인 沙至比跪가 加羅를 공격한 것인가를 說明하는 것은 至難의 業이다」라 하고 그 때문에 「본래 沙至比跪가 加羅를 공격했다는 등의 일은 없었던 것이며, 天皇이 木羅斤資를 派遣하여 구한 것도 架空의 일일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sup>3)</sup>. 이 점은 이미 山尾幸久가 야마토王權 獨自戰으로, 그것을 百濟가 구한 것으로 본 바 있다<sup>4)</sup>. 그에 對하여 高寬敏은 「新羅를 공격하려 간 沙至比跪가 왜 加羅를 공격한 것인가, 四四二年 當時, 倭가 內陸部의 加羅를 공격한 어떠한 理由가 存在하고 그것이 어찌하여 可能했는가가 問題이다. 그것은 當時의 歷史的 現實에 맞춰 說明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으

로 여겨진다」라고 批判하였지만, 필자는 그것이 不可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加羅 즉 大加耶가 成長하여 간 것은 五世紀가 되고 나서이며, 그때까지 大加耶로 불렸던 金官國이 쇠퇴하여 간 것과 바로 바뀐 것이 된다. 金官國의 衰退는 高句麗 廣開土王의 遠征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나 消滅한 것은 아니다<sup>13)</sup>. 그 金官國에 대신해서 伴跋國이 有力하게 되어 大加耶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大加耶는 加耶가 最終적으로 消滅한 五六二年까지 이어지고 倭가 內陸部에 侵攻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앞서 加耶南部勢力과의 關係가 있고, 그곳을 基盤으로 할 수 있었던 까닭이며, 혹은 加耶南部勢力의 要請을 받아 共同作戰으로 侵攻이 實現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새롭게 발흥하는 加羅에 對하여 舊來로부터의 勢力인 加耶南部諸國이 그것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歷史的 現實에 맞춰 說明하는 것이 可能이다. 고관민氏의 說에 의하면 內陸에 해당하는 高句麗領 「慕韓」「秦韓」에 對하여 倭軍의 侵攻이 期待되었다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想定이 가능하다면 加羅侵攻만이 不可能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

以上과 같은 理解가 인정된다면 除正을 구한 四四三年이 바로 그 翌年인 것은 극히 注目되는 것이다. 즉 倭王이 여기에 이르러 「加羅」를 포함하여 要求한 것은 現實로는 失敗한 加羅進出을 우선 宋에 인정받아 그것을 背景으로 하여 더욱 進出을 꾀한 것이 된다.

當初 珍의 要求에 「加羅」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加耶地域은 「任那」로 代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加羅가 成長하고 더욱이 容易하게 屈服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새롭게 「加羅」를 고립시켰던 것이다. 또 倭와 百濟間, 同盟關係에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基本的인 것으로 모든 面에서 利害가 一致한 것은 아니었다. 五四〇年代의 소위 「任那復興會議」에서도 倭는 百濟의 立場을 인정하지 않고, 安羅側에서 서서 움직이고 있다. 四四二年의 경우, 百濟로서는 加羅로부터의 救援要請이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받는 것의 메리트가 있으며, 또 倭가 內陸까지 進出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實際로 百濟는 이후 加羅(大加耶)의 政治에 관여해 간 것이다.

#### IV. 武의 上表文을 둘러싼 問題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武의 上表文을 들고자 한다. 『宋書』 卷九七·東夷傳·倭國 에는 「順帝昇明

13) 高寬敏, 前掲書, 一一二頁.

14) 山尾幸久, 前掲書, 一五四頁.

15) 田中俊明, 二〇〇一年, 「高句麗의 「任那加羅」侵攻をめぐる問題」, 『古代武器研究』2, 五二頁.

二年 遣使上表曰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禰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道遙百濟 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曰進路 或通或不 臣亡考濟實忿寇讎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感激 方欲大舉 奄喪父兄 使垂成之功 不獲一簣 居在諒闇 不動兵甲 是以偃息未捷 至今欲練甲治兵 申父兄之志 義士虎賁 文武效功 白刃交前 亦所不顧 若以帝德覆載 摧此疆敵 克靖方難 無替前功 竊自假開府儀同三司 其餘咸假授 以勸忠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上表文에 대하여 倭王 武의 上表文은 아니라는 意見이 있다. 湯淺幸孫에 의하면, 「倭王 武의 上表文이 今本 『宋書』에 보이는 듯한 형태로 처음부터 夷蠻傳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다<sup>16)</sup>. 그 理由로서 다음과 같은 點을 들고 있다. ① 夷蠻傳의 다른 곳에는 諸帝에 대하여 廟號를 稱하고 또 闍婆婆達國傳과 師子國傳에 인용한 國主의 上表文에 「大宋揚州大國大吉天子」「謹白大宋明王」 등의 문구가 보이며, 宋朝의 實錄에 의한 것을 示唆하고 있지만, 倭王 武의 上表文을 인용한 「順帝昇明二年」의 條만은 諡號를 稱하고 있다, ② 『宋書』의 順帝紀에도 倭王 武의 記事가 있으며, 重複되고 있지만, 「宋王朝에 있어 별로 重要하지 않은 이러한 記事를 疊用하는 것은, 良史의 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本紀에 있으면 족하다, ③ 上表文은, 「……歸崇天極」까지와 「道徑百濟」以下가 「있고 있는 방법은 정말로 唐突하며, 前後의 脈絡이 붙이기 어렵다. 「이 文章은 「道徑百濟」의 앞에 있는 몇 개의 句가 殘缺한 것은 아닌 가라고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前半이 전혀 時代를 달리 하는 記事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前半에서는 祖父 以來로 東西의 戎夷를 征하고 바다를 건너 九十五國을 平定했다고 했으며, 後半에는 父兄은 高句麗와의 전쟁 가운데 뜻을 얻지 못하고 死沒했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前半과 後半이란 엇갈려 말이 맞지 않는다, ④ 『冊府元龜』卷九六三·外臣部에 인용한 倭國의 朝貢의 記事로는, 이 倭王 武의 上表文의 前半과 거의 같은 文章이, 文帝의 元嘉二年(四二五)의 倭王 讚의 上表文으로 收錄되어 있다. ⑤ 『太平御覽』卷七八二·東夷部에서 倭國의 記事를 실은 것에 『後漢書』, 『魏志』, 『南史』, 『北史』 등을 인용한 것 뿐으로, 『宋書』로부터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武의 上表文도 『南史』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宋書』倭國傳 當時 이미 殘缺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을 綜合하여 생각할 것은, ① 『宋書』에 인용된 倭王 武의 上表文의 前半은, 『冊府元龜』가 인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倭王 讚의 上表文이며, ② 後半의 文章은 倭王 武의 上表文이지만, 「道徑百濟」의 앞 文章은 이미 일찍부터 殘缺되어 있었다. ③ 이 두개의 上表文을 이어 하나로 하고 倭王 武의 上表文이라고 한 것은 唐初에 『南史』가 만들어진 때이며, 北宋이 되어 『太平御覽』이 만들어

16) 湯淺幸孫, 一九八一年, 「倭國王武の上表文について」, 『史林』六四卷一號.

진 때에는 『宋書』는 아직 殘缺된 채로 補綴되지 않았다. 이 세 개 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見解에는 다르지 않는다. 우선 前半이 倭王 讚의 上表文이라고 보고 있지만, 『冊府元龜』卷九六三·外臣部八·封冊一에는, 다음의 같이 기록되어 있다.

是年, 倭國王倭讚遣使奉表獻方物, 表曰, 封國偏遠, 作洸于外, 自昔祖父, 躬製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業朝宗, 不淡于歲, 臣雖下愚, 忝紹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詔除督倭新羅任那加羅秦朝韓六國安東大將軍倭王

확실히 倭讚의 上表文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最後의 冊號로 보면 讚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武가 받은 冊號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점을 고려하면, 上表文도 武의 것으로, 『冊府元龜』編者が 그것을 잘못하여 讚의 上表文이라고 본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根據로 前半을 倭王 讚의 것으로 보는 것은 無理이다. 또한 그 前半과 後半에서 內容이 변하는 印象이 들지만, 그러한 印象은 絕對的인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上表文에서 缺落되어 있는 部分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上表文의 文章이 中國의 典籍으로부터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指摘이 있었다. 예를 들면, 『春秋』左傳·成公一三年條에는 「躬製甲冑, 跋涉山川」이라는 글이 있으며, 襄公二八年條에는 「跋涉山川」이라는 문장이 보이는 것등이 그예이다.

近年, 內田清이 『晉書』와의 對比를 행하여 百濟의 北魏에 대한 上表文과 합쳐 檢討한 結果, 『晉書』가 두개의 上表文과 類司의 語句·用語가 많으며, 아마도 『晉書』의 原典이 그 原典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百濟의 上表文과 共通되는 點에 대해서는 「四七二年 北魏에의 上表文을 起草한 百濟의 官人이 四七五年의 漢城陷落, 蓋鹵王 討死 등이 原因으로 倭國에 亡命하고 倭王 武에 登用되어 倭의 上表文을 起草한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sup>17)</sup>.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上表文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東으로 毛人을 정벌한 나라가 五十五國, 西로 衆夷를 복종시킨 나라가 六十六國, 건너서 海北을 평정한 나라가 九十五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東西觀과 倭王 珍이 倭隋을 위하여 平西將軍號를 要求하고 인정되고 있는 點으로부터 近畿의 아마토를 中心으로 하고 있는 것이 確實하다<sup>18)</sup>. 그리고 「海의 北」이란, 그 起點으로부터의 北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北이라는 것으로 韓半島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欽明紀 一五年 冬一二月條에 「海

17) 「內田清, 一九九六年,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八六號.

北의 彌移居의 用例가 있다. 「海北의 彌移居」란, 『日本書紀』가 存在를 主張하는 소위 「任那의 官家」이며, 韓半島 南部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現實을 反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論外로 하더라도, 무엇인가의 事實을 反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적지 않다. 특히 앞서 들고 있는 都督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諸軍事號와 照合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 自體가 實態를 동반하지는 않는 政治的인 主張이며, 그것을 근거로 몇 개의 나라를 평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無理일 것이다.

『魏志』 韓傳에는 三世紀의 韓半島南半部에 대하여, 馬韓五〇餘, 辰韓·辯韓 각각 十二의 小國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합쳐서 八〇에 가깝다. 이미 그 가운데서 百濟·新羅가 成長하면서 周邊 諸國을 멸망시키고 있었으므로 그보다도 적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九五나 되는 小國은 存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最近에는 誇張으로 보는 立場이 有力하다. 예를 들면 鈴木英夫는 「廣開土王碑文에 있는 四世紀末~五世紀初頭의 倭軍의 新羅, 高句麗 領內의 一時的 進攻을 倭가 誇張하여 表現한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어떤 事實을 근거로 하여 誇張한 것이라면, 역시 上記의 都督諸軍事號와의 整合性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地域 즉 九五國의 地域을 祖禰가 平정한 것과 그 地域에 대한 軍事支配權의 要求는 表裏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軍事支配權 要求의 正當性을 말했기 때문에 平정이 必要했던 것이다.

이 밖에 高句麗에 대한 侵攻을 計畵하고 있었던 것 등이 보이지만, 結局은 實現되지 않았다. 上表文은 본래 政治的인 主張이 主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倭가 어떻게 對韓半島 策을 構想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이다. 武의 目的의 하나는 명확히 高句麗에 對抗하여 「開府儀同三司」를 授受 받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美辭를 百濟系 渡來人에 依賴한 것이다.

## V. 맺음말

이와 같이 倭의 五王에 관련된 史料 가운데 朝鮮에 관련된 部分에 한하여 檢討를 했다. 外交는 각각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있으나, 결코 不動의 것은 아니다. 기록된 記事의 表面的인 理解에서는 좀처럼 眞實에 到達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推測만 더해져 더욱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는 필자의 加耶史·新羅史·百濟史·高句麗史 理解를 근거로 예전부터의 持論을 詳論하여 왔다. 研究史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 點은 後日의 補正에 맡기기로 한다.

18) 武田幸男, 一九七五年, 「平西將軍·倭隋의 解釋」, 『朝鮮學報』七七輯.

## IV. 글마당

1. 고고학과 나 / 지 건 길

2. 해외 유적답사를 다녀와서 / 고 재 용

## 고고학과 나

지 건 길 \*

### 젊은 시절 발굴 뒷얘기

“고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동기는?”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주의 한 대학에서 내가 맡았던 초급학년들을 위한 ‘고고학 개론’ 첫 시간에 내준 설문 작성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각기 나름대로의 동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토박토박 적어 냈는데 그 가운데 몇몇 학생이 적어낸 답안을 보고 실소를 한 기억이 있다. 그 당시 한 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보고 결정했다는 답변 때문이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험으로 펼쳐지는 한 고고학자의 신비로운 삶이 그들 젊은 학생들에게 고고학을 전공으로 택하도록 한 솔직한 동기일 수도 있겠거니 여기면서 새삼 영상매체의 위력을 실감했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와 같은 세대들에게도 흔히 머리 속에 그렸던 고고학자란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에 구레나룻 수염을



국립부여박물관 시절 직원들과 함께(1978년 여름)

\* 동아대학교 초빙교수 ·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길게 기르고 '리빙스틴 헬멧'에 '랜드로버'를 몰고 달리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고고학이란 분야가 남들이 볼 때는 멋지고 때로는 환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발굴이나 현지 조사의 화려한 성과만을 보는 단편적인 인상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모든 발굴에서 그러한 멋진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화려한 결과를 거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과를 거두기까지 고고학자들이 겪는 힘든 과정은 실제 종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내가 대학 입학 때 고고학과를 택하게 된 연유는 매우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있었다거나 멋진 고고학자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 학과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나 지리와 같은 사회 과목을 좋아해서 부교재로 쓰였던 지리역사 부도가 금방 너털거릴 만큼 열심히 뒤적거렸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동양사를 담당하시던 나이 지긋하신 선생님에게 심취되었는데, 지금도 유방(劉邦)과 항우(項羽)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그분의 유연한 '제스처'가 떠오르곤 한다. 아무튼 역사 과목에 빠져들어 망설임 없이 문과반에 들어가 사학과 지망을 꿈꾸게 되었고 남들처럼 학과지망에 대한 고민은 일찌감치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입학원서를 낼 때쯤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마 겨울방학 직전으로 기억되는 시기에 고분발굴 관계기사가 신문에 연일 큼직하게 실리고 그 기사가 나의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렵풋이나마 고분발굴은 고고학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무 광범위한 역사학보다는 분야가 축약된 고고학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서였다. 훨씬 뒤에 그 발굴이 바로 국립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진 울산 삼광리(三光里) 고분군 조사임을 알게 되었다. 혁명정부에 의해 착수된 울산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긴급발굴조사로서 조사자의 실종으로 아직까지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유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고인류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나의 고고학 인생은 시작되었다. 학과에는 김원용 교수 한 분만 학과를 맡고 계셨고 한 학년 정원이 10명이라서 분위기는 매우 단출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고고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해서 묻는 이들에게 열심히 학과의 성격을 설명해야 했었다. 대개는 공부가 재미있겠다는 인사치레 말을 건네면서도 가까운 이웃들은 내심 졸업 후 취직이 걱정된다는 반응들이었다. 지금은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지만 당시에도 대학이라는 곳이 학문하는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취직하기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풍조가 팽배해 있었다.

솔직히 나 역시 학창 시절에만 해도 스스로의 진로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배우는 분야가 극히 한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학업을 마친 뒤에 갈 수 있는 곳이라야 기껏 박물관 뿐 일 것

같고 극히 제한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별로 신명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번민하는 시간이 많았던 기억이다.

그러저럭 보낸 나의 대학생활 속에서 그나마 고고학 발굴과 관련되는 기억은 3학년(1964) 가을에 참가한 서울 풍납토성(風納土城) 발굴과 이듬해인 4학년 때 졸업논문 작성을 위해 파헤친 소사(素砂; 지금의 富川)의 쓰레기 더미(廚芥塚)에 대한 조사였다. 풍납토성 발굴은 성내에 몇 군데의 '핏트'를 설정하여 파 내려간, 백제 초기에 해당되는 유물포함층의 시굴조사로서 나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트러월(trowel)'을 쥐어본 발굴 현장이었다. 한달 남짓 동안 정규 수업시간을 피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내는 현장 분위기를 처음으로 익힐 수 있었던 기회였고 발굴작업 짬짬이 막걸리를 받아놓고 여흥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워 나간 시간들이었다.

소사의 쓰레기 더미는 신앙촌(信仰村) 내의 오물처리장으로서 신앙촌이 개설된 1957년부터 당시 까지 그 곳에서 이루어진 쓰레기의 퇴적상태를 통해 고고학적 방법론을 파악해 보자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발굴이었다. 6월초 사흘 동안의 비록 짧은 조사였지만 초여름의 심한 악취를 참아가며 발굴을 통해 끌어 모은 갖가지 쓰레기를 층위별,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냄마에서부터 갖가지 생필품의 잔해들과 연탄재가 뒤범벅이 된 오물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이런 고고학 발굴도 있나 싶은 짜증도 생겼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졸업논문에 관계된 일이라 참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상급반에 올라가면서 비록 학부의 졸업논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식모나 토기문화 등에 대해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 가며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다. 그러던 차에 막상 졸업생 모두의 이름으로 된 논문이 나간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큰 짐을 벗은 듯한 홀가분한 기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도 적지 않았던 기억이다.

대학 3, 4학년 두해 동안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졸업 후 2년 남짓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던 때가 1968년 6월말. 학업과 병역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막상 내 갈 길은 막연하기만 했다. 군의 동료들 가운데에는 제대 전에 이미 직장이 내정되어 의기양양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취업이 안 된 친구라 할지라도 취직시험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에 들어갈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고고학이라는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낯선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내가 전공을 뿌리치고 일반 회사 같은 데에 취직할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도 교수나 친지를 찾아가 적당한 자리를 부탁한다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은 일이었다.

학부 시절부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 유학을 마음먹었다. 특별한 준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더구나 두 해 남짓 동안의 군 생활로 머리는 이미 '깡통'이 되어버려 재충전이 쉽지 않겠지만 새로

운 각오를 가지고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시 서울시청 옆에 있던 미국 공보원(USIS) 자료실을 드나들며 여러 미국 대학의 안내서 속에서 적당한 곳을 물색해 나갔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마리도 찾지 못했지만 마음은 벌써 미국에 가 있는 듯한 기분으로 한 동안 열심히 드나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김원용 교수께서 급히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드렸다. 그 분답게 거두절미 경복궁에 있는 문화재관리국의 조사연구실로 가서 책임자를 만나보라는 한 마디였다.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받기 위해 가끔 덕수궁의 국립박물관은 가본 적이 있지만 이 조사연구실은 처음 듣는 생소한 곳이었다.

문화재관리국과는 뜰을 사이에 두고 동떨어진 하얀 건물 2층의 연구실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듯한 여직원 몇몇이 긴 작업 '테이블'에 둘러앉아 열심히 토기복원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대에서 풍기는 아릿한 '췌메다인' 냄새. 학생 때 학과 연구실과 국립박물관의 실습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의 기억이 나에게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흡인력으로 다가왔다. 그새 마음에 담고 챙겨가던 유학의 꿈은 잠시 접어 두기로 하고 나의 연구실 생활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의 첫 발걸음은 그 해(1968) 늦가을 경주 보문동(普門洞)의 통일신라 돌방무덤(石室墳)에서 비롯하였다. 당시에 서울에서 경주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열차를 이용하는 수도 있었지만 하루 한 두 차례 밖에는 없었고 또 거의 모든 역마다 쉬어 가는 완행열차 뿐이었다. 따라서 주로 경부선을 이용해서 대구에 내려 역 앞에서 택시를 '대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거운 평판이나 '레벨' 등 실측기구와 사진기, 이 밖에 갖가지 발굴도구 등 챙겨 가는 많은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미터' 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택시기사들이 부르는 값이란 천차만별이었다. 짐이 많은 것을 보고 제멋대로 요금을 부르기 일쑤였다. 한참 만에 흥정을 끝내고 가까스로 차에 오르면 그 때부터 택시기사와 또 다른 승강이가 시작되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많지 않던 때라서 손살같이 시내를 빠져나와 그 길로 영천을 지나 경주로 뻗은 포장도 안 된 왕복 2차선의 좁은 국도를 충알처럼 질주해 나갔다. 앞뒤 자리에 앉은 일행은 모두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속도계만 힐끗힐끗 쳐다볼 뿐 서로 대화조차 잇은 채 가끔 기사에게 주의를 당부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아무튼 경주 숙소까지 한시간이 채 안 걸렸다. 지금의 고속버스로 동대구역 앞에서 경주 터미널까지 한 시간 거리이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보문동 고분에 대한 보름 남짓 동안의 발굴이 나에게서는 사회초년병으로서 첫 발굴이었다. 내심 기대를 갖고 돌방문(石扉)을 연 뒤 돌방 안에 두텁게 쌓인 흙을 조심스레 걷어나갔다. 그러나 바닥에 이르기까지 수습한 것이라고는 몇 개의 못 쪼가리 뿐, 무덤 속은 송두리째 도굴된 상태였다. 공식적으로는 돌방의 문짝만 챙겨 경주박물관에 맡긴 채 철수한 싱거운 발굴이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내 발굴

사의 첫 페이지를 이루는 뜻깊은 발굴이었다.

보문동 발굴을 끝내고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한 주일 만에 또다시 경주 출장을 떠나야 했다. 이번에는 경주 방내리(芳內里)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당시 시공 중이던 경부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방내리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어 부지에 포함된 고분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자리잡은 고분들은 봉토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이미 도굴된 상태여서 차라리 도굴의 흔적을 통해서 고분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12월 중순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남쪽 지방이지만 진천(乾川)의 벌판으로부터 휘몰아치는 매서운 삭풍은 새삼 경주의 '도끼 바람'을 실감케 해주었다. 해를 넘기면서 새해(1969) 벽두부터 이곳 경주는 그리 눈이 많은 지방이 아닌데도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렸었다. 작업 인부들이 나오지 않은 현장에 젊은 조사원들만 나가 밤새 수북히 쌓인 눈을 열심히 치우고 나면 잠시 뒤에 또다시 눈이 내리곤 했었다. 온 종일 눈만 치우다 하루해를 보내면서 그리도 눈을 좋아했던 나도 눈이라면 진저리가 쳐질 정도였다. 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카메라의 샷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 때 처음 경험하기도 했었다.

처음에 두어 달 정도로 계획을 세웠던 발굴은 곳곳에 날씨에 뜻밖으로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3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무려 넉 달 남짓을 현장에서 보내야 했었다. 우리 조사단 일행이 묵었던 숙소는 바로 경주역 부근의 한 여관이였다. 숙박시설이 열악했던 당시로서는 그래도 비교적 크고 깨끗한 여관 축에 드는 그 곳에서 몇 달 동안 지내다 보니 자연히 주인네 식구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 집에 오래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의 음식 맛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경주가 관광지라고는 해도 음식들은 너무 짜고 매워 아무리 먹성이 좋은 나도 식당을 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여관의 음식은 비록 아침 한끼 식사라고는 해도 그렇게 맛깔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그 맛이 다름 아닌 안주인의 정성어린 솜씨 덕분이었다. 수더분하고 팔팔했던 안주인이 일제강점기 때 징용(徵用)으로 끌려갔다 온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서부터 한층 애뜻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정말로 음식 때문에 고생했던 것은 방내리 발굴을 끝내고 한달쯤 뒤에 들어간 안동 조탑동 고분 발굴에서였다. 현장 부근의 민가에 방을 얻어들어 숙식을 해결했는데 봄기운 때문에 그런대로 잠자리는 건달 만 했지만 끼니때가 되면 그렇게 고역스러울 수가 없었다. 소금통에 넣고 절균 것 같은 짠 콩나물 무침과 고추장만 매일 나오는데 질린 나머지 더러는 점심과 저녁으로 현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발 귀퉁이에서 생파를 서리해와 고추장에 비벼먹곤 했었다.

그 해 초여름에는 약 보름 동안에 걸친 경주 황룡사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있었고 11월 초부터 중순



안동 조탑동 고분발굴현장(1969년 봄)

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감포의 이견대지(利見臺址)와 경주 망덕사지(望德寺址)에 대한 시굴조사가 계속되었다. 이견대 발굴은 한 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조사였지만 근처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바닷가의 허름한 집을 빌어 민박을 하게 되었다.

어부의 집을 얻어들었는데 식탁에 오른 반찬으로는 회와 텃텃한 생선찌개가 전부였다. 당시만 해도 도시 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귀한 생선회라서 처음 하루 이들은 그냥 회로, 또는 초고추장에 비벼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부터는 매끼마다 생선회로만 배를 채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한참 뒤까지 입에 비린내가 남아있어 그렇게 매스꺼울 수가 없

었다. 생선회를 탐식하는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물리도록 실컷 먹어본 유일한 기회였던 것 같다.

글을 쓰다보니 먹는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먹거리가 열악했던 당시로서는 끼니를 챙기는 일이 소홀할 수 없는 그 날의 중요한 '행사' 일 수 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되거나 움직이는 수단인 자동차가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외진 발굴 현장에서의 먹는 일에 얽힌 애깃거리는 오래도록 조사원들의 기억에 남을 수 밖에 없다.

1970년에 들어서는 4월 초부터 경주 망덕사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발굴초기에만 여기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빠져나와 경주 안계리(安溪里) 발굴을 꾸려가게 되었다. 당시 이제 막 착공 단계에 있던 포항제철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用水) '댐' 을 만들기 위해 그 수몰지역 안에 이루어진 신라고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구제발굴이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분포한 이들 고분들은 도굴꾼들의 안전한(?) 작업장이 되어 이미 240여기에 달하는 무덤의 대부분이 별장게 파헤쳐져 그 처참한 모습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있었다.

수몰지구에 포함된 고분군 인근에 이루어진 부락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은 뒤 외지로 빠져나가 모두 빈집으로 텅그렇게 남아 있었고 아직 거처를 정하지 못한 두어 집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박도 어려울뿐더러 제일 큰 문제는 작업인부를 구하는 일이었다. 일할 만한 장정들이 모두들 빠져나가 당장 발굴 착수가 감감하기만 했다.

군청과의 발굴협의 때문에 경주에 나갔다가 그 동안 발굴 때면 동원했던 작업 반장을 만나 고민을 털어냈다. 대부분의 인부들이 구황동의 한 마을에 살고 있으니 자기가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나와는 오후에 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난 반장으로부터 반가운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아직 농

한기이고 하니 현지의 빈집에 들어 숙식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다음날부터 당장 입주(?)가 시작되었고 나는 발굴 채비를 서둘렀다. 조사원들은 부근에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는 집에 빈방을 빌어 숙식을 해결하기로 하고 인부들은 빈집에 들어 각자 자기 집에서 이부자리와 식기를 가져와 공동 취사하기로 하였다. 현장에 들른 한 신문기자를 통해 경주시내의 군부대로부터 '베트레스' 한 트럭을 빌어 와 불편한 잠자리도 얼마간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발굴이 착수되고 도굴된 고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조사원들이나 작업 인부들 모두 불편한 잠자리와 부실한 끼니에도 불구하고 50여 일 동안의 발굴을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현장 보조로서 발굴 책임자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되었지만 줄지에 현장 책임을 맡다보니 발굴의 기록, 촬영, 실측에서부터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 각급 행정기관과 포항제철과의 협의 등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젊은 동료들과 땀방 끓이던 일, 조사원들의 영양 섭취를 해준답시고 보신탕을 끓이면서 일어난 갖가지 '해프닝' 등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던 발굴현장이었다.

도굴 고분군이라고는 하지만 발굴이 끝난 뒤 여기에서 출토되거나 수습된 수십 상자의 유물을 비좁은 서울의 연구실로 옮겨 정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출토된 장신구를 비롯한 중요한 몇 상자의 유물과 실측도면만 따로 챙겨 서울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경주박물관에 임시 보관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처음 주어진 책임발굴 현장이었고 결국은 보고서도 내가 집필해야만 되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부담스런 무거운 짐이 주어진 셈이었다.

그때까지 연구실에서는 한 해에도 대여섯 건 이상의 발굴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렇다할 발굴보고서는 한권도 나오지 않고 몇 되지 않은 직원들로는 유물 정리에만도 턱없이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계속되는 현장발굴이 처음 얼마동안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 성취감으로 젊은 나를 마냥 부풀게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발굴보고서라는 빛이 조사



경주 천마총 발굴현장 내부(1973년 여름)

참여자인 나에게도 남의 일 같지 않은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을 지게 된 이 안계리 고분군의 발굴보고서에 대한 부담은 그 뒤로 오랫동안 나에게 정신적인 압박 요인이 되었다. 발굴 이후 얼마동안 나에게 주어진 여건으로서는 보고서 작성에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1973년 봄부터 천마총(天馬塚) 발굴을 위해 경주에 1년 반 남짓 머무를 기회가 있었지만 현장을 놔두고 안계리 고분군 보고서 일에 매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천마총 발굴을 마치고 1년 동안의 첫 번째 프랑스 유학 후 다시 경주로 돌아와 이번에는 경주사적관리사무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안계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에서 한해 정도만 바짝 매달리면 한 짐 벗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작업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경주박물관장으로부터 부여박물관장으로의 전보(轉補) 의사 타진이 들어와 처음에는 지나가는 이야기겠거니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완곡하게 사양의 뜻을 내비쳤다. 모처럼 보고서 쓸 기회를 잡았는데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다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올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중용이 반복되고 급기야 서울 문화공보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참 동안의 승강이 끝에 나의 주된 거부 요인이 경주 현지에서의 보고서 작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안계리 유물을 부여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며 호통을 치는 통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물러서야만 했다.



경주 안계리 고분군 발굴 현장(1970년 봄)

1977년 봄, 부여관장으로 부임한 뒤 얼마 안 되어 문화재연구소(1975년에 문화재연구실을 확대 개편)의 지원을 받아 안계리 출토 유물 전량을 경주박물관으로부터 옮겨올 수가 있었다. 이듬해에는 두 번째 프랑스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고 나는 출국예정인 1979년 여름을 보고서 작성의 시한(時限)으로 잡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관장실의 바로 옆방

은 유물복원을 위한 작업실이 되어 나의 아내도 매일 출근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었고 도면실측을 위해서는 당시 출강 중이던 서울대 수강생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출국이 임박해서 집필을 마무리한 뒤 드디어 연구소에 원고를 보내 마지막 보고서 발간을 맡기고 떠나는 기분이란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흥가분함이었다. 그러나 보고서 발간은 만 두해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해 연말에, 발굴을 마친 뒤 만 십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안계리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서였던지 그 뒤로는 내가 간여한 어느 발굴에서건 보고서에 대한 강한 집착이 도사리게 되었다. 발굴 보고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굴을 끝낸 뒤 늦어도 1년 안에 나와야 된다는 고집스런 주장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왔으며 대부분 그대로 실천해 왔다. 더러는 자료수집 등을 위한 짧은 준비 기간을 이유로 보고서의 부실을 염려하거나 핑계 삼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발굴보고서의 속성상 1년이란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닌 것이다. 발굴자들이 열심히 기록해 둔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기록이란 보조적 수단의 일부일 뿐 대부분 발굴자의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게 되고 그만큼 보고서의 내용은 '야장(野帳)'이라는 제한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실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다시 되돌아가 안계리 발굴이 이루어진 다음 해인 1971년 봄에는 춘천의 소양(昭陽) '댐' 수몰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나에게서는 결혼 후 한달 남짓 만에 떠나는 발굴 출장이었다. 고고학 하는 사람들에게 발굴 현장의 일이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이번만 해도 급하게 이루어진 구제발굴이었기 때문에 신혼의 아쉬움을 떨치고 혼자서 훌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팀' 별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수몰지구에 대한 조사였으나 이곳은 주민들이 대부분 옮겨가고 워낙 여건이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춘천시내에 묵으면서 차로 이동하며 조사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런대로 먹고 자는 일은 현지에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수월했다. 한달 가까이 계속된 발굴을 마치고 오랜만



춘천 소양댐 발굴동안 망중헌(1971년 봄)

에 집으로 돌아가는 새 신랑의 발걸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서두른 탓이었던지 귀경 길에 변고가 생기고 말았다.

발굴 도구와 가방 등을 버스의 선반에 올려놓은 뒤 들뜬 마음으로 서울에 닿아 허둥지둥 짐을 챙겨 들고 집에 다다랐다. 그런 경황 속에서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 실측도면 묶음이 보이지 않았다. 발굴 기간 내내 몇몇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열심히 그려둔 실측도면은 그야말로 발굴 결과의



춘천 중도에 이전 복원된 소양댐 발굴 고인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 날이면 이번 발굴은 헛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몇 십장이 되는 도면을 한꺼번에 돌돌 말아 고무줄로 묶어 버스의 선반 위에 올려놓은 기억이 분명한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당장 쫓아 나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포기하고 선잡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따라나서는 아내를 데리고 마장동 정류장의 사무실에 들어가 전날의 춘천 출발시각 등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고 그 행방을 물었다. 배차직원의 호의로 여기저기 통화 끝에 그 '종이 묶음'은 버스와 함께 다시 춘천으로 되돌아가 춘천 정류장에 보관중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들어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그 길로 우리는 춘천으로 가 사무실에 보관된 천금같은 도면 묶음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젊은 시절에 겪었던 몇몇 아찔했던 기억 가운데 하나로 머리 속에 남아 있다.

그해 여름에 이루어진 무녕왕릉 발굴을 비롯하여 그 이듬해(1972)의 '팔당댐' 수몰지구와 거창 둔마리(屯馬里) 고려고분벽화 발굴조사, 1973년의 천마총 등 크고 작은 발굴조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렇듯 내 젊은 20대의 짧은 기간 동안에 겪었던 발굴현장에서의 경험들은 그것이 자랑스럽건, 혹은 부끄러웠건 간에 뒷날 나의 고고학적 행보에 자잘한 발자취로 남았고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 행보에도 적으나마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 해외 유적답사를 다녀와서

고재용\*

出國

초현대식 大阪歴史博物館

360차 平城宮 발굴조사

빛속의 橿原 考古學研究所

사슴의 천국 東大寺

歸國

### 出國

지난 8월 초순 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의 오사카와 나라지방을 중심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우리가 떠나기 열흘전 일본 구주에서 열린 신석기학회에 3명의 연구원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2차에 해당하지만 학회참여의 목적이 아닌 일주일간의 구체적 일정으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



닛폰바시(日本橋)역 승강장. 우리나라 지하철 역과 흡사하다.

\* 기전문화재단연구원 연구원

만 이후에 참가할 연수자를 위해 일본여행에 대한 감상을 나름대로 적어보았다.

출발 전날 난생 처음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설레임과 가벼운 긴장감으로 잠을 설치고 새벽공기를 마시며 공항으로 향했다. 다들 일본여행은 처음인지라 나와 같았는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출국수속시에 약간의 문제(테러방지를 위해 건전지 소지자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있어 조금 지체되었으나 초조함에 워낙 일찍 수속을 밟은 터라 시간이 많이 남았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아시아나 OZ112.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우려를 하며 음료를 제공하는 예쁜 스튜어디스에게 감탄하고 있는 사이 어느덧



도톤보리강 밤풍경

비행기는 오사카의 관문인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고 있었다.

까다로운 일본인 입국심사관을 무사히 통과해서 입국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안내자 한정용씨를 만났다. 함께 南海電鐵을<sup>2)</sup> 이용해서 숙소가 있는 일본 교 닛뽀바시(日本橋)역까지 이동하였는데 우리나라 지하철과 너무 흡사해서(광고지의 글자만 일본어 일 뿐 거의 같다) 서울지하철을 탄

느낌이었다. 숙소가 있는 日本橋 근처 도톤보리와 소에몬쵸는 오사카에서 유명한 유흥가에 속하기 때문에 밤에는 조심해야한다는 안내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도착한 때는 낮이라 그다지 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숙소는 멀리서 보기에 약간은 낡아 보이는(?) 八重菊호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실내는 깨끗했다. 여장을 풀고 첫째날 일정인 오사카시 문화재협회 나가하라 사무소로 이동했다. 사무소 건물은 폐교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마침 운동장 한켠에서 일본 중세 제련실험을 실시하고 있었다. 비록 실험은 실패했지만 협회 내 모든 간부들과 함께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실험을 위해 참석했다는 점이 놀라운 부분이었다. 건물 내 보존처리시설과 유물들을 돌아본 뒤 간단한 맥주파티후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 근처의 밤풍경은 낮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각종 네온사인들이 유흥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본은 마침 무더위가 시작되어 밤에도 열이 식지 않았으며 밤새 에어컨을 틀어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1) 일본관서지방에는 3개의 주요 철도가 있는데 회사에 따라 JR, 私鐵, 지하철로 나뉜다. 또한 私鐵가운데 정차하는 역의 수와 속도에 따라 보통, 급행, 특급라피타 등으로 구분이 된다. 물론 특급의 경우 추가 요금이 더해진다.

## 초현대식 大阪歴史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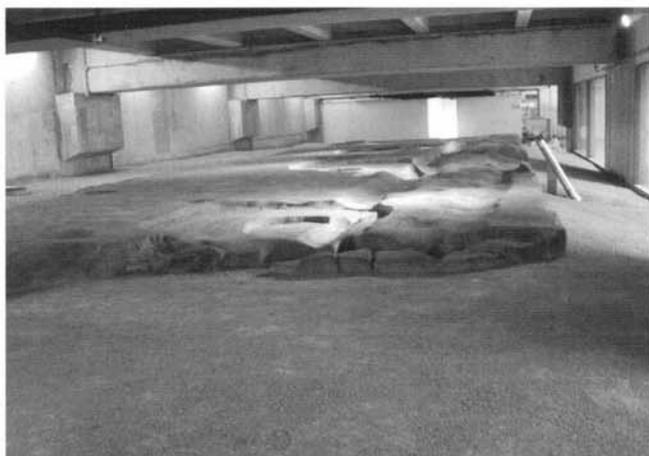
오사가 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박물관들이 거의 그렇듯 낮은 높이의 일본 전통양식으로 생겼을 거란 생각과는 달리 초현대식 빌딩 내에 위치해 있었다. 오사가 역사박물관은 난파공유적과 인접해 있는데 NHK빌딩이 이 유적 내에 위치해 있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하며 현재 유적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유적의 보존을 위해 옮길 예정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현재 역사박물관 지하에는 유구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빌딩건축과정에서 난파공과 관련된 유적이 확인되어 보존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고심 끝에 어려운 공법이기는 하지만 보존키로 했다는 것이다. 순환 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문제, 경부고속철도 등 비슷한 현안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처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박물관은 층마다 시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시는 우리나라 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고건축물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생활상이나 건축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무엇보다 압권이었던 것은 맨 위층의 난파궁 대극전 전망시설이었는데 어두운 상태에서 커튼위의 대형 화면을 통해 난파궁의 의식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뒤 커튼을 들어올려 시뮬레이션과 난파궁을 위아래로 함께 보여줌으로서 극적효과를 가져왔다. 우리 일행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아지자 눈이 부셨으나 10층 높이의 창밖으로 펼쳐진 난파궁의 전경 앞에서 할말을 잇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이러한 효과들을 보고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사된 유적을 보존하는 일과 조사된 유적을 어떻게 홍보하느냐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점심식사는 몰래(원래 직원만



大阪歴史博物館 전경



大阪歴史博物館 지하유구

이용할 수 있다) NHK방송국 구내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카페테리아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 식판째 센서에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한마디로 최신기기였다. 식사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니 오사카성이 한눈에 보였다. 외곽으로 2중 해자가 둘러져 있고 연초록빛 지붕을 가진 오사카성. 가까이서 보고 싶은 나의 눈빛을 읽었던지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보수되어 가까이 가면 콘크리트밖에 볼게 없단다.

### 360차 平城宮 발굴조사(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



나라문화재연구소 발굴현장. 뒤로 보이는 것이 평성궁 대극전 복원공사이다.

3일째 우리는近鐵<sup>9)</sup>이라는 광역 지하철(?)을 타고 나라로 향했다. 오사카만 그런 것인지 지하철 관련 교통시설은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나 버스는 잘 눈에 띄지 않았다. 혹 시내버스가 아예 없는건 아닐까. 나라는 우리나라의 천년고도 경주와 비교되는 곳이다. 나라문화재연구소를 찾아가는 길은 우리나라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을 걷는 느낌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길에 쓰레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 거리의 청결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직접 보고 나니 새삼 일본인의 질서 의식이 놀랍게만 느껴졌다. 청결한 거리에 놀라는 것은 우리가 그간 지저분한 거리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나라문화재연구소 본부건물은 회색의 약간은 퇴색된 관공서 느낌 그대로였다. 그러나 본부건물과 약간 떨어져서 위치한 별동은 잘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이었다. 별도 연구동은 전시관과 유물수장고, 유물정리실, 보존처리실, 환경고고학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전시관 내에 발굴조사 전과정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놓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보존처리실을 안내해준 여자연구원은 처음보는 외국인임에도 편안하게 대해주어서 각종 기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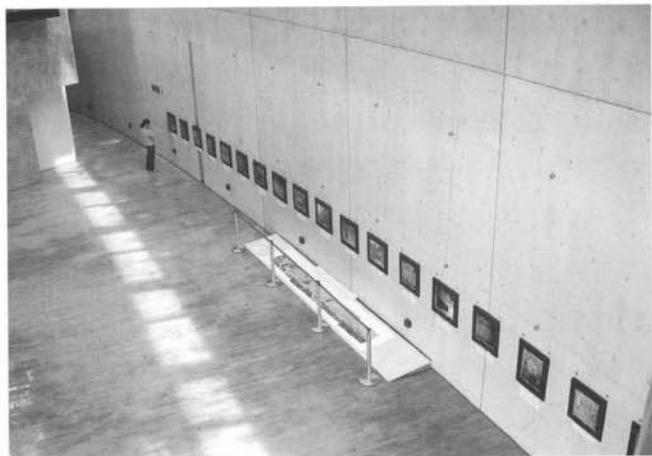
2)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에는 3개의 철도구조가 얽혀 있다. 특히 이 3개의 철도가 물리는 환승역은 길을 잘 모르는 초행길에는 미아가 되기 쉽다. 우리 숙소와 가까운곳에 있던 난바(なんば)역이 바로 그런식이었다.

만큼이나 우리 동행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유물정리실은 유물 종류별로 별도의 정리실과 보관실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가 우리 연구원 1개층 전체와 비교될 만큼 넓은 면적이었다. 특히 자기 편에 출토위치를 표시할 때 음료캔 marking기를 응용하여 쉽게 작업 하고 있었다. 고고학이 아닌 분야에서 응용하는 기술은 확실히 일본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존처리실을 둘러본 후 현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으로 견학을 갔다. 자료집에 360차 발굴조사라고 되어 있어 우리 눈을 의심케 하였는데 1947년부터 발굴조사중이란다. 면적이 대략 그 리드 2개 정도인데 이런식이라면 우리 고달사지 현장은 한 200차쯤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보존과학실을 안내했던 여자연구원이 발굴현장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긴급히 수습해야 할 유물이 출토된 줄만 알았다. 그러나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방침은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는 부서 여하를 막론하고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발굴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한편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보존처리 성격상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일이 많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 기기들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운용이 안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우리 일행의 반문에 역시 무조건적 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리없는 운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 빛속의 榑原 考古學研究所

우리일행이 일본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급기야 태풍이 근접하고 있고 오사가 남쪽으로 상륙해서 일본열도를 따라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5년만의 대형태풍이라는 뉴스와 함께 대피요령에 대한 뉴스가 전날 밤부터 계속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역시 태풍에는 민감한 편이지만 일본은 비도 아직 오지 않는데 도로



가시하라 본관 중앙홀. 거의 호텔이다.

에 안전모를 쓴 민방위대원 같은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등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태풍의 위력은 달리는 열차를 넘어뜨릴 만큼 강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보통의 태



사진실 전경. 갓출건 다 갖추고 있다.

풍에 대해서도 열차나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히물며 5년만에 찾아오는 대형태풍이니 호들갑을 떨만도 하지 않겠는가.

우리 역시 일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아직 오사카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 일단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가시하라는 나라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 1시간 30분 가

량을 가야 도착할 수 있었다. 태풍의 영향이 조금씩 북상중인지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시하라 연구소의 본관건물은 마치 호텔과 같은 고급스런 내부시설을 갖고 있었다. 박물관 중앙홀을 연상시키는 홀과 대회의실·소회의실을 갖추고 있었고 사진보관실과 도면보관실 등 체계적이고 정돈된 보관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료실은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하였다. 사진촬영실 역시 넓은 공간에 유물촬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다른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지하층은 유물 정리실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대부분 주부들이다)들이 유물접합 등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자원봉사자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지하2층인 수장고에는 다른 기관들이 그렇듯 높다란 앵글들마다 유물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 수만도 약 7만 박스라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본관을 둘러보고 난 뒤 전시관으로 향했다. 일본에서 들렀던 대부분의 기관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전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사 못지 않게 일반대중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전시관 내에서 이채로웠던 것은 전시된 유물 중 대형의 家形 토기들이었다. 토기라기보다는 대형조각과 같았다.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 일정을 일부 변경해 등원경사무소를 들른 후 가시하라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식사를 간단히(?)하고 부랴부랴 숙소로 돌아왔다. 여차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뉴스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일부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일행은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고 밤새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대단하였지만 큰 피해 없이 태풍은 우리 머리 위 오사카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다.

## 사슴의 천국 東大寺

태풍의 끝자락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간간이 비를 뿌리고는 있었지만 일정이 나라국립박물관으로 실내인 것을 감안하여 강행기로 하였다. 우리가 탄 근철은 이동중에 오사카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맥의 경사면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는데 전일의 태풍으로 인해 시내 전부가 흰하늘만큼 시야가 좋았다. 일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터널을 뚫지 않고 자연경사면을 이용한다고 한다. 만일 우리였다면 당연히 터널을 뚫지 않았을까?

나라국립박물관은 근철 나라선의 종점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도로 주변에 일본전통가옥들이 일부 보여 이제서야 일본에 왔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다. 나라국립박물관은 담장이 없었고 잔디밭에는 사슴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관광객이 다가가도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라국립박물관의 외관과 내부구조는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현재 신관에서는 '간다라특별전'을 하고 있었으며 구관에서는 중국청동기와 불상들이 상설 전시되었는데 예전 중·고등학교때 책에서 보았던 유물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오후 들어 간간이 내리던 비마저 그쳐 가까운 동대사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동대사 역시 사슴의 천국이었다. 주변상점들에서 사슴먹이를 팔고 있고 사슴들이 관광객을 피하기는커녕 먹을걸 조르는 판국이었다. 우리 일행도 신기한 마음에 사슴먹이를 사서 줘보기도 하면서 東大寺로 향했다. 동대사는 정



사슴의 천국. 많다가보다는 널렸다는 표현이 맞을듯



동대사 전경. 정면장식이 특이하다.

면 지붕장식을 제외하고는 외관상 우리나라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불상이 안치된 실내에까지 기념품점이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 동대사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정창원옆을 지나쳤는데 사무실간판에 '황실경비대' 라고 되어 있어 일본이 입헌군주제임이 새삼 떠올랐다.

## 歸國



이케가미소네(池上曾根) 유적공원



관서공항과 오사카를 이어주는 다리

한국을 떠난 지 일주일째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었다. 전날의 과음으로 다들 지친 모습들이었지만 귀국하기 전 마지막 일정인 야요이 박물관에 들렀다. 야요이 박물관은 오사카에서 관서공항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교통편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걷기에는 먼거리이고 버스노선은 없으며 택시로는 가까운 거리다. 일본에는 기존 5인승택시 외에 6인승택시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형승합차가 아니라 그냥 승용차인데 앞자리가 3자리인 것이 특이하다.

야요이 박물관 야외에는 이케가미소네(池上曾根) 유적공원이 있었는데 조사된 굴립주 건물에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남방의 현생자료를 복원해 놓았다. 조사된 주거지 일부는 꽃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군데군데 토기모형을 두는 등 세심한 배려가 보였

지만 태풍 뒤라선지 웬지 황량함을 지울 수는 없었다. 우리의 암사동 선사유적 생각이 들었다.

야요이 박물관을 뒤로하고 남해선 근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 탑승까지는 많은 시

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연일의 강행군으로 조금은 지치기도 해서 떠나기전에 관서공항 구경도 할겸 해서 일찌감치 關西공항으로 향했다. 일정 중에 태풍이 오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길의 날씨는 우리가 도착하던 때와 같이 맑고 화창했다. 다들 차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고 아무말도 없었다. 나 역시 창밖을 보며 지난 일주일간을 회상하는 동안 전철은 바다 위를 건너 관서공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6박7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며 일본에 대해 느낀 점도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다음에 일본에 오게 될 팀들을 위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볼까 한다. 일정은 되도록 여유있게 짜야 한다. 너무 무리한 일정은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주어진 일정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의 상점은 8시 이전에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8시 이후에는 식사나 술 외에는 하거나 볼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로 일정을 잡아야 한다. 비슷한 기관 혹은 유적의 연속은 금새 식상하게 되거나 흥미를 잃게 된다. 때로는 색다른 문화체험 등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기관이나 안내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면 취향을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인 선물인 술이나 벵타이는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벵타이는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심한 경우 선물 받은 후 바로 100엔에 시장에 나온다고 한다. 차라리 작게 포장된 구운 김이나 깻잎 등을 무척 좋아하며 특색있는 기념품이 환영받는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대체로 물가가 비싼 편이다. 100엔숍이 있어 싼 물건들도 많지만 대부분 중국산이며 특히 필름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비는 천엔 이하로 지출되므로 출국전 숙박비를 제외하고 잔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편집진 |

총    관 : 장경호  
진    행 : 김성태  
편    집 : 허미형, 윤현희  
교정·교열 : 허미형, 윤현희, 이미란, 김민경

---

# 畿 甸 考 古

제3호 (2003)

---

발 행 일 : 2004년 8월 1일  
발 행 처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편    집 : 기전문화재연구원 (☎ 031-258-5105)  
제    작 : (주) 경기M&B (☎ 031-231-5520~7)

---

※ 이 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십시오.  
☎ 031-258-5105(교414) 김성태 / 허미형

〈비매품〉